PDF자료집

주체 90(2001)년

반고이즈미

6.15주간 편집부



반고이즈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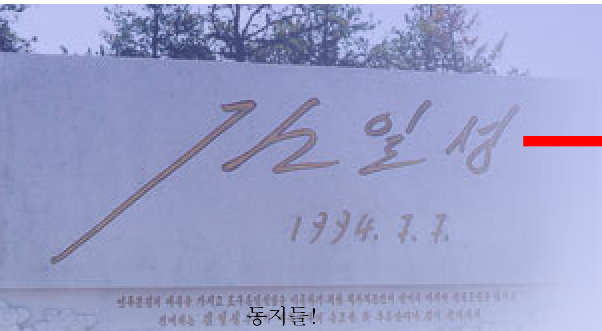
6.15주간 편집부



조선노동당 제5차 대회
당중앙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김일성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총비서

주체 59(1970)년 11월



동지들!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펼쳐준 우리 당 제4차 대회가 있은 때로부터 9년이 지나갔습니다. 이 기간은 우리 혁명과 건설에서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이 조성된 준엄한 시련의 시기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우리 인민의 전진운동에서 위대한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혁명적 사변들이 일어난 보람있는 시기였습니다.

총결기간 우리 당은 중첩되는 난관과 애로를 용감하게 뚫고 나가면서 정세의 변화에 따라 제때에 대표자회와 전원회의들을 열고 전반적 조선혁명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가기 위한 독창적인 전략전술적 방침들을 내놓았으며 인민대중을 그 관철에로 능숙하게 조직동원하였습니다.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커다란 승리와 성과가 이룩되였으며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는 반석같이 다져졌습니다.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의 빛나는 성과에 고무되어 남조선에서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지식인들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혁명적 진출이 강화되였으며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는 밑뿌리채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총결기간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기치, 반제반미투쟁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국제적 지위를 더욱 높였으며 국제혁명운동의 전반적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을 위한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어떠한 모진 풍파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전투적인 당으로 전당이 당중앙위원회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단결되고 인민대중과 혈연적일 관계를 맺고 있는 불패의 혁명적 당으로 장성 강화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의 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깊은 확신과 당의 령도 밑에 우리 인민이 이루어 놓은 위대한 업적에 대한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고무자인 조선로동당 제5차 대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그리고 해외에 있는 동포들과 다른 나라의 친근한 벗들이 이 대회를 열렬히 축하하고 있으며 대회 사업의 성과를 축원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힘있게 지원하고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실현하며 우리 혁명의 국제적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 당의 투쟁에서 새로운 리정표로 될 것이며 우리 당원들과 전체 조선인민을 더 큰 승리에로 힘차게 고무추동할 것입니다.

. . .

4.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지들!

총결기간 우리 당은 변천되는 복잡한 국제정세를 제때에 옳게 평가하고 올바른 대외정책을 실시하였으며 국제관계 분야에서 많은 일을 하여 놓았습니다. 당의 자주적이고 원칙적인 대외정책은 세계의 많은 형제당들과 나라들, 세계의 수많은 혁명조직들과 인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국제적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우리는 국제적으로 많은 혁명 동지들과 벗들을 가지게 되였으며 우리 혁명의 국제적 련대성은 끊임없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이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결과이며 우리 당 대외정책의 정당성을 뚜렷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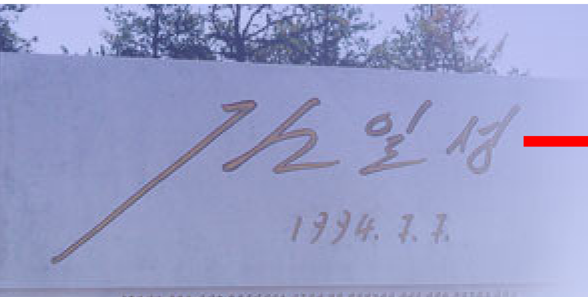
우리 혁명의 국제적 환경은 오늘도 의연히 복잡하고 긴장합니다. 그러나 정세발전의 전반적 추이는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싸우는 인민들에게는 리롭게, 제국주의와 반동 력량에는 불리하게 전변되고 있습니다. 현 국제정세의 중요특징은 인민들의 반제혁명투쟁이 날로 앙양되고 있는 반면에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정책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년간에 국제무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변들은 제국주의, 무엇보다도 미제국주의의 침략적, 약탈적 본성을 더욱더 뚜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제국주의의 침략적 야망에는 끝이 없습니다. 미제국주의는 온 세계를 지배하려는 변함없는 목적밑에 아세아와 중근동,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구라파와 대양주 그리고 큰 나라와 작은 나라 할 것 없이 세계의 모든 대륙, 모든 지역, 모든 나라들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 있으며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 위업에 악랄하게 도전하여 나서고 있습니다. 미제국주의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그 처지가 어려워짐에 따라 더욱더 필사적으로 침략과 전쟁정책에 매여달리고 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힘의 정책》을 공공연히 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평화》니 《협상》이니 《교류》니 하는 갖가지 허울좋은 간판들을 들고 나오고 있으며 이른바 《평화전략》에 대하여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들의 침략 정체를 가리우며 세계의 이목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한 상투적인 기만 술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제의 《평화전략》이란 곧 뒤집어 놓은 전쟁전략을 의미합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다름아닌 《평화》의 미명 밑에 진보적 인민들을 반대하는 야만적인 침략전쟁을 벌려놓고 있으며 또한 《평화》의 미명 밑에 그들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사상정치적 와해책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제국주의는 현대의 가장 흉악하고 파렴치한 침략자, 략탈자이며 세계의 모든 진보적 인민들의 첫째가는 공동의 원쑤입니다. 오늘 국제무대에서 미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반대하는 투쟁보다 더 절박한 과업은 없습니다. 오직 미제국주의침략세력을 반대하는 견결한 투쟁을 통하여서만 세계평화를 수호할 수 있으며 민족적 해방과 독립을 위한 투쟁도,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도 승리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미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은 막을 수 없는 시대의 추세로 되였습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 민족해방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로동운동이 강화되고 있으며 더욱 많은 평화 애호 인민들이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에 떨쳐나서고 있습니다. 인민들의 반전운동은 미국 안에서도 대중적인 것으로 되였습니다. 미제국주의는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얻어맞고 있으며 안팎으로 곤경에 빠지고 있습니다. 미제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저지 파탄시키기 위하여서는 아세아와 구라파,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큰 나라와 작은 나라 할 것 없이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반미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더욱 광범히 벌려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미제의 범죄적인 월남침략을 반대하는 반전 운동을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힘있게 벌리며 모든 반제 력량이 인도지나 인민들을 비롯한 모든 싸우는 나라 인민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국가들과 진보적 인민들은 분렬된 나라들에서의 미제의 침략 책동을 반대하여 더욱 견결히 투쟁하여야 합니다. 오직 미제가 발붙이고 있는 세계의 모든 곳에서 반제반미투쟁의 혁명적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며 모든 반제력량이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힘있게 지지성원하여야만 미제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성과적으로 파탄시킬 수 있으며 세계평화와 안전을 유지공고화할 수 있습니다.

동지들!

오늘 아세아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가장 치열한 투쟁전선으로, 반제혁명투쟁의 기본무대로 되고 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침략의 예봉을 아세아에 돌리고 있는 것도 바로 이 지역에 혁명하는 나라들, 싸우는 나라들이 많고 이 지역에서 반제혁명운동이 치열하게 벌어지며 제국주의자들의 지반이 밑뿌리로부터 뒤흔들리고 있는 사정과 관련됩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에서 혁명력량의 급격한 장성을 가로막고 식민지통치를 부지하기 위하여 갖은 발악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상적으로 나약하고 반제적 립장이 견결하지 못한 나라들에 대하여서는 사상문화적 침투를 강화하여 이 나라들을 안으로부터 와해시키려 하는 한편 아세아의 혁명하는 나라들은 무력으로 각개격파하려 하고 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자기들의 강도적 본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월남인민을 반대하는 범죄적 침략 전쟁을 계속하고 있을 뿐 아니라 라오스에 대한 무력간섭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저들의 침략무력과 추종국가고용병들을 동원하여 캄보자에 대한 공공연한 무력침공을 감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전쟁은 인도지나 전역에 확대되였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에서 새로운 침략전쟁을 일으키려고 매일과 같이 도발책동을 감행하고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의 불가분리의 령토인 대만을 계속 강점하고 중국인민을 반대하는 침략행위를 끊임없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현 통치자들은 아세아에 대한 침략정책을 가리우기 위하여 그 무슨 정책 변경에 대하여 많이 떠들어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제국주의가 아세아에서 실시하고 있는 침략정책에서 달라진 것이란 아무것도 없으며 또 결코 달라질 수도 없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만 그 침략성과 교활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뿐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자기의 무력을 직접 동원하여 침략을 강화하는 한편 악명높은 ≪새 아세아 정책≫에 따라 일본군국주의를 비롯한 아세아의 추종 국가들과 괴뢰들을 동원하여 주로 ≪아세아인들끼리 싸우게 하는≫ 방법으로 아세아에 대한 자기들의 침략적 야망을 손쉽게 실현하려는 더욱 흉악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이와 같은 침략책동으로 말미암아 아세아의 모든 곳에서 정세는 극도로 첨예화되고 있으며 전반적 세계평화는 엄중한 위협에 처하여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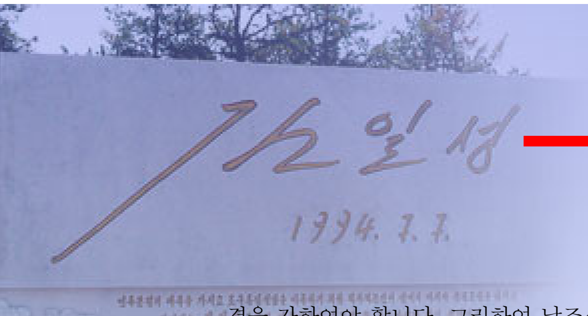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국가들과 진보적 인민들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인도지나전역에서 전쟁을 확대하며 아세아의 전반적 지역에서 침략책동을 강화하고있는 것을 결코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으며 한결같이 일어서 미제의 전쟁정책과 침략책동을 저지 파탄시키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떠한 동요와 소극성도 있을 수 없습니다.

미제국주의는 아세아침략의 장본인이며 따라서 미제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아세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공고화할 수 없습니다.

미제의 아세아침략을 좌절시키기 위하여서는 특히 아세아의 혁명적 나라 인민들의 전투적 단결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세아나라 인민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혁명을 위하여 함께 싸워 이긴 빛나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인민과 중국인민은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여서도 같이 싸웠고 미제국주의를 반대하여서도 같이 싸워 이겼습니다. 인도지나인민들은 프랑스제국주의와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여함께 싸워 승리하였으며 지금은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는 공동투쟁을 벌리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 침략은 오늘 아세아의 모든 혁명하는 나라들을 미제를 반대하는 하나의 공동전선에 결합시키고 있습니다. 미제의 직접적인 침략을 당하고 있는 조선과 중국, 월남과 라오스, 캄보자를 비롯하여 아세아의 모든 혁명적 나라 인민들은 반제반미통일전선을 더욱 강화하고 반미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려 미제의 아세아침략에 보다 강력한 집단적 반



격을 가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남조선과 대만에서, 남부윁남과 라오스, 캄보쟈에서, 미제침략자들이 발붙이고 있는 아세아의 모든 곳에서 그들을 몰아내야 하며 아세아사람들끼리 싸우게 하려는 미제의 모략을 파탄시켜야 할 것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지금은 비록 허장성세하지만 세계혁명적 인민들의 지지 밑에 혁명하는 아세아나라 인민들이 모두 달라붙어 공동으로 타격을 주며 압력을 가한다면 그들은 배겨내지 못할 것이며 결국에 가서는 아세아에서 쫓겨나고야 말 것입니다.

오늘 아세아인민들과 세계 진보적 인민들 앞에는 미제국주의의 침략을 좌절시키는 것과 함께 일본군국주의의 재생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할 매우 절박한 과업이 나서고 있습니다.

미제의 적극적인 부추김을 받아 지금 아세아에서는 일본군국주의가 또다시 머리를 쳐들고 일어났으며 세계평화와 아세아나라들의 독립과 안전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의 위험은 날로 커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세아와 세계평화를 귀중히 여기는 모든 사람들의 커다란 불안과 우려를 자아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군국주의는 력사적으로 큰 제국주의세력을 등에 업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데 버릇되여 온 아세아 인민들의 철천지 원쑤입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지난날 미영제국주의자들과 결탁하여 그들의 비호 밑에 조선을 강점하고 아세아 대륙에 침략의 마수를 뻗쳤으며 아세아인민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재난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파쑈독일 및 이딸리아와 공모 결탁하여 태평양전쟁의 불을 질렀으며 아세아의 ≪맹주≫가 되려고 미쳐 날뛰였습니다. 일본군국주의는 침략과 전쟁으로 살찌여 왔으며 결국 전쟁으로 망하였습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아세아 인민들과 전 세계 인류 앞에 저지른 죄악의 력사는 지금도 인민들의 기억 속에 생생합니다.

그러나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이러한 죄악의 력사는 오늘 또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적 본성은 변하지 않았으며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는 미제를 등에 업고 또 다시 조선과 아세아 나라들에 침략의 마수를 공공연히 뻗치고 있으며 이른바 ≪대동아 공영권≫의 옛 망상을 실현하여 보려고 분별없이 날뛰고 있습니다. 미제의 ≪새로운 아세아정책≫과 일본군국주의의 해외팽창정책의 요구에 따라 지금 일본에서는 침략무력이 대대적으로 증강되고 있습니다. 아세아를 지배하려는 극히 야심적인 계획 밑에 추진되고 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무장 책동은 날이 갈수록 더욱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본 반동지배층은 입만 벌리면은 일본이 ≪아세아의 주역≫을 놀아야 한다고 떠들어대며 ≪국력에 상응한 군사력≫을 가질 때가 되였다고 하면서 군국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국내체제의 파쑈화를 더욱 다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년 간에 아세아를 침략하기 위한 미일간의 반동적 결탁이 더욱 강화되였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이러한 공모결탁은 미제가 일본을 기지로 침략의 예봉을 아세아에 돌리고 있는 것으로 하여 그 위험성이 더욱 커가고 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에서 침략과 전쟁정책을 더욱 강화하면서 손아래 동맹자, 침략적 군사기지로서의 일본의 군사경제적 잠재력을 자기들의 침략정책수행에 더욱 적극적으로 리용하는 길에 들어서고 있으며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아세아 전략에 편승하여 자기의 해외팽창야망을 실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감행하고 있는 발광적인 재무장책동과 침략책동은 바로 미제국주의자들의 아세아전략의 직접적 산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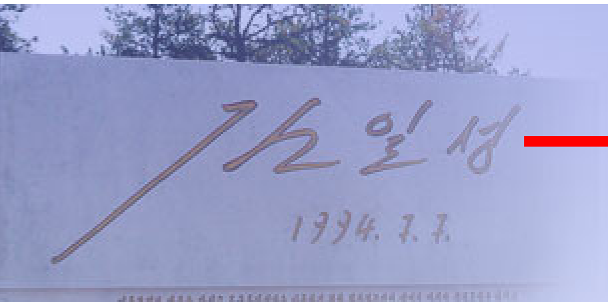
일본은 아세아에서 또다시 새로운 침략과 전쟁의 온상으로 되고 있으며 아세아 인민들은 이에 대하여 경각성을 높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군국주의의 해외침략에서 우리 나라는 그 첫번째 공격대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미 남조선에서 기어들기 시작하였으며 미제의 조종 밑에 조선을 침략하기 위한 극히 모험적인 전쟁계획을 짜놓고 조선전선에 자기들의 침략무력을 투입할 데 대한 모략을 공공연히 꾸미고 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작전지역으로까지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일본반동들은 해외 팽창의 더러운 야망 밑에 ≪평화≫의 탈, ≪원조자≫의 탈을 쓰고 아무런 제재도 받음이 없이 세계의 모든 곳을 마음대로 싸다니고 있으며 동남아세아와 중근동을 비롯하여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에 대한 경제문화적 침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벗≫으로 가장하고 이 지역 인민들의 반제투쟁을 무마하며 반제전선을 와해시키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 있습니다.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아세아와 세계평화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며 미제의 아세아전략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의 주요한 고리입니다.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인민들이 미제를 반대하는 것과 함께 일본군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며 일치한 행동으로 그의 침략적 야망을 꺾어 버려야 합니다.

일본반동지배층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환상도 기대도 가질 수 없습니다. 독점자본이 국내에서 팽창하게 되면 해외 침략의 길로 나간다는 것은 제국주의의 움직일 수 없는 법칙입니다. 일본독점자본은 이미 팽창될 대로 팽창되였으며 다시 자기 지배권을 확립하였습니다. 일본군국주의의 재무장과 해외팽창정책은 바로 일본독점자본의 이러한 부활과 그 지배체제의 확립에 기초하여 실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성을 보지 않고 그와 투쟁하지 않으면, 일본반동정부를 미화하거나 그와 가까이 한다면 그것은 아세아에서 전쟁의 위험을 더욱 증대시키며 그 해외팽창을 조장하여 주는 것으로 될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아세아에서 미제의 지위를 강화해 주며 전반적 반제투쟁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일본군국주의의 재무장과 해외침략책동을 단호히 저지시켜야 하며 침략적인 미일결탁을 결정적으로 파탄시켜야 합니다.

특히 일본군국주의자들의 ≪평화≫의 가면을 벗겨버리고 국제무대에서 그들을 고립시키며 반제전선을 와해시키려는 그들의 책동을 철저히 폭로하고 분쇄하여야 합니다.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며 미일반동들의 침략적 결탁을 짓부시기 위하여서는 일본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그들과의 련대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인민의 투쟁은 미제의 아세아침략과 일본군국주의의 재생에 커다란 타격을 주고 있으며 아세아와 세계 평화위업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은 일본에서의 위험한 사태발전을 높은 경각성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반대하여 계속 철저히 투쟁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책동에 적극 협력가담하고 있는 일본 반동정부의 음모책동을 저지 파탄시키며 미제의 조종 밑에 체결된 범죄적인 ≪한일조약≫을 페기하기 위하여 일본인민을 비롯한 아세아의 모든 반제혁명력량과 굳게 단결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미제와 결탁하여 조선과 아세아나라들을 침략하며 아세아의 ≪맹주≫가 되려고 미쳐 날뛰고 있으나 이것은 허황한 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의 아세아는 어제날의 뒤떨어진 아세아가 아닙니다. 제국주의자들이 아세아에서 주인행세를 하던 시기는 지나갔습니다. 오래동안 제국주의에 의하여 억압당하고 략탈당하여 온 아세아의 수억만 인민들이 힘차게 일떠서 력사의 무대에 등장하였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은 비할 바 없이 강화되였으며 영웅적 윁남인민을 비롯한 인도지나인민들의 해방투쟁의 세찬 불길이 막을 수 없는 힘으로 타오르고 있으며 일본인민들의 혁명적 각성이 더욱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제국주의세력도 아세아 인민들을 정복할 수 없으며 그들의 단결된 힘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오늘 아세아인민들은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매장하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력량으로 자라났습니다. 만일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아세아인민들과 세계진보적 인민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조선과 아세아 나라들을 침략하는 모험의 길에 뛰어든다면 그들은 아세아인민들의 위대한 혁명력량 밑에 종국적으로 멸망하고야 말 것입니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을 타승하기 위하여서는 아세아의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뿐아니라 세계의 모든 혁명하는 나라, 투쟁하는 나라 인민들이 련대성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세계혁명적 인민들의 련합된 힘을 무엇보다도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온갖 술책을 다하여 혁명하는 나라들, 투쟁하는 나라들이 힘을 합치는 것을 방해하며 혁명력량을 하나하나 말살하는 전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이 전략을 결정적으로 파탄시키지 않으며 안 됩니다. 아세아의 혁명적 나라 인민들과 팔레스티나인민들을 비롯한 싸우는 아랍인민들,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싸우는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인민들, 세계의 모든 혁명적 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 미제국주의자들에게 타격을 주며 미제의 각을 떠야 합니다.

혁명하는 나라, 투쟁하는 나라 인민들이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각각 미제의 팔도 뜯어내고 다리도 뜯어내며 머리를 잘라 버려야 합니다. 비록 적은 힘이라고 하더라도 세계의 혁명적 인민들이 이렇게 모두 함께 달라붙어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미제의 각을 이르는 곳마다에서 뜨게 되면 미제는 결국 멸망하고야 말 것입니다.

동지들!

조선혁명은 세계혁명의 한 부분이며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혁명투쟁의 승리는 남북조선에서 혁명력량을 강화발전시키는 것과 함께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는가 못하는가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여 우리의 혁명위업에 대한 지지와 동정을 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그 만큼 미일 반동들과 그 앞잡이들을 더욱더 고립시키고 우리 혁명발전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는 것, 이것은 당면한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자들을 몰아내고 민족해방혁명을 완수하며 조선에서의 긴장 상태를 가시며 우리 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자체의 주체적 혁명력량을 백방으로 강화발전시키는 것과 함께 국제혁명운동을 발전시키고 그와의 긴밀한 뉴대를 이룩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합니다.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의 기치, 반제반미투쟁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나라 인민들과 단결하며 공산당, 로동당과 단결하며 국제로동계급과 단결하여 싸우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과 단결하며 세계의 모든 평화 애호 인민들과 단결하여 미제국주의와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고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계속 억세게 싸워 나갈 것입니다.

9.18사변

세기와 더불어 제 2권



나는 안도의 혁명조직들이 자기 궤도에 들어서서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 성과를 확대하기 위하여 1931년 여름과 초가을 화룡, 연길, 왕청 일대의 지방조직들에 나가 5.30폭동 후 흩어졌던 대중을 묶어세우는 사업을 하였다.

내가 돈화를 활동거점으로 삼고 안도, 룡정, 화룡, 류수하, 대전자, 명월구 등지와 련계를 맺으면서 사업을 한창 전개해나가고 있을 때 9.18사변이 터졌다. 나는 그때 돈화근처의 한 농촌마을에서 공청열성자들과의 사업을 하고 있었다.

9월 19일 이른 아침에 진한장이내가 머무르고 있던 마을로 뛰어와 관동군이 봉천을 공격한 사실을 알려주었다.

≪**전쟁이요**! 왜놈들이 끝내 불집을 일쿠었소!≫

그는 무거운 짐을 걸머진 사람처럼 신음소리를 숨가쁘게 내지르며 토방우에 맥없이 주저앉았다. 전쟁이라는 그 한마디의 말은 진한장의 입에서 눈물겹도록 비장하게 울리었다.

오래전부터 이미 예견했던 사변이고 또 사변이 발발한 시기도 대체로 예상과 비슷이 맞아떨어졌지만 나는 조선민족과 수억만 중국민족이 당하게 될 재난 그리고 자신의 운명에도 거대한 전환이 오리라는 예감 때문에 가슴을 떠박지르는 것 같은 충격을 걷잡지 못하였다.

그후 우리는 여러가지 경로를 통하여 사태발전의 진상을 똑똑히 알게 되었다.

1931년 9월 18일밤 심양 북대영 서쪽 류조구에서 일본만철회사 소유의 철도가 폭파되었다. 일제는 장학량군이 철도를 폭파하고 일본수비대를 공격했다는 터무니없는 구실을 내걸고 불의의 침공을 개시하여 일거에 북대영을 점령하였으며 19일 아침에는 봉천비행장까지 차지하였다.

심양에 뒤이어 안동, 영구, 장춘, 봉성, 길림, 돈화와 같은 동북지방의 대도시들이 관동군과 압록강을 넘어온 조선주둔군에 의하여 련달라 점령되었다. 닷새도 못되는 사이에 일본침략군은 료녕, 길림 두 성

의 광대한 지역을 거의다 강점하였으며 전역을 계속 넓혀가면서 금주방향으로 육박하였다.

문자 그대로 전광석화와 같은 속도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진상을 오도하며 중국측에 사건의 책임을 전가시켰지만 세상사람들은 누구도 그들이 내돌리는 여론을 믿지 않았다. 잔꾀가 많은 일제의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후날 사건을 조작한 당사자들도 인정하였지만 만철회사소속의 철도를 폭파하고 9.18사변의 도화선에 불을 지른 장본인은 관동군 특무기관이였다. 우리는 그 당시 출판물들에 글을 내여 류조구사건은 만주를 먹기 위한 일제의 모략이며 간계라고 폭로하였다.

관동군이 만주사변을 앞두고 대기상태에 있던 1931년 9월 18일 아침 이 사건의 조작자의 한 사람인 도히하라겐지 대좌≪심양 특무기관장≫가 갑자기 서울에 나타났다. 그는 조선주둔사령부 고급참모 간다 마사다네를 찾아가서 신문기자들이 시끄러워 군에게 찾아왔다고 자기의 조선방문 리유를 에둘러 설명하였다. 만주사변이 터지면 숱한 기자들이 자기에게 달려들어 성화를 먹이겠는데 그 성화가 싫어서 미리 조선으로 도피해왔다는 소리었다.

같은 시각 일본항공본부장 와다나베 죠따로 대장은 서울을 방문하여 조선주둔군 사령관인 하야시 센쥬로 대장과 함께 백운장이라는 큰 술집에서 연회를 차리고 휴식을 하였다고 한다. 만주사변과 같이 어마어마한 불집을 마련한 사람들의 행차치고는 너무나도 안온하고 여유작작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 력사기록을 읽게되면 어째서인지 조선전쟁이 발발하던 때에 트루맨이 별장에 가서 지내던 일을 상기하게 된다. 우리가 9.18사변과 조선전쟁이라는 서로 다른 두개의 전쟁에서 일맥상통한 점을 찾아보게 되는 것은 두 전쟁 다 선전포고 없이 돌발적으로 개시되었다는 거기에만 있지 않다. 그 두 사변을 도발한 인간들의 면모에서 제국주의들에게 고유한 교활성과 파렴치성,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성과 지배주의적 본성을 다같이 찾아보게 되기 때문이다.

력사를 비반복적인 사건들의 루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개개의 사건들 사이에 존재하는 류사성과 공통적인 경향성을 우리는 또한 전혀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일본이 9.18사변과 같은 사변을 도발하여 만주를 먹어치우리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확고한 기정사실로 되어왔었다. 우리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장작림폭사사건을 조작했을 때에도 그것을 예감하였으며 ≪농학사≫**의 신분을 가지고 간첩활동에 종사하던** 관동군 참모본부 소속의 나까무라대위의 ≪**실종**≫**사건이 꾸며졌을 때에도 그것을 예감하였다**.

나는 특히 만보사사건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

만보산은 장춘에서 서북쪽으로 70-80리 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자그마한 농촌마을이다. 만보산 사건이란 바로 이 마을에서 수로문제를 둘러싸고 조선이주민들과 중국 원주민들 사이에 벌어진 분쟁을 말한다. 조선이주민들이 논을 풀려고 이통하 물을 끌기 위한 물길을 팠는데 그것이 그만 중국원주민들의 밭을 침범하게 되었다. 이토하를 막으면 장마철에 또한 강물이 범람할 수 있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이 공사를 반대해 나서게 되었다.

이런 때에 일본인들이 공사를 강행하도록 조선농민들을 사촉함으로써 분쟁은 확대되고 조선 국내에까지 파급되어 인명과 재산 피해까지 내는 결과를 빚어냈다. 농촌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지방적인 분쟁을 민족리간책에 솜씨있게 리용한 것이다.

만일 그때 일본사람들이 리간질을 하지 않았거나 조중농민들 중에 선각자가 있어 리성적인 사고를 조금이라도 하였더라면 분쟁은 간단한 언쟁으로 그치고 그 이상 확대되어 서로 마스고 두들겨 패는 것과 같은 양상으로 발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사건으로 하여 조중인민들 사이에는 더 큰 오해와 불신이 생기고 반감이 조성되었다.

그때 나는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생각하고 또 생각하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 때문에 비슷한 불행을 겪고 있는 두 나라 인민들이 무엇 때문에 서로 주먹질을 하면서 피투성이 싸움을 해야하는가, 항일이라는 대전제 밑에 두 나라 민족이 손을 굳게 잡고 공동투쟁에 나서야 할 때 물길 하나를 놓고 서로 악에 받쳐 ≪골육상쟁≫**을 하니 이것이 도대체 무슨 꼴인가**,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런 참사가 빚어졌는가, 과연 이것이 누구한테 리롭고 누구한테 해로운 일인가 하고 거듭 생각하였다.

나에게는 문득 이 사건이 미리 꾸며진 연극으로, 박두해 오고 있는 어마어마한 사변의 전주곡으로 느껴졌다. 무엇보다도 장춘령사관들이 농민들의 우발적인 충돌에 끼여들어 조선사람들의 리권을 ≪**옹호**≫**해** 나선것부터가 미심쩍었다. ≪토지조사령≫**과 같은** 략탈적인 법령으로 조선의 농토들을 빼앗고 살인적인 농정을 실시해 온자들이 갑자기 보호자로 둔갑하여 우리 농민들을 ≪옹호≫해 나선것은 사실상 세상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정치만화였다. 장춘의 ≪**경성일보**≫**지국이 본사에 서둘러** 만보산의 분쟁을 통지한 일도 그렇고 국내에서 신문호외를 찍어 조급하게 배포한 것도 모두 수상하게 여겨졌다.

조중 두 나라 인민들을 리간시키기 위하여 일제의 영악한 두뇌들이 지방적인 자그마한 분쟁을 민첩하게 악용하여 엄청난 모략을 꾸몄는데 그것이 성공한 것이 아닐가. 그렇다면 놈들한테는 무엇 때문에 그런 모략이 필요했는가.

우리가 간도 오가자에서 혁명조직들을 재정비하고 있는 사이에 일본제국주의자들은 분명 무엇인가를 다급하게 준비하고 있었다.

만보산사건의 여파가 채 가셔지지도 않은 그해 여름의 나까무라대위≪**실종**≫**사건은 중일관계를 전쟁첩경에로 이끌어나갔다**. 이 사건과 때를 같이하여 일본본토에서는 련일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도꾜의 청년장교들이 야스구니진쟈에 모여 나까무라의 위령제를 지내고 자기들의 피를 뽑아 일장기를 그렸는가하면 그것을 신사나무에 높이 띄워놓고 국민들의 전쟁열을 고취시키었다. 형형색색의 만주관계단체들은 만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귀가 아프게 떠들어대고 있었다.

나는 그때 일제의 만주침략은 시간상 문제라고 판단하였다. 그렇게 확정할 수 있었던 근거는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세기와 더불어

조선을 먹은 다음에는 만몽을 먹고 만몽을 먹은 다음에는 중국을 먹으며 중국을 먹은 다음에는 아세아를 제패하려는 것은 ≪다나까상주서≫**에도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일본의 기본국책이었다**. 동아의 맹주가 되려는 야망에 사로잡힌 군국주의 일본의 강철바퀴는 이 국책에 따라 거침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나까무라대위의 ≪**실종**≫**사건을 구실로 삼아** 관동군병력을 심양에 집결시키고 공격태세를 갖추었다.

진한장은 그때 일본군대가 당장 만주를 먹겠는데 우리는 모두 적수공권이나 다름없으니 어쩌면 좋은가고 하면서 몹시 불안해하고 안타까와하였다. 그는 국민당의 장학량군벌에 일정한 기대를 걸고 있었다. 그들이 지금까지는 우유부단했지만 일단 국권을 건드리는 사태가 벌어지면 중화민족 앞에서의 체면유지와 수억만 민중의 압력 때문에 저항해 나서지 않을 수 없으리라는 것이었다.

나는 진한장에게 국민당 군벌이 저항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망상이라고 말했다.

장작림의 폭사사건 때를 상기해보라. 관동군의 모략이라는 것이 명백하고 엄연한 증거도 나타났지만 동북군벌은 그때 진상규명도 하지 않았고 관동군에 한마디의 책임추궁조차 하지 않았다. 지어는 일본 조객들까지 고인의 령전에 받아들이었다. 이것은 그 어떤 신중성이나 취약성, 우유부단성으로만 보겠는가. 국민당은 공산당의 박멸과 로농홍군에 대한 ≪토벌≫에 광분하여 수십만 대군을 강서중앙쏘베트구에 투입하고 있다. 일제에게 국토의 일부를 떼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공산당과 로농홍군을 박멸하자는 것이 국민당의 속셈이다. 외적으로 치기전에 공산주의 세력을 숙청하고 국내의 정국부터 평정하자는 것이 국민당의 로선이다. 자기 선친이 폭사한 다음 국민당 쪽에 아주 기울어진 장학량은 그 저주로운 노선에 맹종하고 있다. 때문에 저항은 없을 것이며 거기에 기대를 거는 것은 허황한 일이다.

진한장은 신중하게 내 말을 들었으나 공감을 표시하지는 않았다. 그는 장학량군벌이 아무리 국민당 로선에 추종한다하여도 자기 군벌의 정치, 군사, 경제적 지반인 동북땅을 완전히 잃게 되는 마당에 이르러서까지도 침략자들에게 저항해 나서지 않겠는가고 하면서 종시 군벌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못하였다.

이런 때에 9.8사변이 터지고 수십만을 헤아리는 장학량군대가 아무 저항도 없이 심양을 내주었으니 진한장도 주먹을 부르쥐고 사색이 되어 나한테로 뛰어오지 않을 수 없었다.

≪**성주 동무**, 나는 몽상가였고 철부지였소≫

진한장은 이렇게 말하면서 온몸을 부르 떨었다. 그런 다음 흥분을 참지 못하고 자기를 계속 타매하였다.

≪장학량과 같은 사람이 동북땅을 지켜주리라고 생각했으니 나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이었소. 장학량은 중화민족의 신의를 버리고 항일을 포기한 겁쟁이고 패전장군이요. 전에 심양에 가보니 온 도시에 군벌군이 모래알처럼 쭉 깔려있더구만. 골목마다 신식총을 멘 군대가 씨글씨글했소. 그런데 그 많던 군대가 총 한방 쏘지 않고 퇴각하였으니 이런 분한 일이 어디 있소. 이걸 어떻게 리해해야 하오?≫

매사에 침착하고 온화하던 진한장도 그날 아침만은 감정을 다잡지 못하고 목청을 돋구어 연방 고함을 질렀다.

장학량이 후에는 항일을 주장하고 국공합작에도 기여했지만 만주사변 때에는 그에 대한 평판이 좋지 못하였다.

나는 진한장을 방으로 안내한 다음 조용히 그를 달래였다.

≪진동무, 진정하오. 일본군이 만주를 침공하리라는 것은 우리들이 이미부터 예견했던 바가 아니였소. 그런데 뭘 그렇게 새삼스럽게 떠드오? 우리는 이제부터 사태발전을 랭철하게 주시하면서 그에 대처할 준비를 해야 하오.≫

≪**물론** 그래야지. 그러나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그러오. 내가 장학량이라는 사람한테 너무 큰 기대를 걸었던 것 같소. 나는 온밤 잠을 이루지 못했소. 한잠도 못자고 고통에 시달리다가 곧장 이리로 달려왔소.

성주동무, 장학량이 통솔하는 동북군의 수효가 얼마인지 아오? 자그마치 30만이나 된다오. 30만! 30만이란게 간단한 숫자요? 그런데 그 30만이 총 한방 쏴보지 않고 하루밤 사이에 심양을 내주었으니. 아, 우리 중화민족이 그래 이렇게도 용렬하고 무력하단 말인가! 공자와 제갈량과 두보와 손중산의 조국이 이렇게도 망해간단 말인가!≫

진한장은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 그의 눈에서는 피방울 같은 눈물을 쏟아내리고 있었다.

그가 자기 민족앞에 닥쳐온 비운을 생각하며 그토록 분해하고 슬퍼하는 것은 응당한 일이었다. 그것은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가질수 있는 순결한 감정이며 그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신성한 권리였다.

나도 언젠가는 고행의 다박솔 밑에서 왜적에게 짓밟힌 조국을 생각하며 남모르게 눈물을 흘린 것이 있었다. 그것은 성안에 갔다가 일본경찰의 구두발에 만신창이가 되어 꿈틀거리던 어떤 로인의 모습을 보고 돌아와 진종일 분을 삭이지 못하고 만경봉에서 하루해를 보내던 어느 일요일의 석양에 있은 일이었다.

나는 그날 진한장처럼 우리 나라 력사가 자그마치 5천년이라는데 그토록 자랑스러운 력사국이 어떻게 되어 하루아침에 망국의 수치를 당한단 말인가, 이 수치를 무엇으로 씻는단 말인가 하고 비분에 넘쳐 생각하였다.

그러고보면 나나 진한장은 똑같은 수치를 체험한 셈이다. 이전에는 리념의 공통성이 우리를 접근시켰다면 그날부터는 처지의 공통성이 우리의 우정을 배가해 주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도 있지만 사람들은 불행한 때일수록 더 친밀해지고 우의와 사랑도 깊어진다고 볼 수 있다. 지난날 조중인민들과 공산주의자들이 그토록 친형제와 같이 쉽게 가까와질 수 있은 것은 바로 처지의 공통성, 목적의 공통성, 위업의 공통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제국주의자들이 리윤을 위해서 서로 일시적으로 결탁한다면 공산주의자들은 공동의 투쟁목표로 되는 인간의 해방과 복리를 위해 공고한 국제주의단결을 이룩해간다. 나는 진한장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받아들이었으며 중화민족의 수난을 조선민족의 수난으로 받아들이었다.

만일 수십수백만 대군을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장개석과 장학량을 비롯한 정계, 군부의 우두머리들에게 돈화의 한 청년한테 있는 애국심이나 통찰력만이라도 있었더라면 사태는 달라졌을 것이다. 그들이 민족의 운명을 자기자신이나 자기들의 당파적 리해관계 우에 놓고 반공이 아니라 련공을 하면 전체 민중과 무장력을 항전에로 불러일으켰다면 일제의 침략을 그 첫 걸음에서 좌절시키고 령토와 인민을 영예롭게 지켜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조국도 민족도 안중에 두지 않았다.

일본이 만주를 치기 전에 벌써 장개석이 장학량의 동북군에 ≪일본군측으로부터 도전이 있을 경우에는 신중성을 견지하며 백방으로 충돌을 피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내용의 명령서를 하달하여 군의 저항을 사전에 억제한 사실은 그후 수억만 중국인민의 분노를** 격발시켰다.

9.18사변이 폭발한 후에도 장개석의 남경정부는 중국인민과 중국군대는 일본군에 저항하지 말고 평정과 인내성을 발휘할 데 대한 투항주의적인 성명을 발표하여 군대와 국민의 사기를 저락시키었다. 만주의 운명은 벌써 9.18사변 전에 결정된 셈이었다. 지어 그들은 대표를 동경에 파견하여 일본정부와 비밀교섭을 진행하였는데 이 교섭과정에 장개석은 일본이 중국의 다른 지역들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건부로 하여 쏘중접경지대를 일본제국주의들에게 양도하는데 동의하는 것과 같은 매국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였다.

장개석은 수억만 인구와 수백만평바키로메터의 면적으로 자랑하는 나라의 주석이라는 자존심마저 줴버리고 일본사람들에게 국토의 한부분을 큼직하게 떼주는 것과 같은 망동을 거리낌없이 자행한 것은 그가 일본의 대포보다 지주, 매판자본가와 국민당관료들을 반대하는 국내인민의 총구를 더 두려워한데 있다.

그리하여 동북변방군의 30만 대군은 자기 무장력의 25분의 1도 못되는 관동군에게 밀려 무진장한 자연부원을 가지고 있는 광대한 만주땅 전체를 버리고 패주하게 되었다.

나는 망국의 비분에 젖어 통곡하는 진한장에게 말했다.

≪**이제는 그 어떤 당파나 군벌이나 정치세력도 믿을 수가 없게 되었소**. 오직 자기자신의 힘만을 믿어야 하오. 대세는 우리들 자신이 민중을 무장시켜 반일전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소. 살길은 무장을 잡는데 있소.≫ 진한장은 말없이 나의 두손을 으스러지게 틀어잡았다.

나는 그날 진한장의 기분을 돌려세우려고 온정일 그와 함께 보냈다. 망국의 설움으로 말하면 사실 진한장보다도 내가 더 많았다. 진한장은 조국의 일부를 떼운 사람이었지만 나는 하나의 옹근 조국을 송두리채 잃어버린 망국민의 아들이었다.

진한장이 자기 집으로 가자고 간청하는 바람에 나는 다음날 그를 따라 돈화로 향하였다.

9.18사변은 조선과 중국 뿐 아니라 온 세계를 뒤흔들어 놓았다. 일본이 조선을 삼킬 때 경악을 금치 못했던 세계가 9.18의 포성에 다시한번 비명을 질렀다. 인류는 그것을 세계대전의 시작으로 보았다.

일본이 이 사변을 중일간의 교섭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방적인 돌발사건으로 묘사했지만 세상사람들은 그것을 곧이 듣지 않았다. 공정한 세계여론은 일본의 만주에 대한 공격을 주권국가에 대한 란폭한 침략행위로 규탄하였으며 일본이 강점지역에서 철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미제를 선두로 한 제국주의자들은 일본의 창끝이 쏘련으로 돌려지기를 은근히 기대하면서 일제의 침략행위에 대하여 동정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국제련맹이 만주에 릿튼조사단을 파견하였으나 그 조사단도 정의의 편에 서서 흑백을 똑똑히 갈라내지 못하고 모호한 입장을 취하였으며 일본을 침략자로 규정하지 못하였다.

전쟁의 포성이 대륙을 뒤흔들고 일본군의 맹공격에 장학량 군벌의 막강한 대군이 하루아침에 허물어져 총퇴각한 사실은 수억만사람들의 의기를 꺾어놓았다. 청일전쟁과 로일전쟁의 승리에서 ≪무적황군≫에 대한 신화는 한갓 신화가 아니라 눈앞의 현실로 되었다. 피눈물나는 분노와 함께 공포의 파도가 조선과 만주는 물론, 온 아세아를 휩쓸었다. 그 공포의 파도 속에서 모든 무장력과 정치세력, 혁명단체, 형형색색의 우국지사들과 저명인사들이 자기의 본색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시작했다.

9.18사변의 폭발은 붕괴상태에 있던 독립군 잔여세력의 대부분을 산간오지로 몰아넣었으며 실력배양을 고창하던 사람들을 일제의 품으로 밀어던지였다. 독립군들이 손때묻은 총을 땅에 묻고 어깨를 움츠리며 고향으로 돌아갈 때 민족개량주의자들은 친일을 부르짖었다. 독립선언을 연발하며 구국항쟁을 웨치던 우국지사들이 ≪망향가≫를 부르며 황황히 해외로 망명하였다. 이전날의 활동거점들을 버리고 퇴각하는 장학량군의 뒤를 따라 금주로, 장사로, 서안으로 달아나는 독립운동가들도 있었다.

애국과 매국, 반일과 친일, 자기희생과 보신을 가리는 착잡한 분해과정이 9.18의 포성과 함께 민족내부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각자가 자기의 인생관에 따라 양극에도 가붙고 음극에도 가붙었다. 만주사변은 민족의 매 성원들의 동향과 본심을 식별하는 하나의 시금석과도 같은 작용을 하였다.

우리는 그때 돈화에서 진한장과 함께 며칠을 두고 9.18사변에 대한 론의를 계속하였다. 우리도 처음에는 몹시 당황하였다. 무장을 들 때가 되었다는 판단은 쉽게 하였으나 일본군이 사태처럼 쓸어드는 정국에서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였다. 그러나 침착성을 인차 회복하고 사태발전을 랭철하게 주시하였다.

그 당시 나는 일제의 만주침략이 조선혁명에 끼치는 영향을 두고 많은 생각을 하였다.

일본군의 만주출병이 현실로 되고 만주점령이 기정사실로 됨으로써 우리는 자기 곁에 적을 주게 되었다. ≪미쯔야협약≫**과 같은 것을 턱에 걸고 일본관헌들이** 몇해동안 중국반동군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조선 독립운동자들과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탄압을 심하게 하였지만 조선땅에 있는 군경들이 월경하여 만주에 들어오는 실례는 드물었다. 중국과의 협정에 의하여 일본군경들이 넘어오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만주지방에서 조선혁명가들을 색출하고 잡아가는 것은 대체로 이 일대에 와있는 일본령사관 경찰들이 하였다.

만주사변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 일대에 조선강점군이 들어오지 못하였다. 로씨야공민전쟁 당시 씨비리를 들이쳤다가 철수할 때 중국측의 량해를 얻어 훈춘에 떨어진 두개 중대력량이 동북지방에 주둔하고 있는 조선강점군의 전부였다.

그러나 9.18사변과 함께 만주는 일본군대의 란무장으로 전변되었다. 조선에서도 상해에서도 일본에서도 수만명의 일본군대가 떼를 지어 만주땅으로 밀물처럼 밀려들었다. 만주대륙은 적아가 한데 엉켜돌아가는 최전선으로 되었다. 조선과 만주를 갈라놓고 있는 국경은 사실상 일본군의 침공과 함께 제거된 셈이었다.

일본군에 의한 만주강점은 의심할 바 없이 이 일대를 활동거점으로 삼아온 우리들의 투쟁에 험악한 난국으로 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일본이 만주를 침공한 본심의 하나가 이 일대에서 앙양되는 조선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을 교살하고 조선국내의 치안유지를 용이하게 하자는데 있는 것만큼 우리는 금후 자기의 활동에서 여러모로 일본군경들의 위협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각오해야만 하였다.

조선국내에서 적용되던 ≪신 치안유지법≫**의 쇠몽둥이는 만주지방 조선사람들의** 머리우에서도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일본이 만주에 괴뢰국가를 세우게 되면 우리에게는 그것도 하나의 커다란 장벽이 될 수 있었다. 실지로 그후 일본이 조작해낸 ≪만주국≫**의 존재는 우리의 활동에서 막대한 장애로 되었다.** 일본의 만주강점은 이 일대에 울짱을 박고 살아온 수십만을 헤아리는 조선사람들의 생활을 도탄에로 몰아넣을 것이었다. 왜적이 없는 고장에서 총독정치의 멍에를 쓰지 않아도 되었던 조선이주민들의 자유는 일장춘몽으로 끝나고 인정풍토가 생소한 이역에 삶의 터전을 옮긴 류랑민들의 리향은 무의미한 것으로 될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9.18사변을 두고 불리한 것만을 생각하지는 않았다. 우리가 불리한 저들만큼 따져보면서 비관과 영탄에 빠졌더라면 일어서지도 못하고 절망에 짓눌려 주저앉았을 것이다.

나는 그때 어째서인지 ≪**범의 굴에 가야 범을 잡는다.**≫**는 조선속담을 생각하였다**. 우리 조상들이 수천년을 두고 터득하고 정식화해놓은 그 인생철학이 나에게 심오한 진리를 귀띔해주었다.

≪만주는 범의 굴로 되었다. 이 굴에서 일본제국주의라는 범을 잡아야 한다. 이제는 무장을 들고 투쟁할 때가 되었다. 이런 때에 싸워서 결판을 짓지 못하면 영영 사람구실을 못한다.≫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일어서야겠다고 단단히 결심하였다.

일제는 전쟁승리를 위하여 우리 나라에서 식민지통치를 강화하고 전쟁물자보급을 위한 경제적 수탈에 미쳐날뛸 것이다. 민족적 모순과 계급적 모순은 극한점에 달할 것이며 조선민족의 반일기운은 고조될 것이다. 우리가 무장대오를 조직하고 항일전쟁을 시작하면 인민대중이 물심량면으로 우리를 적극지지성원해줄 것이다.

중국의 수억만 인민대중도 거족적인 반일항전에 떨쳐나설 것이다.

오늘의 만주침공이 래일에는 중국본토에 대한 침략으로 이어질 것이며 중국대륙은 순식간에 전면전쟁의 화염속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자주정신이 강한 중국인민들이 자기 조국앞에 닥쳐온 위험을 수수방관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우리의 곁에는 제국주의의 침략을 용허하지 않으며 민족적 자주권을 수호할 일념에 불타는 중국의 수많은 공산주의자들과 애국자들, 자유와 독립을 사랑하는 수억만 중국의 형제들이 있다. 어제날 조선사람들을 망국민이라고 불쌍하게 여기던 그들이 래일은 단순한 동정자로부터 믿음직한 동맹자가 되어 한 전호에서 같은 과녁을 향해 총을 겨누게 될 것이다.

우리의 익측에는 언제나 중국인민이라는 위대한 동맹자, 동맹군이 있게 될 것이다.

일본이 중국관내에로 전쟁을 확대하게 되면 구미렬강들의 리해관계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될 것이며 그것은 새로운 세계대전에로 가는 도화선으로 될 것이다. 중일전쟁이 장기화되고 일본이 세계대전에 말려들게 되면 인적, 물적 자원의 결핍과 고갈로 곤란을 겪게 될 것이다.

일본이 만주를 먹는다는 것은 그들이 통치구역을 더 넓힌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치구역의 확대는 불필코 통치력의 약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일본은 식민지를 통치하는데서 종전의 밀도를 보장하지 못할 것이다.

온 세계가 일본제국주의를 침략자로 규탄하게 될 것이며 일본은 국제적으로 고립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나는 이 모든 것이 우리 혁명에 전략적으로 유리한 국면을 열어놓게 될 것이라고 타산하였다.

장학량군이 총퇴각을 시작하고 일제침략군이 물밀듯이 쳐들어오자 우리 눈앞에서는 놀라운 사태들이 벌어졌다. 관공서의 관리들과 공안국의 경찰들이 업무를 중단하고 사방으로 뿔뿔이 달아나버리었다. 며칠 사이에 군벌통치의 지방기관들이 모두 문을 닫아걸었다.

장학량의 패주와 함께 군벌통치체제가 마비된 것이다.

일제침략군은 전과를 확대하기에 급급하여 치안유지에 힘을 기울이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만주지방에서는 한동안 무정부상태가 지속되었다. 우리는 일제가 대륙에 자기들의 통치체제를 세울 때까지 얼마간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리라고 타산하였다. 이 공백상태야말로 우리들이 마음놓고 무장대오를 꾸릴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이 호기를 놓쳐서는 안되었다.

혁명은 바야흐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조선혁명앞에 부과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각자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결단을 내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분골쇄신할 때가 온 것이다.

9.18사변은 중국인민들에 대한 침략인 동시에 곧이 일대에서 살고 있는 조선인민들과 조선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침공이기도 하였다. 우리는 조선의 공산주의로서 이에 응당한 대답을 해야 하였다.

나는 무장대오의 조직을 서둘러야겠다고 생각하였다.

미제의 동맹자들과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투쟁할 데 대한 전략

주체사상총서 5권

미제의 각을 뜰 데 대한 전략과 함께 미제의 동맹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투쟁할 데 대한 전략은 세계혁명의 기본전략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이다.

미제의 각을 뜰 데 대한 전략이 미제를 직접적으로 꺼꾸러뜨리기 위한 투쟁방도를 밝혀준다면 미제의 동맹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투쟁할 데 대한 전략은 미제의 추종국가들과 괴뢰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통하여 미제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투쟁방도를 밝혀준다.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서는 미제의 앞잡이들과 그 동맹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김일성**, ≪**김일성**저작집≫ 22권, PP.466~467≫.

미제의 동맹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것이 세계혁명의 기본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투쟁전략으로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미제가 저들의 침략목적을 실현하는 데 동맹국들과 앞잡이들을 적극 끌어들이는 사정과 관련된다.

사회주의와 민족해방운동을 비롯한 세계혁명운동을 반대하고 침략적 야망을 실현하는데서 세계의 모든 반동세력을 끌어들이고 그들에 의거하는 것은 미제국주의의 전략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제2차세계대전의 결과 사회주의를 비롯한 혁명역량의 급격한 장성강화는 반혁명세력에 비한 혁명역량의 결정적 우세를 가져왔다.

세계혁명역량이 강화되고 제국주의의 힘이 전반적으로 약화됨으로써 어느 제국주의국가로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강력한 세계혁명역량에 저항할 수 없게 되었다. 제2차세계대전 후 제국주의세력이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자본주의의 위기가 더욱더 심해지는 조건에서 자본주의를 멸망으로부터 구원하려는 것은 모든 제국주의국가들의 공통한 지향으로 되었다. 제국주의들의 이러한 지향은 그들로 하여금 자본주의를 보존하기 위한 출로를 자본주의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 경제, 군사적 역량으로 등장한 미제에게 의탁하는 데서 찾게 하였으며 미제와 정치, 군사적으로 결탁하는 데로 나가게 되었다. 그리하여 제국주의국가들은 미제와 종속적인 동맹관계를 맺게 되었으며 미제의 철저한 손아래 동맹자로 되었다.

미제와 제국주의국가들 사이의 종속적 동맹관계는 군사블럭과 각종군사조약을 통하여 실현되었다.

미제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동남아시아조약기구≫를 비롯한 군사블럭과 침략적 군사조약들을 통하여 조약참가국들의 전 군사력의 지휘권을 자기 손에 틀어쥐게 되었다.

한편 미제국주의는 신식민주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식민지나라들에 자기들의 앞잡이들로 반동적인 허수아비정권을 만들어놓고 그를 대리인으로 하여 식민지통치를 유지하면서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괴뢰국가들의 국가권력행사의 최후결정권을 저들의 수중에 장악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괴뢰국가들에 대한 ≪군사원조≫, ≪경제원조≫등을 미끼로 이 나라들을 경제적으로 예속시킬 뿐 아니라 ≪반공≫, ≪상호안전보장≫등의 간판 밑에 예속적인 불평등≪조약≫과 ≪협정≫들을 조작함으로써 이 나라들을 침략적인 군사동맹에 얽어매놓고 저들의 식민지군사기지로, 군사적 부속물로 전변시켰으며 괴뢰국가들의 국가통수권을 거머쥐었다.

동맹국들과 괴뢰국가들의 군사력을 저들의 수중에 장악한 미제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한 세계의 모든 곳에서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인민들의 혁명운동을 탄압말살하는 데 이 나라들의 군사력을 동원이용하고 있다.

미제의 동맹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것이 세계혁명의 기본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투쟁전략으로 되는 것은 다음으로 미제의 동맹자들과 앞잡이들이 미제의 침략전쟁을 적극 도와주고 집행하며 그에 가담하여 저들의 음흉한 목적을 이루어보려고 날뛰고있는 사정과 관련된다.

미제국주의의 동맹자들과 앞잡이들은 미제의 침략과 약탈정책을 직접적으로 도와주고 집행하는 반동세력이다.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침략하고 그의 자주성을 유린하는 데서 반동세력은 공통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미제의 동맹자들과 앞잡이들은 제국주의적 본성과 이해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에 추종하고 있다.

미제의 동맹자들과 그 앞잡이들은 미제를 등에 업고 저들의 침략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세계혁명역량이 급격히 장성강화되고 있는 데 비하여 반혁명세력이 약화된 조건에서 제국주의자들은 가장 방대한 침략무력과 군사장비를 가지고 세계혁명역량에 맞서고 있는 미제의 전략에 편승하여 해외팽창야망을 이루어보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제의 동맹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

하여 투쟁하는 것은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의 뗄 수 없는 한 고리로 되며 결국 이것은 미제를 꺼꾸러뜨리기 위한 세계혁명의 기본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투쟁방도로 된다.

미제의 동맹자들과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중요한 것은 일본군국주의와 서부독일군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것이다.

미제는 패망한 일본군국주의 자들과 서부독일군국주의자들에게 전범자로서의 징벌대신 각종≪원조≫와 그들을 제놈들의 ≪특혜≫를 줌으로써 침략정책을 앞장서 맡아나갈 ≪돌격대≫로 만들었다.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 밑에 재생재무장된 일본군국주의와 서부독일군국주의는 동방과 서방에서 또다시 새로운 침략과 전쟁의 발원지로 되었다.

구라파에서 가장 위험한 침략과 전쟁 세력으로 자라난 서부독일군국주의는 미제의 침략정책의 충실한 길잡이이며 돌격대이다.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것은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며 미제의 아시아전략을 저지파탄시키고 세계혁명의 기본전략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고리로 된다.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며 미제의 아시아전략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의 중요한 고리입니다.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인민들이 미제를 반대하는 것과 함께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며 일치한 행동으로 그의 침략적 야망을 꺾어버려야 합니다≫≪**김일성**, ≪**김일성**저작집≫ 25권, PP.322~323≫.

일본군국주의는 미제국주의와 종속적인 동맹관계에 얽혀져 있는 위험한 침략세력이며 미제의 아시아침략의 돌격대이다.

미제와 일본 사이에 종속적 동맹관계가 이루어지게 된 것은 아시아침략에 대한 그들의 반동적 이해관계의 공통성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그것은 또한 역사적으로 큰 제국주의를 등에 업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데 버릇되어온 일본군국주의 자들의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있다.

미제는 장성하여가는 일본의 군사경제적 잠재력을 태평양에서의 자기들의 침략적 목적에 이용하려하고 있으며 일제는 미제의 후원 밑에 국내에서와 극동 및 동남아시아에서의 일본독점자본의 지위를 강화하고 이른바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고 하고 있다.

미제국주의와 일본군국주의는 서로 모순과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침략에 대한 이러한 이해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종속적 동맹관계에 얽혀 있으며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결탁되어 있다.

미일간의 종속적 동맹관계의 형성과정은 일본에 대한 미제의 전면적 예속화의 실현과정이며 일본군국주의를 재생시키고 그것을 미제의 침략과 전쟁정책수행의 ≪돌격대≫로 내세우는 과정이었다.

미제국주의는 일본군대의 완전한 무장해제, 전범자들의 처형, 군국주의 단체들과 세력의 제거, 독점의 해체, 군수산업의 금지,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전반에 걸친 민주화의 실시 등 국제협정으로 공인된 모든 문제들을 무시하고 일본군국주의를 부활시켰다. 일본군국주의를 부활시킨 미제의 중요한 목적은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군사전략적 위치를 이용하고 일본군국주의의 아시아침략 경험과 야욕을 살려서 저들의 ≪대아시아전략≫을 실현하자는 데 있다.

미일간의 종속적 동맹관계의 주요특징은 매우 심한 예속관계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일본에 대한 미제의 강점과 군사적 지배 및 경제적 공간을 통한 지배, 일본반동지배층의 정치적 대미추종정책에서 나타나고있다.

미일간와 종속적 동맹관계의 또 하나의 특징은 그것이 가장 모험적이고 호전적이며 침략적이라는 데 있다. 이것은 미제의 부추김 밑에 끊임없이 확대되는 일본군국주의의 해외침략정책에서 나타나고 있다.

일본군국주의는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여 미제의 아시아전략에 가담하고 있다. 그들은 일본이 ≪아시아의 주역≫을 놀아야 한다고 하면서 아시아의 넓은 지역을 저들의 ≪방위권≫으로 선포하고 해외팽창야망을 실현해보려고 미쳐날뛰고 있다. 일본독점자본의 촉수는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중근동과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에 깊숙이 뻗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의 해외침략에서 우리 나라는 첫번째 공격대상으로 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들과 함께 3각군사동맹조작책동에 발광하고 있으며 조선을 침략하기 위한 극히 모험적인 전쟁계획을 짜놓고 우리 나라를 작전지역으로 가상한 대규모의 군사연습소동을 빈번히 벌이고 있다.

이처럼 일본군국주의의 재생과 재무장은 아시아와 세계평화에 실로 엄중한 위험으로 되고 있다.

그러므로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수호하며 미제의 아시아전략을 저지파탄시키고 세계혁명의 기본전략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일환으로 된다.

미제의 앞잡이들과 동맹 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할데 대한 주체의 세계혁명이론은 미제와 그 동맹자들 사이의 지배와 추종의 결탁관계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세계혁명의 기본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혁명적인 방도를 밝혀주고 있다.

주체의 세계혁명이론에 의하여 세계혁명의 기본전략과 그의 성과적 실현을 위한 투쟁전략이 밝혀짐으로써 제국주의를 철저히 짓부수고 세계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앞당길 수 있는 강력한 사상이론적 무기가 마련되었다.

군국주의

철학사전

착취사회에서 반동지배계급들이 나라의 물적 및 인적역량을 침략전쟁을 위한 군사력증강에 복종시키고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군사화하는 정책 또는 정치사조. 군국주의의 중요특징은 침략과 전쟁 준비를 위하여 군비를 늘리고 군사력을 증강하며 경제의 군사화를 다그치는 데 있다. 군국주의는 국가체제를 반동화하고 인민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며 사상분야에서는 인종주의와 배타주의를 공공연히 고취하고 전쟁소동을 대대적으로 감행한다. 착취계급들은 군국주의를 통하여 군벌과 더욱 결탁하며 대내적으로는 인민들에 대한 착취와 억압을 더욱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다른 민족과 국가들에 대한 침략과 약탈을 강화한다. 군국주의는 이미 자본주의 이전의 착취사회에서 발생하였으나 그것이 국가사회생활에서 지배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은 자본주의시기 특히 제국주의시기이다.

군국주의는 제국주의 발전의 중요한 특징으로 된다. 제국주의단계에 들어와서 군국주의는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고 전면적으로 발전하며 이것은 제국주의나라들에서 전반적인 경향성으로 나타난다 지난 날 제국주의열강들은 군국주의에 매달리면서 무력에 의거하여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었으며 식민지재분할과 세계제패를 실현하려 하였다. 또한 사회주의나라와 국제공산주의운동 및 노동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을 반대하는 데 무력을 동원하였다. 오늘도 군국주의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서 강화되고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대내적으로는 나라의 군국화를 다그치면서 대외적으로는 중요자원지대, 군사전략적 요충지대에 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 침략적 군사기지를 늘리고 있으며 신흥세력 나라들에 대한 무력간섭과 전복, 파괴 활동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해방투쟁에 일어선 인민들을 공공연히 무력으로 탄압하고 있다. 특히 남한을 강점하고 있는 미제는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남한인민들의 투쟁을 무력으로 탄압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침략책동과 전쟁도발책동들을 끊임없이 감행하고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비호 밑에 일본과 서부독일에서도 군국주의가 급격히 되살아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 군국주의가 위험한 세력으로 자라나고 있다. 일본군국주의는 미제의 아시아 침략의 ≪돌격대≫로서 위험한 침략세력으로 등장하였다. 지금 일본의 반동지배층들은 일본을 ≪경제대국≫으로부터 ≪군사대국≫으로 만들려고 미쳐 날뛰고 있다. 일본군국주의는 미제를 등에 업고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 보려고 새 전쟁을 적극 준비하고 있으며 미제의 사주 밑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나라들을 반대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오늘 미제와 일본군국주의 자들과 남한 사이에는 3각군사동맹조작책동이 강화되고 있다. 일본군국주의의 재생은 아시아인민들뿐 아니라 세계인민들의 평화위업에 커다란 위협으로 되고 있다. 일본군국주의세력의 침략책동을 반대하는 것은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일본군국주의 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은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투쟁의 중요한 일환이다.

≪대동아공영권≫

정치사전

1940년대 초에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아시아의 강점지역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여 더 많은 식민지를 강탈하기 위하여 내놓은 독점적식민지≪세력권≫에 관한 침략적망상. ≪대동아공영권≫이란것은 뒤늦게 자본주의길에 들어 선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아시아는 물론 세계를 제패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먼저 아시아에서 구미자본주의세력을 내쫓고 태평양지역에 대한 저들의 지배권을 확립할 목적밑에 이른바 ≪아시아나라들에 함께 번영할 새로운 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떠벌인데로부터 생겨 났다. ≪대동아공영권≫은 1938년 11월 1차고노에반동내각이 이른바 ≪동아신질서건설성명≫에서 로골화되였으며 1940년 7월 2차고노에반동내각에 내놓은 ≪기본국책요강≫, ≪세계정세의 추이에 따르는 시국처치요강≫에 의하여 하나의 침략적망상으로 보충확대되였다. 당시 외무상이던 마쯔오까는 ≪일본, 만주, 중국을 골간으로 하고 여기에 남양을 참가한 대동아공영권의 확립≫을 력설하였다. 그후 구체적인 ≪대동아공영권건설안≫은 일제군부의 통제밑에 있던 ≪총력전연구소≫에 의하여 완성되였다. 일제는 ≪대동아공영권건설≫의 첫 단계에서는 일본을 중심으로 하여 조선, 만주, 북중국, 양자강하류지역 및 쏘련 연해주지방을 포괄하는 이른바≪대동아공영권≫의 ≪중핵지대≫의 창설을, 둘째 단계에서는 이 ≪중핵권≫지역에다 동부씨비리, 전 중국령토, 일부동남아시아나라들 및 태평양 남부섬들을 덧붙인 ≪소공영권≫의 창설을, 셋째 단계에서는 여기에다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인디아, 태평양의 여러섬을 연결하는 ≪대공영권≫을 창설할것을 망상하였다. 일제는 이를 발판으로 하여 중근동지역과 아프리카 및 아메리카 대륙을 포괄하는 ≪대동아상업팽창권≫을 창설할 계획을 꾸몄다. 이 침략적인 계획의 실현을 위하여 일제는 ≪대동아성≫, ≪대동아건설심의회≫, ≪대동아공동선언≫등을 꾸며 내고 태평양전쟁을 일으켰으나 저들이 지른 불길속에 망하고 말았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오늘 또다시 미제를 등에 업고 ≪대동아공영권≫의 옛 꿈을 실현해 보려고 분별없이 날뛰고 있다.

태평양전쟁

정치사전

제2차세계대전시기 미영제국주의 및 기타 련합국들을 한편으로 하고 일본제국주의를 다른 편으로 하여 태평양지역에서 진행된 식민지재분할을 위한 제국주의적침략전쟁. 전쟁은 1941년 12월부터 1945년 8월까지 사이에 진행되였다. 전쟁은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을 지배하고 이 지역 인민들을 식민지노예화하려는 제국주의렬강간의 모순 특히 미일간의 모순을 기본으로 하여 일어 났다. 전쟁은 일제가 1941년 12월 8일 하와이 진주만기지에 있던 미국 태평양함대를 불의에 공격함으로써 시작되였다. 미제는 일본에, 파쑈 도이췰란드와 이딸리아는 미국에 각각 선전포고를 하였다. 일제는 불의의 습격으로 얻은 일시적우세를 리용하여 1942년 5월까지 필리핀, 버마, 말라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일대의 거의 전 지역을 제압하였다. 일제는 강점지역에서 야만적인 폭압통치와 략탈, 잔인무도한 학살만행을 감행하였는데 웰남과 인도네시아에서만도 각각 200여만명, 필리핀에서는 110여만명을 학살하였다. 일제는 특히 조선인민에 대한 전대미문의 폭압정책을 더욱 강화하면서 침략전쟁수행에 필요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모조리 강탈하였다. 패배를 거듭한 미제는 1942년 6월 미드웨이섬작전을 계기로 겨우 반공격으로 넘어 갈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였으나 일제에게 결정적타격을 가하지 못하였다. 미제는 ≪해방자≫**의 탈을 쓰고 여러 지역에서 식민지세력권확장에 미쳐 날뛰는 동시에** 세계혁명력량을 놀래우며 전후문제 처리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려는 목적밑에 1945년 8월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원자탄을 투하하여 수많은 일본인민들을 학살하는 귀축 같은 만행을 감행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과 1945년 8월 9일 쏘련군대의 대일전쟁참전으로 일제의 주력인 관동군과 조선주둔군이 격멸소탕되고 중국과 동남아시아 인민들의 반일무장투쟁이 강화됨으로써 일제는 급속히 패망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무조건항복으로 태평양전쟁은 끝났으며 동시에 제2차세계대전도 끝났다.

일본군국주의

정치사전

지난 날 조선인민에게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들씌운 철천지원쑤이며 아시아인민들에게 불행과 재난을 가져다 준 공동의 원쑤. 일본군국주의는 1868년 ≪명치유신≫후 생겨 났다. 군사봉건적포악성과 강도적략탈성으로 특징지어 지는 일본군국주의는 생겨 난 첫날부터 일본을 아시아침략의 길잡이로 내세우려고 꾀한 미영제국주의자들을 등에 업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략탈전쟁을 일삼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지난 날 미영제국주의자들과 결탁하여 그들의 비호밑에 조선을 강점하고 아시아대륙에 침략의 마수를 뻗쳤으며 아시아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재난을 가져다 주었습니다.≫**≪**김일성**저작집≫ 25권, 320~321페지≫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적극적인 비호밑에 조선에 대한 침략을 강화하여 1910년에는 조선을 완전히 강점하였으며 1894년에 중일전쟁, 1904년에 로일전쟁을 도발하여 대만과 팽호렬도, 남부싸할린과 료동반도를 빼앗아 냈다. 그리고 제1차세계대전 기간에 중국 산동성의 청도와 태평양의 여러 섬들을 빼앗았으며 1931년 9월에는 ≪만주사변≫을 도발하여 중국 동북지방을 강점하고 1937년 7월에는 중일전쟁을 일으켜 중국의 넓은 지역을 강점하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1939년에 련이어 쏘련과 몽골에 대한 무력침공을 감행하였으며 1940년에는 도이췰란드, 이딸리아와 ≪반공군사동맹≫을 맺고 1941년 12월에 나치스도이췰란드의 쏘련침공에 발을 맞추어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다. 놈들은 웰남, 라오스, 캄보쟈, 말라이, 버마, 타이,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을 강점하고 인디아, 뉴질랜드, 오스트랄리아에까지 침략의 마수를 뻗치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강점지역들에서 잔인무도한 파쑈테로통치를 실시하면서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였다. 놈들의 파쑈적만행은 강점지역인민들의 강력한 항쟁에 부딪쳤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여 조선에서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뒤집어 엎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다. 제2차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일본군국주의는 미제의 비호밑에 재생재무장되여 가고 있으며 오늘 또다시 위험한 침략세력으로 등장하였다. 1950년 미제가 도발한 조선침략전쟁은 일본독점자본의 부활과 군국주의재생에서 전환점으로 되였다. 미제는 이 기간 일본침략군대를 되살리고 전범자들을 정계에 끌어 들이였으며 미일≪안전보장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일본군국주의재생과 재무장을 촉진시켰다. 미제는 조선전쟁후에도 일본독점자본을 부활시키고 경제의 군사화, 핵무장화, 국내체제의 파쑈화를 다그쳤다. 1960년에 미일사이에 체결된 신≪안전보장조약≫은 일본군국주의의 재생재무장에서 또하나의 새로운 단계로 되였다. 오늘 일본군국주의는 미제를 등에 업고 분별없이 해외침략의 길에 나서고 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조선을 침략의 첫 대상으로 삼고 남조선에 대한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에 걸친 전면적인 침투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 일, 남조선 3각군사동맹체계에 기초하여 조선에서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에 적극 가담하고 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조선을 침략하기 위한 극히 모험적인 전쟁계획을 꾸미고 조선을 작전지역으로까지 선포하였으며 공화국을 반대하는 적대시정책을 로골적으로 감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놈들은 해외팽창을 위하여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아시아 여러 나라들,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 대한 경제적침투와 사상문화적침투를 강화하며 이스라엘, 남아프리카인종주의도당 등 력사의 반동들을 도와 주고 있다. 오늘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것은 아시아와 전 세계 혁명적인민들앞에 나선 절박한 과업이다.



한일유착백서

통혁당

일제통치의 기반 아래 36년, 미군강점의 철제 밑에 33년이 흘러갔다. 세기에 걸치는 이 민족수난의 역사 위에 오늘은 또다시 한일유착의 암운이 드리우고있다.

한일유착은 정치와 경제, 군사의 모든 영역에서 추악한 흔적을 남기며 악취를 풍기고 있다. 한일유착의 정치적 향방은 한국의 재식민지화이고, 경제적 목표는 한일경제권의 형성이며, 군사적 귀결은 미 · 일 · 한 삼각군사동맹이다.

한일유착은 미 · 일 결탁의 파생물이다. 미 · 일제국주의가 공모하여 아시아를 분할한 구식민주의 침략사가 오늘 다시금 반복되고 있다.

일본군국주의는 지난날의 전철을 따라 미국을 등에 업고 한국에 재상륙하여 해외팽창의 돌파구를 형성하려 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일본의 아시아전략에서 · 한일유착이 차지하는 기본좌표이다.

한일유착의 검은 안개속에서 일본침략자들이 현해탄을 건너 밀려드는 이 준엄한 시각에 유신파쇼도배들은 미국의 식민지통치로 황폐화된 이 강토를 옛 상전에게 이중으로 팔아넘기는 천추에 용납못할 친일매국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한일유착의 길은 을사망국의 비운을 되풀이하는 매국의 길이고, 한국을 미일의 다국적 식민지로 만드는 치욕의 길이다.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는 한일유착이 가속적으로 심화되어 엄중한 국면에 이르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 범죄적인 내막을 폭로하는 이 백서를 발표한다.

1. 유착의 인맥계보와 흑막정치

한일유착의 전개과정은 무대에 표면화되는 것보다 막후에서 암거래되는 것이 더 많다.

전면에 공개되는 것은 허상에 불과하고 이면에 은폐되는 바로 거기에 사태의

진상이 숨어 있다. 이것이 곧 흑막정치의 구조적 근원이다.

비밀의 검은 장막에 가리워진 유착의 진면모를 파악하려면 우선 그 흑막의장본인들을 추적해야 한다.

일본제국주의의 군사봉건적 성격과 식민지 한국의 전근대적 봉건유제에서 출발한 한일유착은 19세기 말 이래 여러 세대에 걸쳐 역사적으로 형성된 인맥계보에 기초하고 있다

일본의 친한파는 정한파라는 그 본래의 명칭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명치유신의 초창기에 한국정벌을 고창하던 대륙낭인들을 조상으로 하고 있다.

악명높은 정한론자 사이고 다까모리의 정한당과 동양 3국동맹론자 도야마 미쯔루의 현양사, 대아시아주의의 제창자 우찌다 요헤이의 흑룡회는 대륙낭인 2세들에 의해 계승되었고 그들은 일본의 극우익세력과 친한파집단의 골간을 형성하고 있다.

아직도 한 일간의 현역 막후요인으로 활동하는 고다마 요시오, 사사가와 요이찌와 기시 노부스께, 시이나 에쯔사부로 등 친한파의 거물들은 그 대륙낭인 2세들이다.

그들은 1917년대를 전후하여 구한국침략의 별동대로 암약한 대륙낭인들을 계승하여 1930~40년대에는 중국침략의 전초선에서 그리고 태평양전쟁의 선봉에서 귀축같은 전쟁범죄를 저질렀다.

패전 후 A급 전범자로 스가모형무소에 감금되었던 기시, 고다마, 사사가와등은 곧 대미추종으로 전환하였다. 얼마 안 가서 석방되어 공직추방까지 해제된 그들은 감옥 안에서 구상한 각본에 따라 반공우익세력을 규합하여 일본정계의 보수본류를 형성하고 국가권력의 중추를 장악하였다.

1957년 기시의 집권을 계기로 정한파의 후예들은 친한파의 진용을 정비하고1960년대에 급속히 세력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1970년대에 와서는 청람회를 거점으로 대륙낭인의 제3세대라 할 수 있는 신한파라는 것까지 대두하고 있다.

박정희 매국집단의 친일파로서의 원점도 역시 명치시대까지 소급해야 찾을 수 있다.

이 완용, 송 병준 따위가 친일파의 족보에서 선배임은 물론이고 오랜 멸사봉공 끝에 일본천황의 은급을 받은 박정희의 애비같은 송사리도 일본대륙낭인의 끄나불이었다.

그는 1894년 갑오농민전쟁 당시 현양사의 특무로 포섭되어 동학당에 대한이면모략과 농민봉기군 진압에 광분했고 1910년에 일진회의 주구들을 발동하여 한일합방청원서를 일본천황에게 제출케한 흑룡회의 막후공작에도 적극 가담하였다. 박정희가 일본사관학교에 진학하고 관동군장교로 출세한 것도 이 인맥관계가 작용한 결과였다.

구한국 친일파의 2세인 박정희는 만군사관학교 재학시부터 상해에 본거지를 두고 서울에 출장소를 둔 고다마기관의 하수인으로 비밀임무를 수행하였다.

일제가 패망하자 재빨리 미제의 군사특무로 변신한 박정희는 가다마, 쯔까모도, 가와지마 등 구황군의 첩보장교들로 구성된 세칭 카토기관과 연계를 맺었고6 · 25동란을 전후하여 일본인 고용병모집과 군수품조달에 광분한 고다마기관과 다시 연결되었다.

카토기관이 ABC작전이라는 명칭으로 미군의 이북침공계획과 인천상륙안을 3년전부터 미리 기획하고 직접 종군한 사실과 고다마가 6 · 25 직전에 38선을 시찰한 덜레스, 인천상륙작전을 지휘한 맥아더와 동행한 사실은 이미 노출된지 오랜 비밀이다.

그후 1961년 5 · 16탈권에서 1972년의 유신정변과 오늘에 이르기까지 박정희 역적의 모든 범죄와 반역의 행적은 기시를 원로로 하는 일본친한파의 궤적과 하나의 선으로 겹

쳐져 있다. 그는 임종의 극한까지 한일흑막의 이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일본의 친한파와 한국의 친일파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하나의 기점에서 출발하여 하나의 종점을 향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확실히 그들은 다같이 가장 광신적인 극우반동분자들이고 가장 횡포한 파쇼살인자, 가장 위험한 전쟁광신자들이다.

인맥상의 이러한 체질적 공통성은 흑막정치에서 행동의 일치성으로 나타나고있다.

한·일반동세력은 1960년대에 한국에서 군사정변을 일으키고 일본에서 미·일신안보체계를 꾸며낸 기초 위에서 한일회담을 타결하고 기본조약을 체결하였으며, 1970년대에는 10월유신에 이어 ≪두개 한국론≫을 정책화하고 한일경제공동체의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1980년대에 이르는 그들의 구상은 일본무력의 한국파병과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대결이라고 진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우선 박정희가 권좌에 올라선 5·16쿠데타는 한일유착의 새로운 흑막시대를 시발시킨 국제모략사건이었다.

당시 박정희의 거사를 지휘한 것은 미중앙정보국이었고, 그 배후에서 이에 협력한 것은 친한파 흑막인물들이었다.

1960년 한국의 4월봉기와 일본의 반안보투쟁의 충격으로 위기의식에 사로잡힌 친한파의 괴수 기시는 이에 역행하는 군사파쇼공세를 한국에서 도발할 것을 일족낭당과 모의하고 박정희에게 밀사를 파견하는 한편 미중앙정보국을 움직이는 막후공작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5·16 이른 새벽 박정희는 비록 미국제 권총을 들고 한강철교를 건넜으나 명치근왕파의 낭인기질은 변함없었고 거사에 성공하자 그해 11월 일본에 건너가 아까사까의 요정에서 기시와 장시간 밀담을 나누었다.

그때 박정희가≪저는 경험도 없고 해서 기시선생과 같은 노련한 일본의 정치가가 본다면 실수도 많겠지만 명치유신의 지사와 같은 각오로 열심히 일하고 있읍니다≫라고 토로한 것은 결코 실언이 아니었다.

이것은 1963년의 민정이양놀음 때 오노 반보꾸가≪나는 박정희와 부자지간이라 할 만큼 친한 사이다. 그의 대통령 취임식에 가는 것은 아들의 경사스러운 잔치에 가는 것과 같다≫고 한 말과 참으로 기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박정희 일당이 무엇보다 먼저 필사적으로 전심전력을 기울인 것은 한일국교정상화, 즉 한일유착의 합법화였다.

한일유착에 합법적 외피를 씌우고 이를 다각적으로 심화하여 대미예속과 함께 대일의존이라는 제2의 생명선을 확보하는 것이 당초부터 박정권의 대일정책기조로 되었다.

친일주구 박정희 역적의 대일기본자세는 ≪일본에 의탁하지 않고서는 한국의 내일은 없다. 제2의 이 완용이 되고 매국노라는 말을 듣는 한이 있어도 한일국교정상화만은 꼭 해내겠다≫고 한 그의 고백에 생생하게 집약되어 있다.

박정희 역적은 대미일변도정책으로부터 대미, 대일 이중예속을 의미하는 다변화정책에로의 전환을 선차적인 외교목표로 내세우고 집권 후5년간 한일회담의 타결을 위해 그야말로 동분서주하였으며 그의 특유한 흑막체질 그대로 무대의 막후에서 검은 인맥을 통해 추악한 매국흥정을 벌였다.

한일국교정상화라는 것이 박 정회, 김 종필 등의 친열매국노들과 기시, 고다마, 시이나, 오노등 친한파 두목들의 암약에 의해 모략적 방법으로 성사되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일제통치 36년 간의 혈채를 3억 달러의 굴욕적인 독립축하금 형식으로 상쇄한 김 종필–오히라 메모도 고다마의 막후 농간에 의한 것이었고, 그는 1965년 한일조약의 가조인 시네도 서울에 잠입하여 농간을 부렸다.

당시 일본측 대표로 협정문건에 서명한 시이나는 1905년의 을사보호조약 이래 60년만에 다시 돌아온 이 해 을사년을 ≪영광의 을사년으로 하자≫고 기염을 토했고, 김 종필은≪을사년에 이 완용은 36년 간의 영광의 역사를 열어 놓았다면 우리의 한일조약은 향후 1백 년의 영광의 역사를 열 것이다≫라고 맞장구를 쳤다.

그러나 한일조약은 영광의 부활이 아니라 굴욕의 반복이었다. 그것은 한일유착을 새로운 차원에서 심화하는 하나의 전환점으로 되었고 ≪두 개의 한국≫음모를 본격화하는 하나의 이정표로 되었다.

한일조약은 재생된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 한국재침략의 합법적 활무대를 개설해 주고 해외팽창의 길에 나선 일본독점재벌에게 경제침투의 대통로를 개척해 준 굴욕적인 문호개방협정이다.

1910년의 합병조약과 1765년의 한일조약이 그 서문부터 꼭같은 서식을 갖춘것은 우열의 일치가 아니다. ≪양국간의 특수하고 친밀한 관계를 돌이켜보아 상호행복을 증진하며 동양의 평화를 영원히 확보하려고 하는바········≫ 이렇게 시작된 과거의 조약과 ≪양국인민간의 관계의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여 양국의 상호복지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라고 서두를 뗀 오늘의 조약은 변함없는 침략적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군국주의는 한일조약에 의해 대사관으로 위장한 통감부를 서울에 상주시키고 일장기를 날리며 옛 종주국의 지위를 회복하고 있다.

한일조약체결 후 친한파들은 박정희, 김 종필 따위는 애당초 박군, 김군으로 부르면서 과거의 통감정치때보다 더 기승을 부리며 종주국 상전으로 오만하게 군림하고 있다.

흑막정치의 가장 위험한 측면은 일본의 치안당국이 박정권의 파쇼폭압에 적극 가담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권력유착은 일본사회의 군국화, 파쇼화 과정에도 심각한 반작용을 가하고 있다.

일본경찰청, 공안조사청, 내각조사실과 자위대 정보기관들은 한국의 폭압기관들과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박정권의 이른바 치안유지에 각방으로 협력하는 동시에 일본 판도에서도 재일교포탄압에 합세하고 있다.

한국 중앙정보부와 일본 경찰청은 1965년에 상호정보교환을 위한 비밀협정을 체결하였고 군사계통을 비롯한 다른 정보기관들도 정보교환과 요원교류 등으로 밀접히 결탁되어 있다:

국회의원이었던 김 규남 씨와 서 승 형제, 이 철, 최 철교, 진 두현 씨를 비롯한 재일교포 모국유학생들, 모국방문자들에 대한 일련의 불법체포와 살인재판들은 일본측이 제공한 허위모략정보에 의한 것이었다.

김 대중 씨 납치사건도 역시 한일유착의 산물이었다. 김 대중 씨 납치계획과 그 실행과정에는 박정희, 이 후락과 기시가 직접 관여했고 특히 배후에서 맹활약을 한 것은 친한파 특수요원인 쯔가모도였다.

쯔가모도는 박정희의 일본 육군사관학교 선배로서 재학당시부터 서로 얽혀있었고, 6·25동란을 전후하여 군첩보관계로 비밀접촉을 계속하였다. 그는 1967년부터 4년 간 초대 방위주재관으로 서울에 상주하고 나서 일본의 CIA장관이라고 하는 육상자위대 막료감부 제2부장 자리에 발탁

되었다.

납치사건의 수개월 전인 1973년 2월 쯔가모도는 서울에 잠입하여 1주일 간이나 박 정회, 이 후락관 비밀모의를 거듭하였고 김 대중 씨가 일본에 입국한 당일부터 정치테러를 전문으로 하는 제2부 별반과 미리 온 서비스라는 민간위장단체를 발동하여 한국 중앙정보부 현지행동대의 납치작전을 지원, 엄호하였던 것이다.

일본자위대의 첩보모략기관은 1974년의 이른바 대통령저격사건에도 깊이 관여하였다. 이 희세의 모략사건은 남북대화를 파탄시킨 박 정회 일당의 배신행위에 대한 민중의 비등되는 분노와 반항기세를 압살하기 위해 친한파 행동대원들이 저지른 것이고 한일유착에 의한 제2의 히틀러 국회의사당방화사건이었다.

한・일반동들은 특히 이 사건을 재일교포탄압의 구실로 이용하려고 획책하였고 다나까각서, 시이나메모의 형식으로 조총련규제를 문서화하기까지 하였다.

한국 중앙정보부 특무들이 일본 각처를 활보하며 재일교포탄압과 조총련파괴공작을 마음대로 감행하고 있는 것도 친한파세력의 비호가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일흑막정치의 특색은 권력유착의 막후에서 도량하는 반공극우단체들이 실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흑막정치를 좌우하는 민간조직의 단적인 실례는 이른바 국제승공연합이다.

종교의 탈을 쓴 문 선명과 흑막인물 사사가와 요히찌는 1968년에 국제승공연합이라는 것을 조작하여 한・일 양국에 지부를 만들었고 1970년에는 세계반공연맹대회라는 것까지 열었다. 여기에는 기시를 비롯한 친한파 두목들이 다수 참가하여 승공통일을 고창하고 친한운동을 호소하는 추태를 부렸다.

특히 1973년에 결성된 청람회는 자민당 극우파 소장의원들의 친한파조직이고 한일유착의 제1선 행동대로서 가장 위험한 단체이다.

일본의 정계, 재계와 사회계에 침투하여 세력지반확대에 부심하고 있는 일・한협력위원회, 일 한경제협회, 일・한의원연맹, 일 한친선협회 등 각종 어용단체들은 예외없이 관록있는 친한두목들이 장악・지휘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의원연맹과 친선협회는 극우익 소장층을 규합하여 신한파를 형성하며 지방에까지 침투하여 보다 광범한 계층을 포섭할 것을 노리고 있다.

1977년 11월에는 서울에서 한일친선협회 합동대회라는 것까지 요란하게 열렸다. 여기에서 한국측 회장이라는 김종필이 ≪한국과 일본은 싫건 좋건 협력해야 한다. 마음으로부터 크나큰 걸음을 함께 내딛자≫고 선창하면 일본측 회장이라는 시이나는 ≪두 민족의 교류를 더 큰 흐름으로 만들어 정말로 공동운명국가가 되도록 바탕을 다지자. 한일유착이라고 해도 한・일 두 나라는 정치, 경제 등각 분야에서 협력해야 한다≫고 화답하는 식으로 한일운명공동체론의 합창이 공공연히 울려나왔다.

이미 파산된 지 오랜 내선일체론의 어김없는 재판인 이 운명공동체론이 바로 한일친선협회의 설립취지이고 한일유착을 뒷받침하는 모든 관제단체들의 기본강령인 것이다.

일본의 극우반동세력은 한일유착을 한국재침략뿐 아니라 일본 국내정치의 파쇼화를 촉진하는 방편으로 역이용하고 있으며 제주도를 우익폭력단의 비밀군사훈련장으로 전변시키고 있다.

한일유착은 그 자체가 한반도의 자주통일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현상일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두 개 한국≫조작음모를 추진하는 주요 공간으로 되고 있다.

민족의 이질화와 영구분단을 필생의 집념으로 삼고 있는 박 정회 친일매국집단은 대일유착을 더욱 심화하면서 민족의 일본화를 기도하는 천추에 용납못할 반역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 대단결의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역사적인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바로 그 다음날인 1972년 7월 5일에 박 정회 역적은이른바 ≪일본어정책의 대전환≫을 선포하고 ≪신일본어세대운동≫을 발기하여 민족이질화의 중핵인 언어의 일본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친일매국노 박정희는 ≪일정 36년을 부정하고 일본의 대한진출을 반대하는 신흥세대야말로 가장 위험한 세대이다. 일본을 침략자라고 보는 입장이 아니라 일본의 정치, 경제와 일본의 역사, 문화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일본을 보는 신일본어세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서슴없이 뇌까렸다. 이것은 ≪한국에서 일본어를 다시 보급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일본어의 사용에 의하여 일본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일본어를 한일유착의 촉매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본 친한파들의 사고방식과 아무런 차이도 없는것이다.

황민화운동이 이처럼 되풀이되는 가운데 한때 사라졌던 동조동근론까지 다시금 고개를 쳐들고 있다. 지금 유신특권족들은 족보까지 들추어 일본선조의 후예임을 입증하며 저마다 앞을 다투어 일본혈통을 자랑하는 역겨운 숭일풍조에 물들고 있다. 심지어 내무부장관 김 치열과 같은 자는 자기가 임진왜란 때 기어들었던 일본 사무라이의 후손이라고 일본기자에게 자랑하는 추태를 부리고 있다.

박정희 일당의 ≪두 개 한국≫조작책동에서 가장 적극적인 공모자는 일본의 친한파이다. 친한파들이 그 본질에 있어서 ≪두 개 한국론≫인 남북공존론을 집요하게 광고해 온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남북공존론은 ≪부산에 붉은 기가 휘날리면 일본의 보수정권이 위태롭다≫는 이른바 ≪부산적기론과≫한국은 반공제1선이기 때문에 일본은 한반도의 통일을 절대로 방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반공방파제론을 중요 논거로 삼고 있는 침략적인 궤변으로서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일본의 안전의 견지로 보나 국익의 견지에서 보나 한반도의 남북재결합은 요망되지 않는다≫고 한 청람회 간사장의 망언은 친한파식 사고방법의 일단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일본당국자들은 한반도의 영구분단을 위해 박정권과 내밀적인 결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숨기지 알고 있다. 1973년 당시 일본 외무성 차관히었던 미즈노는 ≪솔직히 말해서 박의 6・23성명은 일본 외무성이 설득한 것이다. 다행히 한국정부가 납득하여 이러한 성명이 나온 것이다≫라고 공언하였다.

일본밲동들은 국제사회 특히 유엔무대에서 ≪두 개 한국≫의 조작을 위해 때로는 배후에서 암약하고 때로는 표면에서 양동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1965년의 제20차 총회로부터 1976년의 제31차총회까지 유엔에서 일본대표는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결의안을 무려 25차에 걸쳐 반대하고 13차에 걸쳐 ≪두 개 한국≫을 위한 결의안의 발기국으로 등장하였다.

주한미군의 철퇴가 당면일정에 오른 근간에 이르러 한일흑막정치는 더욱 위험한 방향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한일유착은 이미 유착정도가 아니라 일체화의 단계에로 이행하고 심지어 유착과 통합이 영광으로 찬미되는 한심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친한파 돌격대장격인 이시하라가 ≪항간에서는 한국과의

유대를 일·한 흑막적 유착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일본의 국익으로 된다면 영광스러운 유착이다. 그 유착은 단순히 인방이라는 지정학적 견지나 안전의 이익에서 뿐 아니라 보다 전면적이고 고차원적인 일본국익을 위한 정책적 요구로부터 출발한 것이다≫라는 고답적인 훈시를 하고 있을 때 그래도 명색이 국회의장이라는 정 일권은 친일파의 치부를 드러내 놓고 ≪우리의 필생의 희망은 부산과 규슈 사이에 해저터널을 파서 한일국경의 개념을 영원히 던져 버리는 것이다≫라는 굴욕적인 망발을 하고 있다.

한일유착의 향방은 친일매국이고 대일예속이며 일본군국주의에 의한 한국의 재식민지화이다.

지금 한일관계의 흑막 속에서는 한일합방시대를 재현하고 우리 민족에게 또다시 망국노의 비운을 강요하려는 범죄적 책동이 일층 강화되고 있다.

2. 경제유착과 더러운 금맥

식민지경제권의 형성과 부정자금의 비밀통로개설, 이것이 바로 한일유착의경제적 향방이다.

오늘 경제유착의 흑막 속에서 한국경제를 송두리째 일본경제에 병합하고 한국민중을 모조리 일본재벌의 노예로 전락시키는 가장 악랄한 경제침략과 가장 추악한 매국행위가 감행되고 있다.

이른바 한일국교정상화는 일본독점자본에 대한 친일매판세력의 치욕스러운 문호개방이었다. 그후 10여 년 동안 한일간의 경제유착은 급속도로 진척되었다.

박정희 매국집단은 한국 전역을 일본재벌의 활동무대로 내맡기고 일본자본의 도입을 위해서라면 실로 그 어떤 굴욕적인 처사도 가리지 않았다.

1966년에 외자도입법이 공포되고 1969년에는 수출자유지역법과 외국인투자기업체의 노동쟁의를 금지하는 특례법이 조작되었으며 1970년과 1973년에는 한일조세협정과 공업소유권협정이 체결되었다. 이로써 한국에 진출하는 일븐자본은 최상의 투자환경과 제한없는 특혜, 치외법권적 특권을 보장받게 되었다.

박정권은 일본엔을 한푼이라도 더 많이 구걸하려고 온갖 비열하고 파렴치한 짓을 예사로 삼고 있다.

일본의 경제협력을 구걸하는 창구로 되고 있는 한일정기각료회의가 열릴 때마다 한국측 대표라는 자들은 밤을 새워 구걸하는 철야교섭, 끈질기게 졸라대는 체력대항 그리고 비밀요정에서 결판을 내는 매수작전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추문을 빚어내고 있다

심지어 1970년의 제4차 한일각료회의에서는 한국측이 합동회의가 열린 지 7분만에 서둘러 폐회를 제의하고 모요정의 만찬회에 일본대표들을 초청하는 바람에 장내에서 폭소가 터져 나오는 일막까지 있었다.

박정권의 융숭한 대접과 친절한 안내로 일본자본은 거침없이 흘러들었고 그 액수는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그리하여 1977년 말 현재 한국에 도입된 일본자본 누계액은 무려 31억 7천만 달러에 달하였다.

박정희 일당에 의한 일본자본의 대폭적인 도입은 그 필연적 귀결로서 한국경제의 대일예속을 일층 심화시키고 있다.

한국경제의 체내에 일본자본이 누적될수록 자본, 기술과 설비, 원자재의 각 분야에서 대일의존도가 더 높아지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그것이 구조적인 병폐로 고질화되고 있다.

구조적인 대일예속은 무역분야에서도 현저히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대외무역에서 대일수출입의 비중은 1977년에 수출의 21.4%, 수입의 36.3%였으며 수입에서 대일의존도 하나만 보아도 철강재의 95%, 석유화학제품의 85%, 합성섬유사의 91%, 아연괴의 91%, 종이류의 94%, 인조섬유의 74%, 알루미늄의 75%를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형편이다.

수입은 늘기만 하고 수출은 막히기만 하는 대일무역에서는 대폭적인 역조현상이 만성화되고 있다. 대일무역의 적자는 1966년의 2억 2천 7백 50만 달러로부터 1977년에는 17억 7천 8백만 달러로 격증하였고 1965년~77년간의 적자누계는 무려 96억 5천 5백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일본에 대한 한국경제의 예속성이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는 경제기획원과 개발연구원이 작성한 ≪한일경제관계의 실태분석보고≫의 다음 구절을 보아도 알수 있다.

≪대일재정차관이 전면 중단되고 상업차관이 크게 줄어들어 무역량이 10% 이상 감소하면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반감하고 20% 이상 줄면 경제성장률은 제로내지 마이너스 성장에 떨어진다.≫

한국경제의 대일예속, 대일의존은 사실상 그 한계가 없다. 유신매국정권은 한국의 모든 인력과 모든 자원을 일본상전 앞에 모조리 제물로 섬겨바치고 온 강토를 완전히 드러내 맡기고 있다.

이른바 수출자유지역들은 벌써 일본의 조계지로 화한 지 오래다. 마산수출자유지역의 경우 1백 3개의 외국기업체 중 94.1%를 차지하는 97개가 일본기업체들이다. 이 일본기업체들은 대다수가 나어린 여성들인 2만 5천 명의 한국인노동자들을 일본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기아임금으로 우마와 같이 혹사하여 매년 80%씩 이윤을 늘이고 있다.

수출산업공단을 비롯한 각지의 공업단지들의 경우도 실태는 이와 다를 바 없다. 공업단지들에 입주한 도합 2백 52개의 외국기업체 가운데 86.9%인 2백 19개가 일본기업체이고 그 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한국에 진출한 일본기업체들은 ≪풍부하고 값싸고 질좋은≫ **노동력을 마음대로 구사하여 엄청난 폭리를 얻고 있으며 우리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얼룩진 막대한 달러를 게걸스럽게 빨아들이고 있다**.

일본의 해외진출기업체들 중 1976년도의 생산고 순위에서 윗자리를 차지한 35개 중 12개, 매상고 순위에서의 윗자리 16개 중 5개가 한국에 투자한 기업체들이다. 이 기막힌 사실은 한국의 저임금체계에서 일본기업체들이 얼마나 횡재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박정희 역적은 국내에 침투한 일본기업체에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력수출이라 하여 제3국에 진출한 일본기업체에까지 동족을 팔아넘기는 노예상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일본의 해외건설업체들은 중동과 중남미, 동남아 등지에서 한국의 하청기업들을 통해 수만 명의 한국인 노무자들을 헐값으로 사다가 마구 부려먹고 있다.

일본의 다이헤이전업회사는 한국인 노무자를 모집하여 사

우디아라비아에서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전기통신 건설을 맡은 니홍전기회사는 토목공사를 한국의 건설업체에 하청으로 넘겨 주고 있다.

일본건설업체들에 팔리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에쿠아도르, 말레이지아 등에 나간 우리 노무자들은 생소한 기후풍토와 가혹한 노동조건 속에서 힘겨운 고역에 시달리고 있다.

일본선주들에게 고용된 근 1만 5천 명의 한국인 외항선원들은 일본인 선원의 60%에 불과한 차별임금을 받으면서도 제일 험한 중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

오끼나와의 파인애플농장에 계절노동자로 팔려간 젊은 여공들, 연수생의 명목으로 일본에 끌려간 간호원들도 현대판 강제연행의 희생자로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

박정희 일당은 국민도 팔아먹고 강산도 팔아먹고 영해도 팔아먹고 실로 친일매국행위라면 못하는 것이 없다.

일본의 공해산업을 밀수입하여 금수강산을 여지없이 오염시킨 것도 다름아닌 박정권이다. 수은, 크롬, 카드뮴 등 중금속공해로 일본에서 쫓겨난 공장들이 한국에 자리를 옮겨서 버젓이 조업하고 있는 것은 벌써 비밀이 아니다.

박정희는 ≪공해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지 말라≫고 하면서 계속 일본의 공해산업을 끌어들이고 있으며 과학기술청장관은 일본에 가서 ≪일본의 공해기업을 전부 한국에 가져오면 어떤가≫고 제안하여 일본재계까지 놀라게 하고 있다.

박정희 일당은 관광자원을 개발한다는 구실로 제주도의 명승지와 광대한 토지를 일본에 넘겨 주는가 하면 대륙붕과 그 석유자원까지 팔아먹는 천추에 용납못할 죄악을 범하고 있다.

한일대륙붕협정은 한일유착의 표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협정을 둘러싸고 박정희, 김 종필과 기시, 야쯔기 등 한일유착의 원흉들이 1970년부터 막후흥정을 벌여 왔고 1974년의 조인에서 1977년의 일본국회 비준에 이르기까지 모두 비법적으로, 변칙적으로 조작되었다.

박정희 일당은 대륙붕의 북부경계를 획정함에 있어서 국제해양법상 공인되고 있는 자연연장론을 포기하고 등거리중간선을 적용하여 우리 나라 대륙붕의 넓은 지역을 제멋대로 일본에 넘겨 주었으며 한반도의 불가분의 일부인 남부대륙붕에 함부로 한일공동개발구역을 설정하여 일본에 해저석유자원을 양도하였다.

한국경제의 대일예속과 일본의 경제침략은 한일유착의 중요한 두 측면을 이루고 있다.

1965년의 문호개방을 계기로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침략은 본격적인 단계에로 이행하였다.

밀물처럼 쓸어드는 일본재벌들은 탐욕스러운 경제동물의 생리 그대로 한국경제의 명맥을 잠식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상품수출과 자본투하에 그치지 않고 경제권의 형성과 식민지의 획득을 노리고 있다.

일본자본의 침투에서 청구권자금은 개척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국가자본의 엄호 아래 민간자본이 진출하는 경제침략의 상투적 수법에 따라 일본은 청구권자금과 함께 막대한 정부차관을 계속 투입하면서 민간차관과 직접투자를 급속히 확대하였다.

그리하여 한일조약 이후 10여년 간에 한국에 대한 일본의 자본수출은 65배, 기술수출은 53배로 급증했고 같은 기간 한일무역량은 16배나 증대되었다.

일본자본의 한국진출은 전면적이고 포괄적이다.

일본자본은 제조업부문은 물론 사회간접부문과 관광업, 농수산업에 이르기까지 전 경제분야에 널리 침투하여 뿌리깊이 정착하고 있다.

직접투자에서 일본자본은 초기에 로동집약적인 산업에 대한 중소규모의 투자에 치중하였다면 점차 투자규모를 확대하면서 중화학공업부문에 적극 진출하고있으며 특히 1970년대에 들어와서 자본집약적인 산업부문에 많은 자금을 집중투하하고 있다.

오늘 일본독점체들은 한국의 철강공업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으며 이미 시멘트의 51%, 화학섬유의 50%, 화학비료의 33%를 장악하곤 있다. 그들은 철도와 항만, 댐,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에도 힘을 넣고 있으며 근래에 와서 특히 군수산업부문에 대거 진출하고 있다.

일본자본은 한국경제의 모든 분야, 모든 고리에 깊숙이 파고들어 수직분업체계를 형성하고 계열화, 종속화를 추진하여 한국경제를 일본경제의 한낱 부속물로 전락시키고 있다.

일본의 미쯔이재벌은 한국의 삼성재벌, 신진재벌과 연결되고 있으며 미쯔비시재벌은 쌍용재벌, 현대재벌과 연계되어 있다. 그리고 스미도모재벌은 한일합섬과 효성재벌을 장악하여 계열을 편성하고 있다.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이러한 하청계열화현상은 한일유착을 더욱 긴밀히하고 경제권의 형성을 촉진하는 요인의 하나로 되고 있다.

1970년 서울에서 열린 한일협력위원회는 경제권의 형성과 경제통합을 실천문제로 제기하였다.

일본측 회장인 기시는 개회 벽두에 ≪일 · 한 양국은 인근제국을 합쳐 아시아의 유럽공동체적인 단결을 형성해야 할 필요성을 지니고 있다≫고 역설하였고, 야쯔기는 **≪일본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한국에 이양하는 대신 한국은 자본집약적인 산업을 일본에 의존하는 국제분업원칙에 입각한 경제협력≫을 실시할 것을 제창하였다.**

이 회의에서 제시된 야쯔기시안이란 한국공업의 70%가 집중된 포항이남지역과 일본의 북규슈지역을 합쳐 관서경제권을 먼저 형성하고 이것을 한일 양국의 협력경제권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갓 시안이 아니라 한일경제협력에 대한 일본의 1970년대 정책방향을 집약한 것이며 지금 한국의 판도에서 현실화되고 있는 행동지침을 요약한것이다.

현실적으로 서부일본 일대의 공업지대에 있던 이른바 사양산업, 공해산업이 한국 남해안의 임해공업지구에 대대적으로 이동하고 있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악명높은 동양척식회사의 재판이라 할 수 있는 한국산업개발공사를 설립하려는 구상은 더욱 위험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자본금 10억 달러의 한일합자회사를 만들고 일본에서 40억 달러의 자금을 얻어 한국에 중화학공업을 창설하고 확장하고 운영한다는 것이 이 구상의 골자이다.

이것은 한편으로 확대개발이 한계점에 이른 산업부문과 한세대 뒤떨어진 낡은 설비를 한국에 배설하여 일본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며 다른 한편으로 일본독점자본이 한국의 중화학공업 특히 군수공업을 완전히 장악하고 한일경제권의 형성을 촉진하려는 음흉한 기도를 반영하고 있다.

한국산업개발공사의 일본측 대표인 우에무라 고고로는 ≪일 · 한합작으로 한국에 중화학공장들을 세우고 일본의 기술을 이전하여 그것을 운용한다면 일본의 산업발전의 난문제들이 해결될 뿐 아니라 한국에서 일본의 경제권이 형성된다≫고 그 속셈을 털어놓았다.

한국에 재상륙하여 1960년대에 재정차관으로 투자환경을 정비하고 상업차관으로 경공업, 수출산업을 장악한 일본독점자본은 1970년대에 들어와서 중화학공업까지 장악하

고 한국경제를 일본경제권에 인입하여 일원화할 것을 노리고있는 것이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본격적인 경제침투로 말미암아 한국경제에서 미국과 일본이 차지하는 지위에도 일정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오늘 일본은 한국경제의 많은 분야에서 미국보다 우위를 차지했거나 대등한 위치에 있으며 뒤떨어진 분야에서도 그 간격을 급속히 좁혀 가고 있다.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에서 일본계 기업은 1973년에 미국기업을 누르고 첫자리에 올랐고 1976년 5월 현재 7백 57건에 6억 2천 7백 29만 달러로서 건수에서 81%, 액수에서 66.3%를 차지하였다. 그 반면에 1968년까지 81.7%를 차지하던 미국계 기업의 직접투자는 1972년 후 줄어들어 1975년 말에는 1억 7천 1백 90만 달러로서 17.4%로 떨어졌다.

한국의 기술도입에 있어서도 1976년 현재 일본은 4백 60건, 76.7%로서 단연 첫자리를 차지하고 미국은 1백 46건, 21.2%로서 크게 뒤지고 있다.

무역분야를 보면 1976년에 한국의 수출시장에서 미국은 32.2%로서 제1위이고 일본은 제2위로서 23.4%이지만 수입의존도에서는 일본이 35.3%, 미국이 22.4%로서 일본이 앞서고 있다.

공공차관과 상업차관을 포함한 외자도입총액에서는 아직도 미국이 윗자리에 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이 따라잡고 올라서게 될 것은 확실하다. 그것은 한국에 대한 일본자본의 침투가 가속적으로 황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1977~81년 기간 한국의 외자소요량 1백억 달러중에서 40억 달러를 제공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액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 예견되고 있다.

지금에 와서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일본자본의 지위는 절대적이라 하리만치 강화되었다. 그리하여 ≪한국을 군사면에서 지배하는 것이 미국, 경제면에서 지배하는 것이 일본≫이라는 도식은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상식으로 되고 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원조의 분담을 요구하는 미제의 정책에 편승하여 한국에서 식민지 종주국의 옛 지위를 회복하며 대동아공영권의 옛 꿈을 재현해 보려고 광분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의 일본제국주의가 이른바 영광의 제국주의로 찬미되는 가운데 일본정부의 한 각료는 ≪대동아공영권, 얼마나 훌륭한가, 옛날에는 그것을 군사력으로 만들려고 했으나 이번에는 경제력으로 쌓으려고 한다.≫ **이렇게 자랑삼아 떠들고있다.**

대동아공영권은 꿈으로만 남아 있지 않다. 그의 경제판, 축소판은 한일유착의 먹장구름 아래 한반도의 남부와 일본열도를 포괄하는 지역에서 먼 장래가 아니라 당면한 현실로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도 한일경제유착의 장래는 명확히 투시할 수 있다. 그 종착점은 일본경제에 와한 한국경제의 병합이고 한일경제권의 형성이다.

경제유착의 다른 하나의 측면은 더러운 금맥관계이다. 한일유착의 장본인은 예외없이 민중의 고혈로 살찌는 인간기생충이고 사람의 탈을 쓴 흡혈귀이다.

한일유착의 틈바구니에서는 옛 상전과 옛 주구의 재결합에 따르는 극심한 부패현상이 빚어지고 정치자금조달과 부정축재의 원천을 둘러싼 더러운 금맥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한국에서 박정희의 장기집권을 보장하며 일본에서 보수혁신의 역전을 방지하고 친한파정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쌍방은 서로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특별금고를 개설하고 있다.

1961년 정변 직후 기시의 주선으로 미쯔비시재벌은 1백만 달러의 정치자금을 박정희에 주었고 1963년의 대통령선거자금으로 다시 1백만 달러를 제공하였다. 같은 시기에 미쯔이재벌도 거의 같은 액수의 정치자금과 8억 엔 이상의 차관을 박정희에게 제공하였다.

당시 고다마는 외무성과 대장성을 움직여 박정권에 6억 엔의 정치자금을 긴급경제원조형식으로 지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자금원조는 아무런 기성지반도 없는 군사불한당들이 허울뿐인 선거절차라도 치르기 위해서는 절실한 것이었고 이런 뜻에서 친한파의 역할은 비할바없이 죄악적인 것이었다.

친한파들은 그후에도 1967년과 1971년 선거 당시에 막대한 액수의 정치자금을 박정희에게 제공하였다. 1971년 선거 전야에만 해도 일본은 1억 달러의 용도가 밝혀지지 않은 재정원조와 박정희 출신지에 고등학교를 건설하는 11억 엔의 무상원조까지 주었다.

일본의 친한파들은 이처럼 박정희의 장기집권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있다.

박정희도 역시 일본의 중 · 참의원선거와 자민당 총재 공선이 있을 때마다 총재 후보들과 각파 세력들, 국회의원 후보자들에 대한 뇌물작전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박정희 일당의 대일뇌물작전에서 노출된 것은 물론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지만 이미 드러난 단편적인 사실만 보아도 그 전모를 능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1969년 11월에 청와대에서 박정희와 기시가 비밀회담을 가진 얼마 후 서울에 단신으로 행각한 친한파의 거물 가와지마는 거액의 현찰이 든 트렁크를 가지고 은밀히 귀국하였다.

1972년 10월 총선거시에는 시이나가 역시 혼자서 갑자기 한국에 당일여행을 했는데 김포공항에서 실수로 트렁크의 뚜껑이 열려져 돈뭉치가 들어 있다는 것이 발각되었다.

박정희 일당은 보수혁신의 역전이 우려되던 1978년 12월의 중의원선거와 작년 7월의 참의원선거에서 자민당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해 거액의 정치자금을 투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 있는 특무요원들과 모략단체의 조직력까지 선거운동에 총동원하였다.

이에 감격한 나머지 아시하라 청람회 간사장은 ≪**선거에서 한국의 신세를 졌다.** 승공연합이나 통일협회와 같은 젊은이가 있다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한다≫고 강연하여 우익분자들 속에서까지 빈축을 샀다.

한일금맥은 정치자금의 공동염출장치인 동시에 부정축재의 온상이다. 그것은 친한파, 친일파들에게 일확천금의 창구와 거액횡령의 통로를 부단히 마련해 주는 무진장한 부정축재의 원천으로 되고 있다.

이 금맥을 개발하는 방법은 그야말로 천태만상으로서 상상을 초월하는 가장 파렴치하고 가장 지능적인 수법들이 집대성되어 있다.

일본의 이른바 경제협력자금을 뭉청 잘라먹는 원조횡령술도 있고 그 자금운용의 대상을 지정할 때 수수료조로 받아먹는 할인분배법도 있다. 그리고 금리차, 가격차를 인위적으로 확대하여 뽑아먹는 이중계약법, 차관부실기업체를 눅거리로 불하받아 통째로 먹거나 외국인투자기업체에 폭리를 허용하고 사례금조로 빌어먹는 법 등등 그 수법들을 열거하면 실로 끝이 없다.

흑막 속에서 극히 일부 드러난 것만 하여도 포항제철건설

자금 횡령사건, 서울지하철차량 부정도입사건, 한국알루미늄 부정융자사건, 신한애자 부실기업화사건, 일본항공기 중고품불하사건, 울산 제5비료 자재부정도입사건 등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일본에서 도입된 자금의 10~16%가 한일유착금고로 흘러들어간다는 것은 이미 일반상식으로 되고 있다.

당초 5・16공약에서 부정부패의 일소를 그처럼 요란하게 광고한 박정희 역적은 한일금맥에 기생하고 국민혈세를 착복하여 한국 최대의 관료매판재벌로화했고 부정부패의 최절정에 치달아 오르고 있다.

이승만이 나론놀, 티우 등과 같이 어느날에 가서는 수치스러운 종말이 닥쳐오리라는 것을 각오한 박정희 역적은 후꾸시마현 시라가와의 고원지대에 33억엔을 투자하고 1백10만 평의 토지를 매점하여 망명은신처를 건설하고 있다.

그곳은 바로 박정희가 ≪선생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오직 한 사람≫이라고 숭상하는 고다마의 고향이고 일군사관학교 재학시에 ≪**반도인≪半島人≫** 박군≫**이 군사연습에 참가하던 곳이다**.

친한파 상전들은 박정희에게 그가 유사시에 무사히 탈출할 수 있도록 가와사끼 중공업회사에서 만든 헬리콥터까지 선물로 하사하였다.

이와 같이 금맥관계는 한일유착의 가장 추잡하고 가장 부패한 단면을 노정시키고 있는 동시에 그의 수치스러운 종말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대일의존의 악순환 속에 한국경제는 빈사의 역경에 이르고 국민생활은 도탄에 빠져 허덕이고 있다. 바로 이 가슴아픈 정경이 한일유착의 경제적 결과이고 그 전망은 더욱 암담하기만 하다.

엄혹한 현실은 경제유착의 길이 곧 경제적 식민지화의 길임을 증시하고 있다.

3. 삼각군사동맹의 한일저변

한일유착의 가장 엄중한 국면은 그의 군사적 전개과정이고 군사일체화는 한일유착의 최종공정이며 완성단계이다.

한일관계는 단순한 양자관계만이 아니라 미일, 미한 관계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삼각관계의 파생물이다. 따라서 한일간의 군사유착은 미・일・한 삼각군사동맹의 저변을 연결하고 있다.

이 삼각관계를 군사적 측면에서 보면 미일안보조약과 한미방위조약에 의해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두 변은 이미 쌍무적 군사동맹을 이루고 있으나 그 한일저변은 아직 군시동맹체제를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

한일군사유착은 바로 이 삼각군사동맹의 미완성저변을 보강하고 완공하려는 침략적인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박정희 일당은 집권 당초부터 일본과의 군사유착을 실현하기 위해 음으로양으로 갖은 책동을 다하였다. 군사분야에서도 대미일변도로부터 대일접근에로 급선회한 박정권은 한일군사동맹의 실현을 최우선적 과제로 내세웠다.

사실상 동맹조약이라 할 수 있는 한일기본조약이 조작된 이후 박정희 일당은 막후에서 은밀히 기정사실을 쌓아 올리는 교활한 수법으로 한걸음 한걸음 대일군사유착을 강화하여 왔다.

한일군사협력안은 이미 1962년에 미일안보협의회에서 제시되었고 그것이 1965년 한 일 사이에 비밀군사형정으로 고착되었다.

그 개요는 일본방위주재관의 서울 상주, 한일군사관계자들의 교환시찰의 제도화, 일본의 한국군 병기수리와 보급, 국군간부와 비행사의 위탁양성, 조기경보체계에 의한 반항공합동작전, 비상시 조선해협의 공동봉쇄 등으로 되어 있다.

한일군사협력에서 우선 표면화된 것은 군사인원의 교류와 군시협의체의 운영이다.

1966년부터 도교에 국군무관이 주재하고 있으며 1967년부터는 일본방위주재관이 서울에 상주하고 있다. 그리고 1968년 이래 자위대 막료장급의 한국방문이 정상화되고 1970년에는 한일장교 교환협정이 체결되었으며 1971년부터 군사연수단들의 상호현지연수가 일상화되고 1975년에는 한국의 성우구락부와 일본국방협회 사이에 퇴역고급장교단들의 상호방문이 시작되었다.

군사정보를 교환하고 공동군사행동을 연락・협의하는 육해공군의 군종참모부급 및 통합참모본부급 군사회의들이 각각 매년 1차씩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군사적 모의는 각료급, 국회의원급에서도 정기적으로 진행할 것이 모의되고 있다.

매년 열리는 한일정기각료회의가 종래의 경제적 차원에서 군사적 차원에로 넘어서고 있으며 한일의원안보협의회라는 것까지 새로 발족하고 있다.

군사유착은 경제유착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박정희 일당은 일본자본에 의한 중화학공업과 군수공업의 건설을 시도하고 있으며 일본의 군사장비와 무기제조기술, 군수공업설비들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일본에서 비행기, 전차, 함정 등 국군의 중장비들이 수리, 정비되고 군용차량, 통신기재, 전자설비 등 기술장비들이 한국에 밀수출되고 있는 것은 이미 확증된 사실이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 일본독점체들은 한국의 중화학공업부문에 집중 투자하여 경제의 군사적 잠재력과 군수공업의 기초를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직접적인 무기수출, 무기생산기술과 설비의 수출에로 이행하고 있다.

일본의 군수독점체들은 한걸음 더 나아가 한국에서 무기를 생산하여 제3국에 수출할 계획까지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일본군수산업의 진출을 극비에 붙여 오던 박정희 일당은 ≪일본측에서 방위산업에 대한 기술협력을 받고 있다≫고 공개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른바 전력증강 5개년계획을 위한 방대한 투자액의 40%를 일본의 차관에 의존하려하고 있다.

한일유착은 정보, 통신, 수송 체계와 작전지휘체계 등 모든 군사분야를 광범히 포괄하고 있다.

1960년대 말에 한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반항공조기경보체계가 시동되고 마이크로통신망과 스케타통신망이 개설되었고 관부연락항로와 서울-부산 고속도로가 개통되었다.

1976년에는 한일군사정보연락협의회가 발족되고 군사정보교환체계가 작전, 훈련, 병기의 영역으로 확대되었으며 한일간에 합동군사기구를 구성하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국군과 자위대 육해공군의 작전지휘는 이미 미 제8군, 제7함대, 제5공군사령부를 중추로 하여 사실상 일원화되어

있으며 내막적으로는 미군을 주축으로 하여 한일공군의 합동운영과 해군의 작전분담이 실시되고 있다.

한일공동작전체계는 합동군사연습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1977년 3~4월에 진행된 합동군사연습은 제2의 한국전쟁을 가상한 것으로서 오끼나와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한국군이 출동하고 일본 자위대가 처음으로 함께 참가하였다.

1977녀 10월에는 제2차세계대전 이래 가장 대규모적인 한일합동군사연습이 전개되었다. 미국방부의 지휘 밑에 진행된 이 군사연습에는 일본 자위대와 국군의 전투함선 60척, 비행기 수백 대와 지상군 대부대가 참가하였다.

지난 3월 중순에 · 실시된 팀 스피리트 78이라는 한미연합작전훈련시에는 재일미군이 직접 출동하고 일본기지들이 중계기지, 발진기지, 병참기지로서 전면적으로 발동되었다.

한일간의 군사유착은 대등한 쌍무적 결합이 아니라 한국에 대한 일본의 무력제패를 의미하며 미극동전략에 대한 일본의 협력체제를 의미한다.

오늘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는 한일유착을 통해 한7에 대한 군사적 진출을 븐격화하고 있다.

현재의 여건에서 일본의 군사적 침투는 주로 박정희의 전력증강을 지원하는 군사원조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나 일단 유사시에는 자위대무력의 한국출병과 직접적인 군사행동의 형태로 표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역사에 의해 검증된 일본군벌의 침략습성이고 제국주의 침략의 필연적 귀결이다.

우리 민족은 1876년의 강화도 함포외교로 시작하여 1894~95년 갑오농민전쟁 때 거류민보호를 구실로 출병을 단행한 과거 일본제국주의의 죄행을 역력히 기억하고 있으며 6 · 25동란시에 유엔협력을 구실삼아 2만 5천 명의 병력과 2백 48척의 수송선, 46척의 소해정을 한국전선에 투입한 일본 전범자들의 죄악을 영원히 잊지 않고 있다.

현실적으로 자민당의 극우친한파 거두들은 ≪일본이 유엔협력을 말하면서 장차 파병을 거부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일본의 이익과 국제협약의 입장에서 자위대를 한국전선에 투입하겠다≫고 내놓고 떠들고 있다. 지금 일본 외무성과 방위청의 당국자들도 ≪난민구조≫라는 명목으로 ≪한반도에서 유사시에 일본자위대가 출동할 수 있다≫고 공언하고 있다.

일본의 신흥군벌들은 미국의 침략전쟁에 가담하여 한국에 파병할 것을 예견하는 작전계획까지 작성해 놓고 있다.

1963년에 일본방위청이 수립한 미쓰야작전계획은 한반도에서의 전쟁발발을 계기로 일본 전국에 파쇼적 국가총동원체계를 확립하고 일본 자위대를 동원하여 미군과 공동으로 지상폭격, 해상봉쇄와 상륙작전을 감행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1976년 10월에 정식 채택된 신방위대강≪新防衛大綱≫은 지난날 순수방위를 표방한 순수방위전략에서 선제공격을 전제로 한 제압전략으로의 이행을 정책화하고 그에 상응한 향후 5년 간의 자위대무력증강의 개요를 제시하고 있다.

아시아지역을 미일공동작전범위로 규정한 신안보조약에 비추어 보면 이것은 분명히 일본 자위대의 해외파견과 공격작전을 예견한 그야말로 위험하기 그지없는 침략구상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사까다 전방위청 장관이 신방위대강준비시에 벌써 ≪일본 주변의 국지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선제공격을 예견한 방위태세를 완비한다≫고 확언한 바 있다.

일본 자위대의 무력증강에 따라 일본의 군사비와 군사력은 지난 20년 동안 2자승방식으로 급증하였고 군수산업은 눈사태처럼 비대해지고 있다.

1960년대 후반부터는 군수독점체의 대표들이 군사정책수립에 참여하고 자위대의 퇴역장교들이 군수기업체에 침투하는 산업군사복합체제가 확립되고 있다.

군수독점과 군부세력의 이러한 복합체는 정치권력의 장악과 정부시책의 지배를 지향하면서 다시금 구재벌과 구군벌의 전철을 밟고 있다.

일본의 신흥군벌이 호시탐탐 노리는 해외침략의 첫 대상은 명백히 한국이다.

자위대무력은 유사시 한반도에 출동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방위청은 한국에 긴급출동할 기동예비군으로서 제7사단과 제2혼성단을 규슈와 시고꾸에 배비하고 동해연안에 초계함과 어뢰정의 군항을 건설하고 있으며

요꼬다와 미자와의 공군기지에는 이북까지 행동반경에 포함하는 전투폭격기를 배치하고 있다.

1976년 11월 일본국방회의는 자위대를 동북 중심으로 배치하던 종래의 방침을 변경하여 한국에 가까운 서부일본 방향으로 집중 배치하기로 하였다. 이것이 한국파견에 중점을 둔 자위대의 배비변경이라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의문의 여지가 없다.

자위대는 한국의 지리적 조건에 맞추어 산악훈련과 적설지훈련, 정찰훈련과 상륙훈련 등을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으며 도처에서 긴급출동에 대비한 병종별예비작전을 쉴새없이 전개하고 있다.

항공자위대는 전국의 각지에서 해마다 3백회 이상 한국전쟁을 가상한 긴급발진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군표식을 한 비행기를 이용하여 한반도지형 익숙 비행훈련까지 비밀리에 하고 있다.

한미합동군사연습과 때를 같이 하여 해마다 진행되고 있는 자위대의 전술공수작전, 대잠수함훈련, 육해공군 입체훈련들은 사실상 한반도의 유사시에 대처하는 즉응체제의 완비를 위한 것이다.

한국진출을 노리는 일본의 군사적 동향은 주한미군 철수계획의 배후에서 일층 활발해지고 있다.

방위청 당국자는 ≪주한미군 철수를 기정사실로 접수하고 금후 구체적인 대응책을 생각하겠다≫고 하였으며 해상자위대 기다무라 전 해장은 ≪한반도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그 대응조치로서 일본의 자위조치의 발동과 한일군사협력이 필연적이다≫라고 역설하였다.

한일유착의 군사적 좌표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의 아시아전략과 미일관계의 전략적 측면을 분석해야 한다. 그것은 한국을 전방기지로 하는 미국의 전략이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필수적 전제로 하고 있고, 한일간의 군사적 유착을 그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일관계가 미일관계의 연장선 위에 놓여 있는 사실은 1969년의 이른바 닉슨독트린 이래 몇 차례에 걸친 미일공동성명의 세칭 한국조항들에 의해 확증되고 있다.

1969년 닉슨-사또 공동성명에서 ≪한국의 안전은 일본의 안전에 있어서 긴요하다≫는 한국조항이 나타났고 그것은 1975년 포드-미끼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의 평화는 아시아의 안전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신한국조항으로, 1977년 3월 카퍼-후꾸다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동북아시아지역의 안보에 중요하다≫는 신신한국조항으로 되었다.

이 일련의 한국조항들은 포괄지역과 문구표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국과일본의 안전을 직결시키고 한국에 대한 일본의 간섭을 전제로 한 점에서는 다같은 것이다.



일본을 재무장시켜 아시아침략의 돌격대로 이용하는 미국의 기본전략은 이미 1950년대 초 샌프란시스코조약 체결 당시에 명백히 제시되었다. 1960년대 말에 와서 그것은 닉슨주의의 간판 아래 미국의 아시아전략에서 일본의 대행역할 또는 책임분담이라는 형태로 구체화되었다.

닉슨은 ≪우리가 일본에 바라고자 하는 것은 아시아에서 중추적 역할을 놀아야 할 일본이 우리의 동맹국 특히 한국에서 우리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신태평양독트린에서 포드는 ≪일본과의 동맹이 미국의 세계전략의 한 기둥이다≫라고 확언하였다.

카터 미행정부의 일본중시정책이라는 것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의 대미협조에 의존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침략을 견지하려는 속셈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제국주의는 현 시점에서 자기의 심각한 경제위기와 국제적 고립, 군사력의 한계를 타산하여 전면전략 대신에 선택전략을 표방하고 있으며 그것은 아시아지역에서 한국과 일본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에 군사행동의 촛점을 맞추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군사기지망과 미군병력에 직접 의거하는 동시에 한국과 일본의 무력과 군사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는 전략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본국의 군비부담과 병력손실을 극소화하고 동맹국과 식민지의 희생을 극대화하는 바로 여기에 미제의 교활성, 양면성이 있고 대리전쟁수법의 음흉한 본질이 있는 것이다. 해외침략에서 현지의 인적, 물적 자원을 극력 이용하는 것은 역대미행정부가 답습해 온 상투적 수법이며 미제의 극동전략에서 일관한 정책적 기조이다.

한일유착의 군사적 성격은 미제의 아시아침략정책이 좌절과 실패를 거듭하면 할수록 더 부각되고 한반도에서 미제를 대신하는 일본의 군사적 역할에 더 큰 비중이 부여되고 있다.

슬레징거 전 미국방장관은 1975년에 ≪미국은 전인도지나로부터 철퇴한 후의방위거점 범위를 한국에 좁히며 동시에 일본을 한국지원의 후방기지로서 중요시하는 미 · 일 · 한 일체로 되는 아시아전략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지금 펜타곤의 상층 관료와 고급 장성들 속에서는 ≪일본은 마땅히 아시아전략의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 ≪한국에 대한 공동작전에서 자기의 역할을 진실하게 놀아야 한다≫, ≪일본자위대를 증강하여 해외에 파견할 때가 왔다≫는 등 호전적인 망언들이 연속 울려나오고 있다.

이것은 일본의 전략적 위치와 군사잠재력, 침략전쟁경험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는 미제 지배층의 진의도를 대변한 것이다.

미제의 이러한 기도를 간파한 일본군구주의자들은 이용당하면서 이용하는 간교한 술책을 쓰고 있으며 주한미군 철수문제가 당면한 일정에 오른 지금에 와서 한일유착의 군사적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재침야망을 실현하기에 광분하고 있다.

그리하여 한국민중은 오늘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군사적 진출이 본격화되어가고 있는 매우 긴박한 순간에 직면하게 되었다.

한일유착은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 만일 이 위급한 사태를 방임한다면 한국은 마침내 미일침략자들의 이중속지로 전락되고 말 것이며 ≪두 개 한국≫으로 영구분단될 위험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혁명의 영재이시고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었다.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며 미제의 아시아전략을 저지 · 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의 중요한 고리입니다.≫

일본군국주의의 재침략을 반대하는 투쟁은 유신파쇼체제를 타도하고 민주민권을 전취하기 위한 반파쇼민주화투쟁, ≪두 개 한국≫음모를 파탄시키고 조국의 자주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반미구국투쟁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일본반동지배층은 선린우호요, 일의대수요 하는 기만구호를 내걸고 민중탄압과 매국배족을 일삼는 박정희 유신파쇼독재를 비호하고 있으며 경제협력이라는 간판 아래 한국경제의 하청계열화와 경제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운명공동체론을 광고하면서 군사결탁과 파병준비를 가속화하고 있다.

우리는 한일유착의 이 모든 분야에 걸쳐 일본의 재침략책동을 걸음마다 파탄시켜야 한다.

한일유착의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원흉은 미제국주의이다.

우리는 일본군국주의를 아시아침략의 돌격대로 내세우고 일본과 결탁하여 한국의 식민지통치를 유지하려는 미제의 음흉한 침략기도를 철저히 분쇄하여야한다.

미일 두 상전에게 명줄을 걸고 있는 박정희 일당은 대미예속과 함께 대일유착을 강화하여 장기집권과 영구분열의 야망을 달성해 보려고 필사 발악하고있다.

우리는 이 완용을 능가하는 친일매국노 박정희 역적을 타도하고 유신파쇼정권을 매장하기 위한 민주구국항전의 봉화를 더욱 높이 추켜들 것이다.

한국의 각계각층 애국민중과 각당, 각파의 민주세력은 일치단결하여 한일유착을 분쇄하기 위한 거족적 투쟁에 총분기해야 한다.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는 일본민중들이 한일유착을 반대하는 투쟁에 적극 합세하며 전세계 평화애호민중들이 우리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 · 성원할 것이라고 굳게 확신한다.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
1978년 4월 10일 서울



3.1자주화투쟁선언

오늘 우리는 식민지 예속위에 망국적 신탁통치의 예속까지 겹쳐진 절통한 상황에서 잊지 못할 3.1운동의 그날을 맞게 된다.

감회도 깊은 80년전의 그날 반일항쟁에 결사분기한 우리 2천만 동포는 천하가 동하도록 얼마나 ≪독립만세≫를 외치고 또 외쳤던가.

짓밟힌 민족의 설움을 안고 망국을 통탄하던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자주독립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완전한 해방도, 진정한 독립도 오지 않았다.

3.1운동의 그날 우리 민중이 열망한 것은 자주독립된 내 나라에서 주인이 되어 번영하는 민족의 새 역사를 창조하는 것이었으나 오늘 이 땅에 펼쳐진 현실은 남이 주인노릇을 하는 신식민지지배와 예속이다.

한국에서 주권은 한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있으며 한국의 정치는 청와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백악관이 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국제통화기금≫을 앞세운 미국의 횡포한 신탁통치로 인해 피와 살도 내장도 다 빨리운채 빈사지경에 처해있다.

미국, 일본 문화의 악성적인 병폐속에서 민족자주의식이 무참히 짓밟히고 민족문화가 근원적으로 퇴색말살되고 있다.

미국의 식민지통치하에서 우리 국민은 골육만 도륙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맥과 혈맥까지 잘리우고 있다. 미제에 의한 국토분단으로 우리 민중은 참을 수 없는 민족적 수난을 곱씹어왔고 너나없이 무서운 재난을 치르어 왔다. 그런데 남북분단은 끝장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세에 의해 나날이 경직화되고 민족의 생존자체가 위협당하는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고 있다.

식민지 이 땅을 교두보로 삼아 이북을 압살하는 것을 대아시아전략 실현의 관건적 고리로 보고 있는 미국은 최근 있지도 않는 그 무슨 ≪지하핵시설의혹≫과 ≪미사일문제≫, ≪생화학무기문제≫ 등을 들고 소란을 피우며 한반도정세를 고의적으로 긴장격화에로 몰아가고 있다.

미제의 침략적인 ≪5027작전계획≫에 따라 ≪미, 일, 한 3각군사동맹≫이 본격적인 실동단계에서 가동되고 대대적인 무력증강과 북침전쟁연습책동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태평양으로는 핵배낭을 걸머진 양키들이 밀려들고 현해탄으로 군함을 앞세운 왜적들이 쓸어들고 있다. 외세와 매국노들에 의한 북침전쟁의 길, 그것은 곧 민족의 파멸과 종말에로의 길이다. 이것은 참으로 상상만해도 몸서리치는 식민지한국민의 참혹한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자주권이 없는 탓에 민족의 운명이 칠성판에 오른 오늘 식민지 이 땅에서는 시일야방성대곡이 지속되고 ≪민족의 자주독립을 찾자≫는 민중의 피맺힌 외침이 구천에 사무치고 있다.

한국민족민주전선은 3.1운동의 의지를 되살려 진정한 민족의 자주권을 찾기 위한 겨레의 절규를 한데 모아 엄숙히 선언한다.

1. 거족적인 반외세항전에 모두다 분기하자!

3.1운동의 정신은 오늘도 살아있다.

반외세투쟁이 민족사적 요청으로 부상된 현시점에서 애국과 매국을 가르는 기준은 오직 대미, 대일관에 있다.

반미, 반일은 애국이고 친미, 친일은 매국이다.

현실은 애국애족의 일념으로 정파와 당파의 울타리를 뛰어넘고 구국의 단심으로 반외세투쟁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반외세투쟁의 포성은 이미 울렸다.

민족적 자주권을 찾기 위한 열전의 시각에 처한 우리 민중에게는 뒤로 물러설 자리도 없다.

우리가 오늘의 반외세투쟁에서 물러서면 영영 망국노의 처지에서 벗어날 수 없고 오늘의 전쟁위기를 막지 못하면 지구상에서 단일민족과 3천리 강산마저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방관은 죽음이고 주저는 파멸이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자주국민으로 살기를 바라는 모든 한국민중은 거족적인 반외세항전에 결사분기하자!

경향 각지 전역에 반미자주화, 반일투쟁의 불길이 거세게 타번지게 하자!

2.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치켜들자!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이다. 이것은 3.1운동이 우리에게 보여준 피의 교훈이고 외세의존이 가져온 치욕스러운 한국 50여년사의 결산이다.

오늘의 식민지망국풍토에서 민족재생의 내일을 찾자면 남을 쳐다보고 살 것이 아니라 제힘으로 살아가야 하며 외세와 손잡고 동족과 대결할 것이 아니라 동족과 손잡고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민족을 지켜내야 한다.

외세에 의해 민족의 생존자체가 위협당하고 있는 오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소중한 것은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이다.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의 기치를 애국애족의 봉화로 높이 치켜들자!

민족자주의 신념과 단결의 힘으로 미국의 전쟁책동을 단호히 분쇄하자!

사대매국, 외세의존과 단호히 결별하고 온 민족의 힘과 슬기를 하나로 합치자!

모두다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의 기치 아래 일심단결하여 꿈에도 소원인 조국통일의 지평을 열어나가자!

3. 매국정권 퇴진시키고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하자!

김대중정권은 역대 정권의 외세의존성과 사대매국성을 능가하는 극악한 반역정권이다.

김대중반역정권하에서 ≪통일된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계속 남아있어야 한다≫는 망발이 서슴없이 튀어나오고 일제의 죄행이 백지화되며 우리의 신성한 영토인 독도까지 일본에 섬겨바쳐지고 있다.

7천만 온 겨레는 통일을 열망하고 있으나 김대중정권은 외세와 야합하여 민족을 핵전쟁참화에로 몰아가고 있다.

김대중매국정권을 그대로 두고서는 민족이 편안할 수 없고 화밖에 당할 것이 없다는 것이 우리 국민의 총평이다.

강력한 반정부, 반독재투쟁으로 민주화의 새봄을 안아오자!

매국적인 ≪국민의 정부≫ 들어내고 자주적인 민주정부 수립하자!

시국은 민족민주운동세력의 무조건적인 결집을 절실히 요청하고 있다.

모두다 일치단결하여 거족적인 반외세구국투쟁의 불길을 거세차게 지펴올리자!

주체88(1999)년 2월 27일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

일본의 군사적 팽창과 한일간의 군사적 결탁 진상을 고발함

주체89(2000)년 6월 2일

최근 일본의 군사적 팽창과 한일간의 군사적 결탁은 전례없이 노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북의 평화적인 인공위성발사를 ≪탄도미사일발사≫라고 떠들어대며 강행되고 있는 이러한 군사적 책동앞에서 우리 한국민은 ≪일본경계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세계여론도 강력한 지탄을 보내고 있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엄중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일본의 군사적 팽창과 한일간의 군사적 결탁진상을 내외에 알리기 위하여 이 고발장을 발표한다.

1. 일본의 군사적 팽창은 어디까지 왔는가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다. 따라서 일본헌법 제9조에는 ≪…국권의 발동으로서의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원히 포기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나라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명기되어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일본이 지금까지 이 헌법문구를 준수해 왔는가. 아니다. 이른바 ≪평화≫의 너울을 쓰고 미국의 지게위에 올라 군사대국으로 키돋음해 온 것이 일본의 실체이며 어떻게 하나 세계제패를 실현해보려는 것이 일본의 야망이다.

오늘 일본이 이북의 인공위성발사가 마치도 일본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듯이 광고하면서 ≪강력한 군사력대응≫소동을 벌이고 있는 것도 저들의 이러한 야망을 합리화하자는데 그 속심이 있다.

일본은 ≪이북의 미사일위협≫에 ≪대처≫한다는 미명하에 패망한 이래 헌법상 포기하였던 교전권을 되살렸다.

최근 일본국회 참의원에서는 ≪일미방위협력지침≫이행을 위한 ≪주변유사시법안≫들을 일괄통과시켰다.

이것은 일본이 해외침략의 강행을 명백히 선포한 것외 다른 것이 아니다. 오늘 일본의 군사적 팽창과 해외침략기도는 위험계선을 넘어서서 눈앞의 엄중한 현실로 박두했다.

오늘 일본은 군사비지출을 대폭 증강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일본이 새로운 침략무력으로서의 자위대의 경찰예비대를 창설한 1950년의 군사비지출은 1천3백10억엔이었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10년후인 1960년에는 1천5백69억엔, 1974년에는 1조엔, 1987년에는 3조5천억엔, 1998년에는 약 5조엔으로 대폭 늘어났다.

일본의 군사비장성속도는 세계에서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4월1일부터 시작된 1999회계연도에 신형군사장비구입비로 7천9백65억엔, ≪전역미사일방위≫체계개발을 위한 일미공동기술연구에 9억6천만엔을 할당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첩보위성 개발비만도 1천5백억~2천억엔을 지출하려 하고 있다.

군사비의 증대는 곧 군사력의 증대를 의미한다.

오늘 일본은 자위대무력의 최신현대화와 장거리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990년대 중엽에 벌써 일본은 1천2백대의 탱크, 6천문의 각종 포, 1백60여척의 함선, 1천7백여대의 군용기를 보유하였다. 최근 연간에는 그것이 보다 최신예군사장비들로 갱신되었다.

≪에프-15≫, ≪에프-16≫ 등 최신예전투기들을 주력기로 배비하고 긴 항속거리를 가진 ≪이-767≫조기경보기들을 배치했는가 하면 최신예잠수함과 항공모함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대형≪수송선≫과 여러척의 ≪이지스≫첨단미사일호위함까지 갖추었다.

일본은 가까운 시일안에 4대의 공중급유기와 1대의 ≪이지스≫첨단미사일호위함을 도입하고 대형장거리수송기를 개발하려고 획책하고 있다.

그들은 특히 신형장거리미사일개발에 힘을 쏟아붓고 있다.

원래 일본이 긴 사정거리를 가진 각종 미사일들을 개발한지는 이미 오래다. 1980년대부터는 미사일의 국산화가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많은 회사들이 미사일의 개발생산에 참가하여 공중대해상미사일≪에스. 에스. 엠 1≫, ≪에스. 에스. 엠 22≫, 공중대공중미사일≪에이. 아이. 엠1≫, 해상대해상미사일 ≪에스. 에스. 엠 1 비≫등을 대량생산하고 있다.

일본자위대는 1970년대 중엽에 벌써≪나이크제이아르30≫로켓, ≪타타≫, ≪아스록크≫, ≪호크≫로켓, 유도미사일 등 핵운반수단들로 무장하였다. 일본은 ≪우주개발≫이라는 미명하에 7천~9천킬로미터의 사정거리를 가진 장거리≪뮤≫로켓까지 개발하였으며 최근 연간에도 ≪에취2≫로켓의 기본엔진시험과 발사시험을 연이어 자행하였다.

영국신문 ≪센데이 타임스≫는 ≪일본은 10가지형의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모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고 폭로한바 있다.

핵무장에 필요한 충분한 핵시설들을 갖추어놓고 수많은 핵물질들을 확보하고 있는 일본이 1994년부터 정상가동하기 시작한 첫 고속증식원자로≪몬쥬≫에서만도 2001년까지 약 10톤의 플루토늄을, 앞으로 30년동안에 플루토늄 40톤을 확보하여 4만8천개의 원자탄을 만들 수 있다고 하니 이러한 핵탄들이 핵운반수단들에 의해 임의의 순간에 발사

되지 않으리라고 누가 감히 단언할 수 있겠는가.

일본은 첩보위성개발의 마각도 드러내놓았다.

최근 그들은 내각회의에서 이북의 ≪미사일위협≫을 들고 2002년까지 4개의 첩보위성을 발사하기로 결정하였다.

해외침략에 필요한 모든 군사정탐과 자료들을 장악하고 그에 맞게 자위대의 무력편성과 군사작전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일본이 첩보위성도입을 추구하는 진의도이다.

오늘 일본자위대는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장소에서 군사작전을 벌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다.

이런 조건에서 첩보위성의 도입은 군사적 팽창과 해외침략을 위한 마지막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해외침략을 노린 군사훈련을 더욱 본격화하고 있다.

≪전쟁능력이 없는 군대≫로 자처하기 위해 형식상 분립되어 있던 육, 해, 공군 자위대가 하나의 통합사령부로 일체화되고 지난해 11월에는 첫 대규모통합상륙훈련을 진행하여 재침능력을 검증했다.

지난시기 한달에 1~2회이상으로 벌어지던 일미간의 공동군사훈련이 최근에는 사상처음으로 자위대기지들에서 일본자위대통합막료회의 의장 등의 직접적 지휘하에 다반사로 진행되고 있다.

오늘 일본자위대는 미군에 대한 지원의 단계를 완전히 벗어나 공동군사작전에서 주공적인 역할과 공격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쟁열에 환장한 일본이 1차적 공격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한반도이다.

일본호전계층속에서는 ≪일본주변유사시≫가 우선 한반도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망발이 노골적으로 튀어나오고 있다. 실제로 그들은 한반도≪유사시≫에 대비한 군사행동준비를 갖추고 있다.

지난 4월20일자 ≪도쿄신문≫은 1993년 한반도≪핵위기≫때 일본방위청이 자위대잠수함을 비롯한 수십척의 함선과 1백34대의 전투기를 동원하여 미제7함대, 한국해공군과 함께 동해를 무대로 북침을 겨냥한 대규모의 전쟁연습을 시도하였다는 사실을 폭로하였다.

≪아사히신문≫ 4월15일자도 1994년에 일본이 미국의 북침전쟁계획인 ≪5027작전계획≫실행에 적극 가담하여 1천여개의 협력항목을 승인하고 일미의 고위군관계자들이 모여 한반도≪유사시≫를 가상한 모의전쟁연습까지 두차례나 진행한 사실을 까밝혔다.

≪아까하다≫는 지난해 일본이 미국과 북침을 노린 ≪전쟁계획≫을 작성하기 위한 회합을 세차례나 극비밀리에 진행한 사실을 공개하였다.

최근 일본호전계층속에서 ≪대일미사일공격위협≫에 대처한 ≪선제공격론≫까지 공공연히 대두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자위대가 우리 나라 동해상에서 ≪괴선박사건≫을 일으키고 ≪추격≫이라는 명목밑에 전후 처음으로 훈련이 아닌 실전총격전을 벌였다.

제2차세계대전의 전범국인 독일의 유고슬라비아공습참전과 때를 같이해 벌어진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은 한반도유사시 일본자위대의 파견 특히 해, 공군의 참전이 이제 재론할 여지조차 없게 되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오늘 일본은 미국이 주도하는 ≪전역미사일방위≫체계도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일본이 이북의 인공위성발사를 걸고 이 체계의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한 것은 그 화살이 곧 이북을 대상으로 한 체계라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서 일본은 미국의 옷섶에 붙어 세계권을 군사적으로 장악할 것을 노리고 있다. 이런 경우 사태는 어떻게 번져지겠는가.

우리 나라 속담에 길러준 개가 주인의 발뒤축을 문다는 말이 있다.

일본을 군국화에로 사주해온 미국이 그들의 불뭉치에 얻어맞게 되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오늘 광범위한 미국인들속에 ≪자프고홈!≫의 함성이 터져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펜실베니아 디킨스대학 조지 프리드맨교수와 해리스버그대학 메레디스리바드교수가 ≪일본경계론≫을 강조하면서 ≪제2차 태평양전쟁이 다가온다≫고 주장한 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2. 한일간의 군사적 결탁강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른바 ≪한일군사협조안≫이 체결된 이후 지난 수십년간 추진되어온 한일간의 군사관계는 이미 협력의 단계를 넘어서 동맹의 엄중한 단계로 치닫고 있다.

한일간의 군사적 결탁은 최근 이북의 인공위성발사를 기화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간과할 수 없는 위험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오늘 한일간의 방위수뇌급을 포함한 군관계자들의 접촉과 교류는 전례없이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1987년의 장성급 상호방문이 일본측에서 6회, 한국측에서 18회에 불과했다면 최근 4개월기간에 그 회수를 훨씬 넘어섰다.

지난시기에는 주로 육해관계자들의 접촉, 교류에 머물렀다면 최근연간에는 해군과 공군의 상호왕래가 진행되면서 육, 해, 공군 각병종에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각 군사학교들에서의 상호유학, 최첨단비행기에 대한 공동탑승 및 상호시험비행 등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북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군사적 모의도 전례없이 강화되고 있다.

지난시기 한일간의 군사회담들에서는 국민감정과 일본의 헌법규제를 감안해 한반도≪유사시≫ ≪직접적인 비군사협력≫, ≪한일군사작전체계 일체화≫방안이 기본으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오늘은 그 범위를 벗어나 군사공동기구를 내오고 공동군사작전, 공동군사훈련을 벌일데 대한 모의가 거듭되고 있다.

지난해 9월 한국국방부장관이 방일한데 이어 올해 1월에는 일본방위청장관이 방한하여 ≪방위중요사태대처회의≫ 설치와 공동군사훈련실시에 대해 합의하였다.

지난 2월초 사상처음으로 진행된 한국해군과 일본해상자위대간의 ≪간부회의≫에서는 한일간의 해상공동훈련과 ≪간부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으며 오는 7월 제주도 동남쪽해상에서 합동해상군사훈련을 벌이기로 했다.

2월중순에 이어 3월중순에 진행된 한일군사관리들의 회

담들에서는 ≪위기≫발생시 상호정보교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비상연락망을 시동하기로 결정하였다.

한일간의 거듭되는 군사적 모의에 따라 군사공동작전을 위한 정보, 통신, 경보체계와 군사인원 및 물자수송로개설이 더욱 보충완비되고 있다.

한일간의 대항공조기경보체계는 이미 완비되었으며 지난 5월초부터 한반도 ≪유사시≫긴급상황에 대비한 서울-도쿄간 군사긴급연락망이 개통되어 24시간 가동에 들어갔다.

일본자위대의 중앙지휘소에 설치한 작전지휘시설과 반항공감시시설, 일본의 각지역에 있는 통신감시소를 통해 포착한 이북전역의 군사적 움직임과 군사통신내용이 한국군에 정기적으로 통보되고 있다.

≪유사시≫긴급물자지원조달을 위한 해상통로도 일본해상자위대와 한국해군의 협동하에 개설되었다.

얼마전에는 한국국방부와 일본방위청이 양국군사고문들간의 북한군사정보교환을 위한 직통전화를 설치했으며 5월말에는 양국 군관계자들의 통신회선을 추가적으로 개설하였다.

지난 1월초에는 마산에서 일본의 ≪오카자키연구소≫와 한국의 ≪신아시아질서연구소≫의 공동개최로 ≪방위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모의시험까지 벌어졌다.

이북에 대한 유엔안보이사회의 ≪제재결의≫가 떨어지고 이북의 해상봉쇄를 위한 다국적함대의 편성이 협의되고 있는 상황을 가상한 이 모의시험은 전쟁전야에만 볼 수 있는 위험천만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오늘 한일간의 군사적 결탁은 합동군사훈련이 노골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원래 일본은 전후 ≪자국방위≫의 구실밑에 미국과의 공동훈련을 강화해왔으나 한국군과의 공동훈련은 내외여론이 두려워 감히 진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부산앞바다에서는 전례를 깨뜨리고 일본해상자위대와 한국해군의 해상합동군사훈련이 감행되었다.

한일간의 해상합동군사훈련의 실시로 일본은 한반도지역과 해상에 대한 자연지리적 조건을 파악하는 것과 함께 ≪유사시≫자위대가 한반도 근해에 대한 감시, 경계작전과 해상수송, 한국군과의 공동작전 등을 필요에 따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한일간의 군사적 결탁이 한일군사동맹형성의 마지막단계에서 추진되고 있고 새로운 아시아판 나토인 미, 일, 한 3각군사동맹이 마무리되어 자기의 실체를 완전히 드러내고 있음을 의미한다.

오늘 한일군사동맹과 3각군사동맹은 가설이 아니라 정설로, 장래가 아니라 눈앞의 현실로 박두했다.

그렇다면 한일간의 군사적 결탁을 통해 일본이 추구하는 진의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나라에 대한 재침에 있다.

일본은 어떻게 하나 우리 나라가 통일되기 전에 타고 앉아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기 위한 아시아침략의 발판으로 이용하려고 획책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이 들고 나온 것이 바로 ≪이북위협론≫인 것이다.

일본은 앞으로 ≪이북위협론≫의 방패를 들고 한일간의 합동군사훈련을 정례화하며 점차 작전무대를 한반도로 옮기고 군사작전활동을 계단식으로 확대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일본은 최근에 한국당국자들을 구슬려 우리 나라의 신성한 영토인 독도에 대한 저들의 이용과 관리를 법적으로 담보하는 침략적 ≪어업협정≫을 조작하였던 것이다.

이제 일본이 ≪어업협정≫에 규제된 ≪공동관리≫의 합법성을 운운하며 ≪이권보호≫의 구실밑에 독도지역을 저들의 ≪안보권≫으로 선포하고 군사활동을 이곳으로 확대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

그런데 김대중정권은 이에 편승해 일본과의 군사적 결탁을 더욱 강화하는 길로 나가고 있다.

그들은 ≪한일관계의 새 역사≫니, ≪군사관계의 일체화≫니 하며 일본에 아부굴종하면서 우리의 신성한 영토까지 섬겨바치고 있다.

여기서 김대중정권이 추구하는 저의는 북침공격을 실현하는데서 일본의 군사적 힘을 빌리자는 것이다.

도대체 한 핏줄을 나눈 동족을 멸살하기 위해 외세와의 군사적 공모결탁을 더욱 노골적으로 일삼고 있는 김대중매국정권과 같은 민족반역의 무리가 또 어디에 있단 말인가.

을사오적을 능가하는 이런 반역의 무리들 때문에 우리 민족은 50여년간이나 남과 북으로 갈라진채 동족대결의 비극적 수난만을 겪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남잡이가 제잡이 된다고 김대중반역집단은 일본의 군사적 힘을 빌어 동족을 해치려는 행위가 청와대의 지붕위에 불벼락이 쏟아지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데 대해 똑똑히 알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

일본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백년숙적이다.

아직도 우리 나라의 하늘에는 지난날 일본군대의 성노예로 능욕당한 20만의 여성들과 징용, 징병으로 끌려가 침략전쟁의 제물로 된 6백여만의 청장년들, 일제에 의해 학살당한 1백여만의 무고한 사람들의 넋이 배회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날 우리 민족앞에 지은 그 엄청난 죄에 대해 솔직한 반성도, 사죄도, 보상도 하지 않고 있는 일본 오랑캐들이 군사적 팽창과 한일간의 군사적 결탁을 이루고 현해탄을 건너 또다시 이 땅으로 몰려들고 있다.

우리 민중은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다.

전국민은 날로 커가고 있는 ≪일본경계론≫의 목소리를 더욱 높여 일본의 군사적 팽창과 한일간의 군사적 결탁책동을 단호히 분쇄해야 한다.

일본이라는 섬은 ≪불침항공모함≫이 아니다.

일본은 저들의 미사일이 대륙으로 날아가기도 전에 극도로 달아오른 군사적 팽창의 화약고에 먼저 불이 당겨 태평양의 바다속에 영원히 수장되고 말 것이라는데 대해 심사숙고하고 자멸을 초래할 수 있는 무모한 전쟁정책을 당장 포기해야 한다.

우리 한민전은 이 기회에 평화를 사랑하고 전쟁을 반대하는 세계의 양심들이 일본의 군사적 팽창과 한일간의 군사적 결탁책동에 경각심을 높이고 이를 저지분쇄하기 위한 의로운 투쟁에 적극 나서줄 것을 기대하는바이다.

주체88(1999)년 6월2일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

한국민족민주전선 대변인 담화

지금 우리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계가 얼마전 일본이 대형운반로켓 ≪에이취-2에이≫를 시험발사한 것과 관련하여 날이 갈수록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며 규탄하고 있다.

내외의 강력한 반대배격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당국이 강행한 이번 로켓 시험발사의 목적은 그들이 떠드는 이른바 ≪우주개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철두철미 한반도재침과 아시아지배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하려는데 있다.

일본당국자들 자신도 이번에 발사된 로켓이 군사적목적에 전용될수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있으며 방위청장관도 그것이 북조선의 미사일에 대응한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떠들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선 오늘 우리 겨레와 전 인류는 한반도와 지구촌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고 있으며 그 실현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반동들은 이러한 시대적요구에 역행해 제2차세계대전에서 참패한 수치를 씻기 위한 복수를 부르짖으며 우리 국민과 아시아민중들을 또다시 피바다속에 몰아넣기 위한 핵침략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하면서 군사대국화에로 줄달음치고 있다.

한국민족민주전선은 일본이 감행한 로켓시험발사를 평화와 안전을 염원하는 온 겨레와 세계평화애호민중들에 대한 악랄한 도전행위로, 한반도와 아시아에 대한 침략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엄중한 군사력증강책동으로 미국의 무분별한 미사일방어체제구축책동에 협력해 ≪우주군사화≫를 가속화하려는 용납못할 범죄행위로 낙인찍고 이를 준열히 단죄규탄한다.

일본반동들의 군국주의부활과 한반도에 대한 침략책동은 매우 위험한 단계에 이르고 있다. 일본반동들의 군국화책동이 공공연히 추진되는 속에 세계적인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일본총리와 국회의원무리들이 버젓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였는가 하면 역사교과서왜곡수정놀이를 벌여 침략적인 과거사를 정당화하며 해외침략의 흉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바로 이러한 때 감행된 로켓시험발사는 한반도와 아시아를 군사적으로 병탄하고 아시아의 맹주가 되려는 일본의 어리석은 책동이 정책단계를 벗어나 무모한 실천단계에 들어섰음을 여실히 실증해주고 있다.

더욱이 간과할수 없는 것은 이북의 평화적위성발사를 미사일발사로 우겨대며 악의에 차서 헐뜯던 일본이 실제로는 그 위협설의 막후에서 미국을 등에 업고 미사일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핵전쟁책동에 광분하여 온 것이다.

일본반동들은 이북의 미사일위협을 걸고들며 미국과 공조하여 전역미사일방어체제공동개발을 악랄히 추진하였는가 하면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에 적극 편승해 모험적인 북침공격준비책동에 혈안이 되어 왔다.

해외침략을 당장이라도 실현할수 있게 자위대의 법제정을 완료하고 수만개의 핵폭탄을 제조할수 있는 방대한 양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고 거기에 대형장거리운반수단까지 갖추게 된 일본이 언제든지 핵전쟁의 참화를 몰아오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

이번 일본의 로켓시험발사는 명백히 우리 민중과 이북을 겨냥한 것으로써 반북대결을 고취하고 침략적인 최신예 살인무기장비를 갖추려는 호전적인 기도의 직접적발로이다.

그런데도 미국은 이북의 상용무기감축까지 걸고들면서도 일본반동들의 핵무장화는 묵인비호하며 양면적인 이중기준책동으로 그들의 해외침략을 적극 부추기고 있다.

제반 사실은 미국과 일본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한반도와 아시아지배야망에는 변함이 없으며 군사적우위를 확보해 저들의 침략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일본반동들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핵무장화책동과 군국주의부활책동을 당장 걷어치워야한다.

각계 애국민중은 우리 민족의 생존을 핵참화속에 몰아넣으려고 핵무장화책동에 혈안이 되고 있는 일본반동들의 범죄적책동을 절대로 묵과하지 말고 반일반전투쟁의 불길을 더 세차게 지펴올려야 할 것이다.

주체90(2001)년 9월 14일
서울

한국민족민주전선 대변인 담화

우리 민중과 온 겨레의 반대배격에도 불구하고 일본총리 고이즈미가 오는 15일 이땅에 기어들겠다고 한다.

역사교과서왜곡과 야스쿠니신사참배행위로 우리 민족과 전 인류의 치솟은 격분을 자아내고 있는 고이즈미가 사죄 한마디없이 뻔뻔스럽게 서울에 기어들려는 것은 간악한 일제 식민지통치의 오만성과 횡포성을 그대로 재현한 파렴치한 행위가 아닐수 없다.

우리는 내외의 강력한 항의규탄을 외면한 일본총리의 행각은 우리 민족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으로, 극악한 재침책동의 일환으로 낙인찍고 전국민의 치솟는 분노로 준열히 단죄규탄한다.

고이즈미의 서울행각의 목적은 일본이 우리 민족앞에 저지른 천인공노할 피의 과거사를 백지화하고 날로 높아가는 우리 민중의 반일감정을 무마시켜보려는데 있다. 특히 미국에 대한 테러공격사건을 기화로 이북압살을 겨냥한 불순한 모략을 꾸미려는데 그 음흉한 저의가 있다.

지금 일본은 허황한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코저 군국주의의 길로 내달으며 침략의 기회만을 노리고 있다.

지난 세기 우리 민족에게 강요한 침략과 살인행위가 버젓이 보여지는바 기노마루를 펄럭이며 기미가요가 고창되는 속에 고이즈미를 두목으로 사무라이후예들의 해외침략야망이 노골화되고있다.

대륙간탄도로켓을 비롯한 최신형 전쟁장비들이 대량 생산전개되고 중무장한 자위대의 해외파병이 공공연히 제창되고 있다.

우리 국민은 대동아공영권부활과 군국화의 쌍두마차를 타고 무분별하게 날뛰고 있는 일본의 한반도재침흉계를 낱낱이 꿰뚫어보고 있으며 천추에 사무친 원한의 피값을 반드시 받아내고야 말 불변의 의지를 안고 있다.

고이즈미는 1천만명서명운동에 떨쳐나 내외의 줄기찬 투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 민중의 반일의지를 똑바로 보고 불순한 행각계획을 즉각 철회해야하며 우리 민족앞에 과거의 침략사와 오늘의 범죄행위를 진심으로 사죄하고 보상해야한다.

만일 고이즈미가 이것을 외면하고 이땅에 기어든다면 전 국민의 거세찬 항거속에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땅에서 고이즈미의 서울행각을 합리화하는 것은 국민의 표적으로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전 국민은 고이즈미의 서울행각 목적을 바로보고 이를 절대로 용납치 말아야 하며 거족적인 반일항전으로 재침의 칼날을 꺾어버리고 일본의 과거죄악을 반드시 결산하여 민족의 한을 풀어야 한다.

우리 한민전은 전 국민과 함께 고이즈미의 행각을 반대배격할 것이며 일본의 재침책동을 단호히 짓부셔 버리고야 말 것이다.

주체90 (2001)년 10월 12일
서울



20세기의 력사는 고발한다

조선중앙통신 글

≪평양 12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

20세기가 저물어 가고 있다. 세기와 세기가 교차되는 이 력사적인 시기 사람들은 인류에게 미증유의 재난을 들씌우고 인류문명을 혹심하게 파괴유린한 20세기의 세계전쟁사들을 돌이켜 보며 다시는 그러한 전쟁들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그럴수록 국제사회는 일본에 날카롭게 경계의 눈초리를 돌리고 있다. 그것은 일본이라는 나라의 과거와 현재가 너무나도 어지럽고 래일은 더욱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20세기의 일본, 반세기는 략탈적인 침략전쟁으로 수백수천만의 아시아인민들을 살륙하는 만고대죄를 저지르고 세기의 후반기에는 그 죄악을 력사의 흑막속에 묻어 버리려 온갖 권모술수를 쓰며 끝끝내 과거청산을 회피한채 새 세기를 맞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다.

피에 젖은 아시아의 20세기는 조선에 대한 일제의 군사적침략으로부터 시작되였다. 일부 력사가들은 20세기의 첫 전쟁이 남아프리카의 식민지지배권을 둘러 싼 영국-부르전쟁이라 하지만 그 전쟁은 19세기 말인 1899년에 시작되여 1902년에 종결된 전쟁이였다.

20세기의 첫 전쟁은 조선과 만주의 지배권을 쟁탈하기 위하여 일제가 도발한 1904년의 로일전쟁이였다. 그 첫 전투는 조선의 인천항에서 벌어 졌다.

이렇게 시작된 일제의 침략은 중국대륙과 동남아시아전역을 휩쓸어 근 반세기동안 전 아시아와 태평양지역을 악몽에 시달리게 하였다. 일제의 조선침략과 중국대륙침략 그리고 그 이후의 태평양전쟁은 철두철미 조선인민과 아시아인민들을 노예화하기 위한 전대미문의 략탈전쟁, 정복전쟁이였다. 이 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일제는 아시아대륙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피비린 살륙만행을 감행하였는바 특히 조선침략시 꾸민 간악한 음모와 식민지군사파쑈통치기간 감행한 만행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것이였다.

일본이 당당하게 선전포고를 하고 우리 인민에게 도전해 왔다면 조선인민은 그렇게 쉽사리 국권을 강탈 당하지 않았을것이다.

력사에 **≪임진왜란≫으로 기록된 임진조국전쟁 ≪1592**-1596≫때에도 일본 사무라이들이 조총으로 무장한 수십만의 대병력으로 불의에 침공해 왔지만 활과 창을 가진 몇천의 군사밖에 없었던 조선인민은 7년간의 항전으로 섬나라 오랑캐들을 괴멸시키고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였다.

조선인민이 반일항전에 궐기한다면 가망 없는 전쟁의 진창속에 휘말려 들것을 두려워 한 일제는 취약한 리조봉건정부를 상대로 세계외교사에 일찌기 있어 본적이 없는 음모를 꾸미였으니 그것이 침략적인 ≪을사5조약≫과 ≪한일합병조약≫의 날조였다.

1905년의 ≪을사5조약≫날조 당시 일제는 수만의 군대와 헌병을 동원하여 조선왕궁을 겹겹이 포위하고 조약체결을 강요하였으나 고종황제와 대신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치게 되자 친일파들을 내세워 황제의 칙령이라는 거짓을 꾸며 대고 리조봉건정부의 외부인장을 훔쳐 내여 조약을 날조하는 전고미문의 죄악을 저질렀다. 비록 인장을 훔쳐 내여 찍기는 하였으나 ≪을사5조약≫은 조약의 명칭조차 없고 조선황제의 서명과 국새날인도 없는 비법무도한 허위문서였다.

당시 조선은 봉건군주국이였다.

봉건군주국에서 국가원수인 군주의 승인이 없이는 그 어떤 조약도 체결될수 없다는것은 공인된 사실이다.

일본이 지금까지도 ≪합법≫적으로 체결되였다고 무지하게 우겨 대는 **≪한일합병조약≫도 일제가 조선황제의 서명을 위조하여 날조한** 허위문서라는것이 최근년간 드러났다.

력사에는 무력으로 타국을 위협하여 불평등조약을 강요한 실례는 있었어도 일본처럼 남의 나라 정부기관의 공인을 훔쳐 내고 국가원수의 서명까지 위조해 가며 조약을 날조공표한 추악한 행위는 없었다.

일제는 이렇듯 간악한 음모로 조선의 국권을 강탈했고 40여년간에 걸치는 식민지군사파쑈통치기간 600여만명의 청장년들을 랍치련행하여 중세기적노예로동을 강요했으며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수백만명의 조선인민을 학살했다.

오스벵찜수용소가 파쑈도이췰란드의 인종배타적학살만행의 고발장이라면 간또대지진때 일제의 조선인학살만행은 민족배타적참살행위의 력사적고발이다.

1923년 9월 일본의 간또지방에서 강력한 지진이 일어 나 도시가 페허로 되고 민심이 흉흉해 지자 일본정부는 민심을 다른데로 돌리기 위하여 ≪조선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집단방화하고 있다≫는 거짓여론을 내돌리며 조선사람을 닥치는대로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였다. 곧 군대, 헌병, 경찰 등 무장집단과 ≪자경단≫, **≪청년단≫을 비롯한 우익깡패들이 총** 동원되여 일본전역에서 조선인참살을 시작했다.

≪**젊은** 녀자의 배가 갈리우고 6~7개월정도의 태아가 창자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다. 더우기 그 녀자의 음부에 참대창이 푹 박혀 있는것을 본 나는 아연실색하여 뒤걸음쳤다. ≫, ≪**그들은 아이들부터**



차례로 목을 잘라 죽이고 어른들은 판자벽과 기둥에 비끄러 매놓고 칼로 란도질하였다. 칼이 없는 자들은 톱을 들고 나와 산 사람의 팔다리를 자르기 시작했다. 경찰서안은 피가 가득차서 장화를 신지 않고서는 발을 옮겨 디딜수조차 없었다. ≫

이것은 당시의 살인광경을 목격한 일본인들인 기까와 사까구마와 아라이 겐지로의 증언들이다.

일제야수들은 도꾜에서만도 이런 야만적인 방법으로 6, 160여명의 조선사람을 학살했다.

돌이켜 보면 인류력사에는 미국의 인디안살륙만행, 히틀러도당의 유태인멸살행위 등 악명을 떨친 살륙만행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민족배타적인 인간참살행위에 대한 국가의 조직성에 있어서, 또 살륙행위의 지구성과 규모, 그 방법의 잔혹성에 있어서 일제의 조선인참살행위는 그 모든것을 무색케 하는것이였다.

여기에 일본인의 인간자격을 가늠케 하는 희세의 식인행위도 있다.

태평양전쟁시기 남양군도에 진출했던 일본군은 보급로가 차단되자 강제련행해 온 조선인군속들을 수많이 잡아 먹는 천추에 용납 못할 죄악까지 저질렀다.

일본군의 식인행위를 연구조사해 온 일본정치학교수 다나까 도시유끼는 자기의 선대들이 랭동시설이 없었던 남양군도에서 ≪인육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사람을 살려 둔채 고기를 잘라다 먹는 방법을 적용했다는 믿기 어려운 자료를 공개하였다.

근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백주에 ≪사냥≫하듯 랍치하여 성노리개로 유린하다가 전장에서 무참히 학살해 버린 일제의 야수적만행은 지금도 인류를 전률케 하고 있다.

오늘 국제사회가 ≪종군위안부≫범죄를 두고 치를 떨며 일본을 그처럼 혐오스럽게 대하는것은 그것이 가장 극악하고 야만적인 방법으로 감행된 반인륜적범죄이기때문이다.

일제는 ≪군대의 전쟁의욕과 전투능력을 지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서는 그들의 성적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변태적인 군사론리에 기초하여 녀성을 탄약과 같은 전쟁소모품으로 보급하는 치욕의 ≪종군위안부≫제도를 내왔던것이다.

미국작가 마크 트웨인은 말했다.

≪**인간은 얼굴을 붉히는**, 혹은 붉힐 필요가 있는 유일한 존재이다. ≫

일본인들이여, 낯을 붉히라 !

유사이래 일본처럼 간악한 음모를 꾸며대고 일본처럼 야수적으로 타민족을 학살하고 일본처럼 파렴치하게 력사를 부정해 온 나라가 있는가, 없었다.

지금 일본당국자들은 경제대국을 뽐내며 아무데서나 돈주머니를 흔들어 대고 있는데 여기에도 반드시 새기고 넘어 가야 할 문제가 있다. 그것은 ≪고도성장≫을 자랑하는 일본의 산업발전의 기초가 누구의 피와 땀, 재부로 축성되였는가 하는것이다.

일제의 식민지군사파쑈통치기간 무려 600여만명의 조선청장년들이 일본의 고역장들에 끌려 가 피와 땀을 빨리웠으며 수억만금에 달하는 조선의 재부가 일본으로 실려 가 재벌들을 살찌웠다.

일본이 대폭 축소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조선에서 략탈해 간 금은 363톤, 목재는 3, 000여만립방메터이며 쌀과 철광석, 강재, 연, 아연, 마그네사이트 등 각종 자원은 그 수량을 헤아릴수조차 없다.

일제는 조선의 지하자원과 문화유물을 비롯한 물질문화적재부를 깡그리 략탈하다 못해 나중에는 놋으로 된 숟가락과 저가락까지 강탈해 갔다.

1950년의 조선전쟁때에도 일본은 전쟁에 직접 가담하고 일본전토를 미군의 병참기지로 제공한 대가로 막대한 치부를 하였다.

청소한 우리 공화국이 200여만의 제국주의련합세력과 피어린 격전을 벌리고 있을 때 조선의 도시들을 초토화하고 무고한 인민들을 무차별 살륙한 미군의 폭탄들은 일본이 제조하여 조달한것이다. 일본은 그들의 표현대로 ≪불길속에서 밤을 구워 먹으며≫ 재부를 축적했던것이다.

보라, 일본이 덮고 있는 경제대국의 비단이부자리에는 수천만 조선인민의 피와 땀이 질벅히 슴배여 있다.

부언하건대 20세기 초엽부터 오늘까지 옹근 한 세기동안 일본이 조선인민에게 끼친 인적, 물질문화적 및 정신도덕적손실은 일본이라는 나라를 통채로 바쳐도 도저히 보상할수 없는것이다.

그러나 21세기를 바라보는 오늘의 일본에서는 ≪과거지사에 대해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 ≫, ≪력사란 100년정도 지나가야 진실을 알수 있다≫는 사무라이식 ≪력사관≫**이 대두하고 있으며 조선에 대한** 식민지군사파쑈통치가 ≪**합법**≫**이였다는** 오만방자한 강변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백주에 남의 나라 정부기관의 인장을 훔쳐 내고 국가원수의 서명까지 위조해 가며 날조한 ≪조약≫이 ≪합법≫이라면 도대체 이 섬나라에서는 무엇이 비합법인가, 일본정객들의 주장대로 한다면 일제가 감행한 살인, 강간, 랍치도 ≪**합법**≫**이라는** 궤변적론리가 성립되게 된다. 그렇다면 지금 일본당국이 무엇때문에 제나라 땅에서 원인도 모르게 행방불명된 몇사람의 문제를 두고 그 무슨 ≪랍치의혹≫**이요**, ≪법적대처≫**요 하고 떠들며 그처럼 소동을 부리는가**.

국제사회계의 일부에서는 일본의 이 추태를 두고 일본특유의 파렴치성과 교활성을 론하고 있다.

력사적으로 자기 잘못을 뉘우치기 아주 싫어 하며 그것을 정당화해 나서는 일본의 고질적인 악습을 상기해 볼 때 그 론리도 일리가 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그러나 일본우익세력들이 침략과 범죄의 력사를 부정해 나서는것은 그러한 고질적인 악습과 파렴치성때문만은 아니다. 여기에는 언제인가는 반드시 그 력사를 되풀이하여 ≪대동아공영권≫**의 옛 꿈을 실현해 보려는** 야심과 그들 나름대로의 면밀한 타산이 깔려 있다.

현실적으로 일본은 패전후 반세기이상 군국주의 부활을 맹렬히 추진시켜 왔다.

일본우익세력들은 력사교과서의 개악과 ≪야스구니진쟈≫참배공식행사화를 비롯한 각종 계기들을 통해 사회적으로 국수주의적경향을 적극 조장하는 한편 군사적으로는 ≪자위대≫무력의 해외파병과 군비증강, ≪**유사시법제정비**≫**를 다그치며 군사대국화**, 군국화의 길로 줄달음쳐 왔다.

오늘에 와서 일본의 무분별한 령토확장야심은 지어 조선의 독도에 대한 공개적이고도 끈질긴 ≪령유권≫**주장에로까지 이어 지고 있다**.

일본군국주의는 이미 망령이 아니라 위험한 정치적, 군사적실체를 가진 아시아의 침략원흉으로 등장하였으며 한세기가 넘도록 이루지 못한 ≪대동아공영권≫**의 야망을 기어이 실현하려 하고 있다**.

일본이 과거침략사를 한사코 부정하며 군국주의사상을 류포시키는 주되는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일본우익반동세력들이 침략과 범죄의 력사를 부정하는 다른 하나의 목적은 저들이 저지른 반인륜적범죄에 대한 국가적보상을 회피하자는데 있다.



일본은 조선인민과 아시아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재난을 들씌운 전범국이다. 전범국가가 피해국에 사죄와 보상을 하는것은 국제법상으로 보나 인류도덕적견지에서 보나 도저히 회피할수 없는 국가적책임이고 정치도덕적의무이다.

력사적 및 법률적판단이 요구하는 기준은 오직 하나, 일본이 침략전쟁과 군사파쑈통치로 피해를 입힌 모든 나라와 인민, 특히 가장 막대한 피해를 끼친 조선인민에 대한 무조건적이고도 철저한 사죄와 보상을 하는것이다. 일본에 있어서 이외에 다른 기준과 선택이란 있을수 없다.

그러나 일본당국자들은 전후 50여년동안 ≪**유감**≫**이니**, ≪**반성**≫**이니 하고** 사죄하는척 했다가는 곧 ≪사죄불필요≫와 ≪합법≫이라는 망언으로 끝없이 말을 바꾸며 국제사회를 우롱하여 왔다.

유상, 무상의 상표를 붙인 몇푼의 ≪**원조**≫**로 동남아시아나라들에 대한 보상이 끝났다고 공언하고 조선인민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회피하기 위하여** ≪랍치의혹≫**이라는 유치한 모략까지** 꾸며내여 ≪**국민감정**≫**을 운운하며** 20세기를 마지막까지 어지럽혀 온 나라가 일본이다. 일본당국의 파렴치성과 도덕적저렬성은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묻노니 다른 나라의 군대가 만일 일본을 강점하고 600여만명의 일본청장년들을 랍치련행하고 수백만명의 일본인을 학살한데다 20만명의 일본유부녀들을 성노리개로 롱욕하다 잔인하게 학살하고도 오히려 피해자로 둔갑해 나선다면 일본의 ≪국민감정≫이 과연 어떠하겠는가.또 일본의 로동력과 재부로 치부한 나라가 일본에 대고 돈주머니나 흔들며 보상이 아니라 ≪청구권≫을 운운한다면 일본은 어떻게 대응하겠는가.

일본의 정치인들은 력사의 이 물음에 량심적으로, 정직하게 대답해야 한다.

조선인민에게 감행한 일제의 전고미문의 살인, 강간, 랍치, 략탈행위가 몇명의 ≪행불자문제≫**를 들고 다니면서 권모술수를 쓴다고 해서 부정되고** 사라질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다.

일본정객들은 우선 력사앞에 정직해야 하며 인간앞에 성실해야 한다. 정치에 앞서 인간이 있고 법률에 앞서 량심과 도덕이 있다.

듀마의 소설 ≪몽떼끄리스또백작≫**이 아직도** 독자들속에서 애독되고 있는것은 주인공의 복수가 인륜을 무참히 짓밟은 자들에 대한 정의와 량심의 심판이기때문이다.

국제사회의 분노를 더욱 촉발시키고 있는것은 ≪**종군위안부**≫**범죄에 대한** 국가적책임과 보상을 끈질기게 회피하고 있는 일본당국의 태도이다.

최근 일본 도꾜고등재판소는 이전 ≪종군위안부≫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법률상 개인이 가해국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바로 여기에 도이췰란드를 비롯하여 지난 시기에 저지른 반인륜적범행을 뉘우치고 사죄와 보상을 해온 나라들과 구별되는 일본특유의 도덕적저렬성이 있다.

도이췰란드는 전쟁책임을 국가명의로 공식사죄하고 피해국들뿐아니라 개인들까지 보상대상으로 정하여 600억딸라이상을 지불했으며 2030년까지 160억딸라를 더 지불하기로 하였다. 이딸리아와 전시 도이췰란드를 추종한 나라들도 그렇게 하였거나 하고 있다.

만약 일본에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법률적제도가 없다면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종군위안부≫범죄에 대한 무조건적인 보상을 하여야 한다.

해외침략열에 들떠 ≪일미방위협력지침≫관련법이니, ≪**유사시법**≫**이니 하는 호전적인 법들을 해마다 토해 내고 있는 일본이 그렇게 하지 못할** 리유란 없다.

일본은 정의의 심판, 력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력사는 고발한다. 일본은 20세기의 전범국이며 유일하게 전범죄를 청산하지 않고 21세기를 맞는 ≪적국≫이다.

20세기의 력사는 자기의 100년사에 치욕의 자욱을 깊숙이 새겨 놓고도 끝내 반성하지 않은 수치스러운 일본을 영원히 저주할것이다.

세기의 재판 일본국가에 유죄선고

민족시보, 주체90(2001)년 1월 1일



일본군 ≪위안부≫제도를 심판하는 민중법정 ≪여성국제전범법정≫이 지난해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도쿄에서 열려 각국의 피해자들이 제출한 기소장과 피해당사자의 증언, 전문가 증언을 근거로 하여 국제법 전문가들로 구성된 판사단이 쇼와 천왕과 일본국가를 유죄로 하는 판결요지를 선고했다. 이번 국제법정은 일본군에 의해 대규모로 조직적으로 자행된 여성노예제도라는 전쟁범죄를 국제법의 관점에서 그 법적 책임을 밝히고 피해자 구제와 전시 성폭력의 근절을 위해 한국과 일본, 필리핀 등의 시민단체들이 ≪국제실행위원회≫를 구성했다. 남북한과 중국 등지에서 74명의 피해자와 다수의 지원자들이 참가해 연 5,000명의 방청객이 참가했다.

법정에는 먼저 수석검사 패트리시아 셀러씨≪구 유고, 르완다국제전범법정 법률고문 미국≫가 쇼와 천왕과 도조 히데기 등 25명의 개인과 일본국가에 대해 성노예제를 행사해 ≪인도에 관한 죄≫를 범했다하여 소추했다. 그후 기소장 낭독과 남북한, 중국,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 참가한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과 전문가 증언이 잇달았다.

일본의 식민지지배 아래서 가장 많은 여성들이 ≪위안부≫로 연행된 남북은 공동작성한 기소장을 제출하고 피해자 증언과 함께 일본정부의 국가책임을 추궁하고 사죄와 보상, 철저한 사실규명 등을 요구했다.

법정을 준비한 ≪국제실행위원회≫는 피고로 된 일본정부에 대해 출정을 요청했으나 당일까지 아무런 회답이 없었다.

법정 마지막날인 12일, 가브리엘 맥도널씨≪구 유고 국제전범법정 전 소장 미국≫등 4명의 판사가 기초한 ≪관결 요지≫가 약 2시간에 걸쳐 낭독되었다. 관결문에서는 ≪위안부≫제도는 당시 일본도 비준한 강제노동조약과 매춘을 위한 인신매매와 노예화를 금지한 국제법, 국제관습법에 위반되는 성노예제도이며 ≪**인도에 관한 죄**≫**임을 인정하고 전후 평화조약에서도 면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천왕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군의 책임자이며 헌법을 초월한 권한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일본정부도 ≪국가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으면서도 국제법상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천왕과 일본국가의 유죄를 선고, 일본정부에 사죄와 배상 등을 권고했다. 유죄가 선고된 순간 피해 당사자와 지원자 등 1천여명의 방청객들이 모두 일어서 지지하는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이날 판결 요지는 각국정부와 일본 외무성에 보냈다. 이번 소추된 나머지 24명의 사실인정을 포함한 ≪최종 판결≫은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에 발표될 예정이다.





일본은 과거청산 회피할 수 없다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월 28일~2월 3일

사회자 : 안녕하세요.

신수현 : 안녕하세요.

사회자 : 오늘날 세계에서 유독 일본만이 역사의 흐름에 역행해서 과거죄행에 대해 인정도, 사죄도 안하고 있고요, 또 보상문제에 관해서도 별별 술책을 다 써가면서 회피하고 있어서 국제사회의 큰 분노와 비난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와 관련해 애기 나눴으면 합니다. 오늘 죄 많은 과거에 대한 성근한 사죄와 보상은 하나의 국제적 추세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신수현 : 그렇습니다. 제2차세계대전의 주범들인 독일과 이탈리아 등에서는 자기들이 피해를 입힌 나라들과 사람들에 대해 여러 가지 형태로 성근한 보상을 했는데요. 독일은 지난해 연방보상법에 따라 나치스가 저지른 범죄행위로 희생이 된 피해자들에게 이미 ***억 마르크에 달하는 ****습니다. 지난해 7월 17일 독일은요 제2차 세계대전시 나치스정권에 의해 강제노동을 한 사람들을 위한 보상기금 협정을 미국, 러시아, 핀란드 등과 채결을 했는데요, 이 협정으로 백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독일정부와 기업들이 지급하는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이 같은 독일의 과거청산조치를 두고 과거를 깨끗이 청산해야 새 세기에 국제사회의 신뢰를 받으며 여러 나라들과의 연대도 보다 긴밀히 가질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며 국제에서는 독일의 이런 조치에 ** 환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 그리고요, *** 침략전쟁을 도와준 책임을 인정하고요, 피해자들에게 보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신수현 : 네, 그뿐이 아닙니다. 오스트리아 국회에서도 제2차세계대전시기 나치스에 의해 노예노동을 강요당한 사람들에게 4억 1,500만달러를 보상하기 위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구요. 심지어 전범국도 아닌 아르헨티나 대통령까지 국민을 대표해서 자기나라가 제2차세계대전 후에 나치스 분자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해준데 대해 보상할 것을 촉구하고 국제사회에 사죄했습니다. 최근 국제무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같은 흐름들은요 죄악을 말끔히 청산하고 떳떳하게 살려는 것은 시대의 추세고 역사의 흐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사회자 : 네, 근데 말이죠, 지금 이 지구촌에서 오직 일본만이 과거죄행을 인정도 사죄도 안하고 있는데요.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죄악이야말로 그 규모로 보나 잔인성으로 보나 나치스의 범죄를 훨씬 능가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신수현 : 그렇습니다. 과거 일제가 전쟁시기에 방대한 지역에서 벌인 범죄행위는 무엇으로서도 씻을 수 없는 가장 큰 죄악행위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잊을 수도 지워버릴 수도 없는 게 일제의 침략적 만행이잖아요. 일제는 무력으로 한반도를 강점하고 가장 야수적이고 악독한 방법으로 ***** 학살했구요, 우리 민족이 이루어놓은 모든 것을 파괴하고 약탈해 갔습니다. 45년간에 걸치는 일제통치 시기 우리 민족이 입은 인적, 물적,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강요한 불행과 고통은 **만 아닌 정치, 경제, 문화, 정신도덕 등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을 다 포괄하고 있죠. 일제는 강점기간 600여만명을 강제로 끌고가 전쟁터에서 총알받이, 노예노동을 강요하다가 나중엔 대부분을 무참히 학살했잖아요. 그뿐이 아니죠, 때려죽이고, 목 메달아 죽이고, 총으로 쏴죽이고, 대검으로 찔러 죽이고 정말 말 그대로 온 강토를 인간살육장으로, 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사회자 : 일제가 저지른 범죄적 만행중에서도요, 종군위안부 사건은 그건 전대미문의 반인륜적 범죄행위라고 봅니다.

신수현 : 맞아요. 일제야수들은 10대의 소녀로부터 유부녀에 이르는 근 20만 명의 우리나라 여성들을 강제납치, 연행해서 황군의 성노예살이를 강요했구요, 그들 대부분을 무참히 죽였습니다. 오죽했으면요 종군위안부 생존자들이 일제에 대한 원한을 풀기 전에는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없다고 했겠습니까? 종군위안부범죄사건이야말로 인간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야만행위고요, 다시는 지구촌에서 절대로 되풀이 돼서는 안되는 전대미문의 반인륜적 행위입니다.

사회자 : 그런데 일본정부는 전후 보상에 관해서 1951년 9월 8일 채결된 샌프란시스코조약으로 해결된 것처럼 떠들고 있는데 이건 진짜 그야말로 날강도적인 언어도단이 아닙니까?

신수현 : 그래요, 원래 미국의 각본에 따라 채택된 샌프란시스코조약은 일본과의 교전상태가 끝났다는 걸 확인한 강화조약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시 구소련과 핀란드 등은 이에 참석했지만요 일제의 최대 피해자인 우리 나라 남과 북은 물론 중국은 애당초 초청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샌프란시스코조약을 운운하는 건 정말 파렴치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회자 : 네, 그러니까 오늘 세계가 일본의 이 같은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죄규탄하고 있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봅니다.

신수현 : 그렇죠. 일본이 자기의 과거청산문제에 너무나도 파렴치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날 일제의 과거 죄행을 묵인하고 배상문제를 ** 은근히 조장해온 미국까지 반발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미국회 하원의원에서도 제2차세계대전시 일본이 저지른 전범행위에 관한 보상과 책임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미 상원사법위원회도 제2차세계대전시 일본이 전쟁포로들에게 강제노동을 강요한 역사적 법적 문제점들을 토론하기 위해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지난해 12월 8일 도쿄에서는요, 일본과 아시아 각국의 비정부조직들로 구성된 여성국제전범 법정 이 ****서 1,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는데요 국제재판에서는요 일본이 주둔 국가들의 여성들을 강제로 끌어다 성노예생활을 강요해온 사실이 ***만천하에 고발됐구요. 히로이토천황과 정치**등 8명을 전범으로 규정하고 일본이 감행한 세계전쟁사상 가장 조직적이고 악랄한 여성범죄행위에 대해 즉각 사죄하고 보상할 것을 일본정부에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아시아와 세계 여러나라들에서 울려나는 이런 목소리는요 일본이 지난날의 범죄행위를 묻어두고서는 절대로 배겨날 수 없고요, 국제사회에서 성원으로서 살아나갈 수 없다는 걸 시사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사회자 : 네, 일본이 지금처럼 나간다면요, 앞으로는 언제 어떤일이 있더라도 **묵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신수현 : 그렇죠. 일본이 저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과거청산을 회피하면서도 이른바 국제사회에 마땅한 공헌을 해야 한다느니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돼서 아시아와 세계평화에 응분의 기여를 하겠다고 떠들어대는 것은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려는 군국주의적 야심의 발로라고 봅니다. 전세계 양심은 한결 같이 죄 많은 과거를 두고는 ***** 하고 있어요. 일본정부는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세계여론을 귀담아 듣고 옳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자 : 오늘 세계가 새로운 역사적 시대에 들어서고 있는 지금에서 성근하고 성실한 과거청산은 일본자신을 위해서도 미루어서는 안됩니다. 일본은 과거청산을 절대로 회피하지 말아야 하구요, 지난날 우리 민족 앞에 저지른 모든 죄행에 대해서 성실히 사죄하고 하루빨리 국가적 보상을 해야 할겁니다.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신수현 : 감사합니다.



과거청산은 회피할수 없는 일본의 의무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8월 9일~10일

헌법개정 개정을 통한 군사대국화를 거론하면서 교과서왜곡으로 주변국들을 심히 모독하고 있는 일본, ≪과거를 묻지 마세요≫ 정도가 아니라 ≪과거는 정당하기 그지없어요≫라고 강변하는 일본. 이번 이따르타스와의 회견에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본에게 일침을 가하시며 일본과의 관계개선방도를 명백히 하셨는데요. ≪과거청산은 회피할수 없는 일본의 의무≫, 윤정원씨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세요.

윤정원 : 안녕하세요.

사회자 : 이미 보도되었습니다만 주체 90 ≪2001≫년 7월 24일, 김절일영도자님께서는 ≪러시아 이따르타스통신사가 제기한 질문에 주신 대답≫에서 이북과 일본과의 관계문제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주셨는데요. 여기에선 기본은 일본이 지난시기 우리 나라와 민족에게 끼친 죄행을 깨끗이 청산하는 문제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와 관련한 애기를 나눴으면 해서 이렇게 자리를 같이했는데요. 어떻습니까. 과거청산문제는 더 이상 회피할수 없는 일본이 진 의무라고 얘기할수 있잖아요.

윤정원 : 그렇죠. 일본의 과거청산문제는 지난시기 일제가 우리 나라를 무력으로 불법강점하고 식민지통치를 실시해오면서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재난을 가져다 준 범죄행위를 시인하고 그에 대해서 사죄하고 보상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반세기가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는채 내외에서 커다란 관심과 비난의 대상으로 되고 있는 건 전적으로 현 일본정부의 그릇된 태도와 관련된다고 봅니다.

사회자 : 일본의 과거청산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어야 될 문제이지만 그것이 오늘까지도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일본당국이 과거 저들이 저지른 범죄행위를 계속 회피하면서 그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죠.

윤정원 : 이번에 경애하는 김절일영도자님께서는 ≪러시아 이따르타스통신사가 제기한 질문에 주신 대답≫에서 이북과 일본과의 관계는 전적으로 일본의 입장과 태도에 달려있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일본이 지금까지 우리 겨레는 물론 광범한 국제사회의 일치한 지향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과거일제가 우리 나라와 민족앞에 저지른 범죄행위를 인정도 사죄도 보상도 하지않고 회피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되죠. 사실 현 일본당국이 진심으로 이북과의 관계개선을 원한다면 이제라도 과거 저들이 저지른 범죄행위를 시인하고 그에 대해 응분의 사죄와 보상을 하는데 적극 임해야 할겁니다.

사회자 : 그렇죠. 죄많은 과거를 그냥 덮어두고서는 이북과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바란다는 건 사실상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윤정원 : 그렇죠. 과거 일제가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면서 우리 민족앞에 저지른 범죄행위를 논할 때 그것은 일찍이 인류사에 그 유례를 찾아볼수 없는 특대형의 범죄고 국제법상으로도 더 이상 용납할수 없는 잔인한 범죄행위인겁니다. 아시다시피 일제는 식민지통치 45년간만해도 근 20여만명의 우리 여성들을 종군위안부로 강제연행해서 황군의 성노예로 만들었고 600여만명에 달하는 우리 청장년들을 징병과 징용으로 끌어다가 마소와 같이 혹사했는가 하면 100여만의 조선사람들을 야수적으로 학살처형하는 인간도륙행위도 서슴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수많은 자원과 문화재들을 강탈해서 치부한 죄악들이 논박할수 없는 역사적 사실자료로 계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본당국은 이에 진심으로되는 사죄와 보상을 할 대신 오히려 얼토당토한 이러저러한 구실을 붙이면서 과거청산을 계속 회피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민족과 인류의 양심에 대한 모독이고 정의에 대한 도전이 아닐수 없어요.

사회자 : 그러면요. 과거청산이 왜 회피할수 없는 일본이 진 의무로 되느냐 하는 겁니다.

윤정원 : 그건 우선 과거청산문제가 국제법상으로 보나 나라들사이의 관계로 보나 일본이 피해국인 우리 민족앞에 반드시 사죄하고 보상해야할 그런 성격의 법적, 도덕적의무라는데 있다고 봐요. 현 일본당국이 과거일제가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보상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요.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도 그렇고 국가와 국가간의 상호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보상하는건 도덕적으로 봐도 그렇고 법적으로 봐도 당연한 거잖아요. 나라와 나라들사이에도 역시 같다고 봅니다. 범죄를 가한 나라와 민족이 피해를 입은 나라와 민족앞에 자기가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서 사죄하고 보상하는건 국제법상 지녀야할 도덕적의무이고 도리입니다. 그런데도 일본당국이 우리 민족앞에 잔인무도한 엄청한 범죄행위를 감행하고도 안하무인격으로 지금까지 인정도 사죄도 보상도 하지 않은채 계속 회피하고 있는건 그들에게 진정으로 이북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작태가 아닐수 없습니다.

사회자 : 그렇죠. 또한 일본의 과거청산문제는 시대의 흐름으로 봐도 반드시 해결해야할 초미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윤정원 : 그럼요. 아시다시피 현시대는 자주와 평화, 협력과 교류를 지향해 나가는 것이 하나의 세계적인 추세로 되고 있잖아요. 시대의 이러한 흐름에 부응해서 나라들 상호간에도 서로 신뢰와 내정불간섭의 원칙에서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죠. 그런만큼 일본도 역시 이웃인 이북과의 새로운 선린우호관계를 수립해 나갈 것을 원한다면 마땅히 잘못된 과거를 사죄하고 보상을 해야 합니다. 과거 일본과 함께 인류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 주었던 독일과 이탈리아는 지난날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진심으로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유독 일본만이 아직까지도 저들이 저지른 과거범죄행위를 성근하게 반성하려하지 않고 있을뿐 아니라 오히려 저들의 불미스러운 과거를 미화분식하고 정당화하며 그를 영영 묻어버리려고 분별없이 책동하고 있어요. 과거청산에 대한 일본의 이런 온당치 못한 태도와 입장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행위이고 인류의 양심에 대한 도전이 아닐수 없습니다.

사회자 : 윤정원선생님, 도움이 되는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정원 : 감사합니다.

네, 현 일본당국은 시대의 흐름을 바로 보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할 겁니다. 일본이 과거죄행을 깨끗이 청산하고 북에 대한 적대시정책과 적대행위를 안한다면 북일관계는 개선될수 있을 겁니다. 이건 일본자신을 위해서, 일본국민을 위해서 절실히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일본이 군비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구국의 소리, 주체89(2000)년 12월 27일~주체90(2001)년 1월 6일



이미 보도된 것처럼 지난 24일 일본정부가 제출한 ≪2001 회계연도 군비지출 보고≫에 따르면 일본이 예산에 올해보다 더 늘어난 4조 9, 553억엔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군사비로 지출하기로 했습니다. 그중 7, 610억원에 달하는 자금은 현대적인 군사장비 **이며 그것도 에프*전투기 12대, 97탱크 18대, 구축함과 잠수함, **을 비롯한 많은 군사장비들이 다음해 생산되거나 대비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일본정부는 자위대가 *** 수역에서도 군사행동을 마음데로 벌일 수 있도록 새 세기에 **을 자체 개발하도록 계획하고 이를 위해 *** **는 새 세기 반잠수함이나 **을 개발 대비하는데 총 340억엔을 탕진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일본반동들의 해외침탈 책동이 극도에 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해외침탈 책동을 반대하는 아시아 나라들과 세계 진보적 인류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으로 말하면 제 2차 세계대전 전패국으로서 국제법상 정규무력을 가지지 못하게 돼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 자위권 행사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일본 헌법을 보더라도 일본은 일체의 정규무력을 가지지 않으며 다른 나라들을 반대하는 전쟁과그와 같은 군사행동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군을 자위대로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반동들은 지난 기간 국제법적 요구와 자국헌법을 무시하고 비밀리에 무력증강에 박차를 가해왔습니다.

그 어떤 ** 첨단 무기로 장비한 수많은 함선들과 항공기, 대포와 탱크, 미사일을 비롯한 대규모 군사장비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뿐 아니라 1997년 10월에는 미국과 이른바 ≪주변유사시 공동대응전≫의 미명하에 ≪방위협력지침≫을 채택한데 이어 99년에는 일본측에서 ≪방위협력지침≫ 관련법등을 채택함으로서 마침내 교전권을 갖게 됐으며, 해외침략에 합법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새해 군비예산을 대폭 늘리고 현대적 무장장비 구비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일본반동들의 해외침략활동이 현실적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말해준다 하겠습니다. 사실 아시아 나라들을 비롯한 국제사회들에서 일본의 무력증강책동을 반대해 나서고 있는 것은 국제법적 이유에 앞서 지난 시기 일본이 아시아 나라들에게 입힌 막대한 피해와도 관련됩니다. 특히 일본은 우리 나라를 45년간이나 강점하고 **없는 물적피해를 입힌 것은 물론 우리민중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재난을 덮씌웠습니다. 이로부터 주변국과 아시아 나라들을 비롯한 국제사회계는 일본의 해외침탈 책동음모인 무력증강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면서 이에 반대해 나서고 있는 것이며 일본이 피해를 끼친 나라들에 대해 사죄와 보상을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죄와 보상은 고사하고 오직 군력 증강에만 혈안이 돼 있는 것은 일본의 해외침략야망에는 변함이 없으며 일본반동들에 의해 불의의 재난이 기필코 터트려지리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반동** ≪주변유사시≫란 한반도를 염두에 두는 것으로서 *** 또다시 침략하기 위해 얼마나 발광하고 있는가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반동들의 노골화되는 이같은 전쟁책동은 우리민족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을 전쟁의 참화 속에 몰아넣고 재난과 고통을 또 한번 강요하는 것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각계민중은 일본반동들의 반인류적인 전쟁책동에 경각심을 높이고 그의 해외침탈 파탄시켜야 할겁니다. 감사합니다.

변하지 않는 일본의 지배주의적 야망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월 28일~2월 3일



임현아 : 지금 국제사회에선 군사대국화의 길로 나가는 일본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죠?

박진수 :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요 해외침략의 길에서 참패를 당한 지난날의 교훈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 또다시 기가 살아나서 해외침략을 위한 군사대국화의 길로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이 또다시 해외침략의 길에 나선다면 일본이라는 섬은 출항도 못해 보고 가라 앉는 배의 신세를 면치 못한다는 걸 알아야 할 겁니다.

임현아 : 네 그렇습니다. 변하지 않는 일본의 지배주의적 야망 , 신수현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수 : 안녕하세요.

신수현 : 안녕하세요.

박진수 : 지금 일본반동들이 ***과 시대적 지향에 역행을 해서 군사대국화를 위한 무력증강과 군비확장에 더욱더 광분하고 있어서 지금 국제사회와 강한 조소와 규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한 문제를 갖고 얘기를 나눴으면 하는데요.

임현아 : 일본반동들이 군사력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는 건요. 우선 군사비지출을 엄청나게 늘린데서 찾아볼 수 있죠?

신수현 :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15일 일본정부의 국가안전보장회의와 내각회의에서는요, 올해부터 실시될 새 군비방위력 정비계획기간에 25조 1, 600억원의 군사비를 지출 할 것을 발표했는데요. 그것은 이전 군사비보다 9.300억원이나 더 늘어난 것으로서 일본역사상 처음으로 되는 막대한 군사비입니다. 새무장 장비도입과 개도만도 무려 4조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뿐 아니예요. 일본반동들은요 독자적인 군사미사일개발을 위해서도 막대한 자금을 책정했습니다.

임현아 : 네, 그래요. 지금 일본반동들은 최근에 와서 재침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마련하는 걸 목표로 내세우고 있고요, 또 그것을 완전히 결속 짓는 방향에서 정책을 조정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임현아 : 지난 12월 일본정부는요 일미방위협력지침 이행을 위한 조치의 하나로 선박검색법이라는 걸 제정했는데요. 유사시 일본자위대가 공동국제항로와 공해에서 무기를 사용하면서 외국선박들을 검열하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한다는 이른바 선박검색법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일본자위대의 해상공격작전을 합법화한 아주 위험한 겁니다. 이 법이 제정됨으로서 일본자위대는 공해해상에서 군사작전을 벌일 수 있게 됐죠.

박진수 : 네, 그렇죠. 어디 그뿐입니까? 해외침략에 필요한 법제정들을 실현시키려고 호시탐탐기회만 노려온 일본반동들이 지금 집단적 자위권행사와 이른바 천황을 국가원수로 헌법에 명기할 것을 들고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허용되는 경우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와 같이 천황의 결심과 명령에 따라 침략전쟁을 벌일 수 있게 되죠. 이건요 일본의 해외침략 견지에서 매우 주목되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일본반동들은 군사대국화와 해외팽창의 야망 밑에 핵무기 생산과 자위대무력의 현대화를 위한 책동에도 광분하고 있죠.

신수현 : 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플루토늄 생산을 위해서 **연료가 핵연료 재처리공장이 있는 것처럼 *****데요. 그리고 일본반동들은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의 비상공격능력이 지연되어 있다고 하면서 공중급여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공중급여에 의해 전투기를 공중보급함으로서 지상에서 축적하는 것보다 재빨리 비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일본반동들이 공군자위대 전투기의 항속거리를 늘려 어디에까지 재침의 손을 뻗치려 하고 있는가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은 거죠.

임현아 : 해상자위대무력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일본반동들은 해상자위대무력의 효율성과 기동성, 작전능력을 높이기 위한 책동에 광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수현 : 현재 일본해상자위대는 한척당 10억달러가 넘는 이지스함을 4척이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지스함은 함대 배급능력을 담당하는 이지스체계를 감지하는 **함선으로서요, 여러 목표를 동시에 포착해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5년 동안에 전자체계와 레이더체계를 장비할 수 있는 여러 척의 이지스함을 더 도입하려고 책동하고 있어요. 심지어 새경비방위력정비교육기간에 2척의 항공모함형 함선까지 건조하려고 획책하고 있는데요. 일명 헬기항공모함형 호의선이라고 부르는 이 함선은 말이죠, 암반헬기, 수상헬기 등 여러대의 헬기들이 동시에 이착륙할 수 있도록 넓은 갑판과 격납고까지 갖춘 1만 5천톤급의 자위대의 최대함선으로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반동들은 또 내외의 경계심과 압력이 두려워서 새로 건조될 이 함선이 겉보기에는 항공모함선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선이라고 내외여론을 기만하고 있죠. 그뿐이 아니예요, 일본반동들은 신형무장장비들을 대비하는 것과 함께 육상자위대 수상기를 새로 편성했고요, **무력을 창설하고 핵 및 생화학적 능력을 보유하기 위한 책동에도 발광하고 있습니다.

박진수 : 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일본국회내외는 정치세력의 파벌싸움으로 위기가 조성되고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도 일본반동들은 군사력증강에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신수현 : 말하자면 대세에 역행해 일본에서는 군국주의 침략적 **까지 단행하고 있습니다.

박진수 : 그렇습니다. 이 같은 사실들은요 해외침략을 지배주의적 목적을 이루어 보려는 군국주의자들의 침략적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걸 뚜렷이 실증해 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말씀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수현 : 감사합니다.

임현아 : 감사합니다.

무엇을 노린 유사시법제 정비검토인가

구국의 소리, 주체 90(2001)년 4월 18일~4월 21일



박진수 : 안녕하십니까?

윤정원 : 네, 안녕하세요.

박진수 : 최근 일본 반동들이요, 유사시사태 정비검토를 다그치려고 책동해서 내외의 항의와 규탄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엔 무엇을 노린 유사시법제 정비검토인가 이런 화제로 얘기를 나눴으면 해서 이렇게 자리에 모셨습니다.

윤정원 : 최근 일본정부가 유사시법제 정비와 같은 군사적법제의 검토에 착수하기 위해서 안보***의 국장급회의를 시급히 열기로 결정했거든요. 내각관방장관은 몇 일전 의회에서 유사시 법제정비검토와 관련해 국회에서의 시정방침연설이나 답변으로 이미 총리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면서 곧 내각관방을 중심으로 실무작업에 들어간다고 정식표명을 했어요.

박진수 : 이것은 일본지배층의 해외침략책동이 날로 무모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사실 유사시법제란 곧 전시법체제를 의미하죠.

윤정원 : 네, 맞아요. 알려진 것처럼 일본은 이미 일미방위협력지침에 따라 자위대의 참정권과 교전권을 획득했습니다. 또 치안**협정을 개정하고 선박검사법 등을 제정했어요. 그런가하면 방위청을 성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책동과 육상자위대의 **** 등을 벌이고 있어요. 하지만 일본반동들은 이런 것만 가지고서는 해외침략을 노린 유사시대응을 위한 국력확대화와 전시동원체제를 원만히 수립할 수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로부터 들고 나온 것이 바로 유사시법제정비검토인거죠.

박진수 : 오늘 일본을 위협하고 침략려고 하는 나라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전시법체제인 유사시법제를 검토해서 완성해야할 이유가 일본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일본반동들이 유사시법제 정비검토를 서두르는 목적이 무언가 하는 건데요.

윤정원 : 그건요 유사시법제의 완비를 실현해서 임의의 지역에서 해외군사작전을 벌이며 무력 간섭과 침략행위를 적극 감행하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일본반동들은 유사시법제 정비를 완성해서 일본의 권력구조, 정치체제, 정규군사체제를 전시에 걸맞게 만들고 모든 군사적, 인적, 물적자원과 잠재력을 해외침략에 총 동원할 수 있도록 법제화, 제도화하려고 책동하고 있어요

박진수 : 유사시법제 정비검토문제가 오늘 처음으로 제기된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윤정원 : 네, 지난 시기 이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일정하게 되어 왔으나 일본반동들은 내외여론이 두려워서 유사시법제 정비검토를 내놓고 논하지 못했죠. 1997년부터 유사시법제 정비검토작업을 시작한다고는 했지만 공개적으로는 하지 못했죠.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공개적으로 본격적인 실행단계에 들어서고 있어요. 지금 일본정세는 매우 살벌하잖아요. 군국주의광신자로 알려진 ****, 오시하라와 같은 자들이 때를 만난 듯이 떠들고 해외침략을 부추기고 있어요. 역사교과서왜곡과 같은 군국주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정치적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일본총리 사임문제가 있은 후 *** 일본정부가 혼란상태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일본반동들은 바로 이로부터의 출로를 해외팽창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죠. 유사시법제 정비검토를 공개적으로 다그치는 것도 이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박진수 : 일본반동들은 유사시법제 정비검토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정원 : 일본반동들은 당장 목이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총리를 내세워 유사시법제 정비검토를 다그치도록 한 사실이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반동들은 총리의 지시를 **로 유사시법제 정비를 합법적으로 달라붙고 있어요 이것은 일본 반동들의 해외침략 책동은 날로 무모해 지고 있으며 본격적인 시행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는 거 그걸 잘 보여주고 있죠

박진수 : 유사시법제 정비가 완비되는 경우 그 첫 대상은 한반도라 보는데요. 그건 일본반동들이 이북의 위협과 한반도 유사시대응에 대해 요란스럽게 떠들어 대고 있는 사실이 그걸 잘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현실을 똑똑히 보고 무분별하게 날뛰지 말아야 할겁니다. 만약 일본반동들이 또다시 재침의 길로 나선다면 우리민족과 국민들은 지난날 일본이 저지른 죄행의 값을 천백배로 받아낼 겁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윤정원 : 감사합니다

침략전쟁 준비에 들뜬 일본반동들의 무분별한 작태에 대해 이야기 드렸습니다. 일본지배층은 수치스러운 과거를 왜곡할 것이 아니라 과거를 솔직히 반성하고 교훈을 찾으며 분별있게 처신해야 할겁니다.

일본의 위험한 해외침략준비책동을 폭로

로동신문

≪평양 주체 90년 4월 21일발 조선중앙통신≫

21일부 ≪로동신문≫은 해외침략야망을 실현하려는 일본반동들의 책동이 발광적으로 감행되고 있는것과 관련한 개인필명의 글을 실었다.

얼마전에 진행된 일본국회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일본륙상≪**자위대≫가 가상 ≪적국≫을 설정한 전쟁계획을 비밀리에 작성한 사실이** 드러 났다.

공개된 ≪대인전투의 존재방식 연구구상≫이라는 제목의 륙상≪**자위대≫ 내부문서에 의하면 이미** 1997년에 륙상≪**자위대≫가 주변나라들을 가상 ≪적국≫으로 설정한 극비전쟁계획인 ≪장기방위전망**≫이라는것을 작성하였다고 한다.

신문은 일본이 ≪대동아공영권≫**의 옛 꿈을 새 세기에 기어이 실현해 보려고 어리석게 망상하면서 해외침략전쟁준비를** 로골적으로 감행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신문은 일본이 가까운 시일내에 ≪**유사시법제≫의** 립법화를 위해 관계법령의 재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일미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있는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또한 신문은 잠수함 ≪마끼시오≫**호를 정식** 배비하고 일본 해상≪자위대≫에 ≪특별경비대≫를 새로 편성하였으며 고속순찰정 7척과 직승기들을 탑재하고 있는 대형순찰함 2척에 대한 특수강판설치를 끝내는 등 일본≪자위대≫의 무장장비현대화책동이 더욱 로골화되고 있는데 대해서도 지적하였다.

필자는 일본의 해외침략에서 첫번째 공격대상은 조선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이번에 짧은 시간안에 조선경내에 침투할수 있는 ≪f－2≫ **지원전투기를** 미사와기지에 배비한것은 이미전부터 조선의 그 무슨 ≪미싸일기지≫**를 폭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온 일본반동들이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 취한 위험한** 군사적조치이다.

극비전쟁계획까지 짜 놓고 로골적으로 해외침략준비책동을 강화하고 있는 일본군국주의세력은 오늘 위험한 침략세력으로 되고 있다.

일본반동들이 한사코 재침의 길에 나선다면 그들은 파멸의 운명을 면치 못할것이다.

일본의 위험한 헌법개정시도

조선중앙통신 론평

≪평양 5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

지금 일본자민당 간사장 야마사끼가 전쟁을 포기한 일본헌법 제9조와 기타 조항들을 수정할데 대한 헌법개정초안을 내놓아 주목을 끌고 있다.

그가 작성한 헌법개정초안에 의하면 지금까지 ≪평화헌법≫이라 표방 해온 헌법 제9조에서 륙해공군무력을 가지지 않으며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 조문들이 삭제된 반면 일본의 ≪집단적자위권행사≫**가 공공연히 주장되고 있다.**

일본이 하나의 주권국가로서 자국의 실정에 상응하게 헌법을 수정할수 있다고도 생각할수 있지만 여기에는 정치, 군사적으로 도저히 허용할수 없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그것은 야마사끼의 주장대로 헌법이 수정된다면 범죄적인 과거를 청산하지 않고 침략야망에 가득차있는 일본이 곧바로 군사대국화와 해외침략에로 질주할수 있는 합법적인 토대가 완비된다는 점이다.

물론 일본이 패전후부터 줄곧 군사대국화에 치중해 왔으며 최근년간에는 ≪일미방위협력지침≫관련법 채택을 통하여 참전권과 교전권을 복귀하는 등 ≪평화헌법≫을 야금야금 무력화시켜 온것은 사실이다.

또 일본 우익세력들속에서 ≪**평화헌법≫을** 페지해야 한다는 론의가 오래전부터 진행되여 왔다는것도 비밀이 아니다.

그러나 집권자민당의 갖제 2인자갔인 간사장이라는 사람이 공공연히, 그것도 공식적으로 군사대국화를 합법화할 헌법개정안을 들고 나왔다는것은 현 일본정부의 정치, 군사적 경향성을 특징 지을수 있게 하는 스쳐 지날수 없는 사건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군사대국화와 군국화가 일본에서 이미 론의단계, 준비단계를 벗어나 바야흐로 정책화되고 있다는것을 실증해 주고 있다.

일본은 전범국이자 전패국이며 인류에게 참을수 없는 재난을 들씌우고도 유일하게 과거청산을 회피하고 있는 나라이다.

때문에 일본은 전쟁을 수행할수 있는 정규적인 무력을 가지지 못하게 되여 있고 ≪적국≫의 오명조차 벗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이 정규무력보유와 집단적자위권행사가 헌법적으로 인정되면 걷잡을수 없이 군사대국화되고 미국의 세계제패전략에 가담하여 아시아재침에 나서게 되리라는것은 일본의 과거행적과 오늘의 정치, 군사적 경향으로 볼 때 기정사실이나 다름 없다.

일본의 헌법개정시도는 이처럼 커다란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일본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받는 일원으로 되는 길은 군사대국화와 ≪집단적자위권행사≫**에** 있는것이 아니라 성실한 과거청산과 평화수호에 있다는것을 일본 정객들은 알아야 한다.

심상치 않은 ≪자위대≫무력의 해외파견

로동신문

≪평양 5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

미국을 비롯한 6개 나라 해군무력이 참가하는 다국적기뢰해제 연습에 일본은 해상≪자위대≫ 소해함정 3척과 약 230명의 병력을 파견한다고 일본방위청이 밝혔다.

한편 일본반동들은 미국의 주도하에 벌어 지는 지역분쟁을 가상한 공동군사연습 ≪코브라 골드≫에 처음으로 옵써버로 참가하기 위해 륙해공 **≪자위대≫의 우두머리** 8명을 파견하였다.

오늘호 ≪**로동신문**≫ 론평의 필자는 이러한것은 일본반동들이 해외침략준비를 각방으로 다그치고 있으며 그것이 실천적단계에로 넘어 서고 있다는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일본반동들이 ≪자위대≫무력을 일본밖의 멀리에 파견하여 소해훈련을 진행하려는것은 매우 심상치 않다. 섬나라인 일본에 있어서 해외침략을 위한 기본 군사작전은 해상공격작전이며 소해작전은 그 선행공정이다.

일본반동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침략전쟁연습에 빈번히 참가함으로써 일본 ≪자위대≫를 지역과 대상에 관계없이 해외에서 제한 없는 군사작전을 벌리며 해외팽창의 길로 소리치며 내달리게 준비시키려 하고 있다.

일본반동들이 ≪주변유사시≫ 미국과의 ≪공동대처≫를 표방하면서 침략의 첫 대상으로 삼고 있는것은 다름 아닌 조선반도이다.

이미 조선재침각본을 짜놓은 일본반동들은 ≪자위대≫의 주력을 조선반도와 가까운 서부일본지역에 집중배치하는 한편 해상상륙작전 등 공격작전연습들을 광란적으로 벌려 왔다. 해외에서의 군사연습참가는 바로 그 준비를 더욱 다그칠것을 노린것이다.

일본반동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미국의 대조선전략에 따라 조선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 주력을 조선전선에 투입하여 재침의 꿈을 이루어 보려 하고 있는것이다.

그러나 일본반동들이 해외침략에서 얻을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해외침략은 파멸에로 가는 길이다.

마음대로 무기를 휘두르려고

로동신문

≪평양 6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

오늘호 ≪**로동신문**≫**은 ≪마음대로 무기를 휘두르려고≫라는 제목으로 된 개인필명의** 론평을 실었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일본반동들이 해외에서의 ≪자위대≫ 무장활동범위를 넓히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그들은 지금의 유엔평화유지활동을 ≪협력≫하는데서 무기사용이 제한되여 있기때문에 ≪**자위대**≫**가 자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손발을** 묶이운 상태이라고 하면서 유엔평화유지활동에 참가하는 ≪자위대≫가 작전에 원활히 대처할수 있게 ≪유엔평화유지활동협력법≫을 수정하여 무기를 마음대로 사용할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렇게 하여 유엔평화유지활동에 참가하는 ≪자위대≫원들이 개인의 ≪신변보호≫는 물론 다른 나라의 대원이나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국제기구 직원들의 생명을 지킬수 있게 해야 한다는것이다. 이것은 ≪평화유지≫의 간판밑에 ≪**자위대**≫**가 임의의 지역에서 무기를 마음대로** 휘두를수 있게 하자는것이다.

일본의 ≪유엔평화유지활동협력법≫은 ≪자위대≫의 해외파견을 법적으로 허용한 범죄적문서이다. 일본은 1992년에 제정한 ≪유엔평화유지활동협력법≫에서 ≪자위대≫의 무기사용을 금지하였다. 일본반동들이 이렇게 한데는 ≪평화헌법≫의 준수를 요구하고 ≪자위대≫의 해외출병을 반대하는 내외의 여론을 눅잦히기 위해서였다. 말하자면 ≪자위대≫의 유엔평화유지활동참가가 순수 ≪평화≫와 ≪인도주의≫를 위한것이라는 인상을 풍기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우선 ≪자위대≫의 해외출병을 허용하고 점차 그 길을 넓혀 나가려 하였던것이다. 일본반동들은 쥐 소금 녹이듯이 그것을 하나하나 실현하고 있다.

실지로 그들은 유엔평화유지활동에 참가하는 ≪자위대≫원들의 ≪신변보호≫의 구실밑에 지휘관의 ≪승인≫하에 무기를 사용하는것을 허용하였다. 그 다음에는 ≪위급한 상황≫하에서는 지휘관의 승인없이도 무기를 사용할수 있다고 하면서 무기사용제한조치를 대폭 완화하였다. 이제 와서 일본반동들은 이것 역시 현시기 유엔평화유지활동의 성격과 요구에 맞지 않는다는것이다. 즉 일본이 유엔평화유지활동에서 피동이 아니라 주동적역할을 놀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자위대≫가 기본전투작전에 참가하도록 하는것과 함께 무기를 마음대로 사용할수 있게 해야 한다는것이다.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 일본반동들은 ≪유엔평화유지활동협력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처음에는 ≪자위대≫의 해외파견문제를 놓고 남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행동하던 그들이 이제는 어벌이 커져서 다른 나라들을 대상으로 마음대로 총포를 쏠수 있게 만들려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가.

일본반동들은 해외침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그들은 한발자국 내짚었다가 내외여론이 비발치듯 하면 뒤걸음치거나 주춤하는척 하다가는 여론이 좀잠해 지면 다시 한걸음두걸음 내짚는 식으로 해외침략의 문을 열어 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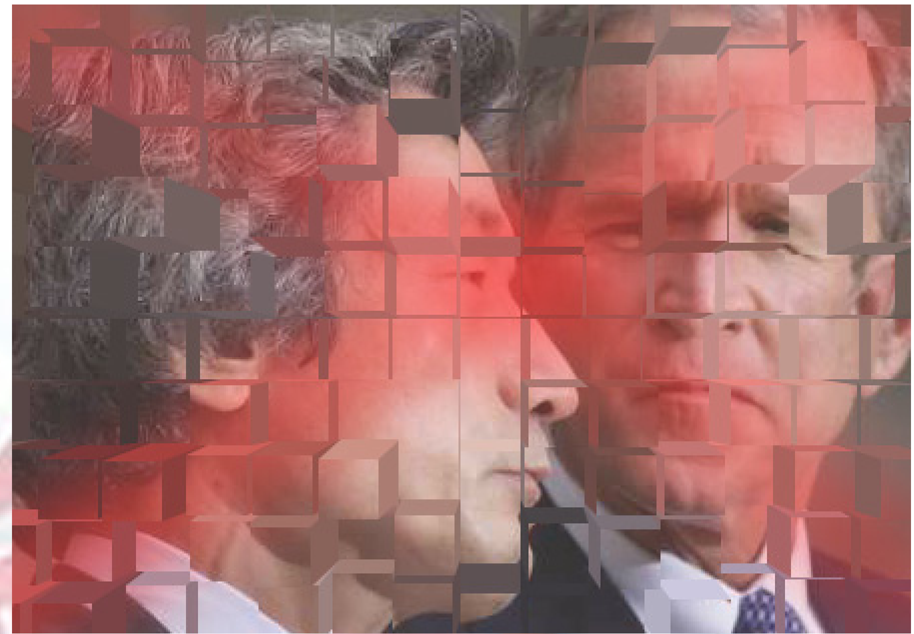
사실 지금 일본의 ≪평화헌법≫은 있으나마나한 존재로 되고 있다. 일본은 마음대로 해외침략전쟁을 벌릴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마련하여 놓았다. 새로운 ≪일미방위협력지침≫관련법제정으로 ≪자위대≫의 교전권과 참전권이 복귀되였다. 여기에 해외에서 마음대로 무기를 사용할수 있게 허용되면 ≪자위대≫는 단독으로 해외침략전쟁터에 본격적으로 나설수 있게 된다.

일본반동들이 해외파견 ≪자위대≫성원들의 무기사용에 중점을 두고 ≪유엔평화유지활동협력법≫을 뜯어 고치려고 하는것은 세계 임의의 지역에서의 군사작전을 노린것이다. 이것은 곧 해외침략을 의미한다.

일본반동들은 결코 평화를 바라지 않는다. 그들은 ≪평화≫의 간판을 들고 해외침략야망을 이루어 보려 하고 있다. 현실이 보여 주는것처럼 일본반동들의 해외침략책동은 실천단계에 들어 서고 있다. 그들이 해외침략의 길에 나선다면 침략과 전쟁을 일삼던 일제와 같은 비참한 운명을 면할수 없을것이다.

미일이 지역안보문제에서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7월 1일~7월 7일



이미 보도된 바와같이 지난 6월 30일 미국의 캠프 데이비드에서 진행된 회담후에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미국대통령 부시와 일본 수상 고이즈미는 이북문제와 기타 지역안보문제에 대해서 **들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으며 미군의 동북아시아 전담경비를 유지할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미일이 지역안보에서의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토의사업을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앞서 워싱턴에서 있은 일본 외교당국자와 미국대통령 부시, 미국무장관 파월사이의 회담에서 일본과 미국이 일미안보동맹강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북을 겨냥한 위험한 군사적 결탁이고 전쟁모의라 하겠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떠드는 협력강화란 곧 미일사이의 군사적 결탁의 강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은 새 세기에 들어와서 미일간의 협력강화와 지역안보를 운운하면서 군사적 결탁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군사적 결탁을 강화하려는 저의가 어디에 있는가하는 겁니다. 그것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일본의 자위대무력을 투입하자는 것이고 주일미군을 계속 주둔시키려는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하면 일본은 미국을 등에 업고 군사대국화를 실현하며 공공연히 해외침략에 나서려는데 있는 것입니다. 국제사회가 과거 침략국이였으며 지금도 적국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 경계하고 있는 여건에서 협력강화의 간판밑에 미국의 전쟁마차에 올라앉아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이뤄보려는 것이 일본의 타산입니다.

유엔평화유지군에 자위대를 참가시키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며 독자적인 미사일방어체제를 세우려는 것은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습니다. 미일간의 군사적 결탁의 화살은 이북에 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를 발판으로 해서 아시아의 작은 나라들을 침략하려는 것이 그들의 음흉한 기도입니다.

미일군사적결탁의 강화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 번영에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더욱이 지역정세를 엄중한 국면으로 몰아가는 ******.

우리 민족과 아시아 민중은 침략과 전쟁을 가져오는 미일의 군사적 결탁강화책동을 각성있게 대하며 그것을 억제시키기 위해 투쟁함으로써 무서운 재난을 미리 막아야 합니다.

각계 애국민중은 미일의 군사적 결탁의 위험성을 똑똑히 인식하고 이땅에서 주한미군과 핵무기들을 철수시키기 위한 반전반미투쟁을 더욱 광범히 벌이며 일본 반동들의 재침야망을 결음마다 저지파탄시켜야 합니다. 각계 민중이 사상과, 정견, 신앙의 차이를 초월해 굳게 뭉쳐 중단없는 투쟁을 벌여나간다면 능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미일반동은 우리 민중의 강력한 반일, 반미투쟁에 직면하기 전에 한반도에서의 침략야망을 버리고 이땅에 배비한 침략무력들을 모두 철수시키며 북을 겨냥한 모든 전쟁모의와 훈련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함 없는 조선재침야망

로동신문

≪평양 7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

오늘호 ≪**로동신문**≫**은** ≪변함 없는 조선재침야망≫이라는 제목으로 된 개인필명의 론평을 실었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지난 세기 초부터 조선을 강점하고 40여년간이나 식민지통치를 실시한 일본은 일제패망후에도 옛 지배질서를 되살리려는 야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지난 조선전쟁시기 일본반동들은 미국상전에게 조선반도를 일본의 식민지로 넘겨 줄것을 요구하였었다. 최근 공개된 당시의 미군기밀문서에 그것이 밝혀 져 있다. 그에 의하면 당시 일본우익반동들은 맥아더사령부에 수차례 ≪**청원서**≫**를** 보내여 일본청년들을 조선전선에 ≪의용군≫으로 보내 주는 대가로 조선반도의 ≪재식민지화≫**를 간청하였다고 한다**.

지난 조선전쟁시기 일본은 ≪의용군≫뿐아니라 전선과 후방의 모든 부문에 ≪황군≫잔당들을 파견하여 미제의 조선침략을 적극 지원하였다.

전쟁이 일어 난지 한달후인 1950년 7월 27일 영국의 로이터통신은 벌써 조선전쟁에 참가한 구일본군수가 2만 5,000명에 달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미제침략군의 인천상륙작전과 원산상륙작전에 앞서 기뢰를 해제하는 소해작업의 대부분을 구일본해군인원이 맡아 수행하였다는것은 잘 알려 져 있다. 일본은 수많은 차량과 선박을 동원하여 조선전선에로 미제침략군 군사인원과 무기, 탄약, 군수물자를 수송하였다. 온 일본땅이 조선침략전쟁을 위한 미군의 출격기지, 병참보급기지, 수리기지로 복무하였다.

당시 ≪유엔군≫사령관이였던 릿지웨이는 일본의 전면적협조가 없었더라면 미군은 조선에서 3개월도 견디여 내지 못하였을것이라고 실토하였다.

일본반동들이 조선전쟁에 적극 가담하여 미국상전을 힘 자라는껏 뒤받침해 준것은 검은 속심을 품고 있었기때문이다. 그것은 우리 공화국을 말살하고 전 조선을 자기의 식민지로 만들자는것이였다.

조선전쟁이 끝난 후에도 조선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지배야망은 약화된것이 아니라 더욱 부풀어 올랐다. 그들은 38도선을 압록강밖으로 물리치는것이 ≪**일본외교의 의무**≫**라고 하면서 조선의 통일을 기를 쓰고 방해하였으며 조선반도정세가 긴장될 때마다 미군과 함께 전쟁돌입태세를** 취하군 하였다.

일본침략무력인 ≪자위대≫의 작전계획에서 우리 공화국은 첫 공격대상으로 되고 있다. 일본은 최신군사장비로 ≪자위대≫를 무장시키고 있을뿐아니라 핵무장을 비밀리에 추진시키고 있다. 지금에 와서는 우주를 군사화하기 위한 독자적인 ≪미싸일방위≫**체계를** 구축할데 대해서까지 공공연히 떠벌이고 있다.

모든 분야에서 전쟁준비를 다 갖춘 일본은 ≪자위대≫무력의 해외파병의 문을 여는것을 당면과제로 제기하고 있다.

해외침략에 환장한 일본반동들은 일본주변에서 미군이 다른 나라를 침공하여 보복공격을 받는 경우 그것을 자기에 대한 침략으로 인정하고 전투행동에 나서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 도발하는 새로운 조선침략전쟁에 일본≪자위대≫를 출동시킬 구실을 마련하자는것이다. 그를 위하여 일본반동들이 만들어 놓은것이 ≪**주변유사시법**≫**이다**. 최근 일본방위청은 이른바 ≪정체불명의 배≫를 목표로 한 ≪령역경비≫**에 관한** 법정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한다.

보는바와 같이 일본반동들은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군사대국화와 해외팽창책동에 더욱더 열을 올리고 있다.

일본에서 벌어 지고 있는 사태는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야망과 부활책동이 절대로 변하지도 않고 변할수도 없는 일본고유의 악습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 주고 있다.

아시아와 세계인민들은 높은 경계심을 가지고 일본의 해외침략책동을 저지파탄시켜야 할것이다.

미일공동소해특별훈련은 명백히 침략적인 전쟁연습

로동신문

≪평양 7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

19일부 ≪로동신문≫은 일본 아오모리현 무쯔만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미해군이 공동소해특별훈련을 벌리고 있는것과 관련한 론평을 실었다.

론평의 필자는 미일공동소해특별훈련은 규모와 기간에 있어서나 내용으로 보나 명백히 침략적이고 공격적인 성격을 띤 전쟁연습이라는것을 알수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일은 공동군사연습을 랭전시기 쏘련을 겨냥했던것으로부터 랭전후 ≪**일본주변유사시**≫**의** 간판밑에 조선반도를 겨냥한 침략적인 군사연습으로 과녁을 바꾸어 놓았다.

미일반동들은 대조선군사전략에서 해상으로부터의 공격을 중요시하고 있다. 그들은 조선반도의 자연지리적특성으로부터 해상이 지상보다 타격공간이 몇배 더 넓은 조건과 저들의 해상타격력의 ≪우세≫를 등대고대규모적인 파도식해상공격으로 우리를 기습, 공격하여 우리의 전선과 후방을 단시일내에 장악하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의 령해에 대한 기뢰해제를 본격적으로 신속히 진행하려 하고 있다.

이번 미일공동소해특별훈련은 본질상 그에 따르는것이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제2의 조선전쟁도발을 노리고 감행되는것이다.

미일반동들은 그 무엇으로써도 이번 훈련의 범죄성과 위험성을 은폐할수 없다.

일본의 재침책동을 저지파탄시키자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9월 28~30일



사회자 : 안녕하세요.
김현규 :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 최근 일본이 ≪에이치2-에이≫로켓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서 우리 민중은 물론 세계진보적인류는 일본반동지배층의 해외팽창야망과 재침책동이 더욱 엄중한 단계에 이른 것이라고 규탄배격하면서 이를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봤으면 해서 이렇게 자리를 같이 했는데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현규 : 네, 이미 보도된것처럼 최근 일본은 가쿠시마현의 가네다우주센터에서 ≪에이치2-에이≫로켓을 발사했는데요. 이번의 로켓발사시험은 일본반동지배층의 해외팽창야망, 재침책동이 정책화되어 계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총리 고이즈미는 자위대의 해외파병부대들이 기본군사작전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적조치를 해지하기 위한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면서 그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최근 일본방위청이 현재의 방위계획대강을 대폭수정해서 2005년까지 새로운 방위계획대강을 완성하기로 결정하고 그 추진을 위해 책동하고 있구요. 이와함께 독자적인 미사일방어체제개발을 지향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사회자 : 그러고보면 지난 8월 일본총리 고이즈미를 비롯해서 지배층내 우익세력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것은 일본군국주의부활을 목적한 한것이었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이런 일련의 움직은 매우 심상치않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현규 : 그렇죠.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에이치2-에이≫로켓발사나 자위대의 해외파병에 대한 법적조치의 해지문제, 방어계획대강을 대폭수정해서 완성하기로 결정하고 그 추진에 집착하고 있는 것, 그리고 독자적인 미사일방어체제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것 등은 일본반동지배층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실현해서 해외침략야망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어보려 한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방어계획대강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일본이 피동적인 방어자세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질서형성자로 행동할 것을 제창하면서 육상자위대의 기동력과 해상자위대의 해상전능력, 그리고 항공자위대의 장거리작전능력을 높여서 자위대무력의 해외파병을 꾀할 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자 : 지난시기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수립책동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입장과 태도를 표명해오던 일본이 미사일방어체제수립에 관한 일미공동기술연구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에 변함이 없다고 공공연히 떠든 것은 미국을 등에 업고 자체의 미사일방어체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수립하려는 음흉한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보겠는데요.
김현규 : 그렇습니다. 일본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수립구상이 실현가능성이 거의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독자적인 미사일방어체제개발을 지향하고 추진에 박차를 가하다가 지금 실천단계에 돌입하는 걸 보면 자위대무력의 무력을 공격형의 무력으로 강화하고 우주의 군사화와 군사대국화를 실현하려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일본은 독자적인 미사일방어체제를 수립하는 것으로서 군사적패권을 쥐고 독자적으로 아시아나라들에 대한 침략행위를 감행하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미국을 등에 없고 해외침략을 하려던 종래의 입장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해외침략의 길에 들어서고 있다는 걸 실증해주고 있어요.
사회자 : 지금 일본은 재침열기에 들떠서 무분별하게 해외침략의 길에 나설수 있는 매우 위험한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보겠는데요. 그 첫 번째 목표가 바로 한반도라고 할수 있지 않습니까.
김현규 : 네, 일본의 방어계획대강에도 명백히 밝혀져 있는 것처럼 한반도의 긴장격화를 불안정의 첫째가는 요인으로 규정하고 군사대국화책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철두철미 한반도에서의 유사시를 목표로 하고 대강을 작성했다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일본반동지배층은 방어계획대강에 따라 침략의 총끝을 한반도에 돌리고 한반도와 가까운 서일본지역에 자위대무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한편 필요한 경우 무력을 한반도쪽로 신속히 이동전개시키기 위해 항공수송대를 강화하고 통신체계 등을 수립하는데 주목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일본반동지배층은 유사시 자위대무력을 한반도전선에 투입해 재침의 꿈을 이뤄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만큼 일본의 재침야망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여 나가는 것은 오늘 우리 민족, 민중앞에 나서는 가장 중대한 문제라 하겠습니다.
사회자 : 그럼 일본의 재침야망을 저지파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가 뭐냐하는 겁니다.
김현규 : 네, 무엇보다 노동운동단체들은 일본반동지배층의 재침책동에 본질과 그 위험도, 그리고 우리 민중에게 가져다줄 악결과를 노농대중속에 똑똑히 인식시키고 그를 반대하는 투쟁을 줄기차게 벌여나가도록 하는 거라고 봅니다. 특히 지난시기 일본이 한반도를 강점하고 노동자, 농민들을 약탈하고 착취하던 과거 피비린내 나는 치욕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농대중속에 반일계급의식을 심어주어 그들이 반일투쟁에 적극 나서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자, 농민들이 반일투쟁에서 언제나 주도적역량으로, 투쟁의 앞장에서 싸워나가도록 그들을 올바로 조직동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밖에도 일본반동들의 재침책동을 반대하는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각계층민중과의 연대공동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여 반일투쟁의 지속성과 완강성을 보장하며 그것이 거족적인 반일투쟁으로 확산되도록 투쟁의 대중화를 이뤄내도록 해야 합니다. 이 모든 투쟁을 일제가 지난시기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씻을 수 없는 강도적행위를 철저히 폭로단죄하고 민족앞에 사죄하고 보상하도록 하기 위한 투쟁과 결부시켜 나감으로써 일본의 재침야망을 꺾어버리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사회자 : 옳은 말씀입니다. 일본반동지배층의 재침야망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은 노동자, 농민을 비롯해서 각계층민중과 여러 단체들과의 연대공동투쟁을 통해서만 그 승리를 이루어낼수 있습니다. 노농운동단체들은 일본의 재침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노동자, 농민들의 투쟁을 올바로 조직전개함으로서 전국민적인 대중투쟁으로 강화발전시켜 나가야 할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규 : 감사합니다.

일본의 ≪새어업협정안≫비난

로동신문 론평



≪평양 10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

7일부 ≪로동신문≫은 ≪침략과 매국배족의 흥정물≫**이라는 제목의** 론평을 실었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일본반동들이 우리의 신성한 령토의 한 부분인 독도와 그 주변수역을 빼앗아보려고 파렴치하게 책동하고있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일본반동들은 남조선괴뢰들을 구슬려 ≪새어업협정안≫이라는것을 만들어냈다. 이 ≪협정안≫**은 우리 나라 동해독도와 그 주변에** ≪중간수역≫**을 설정하고 일본이 이 지역에서 어로작업은 물론 독도주변에 대한 탐사조사사업도 마음대로** 진행할수 있게 허용해주고있다.

일본반동들이 이번에 남조선괴뢰들을 주물러 만들어놓은 ≪어업협정안≫**은 철두철미 독도와 그** 주변수역에 대한 저들의 령토적야망을 실현해보려는 강도적이며 침략적인 문건이다.

일본반동들은 ≪협정안≫**을 통해** ≪**공동관리**≫**라는 미명하에 이 지역에서 어로작업과 조사사업을 마음대로 진행함으로써 앞으로 독도를 저들의** 령토라고 주장하며 나아가서 완전히 빼앗아낼수 있는 법적기초를 만들어낼것을 기도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이 그 무슨 ≪협정안≫**으로 독도와 그** 주변수역을 빼앗아보려고 하는것은 우리 민족의 자주권에 대한 침해이며 국제법에 대한 란폭한 위반행위이다.

독도는 력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명백히 우리 민족의 고유한 령토이다.

독도는 절대로 그 어떤 흥정의 대상으로 될수 없다. 그러므로 독도와 그 주변에서의 어로작업과 조사사업도 우리 민족의 전반적리익과 요구에 맞게 개발리용되여야 한다. 일본이 독도를 넘겨다볼 그 어떠한 조건이나 명분도 없다.

일본당국자들이 조선민족의 넋도 그리고 그 어떤 대표권도 가지고있지 못하는 남조선괴뢰들과 그 무슨 ≪협정안≫**을** 조작한것은 그들이야말로 자기의 리익을 위해서는 다른 민족의 리익을 해치고 나아가서 남의 령토를 빼앗는것도 서슴지 않는 가장 파렴치하고 철면피한자들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여기에서 반드시 명백히 해야 할것이 있다.

그것은 일본반동들이 저들의 죄많은 과거에서 교훈을 찾고 새 출발을 하려고 하기는 커녕 오히려 또다시 우리의 령토를 빼앗고 식민지화하려고 꿈꾸고있다는것이다.

지난 40여년간 일제침략자들이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우리 인민에게 감행한 범죄행위는 일제야말로 가장 악랄하고 파렴치한 침략자, 략탈자이며 우리 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쑤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우리 인민은 반세기가 지난 오늘까지도 일제가 우리 인민에게 감행한 범죄행위를 절대로 잊지 않고있으며 반드시 사죄와 보상을 받아내고야말 결심에 차있다. 이것은 우리의 당당한 권리이다.

그러나 일본반동들은 어떻게 행동하고있는가.죄많은 과거에 대해 솔직한 사죄도 하지 않고있으며 보상과 배상의 책임에서 벗어나보려고 어리석게 책동하고있다. 그것은 일본반동들이 우리 나라를 비롯한 아세아의 여러 나라들을 침략하고 략탈하던 시기를 그리워하면서 그때에 이루지 못한 아세아제패야망을 기어이 실현해보려 하고있기때문이다.

우리 인민은 일본반동들이 더러운 과거에 대해 조선인민앞에 무릎꿇고 천백번 사죄하고 철저히 보상할 대신에 오히려 우리의 신성한령토를 빼앗아보려고 하고있는데 대하여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하고있다.

우리는 일본과 계산할것이 너무도 많다.

일본반동들에 대한 우리의 적개심은 더욱 불타오르고있으며 백배, 천배로 복수하고야말 결심은 더욱 확고해졌다.

일본반동들이 감히 우리 나라의 신성한 령토를 조금이라도 다친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40여년간 일제에게서 당한 불행과 고통, 재난 그리고 전후 일본의 반공화국적대시정책으로 하여 입은 손실까지 모두 계산하여 그 값을 받아낼것이다. 우리는 결코 빈말을 하지 않는다.

남조선괴뢰들은 나라의 령토와 자원을 팔아먹는 매국배족행위를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침략적이며 략탈적인 ≪협정안≫**은 반드시** 파기되여야 한다.

독도는 불가분리의 조선령토

로동신문 론평

《평양 10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

13일부 《로동신문》은 《독도는 불가분리의 우리 나라 령토이다》**라는 제목으로 된 박사 정남용이 기고한 글을 실었다.**

필자는 이 글에서 지난 9월 25일 남조선당국자들과 일본상전사이에 독도주변수역을 《공동규제수역》**로 규정하며 거기에서 일본과 남조선 어민들이 어로활동을 《자유롭게》한다는데 대한 《어업협정》이** 체결된데 언급하여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유엔해양법조약들과 해양관습에 의하면 서로 마주하고있는 나라들사이의 수역에 어느 한 나라의 섬이나 전통적인 어장이 있다면 그 수역은 섬이나 어장 소속국의 령해, 경제수역으로 된다.

그런데 이번 《협정》에서 독도주변수역을 《공동규제수역》**이라고** 규제한것은 우선 조선고유의 령토인 독도의 존재자체를 무시한것이다. 독도는 조선동해의 한복판《동경 131도 5 2분 30초, 북위 37도 14분 30초》에 위치하고있는 섬으로서 큰 섬인 동도와 서도를 중심으로 30개의 크고작은 섬들로 이루어져있다.

《협정》에서 독도주변수역을 《공동규제수역》**이라고** 규제한것은 다음으로 독도의 법적소속을 부정한것이다. 국제적으로 무인도의 법적소속에 관한 위력한 증거로 인정되고있는 발견, 점유, 리용원칙과 소속을 위한 국가의 립법적조치의 견지로 보아 독도는 우리 나라의 령토이다.

우리 나라와 일본의 력사 사료들과 문헌들에 의하면 우리 선조들은 기원 500년 이전시기에 섬을 발견하고 그때로부터 체계적으로 어업거점으로 리용해왔다. 반면에 일본은 16세기말에 이르러서야 조선동해에 독도가 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립법적견지에서 볼 때에도 우리 나라는 일본보다 근 1,400년이나 먼저 앞선 기원 512년에 독도를 강원도 울진현에 소속시키는 국가적조치를 취했다.

령토의 법적소속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지도표기로 보아도 독도는 조선의 섬이다. 우리 나라가 16세기말에 발간한 최초의 목각인쇄지도《현재 남조선 삼성출판사박물관에 보관되여있음》에도, 다른 나라들에서 발간한 모든 조선지도들에도 독도는 명백히 조선의 섬으로 표기되여있다.

일제의 조선강점 이전시기에 나온 일본지도들에도 독도를 저들의 섬으로 표기한것이 없다.

필자는 계속하여 독도가 조선의 섬이라는것을 1690년대에 당시 일본 호끼주의 태수는 물론 도꾸가와막부중앙정부도 인정하고 이와 관련한 공식외교문서를 조선에 보내왔으며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이후에도 그것을 인정한데 대하여 밝혔다.

또한 일본은 조선의 본토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독도 포함》에 대한 일본의 모든 권리, 권원, 청구권을 박탈한다고 한 쌘프랜씨스꼬대일평화조약《1951년》에 서명도 하였다.

필자는 《공동규제수역》**에서 일본과 남조선 어민들이** 물고기잡이를 《**자유롭게**》**한다고** 한것은 조선의 전통적인 어장의 하나인 독도주변의 황금어장을 일본에 통채로 넘겨준것이기도 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란 일본과 남조선이 어업을 능력껏 마음대로 한다는 뜻인데 어선수와 그 기술장비면에서 남조선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우세한 일본어업이 독판을 치리라는것은 불보듯 뻔하다.

남조선통치배들은 그 무엇으로써도 일본과 체결한 새 《어업협정》의 사대매국성, 반민족성을 가리울수 없다.

독도는 예나 지금이나 조선의 한부분이며 그 주변수역은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황금어장이다. 이 력사적사실과 법적근거는 절대불변한것이다.

《어업협정》은 재침야망의 산물

로동신문 론평

《평양 10월 14일발 조선중앙통신》

14일부 《로동신문》은 일본이 남조선당국과 지난 9월 25일에 체결한 《어업협정》에 내포되여있는 조선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군사적재침기도를 폭로한 론평을 실었다.

일본은 이른바 《어업협정》에서 남조선통치배들이 독도령유권을 포기하도록 만들고 그 주변수역을 《공동관리수역》**으로 설정하였다.**

론평의 필자는 이것은 일본반동들이 독도를 어떻게 하나 저들의 관할권안에 넣음으로써 조선에 대한 군사적재침의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려는데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일본이 이번에 남조선당국자들을 얼리여 독도령유권을 저들에게 팔게하고 그 주변수역을 저들의 전관수역권안에 포함시킨것은 조선재침씨나리오의 한 고리이다. 그들의 전략적타산은 1차적으로는 독도지역에 대한 경제적리권과 관리권을 장악하는것이며 다음단계는 이곳을 저들의 소유물로 만들고 군사화하는것이다.

지금 일본반동들은 조선반도 《유사시공동대응》과 우리의 《대일위협》**을 운운하며 조선침략의** 군사적준비와 그 합법화책동을 전례없이 다그치고있다.

일본이 가급적으로 《리권보호》**의** 구실밑에 독도지역을 저들의 《안보권》**으로 선포하고 군사활동을 이곳으로** 확대할것은 뻔하다. 일본반동들은 이런 방법으로 조선에 대한 군사적재침의 길을 닦자는것이다.

우리는 일본반동들의 위험한 군사적재침책동에 대하여 수수방관할수없다.

독도문제를 통해 본 일본의 재침야망

구국의 소리, 주체89(2000)년 11월 22일~11월 28일

사회자 : ** 일본은요 죄 많은 과거를 겸손히 반성할 대신에 한반도 재침, 아시아 맹주의 야망을 실현하고자 온갖 책동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도요 그러한 야망에서 발상된 것이라 할겁니다. 독도문제를 통해 본 일본의 재침야망. 윤정원씨 모시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정원 : 안녕하세요.

사회자 : 네, 한반도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재침야망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일본반동들의 한반도 재침야망은 일본총리 모리의 독도와 관련한 망언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윤정원 : 네, 그렇죠.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한 모리의 망언은요, 그냥 스쳐 지날 수 없다고 봅니다. 모리는 지난 9월 KBS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리나라는 독도영유권 문제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도, 국제법적으로도 명확하게 우리나라의 고유영토라는 것이 일관한 입장이라고 지껄였던 것입니다. 물론 지난 시기에 일본의 우익 보수정치인들과 군국주의부활을 주창하는 자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독도영유권을 주장해 나선 적은 있었지만 일본의 집권자가 직접 독도영유권을 주장해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렇게 놓고 볼 때 이 문제는 그저 넘길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사회자 : 그렇죠.

윤정원 : 일본집권자의 독도망언은 일본이 한반도 침략야망과 해외 팽창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고 죄악에 찬 과거의 전철을 밟으면서 한반도에 대한 재침을 노리고 있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사회자 : 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상으로 봐도 우리나라의 불가분리의 땅이죠. 일본은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고 봅니다.

윤정원 : 네, 독도영유권 문제는 일본과 애당초 논의대상으로 되질 않아요. 독도는 역사적으로 봐도, 지리적으로 봐도 우리나라 땅이거든요. 지리적으로 볼 때 독도는 울릉도의 동남방 49마일, 일본 우측으로부터 83마일 떨어진 해상에 위치하고 있어요. 독도는 동도와 서도, 중도 기본섬이 있고 그 주위에 흩어진 38개의 암초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로 된 것은 서기 512년부터인데요, 이런 사실은 삼국사기를 비롯한 여러 역사문헌들에 수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측 사료들인 조선통고대기, 동방조선왕복서, 통항일람을 비롯한 여러 사료집에서도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사회자 : 독도는요 법률적으로 봐도요, 철저히 우리나라 강토의 구성부분으로 돼있는데요. 국제법 원칙과 관례들은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걸 입증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윤정원 : 그렇습니다. 영토점유에 대한 국제법의 원칙들 중에 하나는 먼저 차지한 영토에 대한 국가적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그것이 대외적으로 공인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독도는 앞에서 역사적 사실자료를 통해 밝혀진 것처럼 이미 천 수 백년 전에 벌써 우리나라 사람들에 의해 차지된 섬이예요. 이에 반해서 일본은 1905년 2월에 일본국가도 아닌 한 개의 섬인 시마네현 고시 40호를 이른바 법률적 논거로 삼고 있는 겁니다. 독도를 일본의 시마네현에 편입시킨다는 고시 40호는 영토점유에 대한 국제적 원칙과 관례를 무시하는 겁니다.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하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독도의 법적 지위를 규정한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에도 위배되는 거예요.

사회자 : 네, 독도가 이처럼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법률적으로도 엄연히 우리나라 땅인데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은 독도영유권 문제를 들고 나왔을 뿐 아니라 침탈 행위를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죠?

윤정원 : 네 그렇습니다. 일본반동들이 독도영유권을 노골적으로 주장하면서 침탈행위를 감행해 나선 건 지난 50년대부터였어요. 일본은 지난 1955년 1월에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는 외교문서를 한국에 보내 온데 이어서, 1963년 6월과 7월에는 네 차례에 걸쳐 순시선을 독도에 투입시키는 행위를 자행했던 겁니다.

특히 최근에 이르러 일본의 독도 침략행위가 더욱 우심해 졌는데요, 지난 98년 11월 일본반동들은 해상자위대를 비밀리에 동원해서 이에지마에서 독도를 무력으로 점령하는 해상훈련을 벌였구요, 99년에는 일본인들의 호적을 독도에 옮겨 등재하는 그러한 행위를 자행했어요. 그리고 일본외무성의 10대외교 지침서에는 독도탈환이라는 조항이 밝혀져 있어요. 이건 일본반동들의 독도 침략행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실증해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회자 : 네, 일본반동들의 독도 침탈 행위는요, 이른바 한일 간의 새 어업협정체결과정에 더욱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보는데요.

윤정원 :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어업협정 하면 고기잡이와 관련된 것이지 영토문제와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 1월에 타결된 한일어업협정에는요,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일본 측 배타적 경제수역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하다면서 영토문제를 포함시켰거든요. 이건 일본의 작간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교활하기 그지없는 일본 지도층은 1997년 12월 3일 한국이 IMF신탁통치에 들어가 경제가 더욱 파산몰락하고 정치가 혼란상태에 빠진 기회를 이용해서 1998년 1월에 일방적으로 종전의 한일어업협정을 폐기해 버렸던 거예요. 그리고는 새로이 어업협정 체결을 강요해 나섰죠.

이때 일본측이 들고 나온 것이 한국은 울릉도 북군 35해리와 일본의 **도 북부 35해리를 한일 양국의 배타적 경제*관수역으로 설정하자는 것이였는데요, 이렇게 돼서 독도가 결국 중간수역에 포함되게 됐어요. 한일 간 새 어업협정에 따라 울릉도는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포함되게 됐으나 독도는 거기서 빠졌습니다. 이건 결국 한국이 독도영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되고 반대로 일본은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해 간섭할 권리를 갖게 된 것으로 그렇게 됐죠.

사회자 : 네,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한 일본 모리의 망언이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한 재침야망을 드러낸 엄중한 도발행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윤정원 : 네 그렇죠.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참패한 후 언제 한번 우리나라에 대한 재침야망을 버려본 적이 없었죠. 한국에 대해 경제적으로 침탈하던 일본반동들은 지금에 와서는 군사적 침탈행위까지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국민은 일제의 재침책동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일본반동들은 현실을 똑바로 보고 분별 있게 처신해야 할 줄 압니다. 일본반동들이 역사의 교훈을 잊고 우리나라에 대한 재침의 길을 택하는 건 섶을 지고 불에 뛰어드는 자살행위와 같다는 걸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윤정원 : 감사합니다.

사회자 :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일본의 재침야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일본반동들은 우리민족이 무엇을 잊지 않고 있으며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야 할겁니다. 우리민족은 일제가 지난날 우리민족에게 감행한 죄악을 잊지 않고 있으며 그 피 값을 기어이 받아내고야 말겁니다.

헌법재판소가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킨 한일어업협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과 관련해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3월 18일～3월 24일

이미 보도된 것처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소는 지난 21일 한일어업협정이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켜 헌법에 보장된 영토권 등을 침해했다며 전국어민후계자연합회 회장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소는 결정문에서 한일어업협정 대상은 어업문제에 국한 된 것으로 독도가 중간수역에 속했다 할지라도 독도의 영유권문제나 영해문제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영토권침해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민의와 진리에 거역하는 또 하나의 용납 못할 친일사대매국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98년에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으로 말하면 우리의 영토인 독도의 영유권과 영해권을 포기한 매국협정입니다. 국제법상으로도 다른 나라에 주권의 침범을 허용하지 않는 배타적 권리를 갖는 우리의 고유한 영토와 영해를 일본과의 공동으로 설정한 것이 합법이라느니 당치 않은 말입니다. 이 협정체결로 해서 반만년의 민족사와 더불어 우리의 영토로 존재해 있던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전락된 ******.



설령 독도가 무인섬이라고 해도 그것이 우리 민족이 영토의 한 부분인 만큼 절대로 독도문제를 놓고 흐지부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켜 자기 땅, 그 영유권을 포기해 일본으로 하여금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준 것이야말로 제2의 현대판 을사오적행위라 해야 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일본은 한일어업협정을 빗대고 독도를 가로타고 앉기 위한 책동을 노골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 반동들 속에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궤변이 나돌고 있는 속에 일본 시네마현의 반동들이 일본당국의 승인하에 독도에로 호적을 옮기는 책동을 벌이는 것은 그 뚜렷한 증거라 하겠습니다.

우리 수역을 일본에 떠넘긴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해를 일본과 공동수역으로 한 것은 영토를 팔아먹은 것과 같은 역적행위이며 또 일본 근해의 우리 어민들의 어로활동을 제재한 것 역시 반민중적인 포악한 매국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매국적인 한일어업협정체결로 해서 우리의 신성한 영해에 왜선들이 들어와 돌아치고 우리 어민들이 쫓겨나 생존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로부터 전국 어민후계자연합회를 비롯한 각계에서 한일어업협정을 극악한 사대매국협정으로 규탄하면서 그 파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영토와 영해를 일본과의 흥정판에 올린 사실부터가 용납될 수 없는 반역행위입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한일어업협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매국협정을 비호하고 있으니 참으로 경악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헌법재판소의 말대로 한일어업협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헌법자체가 매국적인 악법으로써 헌법자체를 문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제반사실은 헌법재판소가 친일사대매국노들로 꾸려진 반역집단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의에 역행해 사대매국의 비호자로 전락된 반역적인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해체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독도는 우리의 신성한 영토

김세찬 / 구국전선, 주체90(2001)년 8월 1일

지난날 한반도를 강점하고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일본이 그 죄과를 인정하고 사죄, 보상할 대신 우리 나라의 신성한 영토를 넘겨다 보며 침략의 칼을 벼리고 있다.

일본반동들은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쪼아 박은 ≪2000년 외교청서≫를 내돌리는가 하면 국회에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독도영유권문제를 빈번히 논의하고 있다. 한편 지난 2월 27일 독도가 자기 현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시마네현지사 스미타라는 자는 ≪다케시마≪독도≫는 역사적으로 보나 국제법에 비추어 보나 일본의 고유한 영토≫라느니, ≪**한국에 불법적으로 점거되어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유감≫이라느니 뭐니 하는 망발을** 늘어 놓았다. 일본정부는 여론을 환기시키는 것과 함께 시마네현 사람들을 중심으로 독도에 주민등록을 옮길 것을 장려하고 있다.

일본반동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독도를 저들의 것이라고 하면서 파렴치하게 놀아왔다. 그 단적인 실례로 일본해상보안청은 해마다 영문과 한문으로 된 ≪일본근해 색인도≫를 수십만부씩 발행하여 세계 각국에 발송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동해가 ≪일본해≫로, 독도가 ≪죽도≫≪다케시마≫로 표기되어 있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강도적인 영토팽창야망은 당국과 체결한 ≪어업협정≫에서 여실히 나타났다. 일본은 이른바 ≪어업협정≫에서 독도주변수역을 ≪**공동관리구역≫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의 전관수역이 한국영해까지 침범하게 되었다. 일본의 새로운 전관수역의 설정은 우리 나라의 신성한 영토와 경제적 이익에 관한 침해와 유린행위이다.

≪**국경분쟁≫을 일으키고 독도를 강탈하려는 일본의 행위는 한반도를 군사적으로 재침하려는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책동의** 한고리이다. 그들의 전략적 타산은 선차적으로는 독도수역의 경제적 이권과 관리권을 장악하는 것이며 다음 단계는 이곳을 저들의 소유물로 만들고 군사화하는 것이다.

일본이 저들의 죄악에 찬 침략적 과거를 반성하고 새 출발을 해야 할 오늘에 와서까지 역사왜곡책동에 매어달리면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그들이 여전히 한반도를 군국주의적인 해외팽창야망을 실현할 첫번째 대상으로 선택하고 있으며 재침의 기회만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독도는 조상대대로 우리의 신성한 영토였다.

오랜 옛날부터 울릉도사람들은 독도를 가리켜 ≪동해의 고독한 섬≫이라고 불렀고 경상도사람들은 ≪돌로 된 섬≫이라고 하였다. 역사자료에 따르면 독도의 명칭이 삼국시기와 고려시기를 거쳐 오며 여러번 달라졌는데 독도라는 이름이 고착된 것은 이조말기이다.

독도는 법적으로 보아도 우리의 신성한 영토이다.

영토소유권에 관한 국제법적 원칙에 따르면 무인도인 경우 그에 대한 소유권은 그것을 먼저 발견하고 차지한 후 실지 이용한 당사자에게 부여된다. 우리 나라의 역사사료와 일본의 주장을 대비해 볼 때 우리 나라가 독도를 발견한 것이 6세기라면 일본이 발견한 것은 17세기이며 우리 어민들이 해마다 이른 봄부터 늦은 가을까지 독도에 건너가 막을 치고 물고기잡이와 해산물채취를 하며 전통적인 어장으로 천수백년동안 이용했다면 일본은 겨우 80년밖에 안된다.

일본은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하며 군국주의적 팽창야망을 버리고 독도영유권주장을 철회해야 한다.





≪어업협정≫으로 년간 1조 725억원의 피해

≪평양 11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

서울에서의 방송보도에 의하면 남조선통치배들이 최근 일본과 타결한 매국적인 ≪어업협정≫으로 수산부문에서 년간 1조 7 25억원의 피해를 입게 되였다. 그중 물고기잡이량의 감소로 3, 7 27억원, 수산물가공공장의 운영중단 등으로 6, 998억원의 손실을 보게 되였다.

이러한 사실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한나라당의원≫**이 주장한데서 밝혀졌다고 한다.**

지금 남조선어민들은 전통적인 어장을 팔아먹은 통치배들의 매국적인 죄행으로 하여 엄청난 피해를 입고 파산될 운명에 놓여있다.

대학생들 ≪한일어업협정≫반대 시위

≪평양 12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

서울에서의 방송보도에 의하면 ≪서총련≫소속 대학생들이 8일 야당청사앞에서 기습시위를 벌렸다.

그들은 매국적인 ≪한일어업협정≫의 ≪국회비준≫반대 등을 주장하며 야당청사에 뼁끼병을 던지고 인쇄물을 뿌리였다.

그들은 또한 김영삼역도를 비롯한 사대매국노들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황급히 출동한 파쑈경찰은 시위자들을 체포하려고 이 일대 지하철도역과 그 주변에서 검문검색소동을 벌렸다..



남조선 9개단체 어업협정무효화서명운동

≪평양 주체 89년 1월 6일발 조선중앙통신≫

서울에서의 방송보도에 의하면 지난해 12월 30일 남조선의 민족문제연구소와 언론로조련맹 등 9개 단체가 매국적인 남조선일본≪어업협정≫의 무효화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리기로 하였다.

이 단체들은 울릉도 주민들과 함께 독도주권선언단을 결성하며 독도에서 독도주권선언식을 가지는것을 비롯하여 ≪어업협정≫을 무효화시키기 위한 서명운동을 광범히 벌릴것을 다짐하였다.

≪어업협정≫으로 피해만 보는 강원도 해안 어민들

≪평양 11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

서울의 ≪기독교방송≫에 의하면 굴욕적인 남조선일본≪어업협정≫으로 말미암아 남조선강원도 해안 일대 어민들이 피해만 보고 있다.

≪협정≫에 의해 일본측 수역이 넓어 지는 바람에 오징어와 복어 등 어획량이 크게 떨어 져 그곳 어민들은 해마다 100억원이상의 피해를 보고 있으며 수많은 실업자가 발생하고 있다 한다.

일본당국의 력사왜곡책동을 규탄하는 공동성명

일본당국의 력사왜곡책동을 규탄하는 공동성명

일본보수우익세력들은 과거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침략과 범죄의 력사를 왜곡하고 그것을 미화하는 책동을 꺼리낌없이 감행해 왔다.

일본보수우익세력들의 이러한 행위는 최근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력사를 서술한 교과서를 뜯어 고치는 놀음을 벌리고 있는데서 더욱 로골화되고 있다.

우리는 일본보수우익세력들의 력사날조책동을 과거 우리 민족앞에 저지른 범죄를 합리화하고 군국주의망령을 되살려 재침의 야망을 실현해 보려는 용납하지 못할 범죄행위로 락인하면서 온 민족의 이름으로 강력히 항의규탄한다.

만천하에 드러난 일본이 저지른 침략적이며 략탈적인 범죄행위는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 될수 없다.

그들에게는 오직 솔직한 사죄와 응당한 보상만이 있을뿐이다.

7천만 온 겨레는 어지러운 침략의 력사를 되풀이 하려는 일본반동들의 허황한 망상을 부셔 버리고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공동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 나갈것이다.

6.15공동선언발표 1돐기념 민족통일대토론회에 참가한 북, 남, 해외동포 대표단
2001년 6월 15일
금 강 산



날로 높아 가는 반일기운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3월 11일~3월 17일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임기수 : 안녕하세요.

사회자 : 네, 최근 각계국민들 속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반일기운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엔 이와 관련해 얘기를 나눴으면 해서 이렇게 모셨는데, 지금 일본의 극우익세력들이 지난날 저들이 저지른 범죄행위를 왜곡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좀 말씀 해주시죠.

임기수 : 네, 그러죠. 아시다시피 나난 2월 18일에 이전 방위청장관이며 중의원 예산위원장인 노로타가 한 강연에서 아시아에서의 식민지통치는 대동아전쟁의 덕분으로 완전히 청산되었다느니 오늘 동남아시아 나라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가 일본의 덕분으로 서구열강들로부터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느니 뭐니 하는 망발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 극우익단체인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이 만든 중학교용 역사교과서에는 이른바 한일합병을 정당한 합병으로 합리화하고 침략적인 태평양전쟁을 식민지해방전쟁으로 왜곡, 날조해 묘사했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우익분자들과 극우익단체들은 과거 일제침략죄행을 정당화하고 저들의 전대미문의 전쟁범죄를 미화하는 날강도적이고 파렴치한 역사날조행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날 일제가 우리 나라와 아시아나라들을 강점하고 우리 민족과 아시아국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재난을 덮씌웠다는 건 이미 공인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일본의 극우익세력들이 우리 나라 강점과 아시아나라들에 대한 침략전쟁을 그 무슨 혜택을 준 것처럼 왜곡하려는 것은 후대들에게까지 군국주의와 해외침략사상을 주입하려는 극히 도발적이고 위험한 범죄행위인겁니다.

사회자 :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시민단체들이 일본의 교과서 및 일부정치인들의 역사왜곡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임기수 : 네, 그렇죠. 순국선열유족회는 2월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대동아전쟁이 아시아독립전쟁이었다고 주장한 일본중의원 예산위원장 노로타의 망언을 결코 앉아 볼수만 없다고 규탄하면서 일본은 역사왜곡과 망언을 즉시 중단하라고 주장했어요. 이 단체는 또한 역사왜곡과 망언을 거듭하는 일본과의 관계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당국에 요구했습니다.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는 저들에게만 유리하게 역사를 인식하는 일본의 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일본은 소위 대동아전쟁으로 아시아국가들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일본의 역사왜곡과 망언에 반대하는 운동을 여러 시민단체와 연대해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독도수호대는 일본에서의 움직임에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이러한 망언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백범기념사업회는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일본의 사고를 비난하면서 정부가 국민감정을 제대로 읽고 최근 사태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흥사단은 모든 나라들이 지난 20세기를 반성하고 미래를 향해 노력하는 이때 유독 일본만이 과거의 죄행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지역 60개 시민사회단체가 2월 27일 부산역 앞에서 모임을 가지고 일본역사왜곡저지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일본총영사관 앞에서 규탄시위를 벌였어요.

사회자 : 네, 일본의 침략역사왜곡책동을 강력히 규탄하는 목소리는 교원단체들 속에서도 울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임기수 : 네, 그렇습니다. 전교조는 지난 2월 28일 성명을 발표해 일본의 우익과 정부의 역사왜곡기도에 분노를 금할 길 없다고 하면서 부당한 행위를 당장 중지할 것을 일본에 요구했습니다. 전교조는 잘못된 역사기록을 바로잡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개학과 동시에 전지역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3.1운동과 일본의 역사교과서왜곡실태를 주제로 한 특별공동수업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는 지난 3월 1일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정대협소속회원, 전교조소속회원 등 90여명과 함께 3.1운동을 기념하며 일본역사교과서왜곡에 항의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밖에 20여개 단체 소속 회원 1,500여명은 서울의 탑골공원에서 집회를 가지고 일본의 역사교과서왜곡은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며 침략주의 복귀하는 망동이라고 규탄하고 일본대중문화개방의 취소 등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퇴직교육자 단체인 대한상락회는 성명을 통해 일본정부는 극우단체의 역사왜곡추진을 간과하지 말라고 주장했고요,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지난 2월 27일 성명에서 일본의 역사교과서왜곡책동과 관련한 특별수업과 1,000만명 서명운동, 일본상품을 사지 않는 운동 등을 벌여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 단체는 또한 지난 3월 1일 서울과 그 주변일대의 교원가족 등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일본교과서 모형에 대한 화형식을 집행하면서 규탄집회를 가졌습니다.

사회자 : 그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본의 역사교과서왜곡책동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정부와 국회의원들 속에서도 강도 높게 울려 나오고 있는데요.

임기수 : 네, 정부는 지난 2월 28일 이한동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한일각료회담 취소여부와 문화개방 보류조치 등 대책을 강구하고 외교통상부장관이 주한일본대사를 긴급 조치해 일본교과서왜곡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시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일본의 역사교과서왜곡 중단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과거사 왜곡을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은 일본의 역사교과서왜곡이 시정될 때까지 일본대중문화에 대한 추가문호개방일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각종 공식문서에서 사용되는 천황호칭을 재고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새 역사교과서에서 한일합병을 정당화하고 침략전쟁을 미화하는데 역사를 광범위하게 날조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일본의 국제적 고립을 자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회자 : 네, 일본의 악랄한 역사왜곡놀이는 이렇게 각계국민들의 치솟는 분노와 적개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역사라는 건 왜곡한다고 해서 변경될 수 없고, 부정을 한다고 해서 달리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일본이 이런 놀이를 벌이는 건 우리 민족에 대한 모독일 뿐아니라 재침을 위한 사상동원준비의 일환이죠. 만일 일본의 이러한 책동을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언젠가는 재침의 칼날을 뽑아들고 달려 들겁니다. 때문에 각계국민들 속에서 일본극우익세력들의 역사교과서왜곡과 망발에 경각심을 가지고 대하며 이를 반대규탄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기수 : 감사합니다.

사회자 : 날로 높아가는 반일기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지난간 침략의 역사를 반성하지 않고 은폐, 왜곡하는 건 침략의 역사를 되풀이하겠다는 겁니다. 일본집권층은 침략으로 망한 과거를 잊지 말아야 할겁니다.

사회각계와 정치권에서 일본의 역사교과서왜곡책동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4월 8일~4월 14일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윤정원 : 안녕하세요.

사회자 :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일제의 역사교과서왜곡책동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사회각계와 정치권에서 날로 높이 울려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문제를 갖고 얘기를 나눴으면 해서 이렇게 자리를 같이했는데요. 먼저 상황에 관해 말씀을 좀 해주시죠.

윤정원 : 네, 일본반동들의 역사교과서왜곡책동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사회각계에서 높이 울려나고 있습니다. 전국 40개 종교사회단체로 구성된 과소비추방 범국민운동본부는 일본의 역사교과서왜곡에 대한 항의표시로 일본상품불매운동에 들어갔어요. 이들은 주일대사 소환과 통상압력, 문화교류중단 등을 요구하며 유엔 등 국제사회를 통해 일본의 전범행위를 규탄하는데 외교적 총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시민단체 활빈당은 일본에 선물을 보냈는데요. 선물은 메주와 고춧가루, 때밀이수건 등 세 가지예요. 메주는 일본의 선린우호정책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을 수 없다는 의미로 전달했구요, 또 역사교과서왜곡이 21세기 동북아 평화공존에 재를 뿌린다는 의미로 고춧가루를 보냈습니다. 때밀이수건은 일본군국주의의 묵은 때를 이제는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을 했어요. 활빈당은 이 선물들이 일왕과 총리, 문부과학성 등에 우편으로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회자 : 네, 일본의 역사왜곡책동을 규탄하는 목소리는 과소비추방 범국민운동본부뿐 아니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여러 사회단체들에서도 울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윤정원 : 네, 한총련소속 대학생들은 일본대사관 앞 인도에서 일본의 역사교과서왜곡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구요, 또한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정례수요집회를 갖고 새 일본의 역사왜곡교과서가 종군위안부문제를 삭제한데 관해 강력히 항의를 했죠. 정대협은 역사적 진실을 몸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들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음에도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행위라고 비난을 했어요. 특히 일본역사왜곡교과서 통과소식을 들은 정신대할머니들이 분노를 터뜨렸는데요. 할머니들은 종군위안부는 일본 히로이토천황이 처녀들을 잡아다가 일본군 성노예로 삼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지적을 하고 일본대사관은 강제납치사실을 일본역사교과서에 수록하고 가르칠 것을 일본정부에 똑똑히 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일본의 역사교과서왜곡 시정을 요구하는 대국민거리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사회자 : 사회각계에서 일본의 역사교과서왜곡책동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해 정치권에서도 규탄의 목소리가 높이 울리고 있지 않습니까.

윤정원 : 네, 그렇습니다. 국회교육위원회 소속의원들은 주한일본대사관을 방문해 왜곡된 일본역사교과서 검정통과의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하고 대사관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었죠. 또 한일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일본의 역사교과서왜곡문제와 관해 대책회의를 열고 5월초에 서울에서 열기로 한 한일의원연맹 정기총회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한일의원연맹 대표단은 또 일본의 문부과학상과 외상을 만나 일본의 역사왜곡교과서의 재수정을 요구했죠. 이밖에도 정치권에서는 일본역사교과서왜곡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주일대사를 소환하고 국제여론을 환기시키며 왜곡된 일본교과서 문제해결을 위해 상설대책반을 꾸리기로 했어요.



언론들에서도 일본의 역사교과서왜곡을 규탄하는 글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어요. TV방송국이 조사한데 의하면 국민의 93%가 일본의 교과서검정을 잘못된 것으로 보고 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본반동들은 우리 국민의 절대다수가 역사교과서왜곡을 규탄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이걸 똑똑히 알고 시급히 왜곡된 교과서를 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자 : 과거 우리 나라에 대한 일제의 비법적인 강점은 우리 민족에게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한 전대미문의 범죄행위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일본반동은 이 범죄행위를 미화분식하려고 책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분노한 사회각계가 일본의 역사교과서왜곡책동을 그처럼 강력히 규탄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윤정원 :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일제는 우리 나라를 불법강점해서 우리 나라의 귀중한 자원부원과 민족문화유산들을 여지없이 파괴약탈하고 사람들의 성과 이름마저 빼앗았고, 600여만명에 달하는 청장년들을 강제로 끌어가 침략전쟁터와 고역장들에 내몰았고 그중 많은 사람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한 천인공노할 범죄를 자행했죠. 또 일제는 근 20여만명의 우리 여성들을 황군의 성노리개로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 민중은 일제식민지통치시기를 생각할 때마다 치를 떨고 있고, 기어코 피값을 받아낼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과 공인된 이런 사건들이 중학교용 역사교과서에 태평양전쟁을 대동아전쟁으로 미화해서 마치 아시아의 자유, 해방을 위한 전쟁이었던 것처럼 기술했구요, 일제식민지지배가 한국근대화에 도움을 줬다느니 임진왜란과 태평양전쟁을 미화하고 심지어 러일전쟁 및 태평양전쟁 등을 일본이 황인종을 대표해 *** 싸웠다는 식의 식민사관으로 일관했습니다. 특히 검정된 교과서는 종군위안부문제를 아예 그 자체도 고찰하지 않았구요, 조선여성을 공장 등으로 보냈다는 등의 왜곡의 극치를 보였습니다. *****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회계와 정치권에서 일본의 역사왜곡책동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는거예요.

사회자 : 네, 일본반동들이 내외여론의 강력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과거침략의 역사를 왜곡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건데요. 그에 대해서 좀더 말씀해 주시죠.

윤정원 : 그에 대한 대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두세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는 피로 얼룩진 저들의 과거역사를 미화분식해서 내외여론의 규탄을 **겁니다. 다른 하나는 자라나는 후대들에게 군국주의와 해외침략사상을 주입시켜서 대동아공영권을 옛꿈을 실현하려는 속셈이라고 봅니다. 따져보면 아주 위험한 것이고 절대로 용납 못할 범죄행위죠. 그래서 일본반동들은 우리 민족이 어젯날의 민족이 아니라는 걸 똑똑히 알고 분별있게 처신을 하고 행동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사회자 : 네, 그렇죠. 일제가 저지른 침략의 역사는 왜곡한다고 해서 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일본정부는 역사교과서를 당장 없애버리고 과거청산을 성근하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윤정원 : 그렇습니다. 일본은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본이 역사를 왜곡한다 해서 거기에 귀를 기울일 사람은 하나도 없고 도리어 일본의 그런 너절하고 추악한 책동은 죄악에 찬 일제의 지난날의 역사를 대를 두고 청산할 것을 결의하는 우리 민족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고 ***** ******* ***.

사회자 : 네, 지금까지 사회각계 정치권에서 일본의 역사교과서왜곡책동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문제를 갖고 얘기를 나눴는데요. 일본반동들은 우리 민중의 강력한 반일투쟁에 직면하기 전에 침략의 역사를 왜곡한 교과서를 당장 없애버려야 한다는 걸 다시금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윤정원 : 감사합니다.

역사왜곡 교과서 검정합격의 의미

민족시보, 주체90(2001)년 4월 11일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한중양국을 비롯한 국제적인 항의 속에서 지난 3일 2002년부터 사용될 중학교 역사교과서 수정본이 모두 검정에 합격했다.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관계자는 ≪할 수 없이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부분도 있지만 모임이 내건 취지대로 교과서가 탄생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들이 시인하듯이 일제의 팽창정책과 침략전쟁의 긍정적인 서술, 자국에 불리하거나 부정적 사실은 언급을 회피하고 일본의 우월성을 노골적으로 부각시킨 왜곡된 내용으로 가득찬 교과서이다.

≪만드는 모임≫의 교과서 수정본의 한국관련 기술을 살펴보자.

≪한국의 병합이 일본의 안전과 만주의 권익을 지키는데 필요하다고 여겼다≫ ≪영국 미국 러시아 3국은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한국내부에 병합을 수용하자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기술, 조선의 무력강점을 열강 3국이 묵인한 사실로 정당화하고 한국에 일단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또 ≪일본은 식민지 조선에서 철도 관개시설을 정비하는 등 개발을 행하고 토지조사를 시작했다≫고 한국근대화에 대한 시혜론을 펼치고 있다.

일본정부도 공식 인정했던 ≪위안부≫ 기술은 찾아볼 수 없다. 또 식민지화의 책임을 피해국에 전가하고 조선의 군제개혁 지원은 근대화와 독립을 위한 것이라고 날조하고 있다.

태평양전쟁을 일제가 전쟁명분으로 내세웠던 ≪대동아전쟁≫이라고 표기하고 ≪전쟁 초기 일본군이 연합군을 격파한 것은 오랫동안 구미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던 아시아인들에게 용기를 주었다≫며 아시아해방을 위한 전쟁이라는 제국주의 논리를 앞세워 침략전쟁을 합리화하고 있다. 심지어 전범재판을 통해 패전후 일본이 국제사회에 복귀한 ≪도쿄재판≫의 정당성마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고대사에서 근현대사까지 전편을 통해 왜곡된 그들의 역사관이 관철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99곳을 수정한 공민교과서에서는 ≪헌법은 천황제도 유지를 확인하고 있으며 천황은 일본국을 대표하고 일본국민을 통합하고 있다≫고 국민주권의 의미를 축소, 황국사관을 강조하고 있다. 또 ≪헌법과 자위대의 실태가 들어맞지 않는다≫고 개헌론을 전개하는가하면 핵무기 포기를 의문시하고 있다.

문제는 기존의 7종의 교과서도 일본의 가해사실을 대폭 삭제, 축소하고 있는 점이다. 이들 교과서도 ≪침략≫을 ≪진출≫ 또는 ≪남진≫으로 바꾸고 ≪삼광작전≫ 등 가해사실을 은폐, 강제성을 모호하게 하거나 가혹성을 완화했다. 한국관련 기술도 30%나 줄었으며 그중 4종은 ≪위안부≫ 기술을 삭제했다.

일본정부가 검정합격시킨 역사교과서의 문제점을 간추려보면 첫째, 침략전쟁의 정당화, 합리화. 둘째, 가해사실의 축소 은폐. 셋째, 황국사관으로 회귀. 넷째 일본의 우월성 부각. 다섯째, 학문적 근거가 없는 이야기를 역사적 사실로 날조하고 있는 점 따위다.

역사왜곡에 앞장선 일본정부

마치무라 문부과학성 장관은 3일 담화를 발표, **≪교과서검정은 집필자의 역사인식 등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고 하면서 ≪수정해서 합격된 것은 상당히 균형이 잡혔다≫ ≪명백한 잘못이 없기 때문에 재수정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일본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검정 신청때부터 논란이 있었던 ≪만드는 모임≫의 역사교과서에 대해 일본정부는 ≪일본 교과서는 국정이 아니고 검정이라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고 발뺌해 왔지만 교과서검정심의회가 문부과학성의 자문기관이며, 문부과학상이 최종적 검정합격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왜곡교과서를 검정합격시킴으로서 일본정부는 82년 교과서파동후 검정기준으로 설정한 ≪근린제국조항≫을 스스로 포기한 셈이 되었다.

자민당은 93년, **≪역사 검토위원회≫를 발족하여** ≪대동아전쟁의 총괄≫을 공간해 침략과 가해사실 부정에 앞장서왔다. **≪밝은 일본의원연맹≫, ≪일본의 앞날과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모임≫ 등이 잇달아 설립되어 전후의 자학적 역사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만드는 모임≫의 선구적 역할을 한 막강한 지지세력이 바로 이들 자민당 우익국회의원들이다.**

일본과 같은 침략의 역사를 가진 독일의 경우, 역사가들이 교과서의 민족주의, 자국중심주의적으로 왜곡된 역사기술을 시정하기 위해 동유럽 역사학자들과 국제적인 역사교과서 대화를 계속해왔다. 피침략국 폴란드와 72년부터 교과서문제를 협의를 통해 발표한 ≪공동교과서권고≫는 독일의 역사교과서에 큰 영향을 주고있다. 영국의 경우도 영국군이 자행한 인도인 대량학살사건, 아일랜드 침략, 중국 아편전쟁 등의 사실을 역사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다. 역사는 상대적인 것이다.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교육을 하면 일본군국주의가 부활하고 신군국주의가 형성되어 다시 한국을 침략하고 종속화하려고 덤빌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유일하게 과거 침략국에 대한 성실한 사죄반성과 배상을 회피하고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 미화하는 일본은 국제적으로 신용을 잃고 고립될 뿐이다. 역사교육은 민족의식과 국민의식 양성에 큰 역할을 한다. 왜곡된 역사를 배운 일본 청소년이 또다시 과거 침략의 전철을 밟지 않는 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일본정부는 역사왜곡에 대한 항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 ≪김명희 기자≫

≪위안부력사는 화장실력사≫망언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평양 주체 90년 4월 14일발 조선중앙통신≫

지성과 도덕을 현대 인류문명의 보편적기준으로 삼는 21세기의 이 행성에 중세기 야만족만이 생각해 낼수 있는 패륜적사고방식이 대두하여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아 냈다.

일본의 침략과 범죄의 력사를 미화하고 정당화한 력사교과서를 서술하여 내외의 항의와 규탄을 불러 일으킨 일본교수 사까모또 다까오가 이미전에 일본의 공식출판물에 ≪위안부력사는 화장실력사≫**라는 망언을 늘어** 놓았다는것이 뒤늦게 알려 진것이다.

사까모또의 망언은 사람들로 하여금 지난 세기 중엽 ≪위안소≫**앞에 바지를** 내리우고 길게 늘어 서서 우들우들 떨며 차례를 기다리던 일본인들의 추악한 몰골과 함께 그에 대한 일본정부, 일본학계와 언론계의 력사적태도를 상기하지 않을수 없게 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추잡한 도덕관을 가진 사까모또가 일본의 미래와 관련되는 력사교과서를 집필하는 대표적 지성인이며 그가 쓴 력사교과서를 일본당국이 검정에서 공식 통과시켰다는 점이다.

이것은 결국 일본의 지성도가 인간이하의 동물적인 수준, 야만적인 상태임을 정부당국과 지성인들 스스로가 자인한 것이나 같다.

일본의 어용사가들과 언론인들이 저질적인 모방, 복사의 쓰레기문화의 터전에서 자라난 인간쓰레기들이며 그들의 도덕적수준이 저렬하다는것은 알려 져 있지만 일본의 반인륜적인 범죄의 가장 비극적인 희생자들인 녀성들을 다시금 입에 담지 못할 망발로 모독한것은 세상사람들의 치를 떨게 하고 있다.

참으로 인류도덕이 시시각각으로 말살되고 있는 일본이라는 나라와 그 나라에서 후대들을 교육육성한다고 하는 일본지식인들의 교육자적 량심과 인간자격을 다시금 가늠해보지 않을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정치인들과 지성인들을 두고 ≪쓰레기 정치인≫, **≪쓰레기 지성인≫이라고** 평하는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종군위안부≫범죄가 일본정부의 국가조직적인 대강간행위라는것은 론의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며 그것을 부정하는것 또한 반인륜적인 범죄이다.

20세기 인류사를 최대의 집단강간행위로 더럽히고도 그것을 부정하다 못해 나중에는 ≪화장실력사≫**라는 야비하고 추악한 언어로** 표현한것은 오직 일본인들뿐이다.

사까모또는 자신뿐아니라 일본지성계 전체를 그가 표현한 ≪화장실≫속에 기생하는 동물적존재로 만들어 버렸다. 이런 자가 ≪교수≫연하고 그 무슨 력사교과서를 집필한다는것 자체가 력사와 인류도덕에 대한 우롱이며 모독이다.

일본은 자국의 도덕과 지성이 사까모또와 같은 자에 의해 ≪화장실≫로 빠져 들어 썩어 져 가고 있는데 대하여 비애를 느껴야 할것이다.

조국통일범민족련합 일본당국의 력사왜곡책동을 규탄



≪평양 5월 16일발 조선중앙통신≫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북측, 남측, 해외본부들이 일본당국이 중학교용력사교과서를 끝내 통과시킨것과 관련하여 16일 이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공동성명은 다음과 같다.

최근 일본당국은 내외의 한결 같은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극우익단체인 ≪새 력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만들어 낸 중학교용력사교과서를 끝내 통과시켜 우리 민족과 아시아인민들의 치솟는 분노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문제의 교과서들은 우리 나라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통치와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서 감행한 강제련행과 대학살, **≪종군위안부≫와 같은 일제의** 반인륜적범죄행위를 왜곡, 은페하고 비렬하게도 저들의 침략을 미화하고 있다.

우리 나라를 강점한 일제는 징병, 징용으로 600여만명의 청장년들을 끌어다 침략전쟁의 대포밥으로, 탄광, 광산 등 고역장의 노예로 내몰았으며 수많은 무고한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고 근 20만명의 우리 녀성들을 일제침략군의 성노리개로 내몰아 순결한 조선녀성들의 정조를 무참히 유린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

또한 그 어느 침략사에도 없는 민족말살정책으로 우리의 말과 글, 성과 이름까지 빼앗으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으며 많은 국보적인 문화재들, 막대한 량의 자연부원을 강탈해 가는 잔악무도한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

일제가 우리 민족과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침략하여 저지른 만행들은 국제법상으로나 그리고 인류량심에 비추어 보아도 절대로 용납될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사실을 전도하여 당시의 침략행위에 대해 ≪아시아국가들의 독립을 도와 주었다≫**느니, ≪아시아지역의 안전≫을** 위한것이였다느니 하면서 저들의 더러운 과거 침략사를 미화하며 아시아를 다시 제패하려는 군국주의야망을 로골적으로 드러 내 놓고 있다.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북측본부, 남측본부, 해외본부는 일본당국의 행위를 과거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 당한 우리 민족과 아시아나라 인민들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으로, 력사를 저들의 군국주의야망실현에 유리하게 왜곡하는 파렴치한 정치적강도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

범민련 각 지역본부들은 일본반동들이 추구하고 있는 군국주의적야망이야말로 인류량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가장 추악한 비도덕적행위라는것을 전 세계앞에 똑똑히 인식시킬것이다.

일본당국은 더 늦기전에 력사교과서왜곡책동을 당장 걷어 치우고 후대들에게 옳은 력사관을 주며 수치스러운 과거사에 대해 성실히 사죄하고 보상하여야 한다.

조국통일범민족련합은 피로 얼룩진 침략력사를 왜곡하고 반평화적이며 반인륜적인 과거를 재현하려는 일본반동들의 불순한 움직임을 절대로 보고만 있지 않을것이며 그를 반대하여 해내외 온 겨레와 함께 적극 투쟁해 나갈것이다.

일본당국의 력사교과서 개악책동의 진상

최근 일본당국은 국제사회의 한결 같은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과거 일본이 조선과 아시아나라들에서 감행한 범죄적침략전쟁과 야수적만행, 강도적행위를 심히 미화하고 외면, 은폐한 중학교용력사교과서들을 검정≪합격≫시키였다.

검정통과된 교과서는 내외의 강경한 항의에 의하여 원본의 일부 내용을 수정한것이라고는 하나 아직도 40여곳에 조선침략의 죄악사를 왜곡미화한 대목이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당국자들은 이제 더는 수정할수 없다고 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교육에 강행도입하려고 책동하고 있다.

일본당국의 조선력사에 대한 왜곡행위는 과거 일제가 조선인민앞에 저지른 범행을 합리화함으로써 군국주의자들의 전철을 밟아 또다시 재침의 길에 나서려는 침략의지의 발현이며 우리 민족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고 일제의 침략과 학살, 략탈의 력사를 바로 쓸것을 요구하는 우리 인민과 세계의 공정한 여론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다.

이로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력사학학회는 일본당국의 력사왜곡행위를 엄중시하면서 력사위조자들이 력사의 진실과 침략의 죄악사를 얼마나 파렴치하게 왜곡하고 교활하게 미화, 은폐하였는가를 낱낱이 폭로단죄하며 력사왜곡책동의 진의도를 온 세상에 고발하려고 한다

1.일본의 조선지배를 력사적으로 합리화하기 위한 파렴치한 날조

검정통과된 력사교과서는 초기 조일관계사를 혹심하게 왜곡하면서 곳곳에서 파산된지 오랜 ≪미마나미야께≫**설을 되풀이하고 있다.**

≪미마나미야께≫**설이란 일본이** 4세기이후 수백년동안 조선의 남부지역 임나≪미마나≫에 ≪일본부≪미야께≫≫**를 설치하고 지배하였다는 주장이다.**

이 설은 이미 오래전에 북남력사학자들과 일본의 량심 있는 학자들의 연구결과에 의하여 완전한 날조품이라는것이 확인되였다.

≪미마나미야께≫**설에 대한 항의의 목소리가** 높아 지자 수정본에서는 교묘하게 ≪일본부≫**란 말을 ≪거점≫으로 바꾸어 놓고** 야마또정권이 ≪**반도남부의** 임나≪가야≫라고 하는 곳에 거점을 구축≫했으며 6세기에 ≪임나로부터 철퇴하여 반도정책에서 실패했다≫고 고쳐 놓았다. 보는바와 같이 검정된 새 교과서는 문구를 바꾸었을뿐 ≪임나≫지배설을 그대로 살리였다.

이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교과서는 4세기 당시 아직 서부일본을 통합하지도 못한 기내 야마또정권을 통일정권으로 묘사하면서 이 정권이 조선에 출병하여 남부지역을 지배한듯이 력사를 왜곡하였다.

4세기에 아직 서부일본을 통일하지도 못한 한개 지방정권이 바다 건너 이국땅에 와서 신라와 백제를 굴복시키고 그곳에 식민지를 설치하였다고 하는것은 어불성설이다. 더우기 고구려 광개토왕비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4~5세기에 야마또정권의 군사력이 조선남부에서 종횡무진으로 활동한것처럼 묘사한것은 전혀 당시의 력사적사실과 맞지 않는 위조행위이다.

력사적사실은 이와 정반대로 그 모든 사건들이 일본의 기비지방≪오늘의 오까야마현일대≫에 형성된 임나≪가야≫, 고마≪고구려≫, 구다라≪백제≫, 시라기≪신라≫ 등 조선계통소국들과 기내 야마또정권사이에 벌어 진 일임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서기**≫**에 나오는** ≪미마나미야께≫**란 바로** 6세기경에 기비지방에 가야≪임나≫소국에 설치된 야마또정권의 림시행정기관≪야마또노 미야께≫이였다. 지난 날 일제어용사가들은 일본의 조선지배를 력사적으로 합리화하려는 목적밑에 일본에서 벌어 진 이 사건의 무대를 조선에 옮겨 놓았던것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력사교과서에서 과거 식민지어용사가들에 의하여 조작된 이 허황한 ≪미마나미야께≫**설을** 렴치없이 또다시 들고 나온데는 그들이 노리는 불순한 정치적목적이 있다. 일본당국자들은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임나≫**설을 계속 주입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야마또민족이 천수백년전부터 조선에 식민지를 두고 조선민족을 통치한 ≪우월한 민족≫이며 조선민족은 일찍부터 일본의 지배를 받은 ≪렬등≫민족이라는것을 믿게 하려 하고 있으며 그들에게 식민주의사상, 조선재침야망을 불어 넣으려 하고 있다.

이런 민족배타주의적사상은 교과서의 이 부분에서 과거 일제가 조선과 조선민족을 멸시하여 ≪반도≫, ≪**반도인**≫ **이라고 부르던 말마디를 그대로 골라 써가며 ≪반도정책≫이요, ≪반도남부≫요** 한것에서도 표현되고 있다. 지어 그들은 ≪백제나 신라가 야마또조정에 조공하였다≫는 등 없는 사실도 꺼리낌없이 꾸며 냈으며 미개지였던 일본에 발전된 조선문화를 전파해 준 문명의 선도자들을 ≪귀화인≫으로 모독하였는가 하면 지어 명백히 백제국명이 붙은 ≪백제관음상≫마저도 일본것이라고 우겨 대고 있다.

력사교과서는 또한 일본의 조선지배를 력사적으로 ≫**합리화≪하기 위하여** 일본력사의 ≪**우수성≫을 인위적으로 강조하고 그 비교**, 방증대상으로 조선력사를 꺼들어 대면서 조선력사는 예속의 력사이고 조선민족은 력사적으로 ≪**속국≫의 운명에 놓여** 있은듯이 란폭하게 왜곡하였다.

조공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것은 중세 아시아의 큰 나라와 작은 나라들사이의 의례관계, 변형된 무역관계였지 근대적의미에서의 종주국과 속국관계는 아니였다. 청나라가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갖고 있었다≫고 하면서 그 무슨 ≪중화질서≫라는 말을 만들어 내여 조선이 ≪중국의 력대왕조

에 복속≫**되여 있었다고** 쓴것도 실은 사대외교의 형식을 본질로 본 고약한 력사위조이다.

특히 고려가 몽골의 ≪속국≫이였다고 쓴것은 완전한 상식밖의 날조행위이다.

13세기 초중엽에 고려인민들은 몽골의 침략을 반대하는 근 30년간의 반침략투쟁을 전개하여 끝내 ≪화친≫을 이룩하고 고려정권을 보존유지할수 있었다. 당시 유라시아의 광활한 대륙이 몽골의 지배밑에 들어 가고 칭기스한후예들이 직접 통치하는 몽골한국들이 세워 졌지만 고려만은 자기 주권을 유지하였다. 물론 일정한 기간 몽골의 다로가치들이 고려의 서북, 동북지방을 통치한 일이 있었지만 총체적으로 고려는 전국토에서 자기의 주권을 확고히 행사하였으며 따라서 두 나라 관계는 종주국과 속국의 관계가 아니였다. 몽골통치배들까지도 고려를 ≪천하에서 신하로 복종하지 않는≫나라라고 말한것은 두 나라 관계의 본질을 실토한것이라고 볼수 있다.

이 엄연한 력사적사실을 부인하고 고려가 몽골의 ≪속국≫이였다고 서술한것은 나라의 자주권을 영예롭게 지켜 싸운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력사에 대한 참을수 없는 왜곡이다.

이렇듯 일본력사교과서들에 조선력사를 수많이 꺼들면서도 조선력사의 자랑으로 되는 사실에는 전혀 눈을 감고 일본의 ≪우월감≫을 조장시키는데 도움이 되는것이라면 분별없이 력사를 왜곡한것은 일본의 조선지배설을 력사적으로 ≪**합리화**≫**하여 또다시 재침의 길에 나서도록 새 세대들을 오도하려는 흉계에서** 출발한것이라고밖에 달리 볼수 없다.

2.조선강점을 위한 침략책동을 미화분식

교과서는 일본의 조선침략과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지정학적론리를 끌어 들이면서 ≪**조선반도위협**≫**설을 들고 나왔다**.

수정되기전 교과서에 ≪일본을 향하여 대륙으로부터 하나의 팔뚝이 돌출되여 있다. 이것이 조선반도이다. 조선반도가 일본의 적대적대국의 지배하에 들어 가면 일본을 공격하는 절호의 기지≫로 되기때문에 ≪배후지를 못 가진 섬나라 일본은 자국의 방위가 곤난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조선반도는 끊임없이 일본에 들이대고 있는 흉기로 되지 않을수 없는 위치관계에 있다. ≫**고** 쓴것이 바로 그 한 실례로 된다.

조선을 일본의 안전을 위협하는 ≪흉기≫라고 규정한데 대한 항의가 높아 지자 수정본에서는 ≪**흉기**≫**라는 표현을** 삭제하였을뿐 조선반도가 일본의 ≪위협≫으로 된다는 ≪조선위협≫설의 본질적내용은 조금도 달라 지지 않았다.

≪**조선반도위협**≫**설은 본질에 있어서 일본은 자체안전을 위해 반드시 조선을 정복하여 자기 지배하에 두어야만 한다는** 강도적인 침략론리이며 지정학적위치가 달라 지지 않는한 조선지배야망을 버 리지 않겠다는 로골적인 재침선언이다.

력사적인 사실은 조선이 일본의 안전을 위협하는 ≪팔뚝≫으로 되여 온것이 아니라 일본이 력대로 조선을 침략하는 칼을 쥔 팔뚝이였다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

1592－1598년 ≪임진왜란≫때 도요또미는 조선을 중국침략의 문호로, 교량으로 간주했으며 악명 높은 ≪다나까상주서≫**에서도 조선을 대륙침략의 교두보로 보고 중국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선을 타고 앉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조선을 강점한 일본제국주의는 조선을 발판으로 하여 만주를 침략하였고 중국대륙에로 전쟁을 확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력사교과서에서는 조선침략을 자체의 안전을 위한 정당방위로 묘사하면서 ≪정한론≫**이나** ≪**강화도조약**≫, ≪**한일합병**≫ **등** 강도적인 침략행위를 합리화하였다.

≪정한론≫**은** 19세기 중엽 사이고 다까모리를 우두머리로 한 사쯔마번출신의 일본군국주의자들에 의하여 제창된 ≪조선정복론≫**이며 그것을 국책으로 규정하고** ≪**정한**≫**의 길로 줄달음치게** 된것은 해외침략으로 국내모순을 해결함과 동시에 자본주의적시초축적의 원천을 마련하려는 일본정부의 대내정책의 필연적결과이며 그 연장이였던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는 ≪187 3년 개국권유를 거절한 조선의 태도가 무례하다고 하여 사족들사이에 조선에 무력을 보내여 개국을 강박하자는 정한론이 대두하였다. ≫**고 씀으로써** ≪정한론≫**이 마치도** ≪**국교**≫**를 맺자는 일본정부의 요구를 거절한** 리조정부의 ≪**무례**≫**한 태도로 하여** 발생한것처럼 진실을 왜곡하였다. 이것은 참으로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의 강도적론리이다.

이런 파렴치한 수법은 ≪운양≫호사건 서술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교과서는 ≪운양≫호침입사건을 ≪**일본군함이 조선의 강화도에서 측량을 하는 등 시위행동을** 하였기때문에 조선의 군대와 교전한 사건≫, ≪**포격 당한 사건**≫**이라고 모호하게 쓰고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은 다시 조선에 국교수립을** 강박하였다. ≫**고 사건의 전반내용과 목적을 심히** 왜곡, 미화하였다.

알려 진바와 같이 일본군함 ≪운양≫**호는 측량하기 위하여 강화도에 기여** 든것이 아니라 군사적도발을 일으켜 조선에 불평등조약을 강요할 구실을 마련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파견된 침략의 척후병이였다. 다른 나라 령해에서 측량하자면 응당 그 나라의 사전승인을 받는것이 국제관례로 되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군국주의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함장 이노우에는 자기 정부로부터 사전에 군사정탐임무와 강화도공격임무를 받고 왔던것이며 바로 그렇기때문에 즉시 물러 가라는 조선측의 요구에 응할대신 물이 떨어 졌다는 구실밑에 초지진포대에까지 계속 전진하였다. 이에 대하여 조선군대가 자위적조치를 취하자 기다렸다는듯이 초지진포대에 맹렬한 포사격을 가했으며 아무런 방어시설도 없거나 약한 정산도와 영종진을 습격하여 수많은 무고한 주민들을 살륙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운양≫**호사건의 전 과정은 그것이** 조선측의 발포를 유도하여 사건을 확대함으로써 그것을 구실로 불평등조약을 강요하여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며 ≪정한론≫**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계획적**

인 군사작전의 한 고리였다는것을 보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연한 력사적사실을 숨기고 침략을 ≪측량 등 시위행동≫으로, 군사적도발과 학살만행을 ≪교전≫으로 분식하는것은 피해자인 조선민족의 격분을 자아내는 력사왜곡이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런 군사적도발과 압력을 거듭하던 끝에 1876년에는 리조정부에 ≪**강화도조약**≫**체결을 강요해 나섰다**.

일본은 이 조약으로 조선침략의 길을 열어 놓았으며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분야에서 조선을 예속시킬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였다. 그러나 력사교과서는 ≪**강화도조약**≫**의 체결로** ≪오래동안 현안으로 되여 온 조선과의 국교가 수립되였다≫**고만 씀으로써 이 조약의** 침략적성격과 목적을 고의적으로 숨기였다.

력사교과서는 근대적개혁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력사도 완전히 왜곡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도 19세기 후반기에는 사회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따라 주체적력량에 의한 근대적개혁운동이 진행되였다. 봉건사회의 태내에서 발생발전하고 있던 자본주의적관계를 반영하여 개화사상이 싹 터나고 개화파들이 형성되였으며 그들에 의한 부르죠아개혁운동이 벌어 졌다.

그러나 력사교과서는 이와 반대로 일본이 조선의 근대화에 그 무슨 ≪도움≫이라도 준것처럼 왜곡서술하였다. ≪**갑신정변**≫**을 주도한 김옥균을** ≪**친일파**≫**로 규정함으로써** ≪**갑신정변**≫ **마치도 일본의** 조종하에 진행된것처럼 만들어 놓고 실패원인도 청나라간섭에만 귀결시켰을뿐 일본의 배신행위에 대해서 외면한것은 그 한 실례로 된다. 력사적사실은 어떠하였는가?

일본은 정치자금해결을 위한 개화파들의 활동을 파탄시켰으며 신식군대를 양성하려던 개화파들의 시도도 수포로 돌아 가게 하였을뿐아니라 정변당시에는 청나라간섭군이 새 정권이 자리 잡고 있던 왕궁에 침공해 오는 결정적인 순간에 왕궁호위에 동원시켰던 일본수비대를 배신적으로 철수시킴으로써 정변이 진압 당하게 하는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

이것이 바로 력사교과서들에서 일본이 조선의 근대화와 독립을 도와 주었다고 왜곡서술한 력사적사실의 일단이다.

이런 왜곡행위는 갑오농민전쟁 서술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갑오농민전쟁은 ≪척양척왜≫, ≪**보국안민**≫**의** 구호밑에 일본의 침략을 반대하고 나라의 독립과 근대화, 인민의 안녕을 지향하여 궐기한 대규모적인 반봉건, 반외세 농민전쟁이였다. 농민군은 삼남의 거의 전 지역을 해방하고 충천한 기세로 한성≪서울≫을 향해 진격하고 있었다. 승리는 시간문제로 되였다. 그러나 이 결정적순간에 일본침략군이 봉기군을무참히 진압함으로써 일본은 여기서도 조선의 자주독립과 근대적발전을 억제한 조선민족의 철천의 원쑤로서의 정체를 여지없이 드러내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살자로서의 죄행을 감추고 갑오농민전쟁을 ≫동학의 란≪이라고 하면서 그의 반침략, 반일적성격을 거세하고 그 의의를 종교운동에 한정시킨것은 조선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일본의 침략행위를 정당화하고 조선의 근대화운동을 가로 막은 죄행을 감싸보려는 목적에서 나온 추악한 력사위조행위이다.

3.식민지통치의 죄악을 외면, 은페

일본 중학교력사교과서들은 조선을 강제병탄한 일제침략의 강도적성격을 은페하고 조선강점이 일본의 ≫안전≪과 당시의 국제적사조로 보아 필요한 조치였던듯이 왜곡서술하였으며 식민지통치의 죄악을 숨기고 그것이 조선의 근대적발전에 기여한것으로 미화하였다.

일제의 조선강점은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수 없는 특대형국가범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는 당시 ≪일본정부는 한국의 병합이 일본의 안전과 만주의 권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고 썼으며 조선강점에 대하여 ≪영국, 미국, 로씨야 3국은...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한국 국내에서는 일부 병합을 받아 들이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하였다.

≪일본의 안전≫을 위하여 조선강점이 ≪필요≫했다는것은 작은 나라, 약한 나라를 자기 리익의 희생물로 간주하는 완전히 시대착오적인 대국주의적, 국수주의적사고방식이며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 고유한 ≪조선반도위협≫설에서 출발한 망설이다. 이 주장의 기저에는 다른 민족멸시사상과 야마또민족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극악한 인종주의사상이 놓여 있다. ≪만주의 권익 보호≫를 운운하는것도 결국은 만주를 다른 대국의 침략으로부터 일본이 ≪보위≫하여야 한다는것인데 이것은 본질에서 ≪내가 살아 가기 위해서는 너를 먹어야 하겠다≫는 약육강식론의 로골적인 제창이다. 오늘 자주시대에 ≪정치대국≫으로 행세하면서 유엔안보리사회 상임리사국이 되겠다고 분주히 돌아 치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사상의식과 륜리도덕수준은 바로 이렇게 저렬하다.

극소수 친일매국노들이 일본의 조선강점을 지지한것을 부각시켜 강조한것도 바로 이런 사고방식의 산물이다. 우리는 여기서 몇명의 친일매국노들에게 응원을 바라지 않으면 안되는 일본당국자들의 가련한 몰골을 보게 된다. 또 영국, 미국, 로씨야 등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한데 대하여 말한다면 로씨야는 로일전쟁에서 패하여 자기 령토까지 빼앗긴 처지에서 남의 령토가 병탄되는데 대하여 푸념할 여지가 없었으며 영국은 ≪영일동맹≫에 의하여, 미국은 ≪가쯔라-타프트협약≫에 의하여 벙어리가 된 처지에 있었다. 일본당국자들이 조선강점의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끄집어 낸 력사적사실들이란 이렇듯 모두가 한결같이 터무니없는것들이다. 우리 시대 인민들은 이런 강도적사고방식을 가진 자들을 ≪정치난쟁이≫라고 부르는데 실로 일본군국주의자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정치난쟁이들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력사교과서는 일제의 국토병탄의 진상도 악랄하게 개악하였다.

교과서에서는 ≪안중근이 이또 히로부미를 만주 할빈에서 암살≫했기때문에 ≪일본은 한국을 병합하여 식민지로

만들었다≫고 썼는가 하면 조선인민의 반침략투쟁을 약화시키고 반일의병투쟁과 전민족적반일애국항쟁인 3. 1인민봉기를 비롯한 각이한 형태의 반일투쟁을 무참히 탄압한 만행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또가 처단된 요인은 밝히지 않고 그 ≫보복≪조치로 조선을 병탄한듯이 력사를 왜곡하고 수많은 반일투사들을 무참히 살해한 사실을 감춘것은 일제의 조선강점을 합리화하고 식민지통치가 조선인민의 큰 저항을 받음이 없이 순조롭게 진행된듯 한 인상을 조성함으로써 일본의 과거죄행을 무마시키고 반성, 속죄할 근거를 말살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일본당국자들의 교과서개악책동에서 가장 범죄적인것은 죄악에 찬 식민지통치를 미화하면서 인민학살과 자원략탈, 강제련행과 같은 특대형범죄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것이다.

일제는 조선을 비법강점한후 40여년간의 식민지통치를 실시하면서 조선인민에게 노예의 운명을 강요하고 조선에서 인적, 물적자원을 무제한 략탈해 갔다.

일본륙군대장 데라우찌는 조선총독으로 부임하자 ≪조선사람은 우리 일본의 법률에 복종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는 폭언을 공공연히 내던지고 그대로 실행하였다.

조선은 말그대로 하나의 감옥이였으며 인간생지옥이였다.

그러나 력사교과서는 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미화하는데만 급급하였다. ≪한국병합후 일본은 식민지로 된 조선에서 철도, 관개시설을 정비하는 등의 개발을 진행하고 토지조사를 개시하였다≫고 서술한것은 그 한 실례로 된다.

그러나 여기서 일제가 왜 조선을 강점한후 철도, 관개시설 등을 정비하는 등 ≪개발≫을 하고 토지조사를 하였는가 하는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그로 하여 조선인민이 겪은 피해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다.

력사교과서는 또한 식민지통치기간 조선인민에게 입힌 인적, 물적 및 정신적피해가 얼마나 가혹하였는가 하는데 대해서도 교활한 방법으로 축소하였거나 일반적서술로 대체하였다.

력사교과서는 태평양전쟁시기 조선인민에게 강요된 징용과 징병이 일본인들이 겪던것과 같은것으로 서술하였으며 ≪황민화≫정책과 창씨개명도 ≪일본식의 성명을 부르게 하였다≫는 서술로 대체함으로써 그 본질과 목적을 의도적으로 숨기였다. 이런 교활한 방법으로 조선인민의 피해상황을 극소화함으로써 결국 일본이 조선인 수백만을 희생시키고 600여만을 강제련행한 죄악의 진상을 교묘하게 감추려고 하였다.

일제가 조선에서 략탈해 간 희유금속들과 철광석들, 쌀, 목화 등 농산물들과 소 등 물질적재부는 천문학적수자에 달한다. 이와 함께 일제는 조선인민의 민족성을 말살하고 우리 인민을 ≫황국신민화≪하기 위하여 조선의 말과 글, 이름마저 완전히 없애 치우려고 하였다.

력사교과서에서 특히 엄중한것은 일본정부와 군부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감행된 ≪종군위안부≫문제를 고의적으로 루락시킨것이다. 근 20만의 조선녀성들을 성노예로 만든 일본군의 범죄는 이미 력사적사실로 명백히 밝혀 졌으며 이에 대해서는 일본당국도 인정하였고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도 규탄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중한 반인륜적범죄를 고의적으로 숨기여 력사의 흑막속에 덮어 버리려고 한것은 그에 대한 철면피한 책임회피이며 인륜도덕과 정의에 대한 로골적인 도전이며 추호도 용서 못할 대범죄이다.

4.침략전쟁을 정당한것으로 변호

일본의 중세, 근대의 력사는 해외침략과 략탈전쟁으로 엮어 진 피의 력사이기도 하다.

중세 왜구들은 조선과 중국의 넓은 지역에 침입하여 살인과 략탈을 일삼았으며 임진≪1592≫년에는 20여만의 병력을 동원하여 조선의 거의 전 국토를 유린하였다. 근대이후에는 청일전쟁에 이어 로일전쟁,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을 도발하여 조선과 아시아의 광범한 지역을 강점하였다.

일본의 근대화의 완성과 자본주의발전, 물질적부의 축적은 조선인민과 중국인민의 고혈로 이루어 진것이라고 볼수있다. 략탈과 살인이 왜구, 사무라이들의 생활방식이였다면 전쟁은 그 후예들인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생존조건이였으며 잔인성과 교활성, 략탈성은 그의 속성이였다.

력사교과서는 이 엄연한 사실을 외면하고 일본의 죄악에 찬 해외침략의 력사를 정당한것으로 묘사하면서 그 죄과를 극소화하였거나 외면, 은폐하였다.

≪임진왜란≫은 그 잔인성, 야수성에 있어서 왜구의 침략을 방불케 한 략탈적침략전쟁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는 임진전쟁을 아시아의 전 대륙을 지배하려는 ≫≪거대한 꿈≫으로, ≪의기왕성≫**해 진** 도요또미 히데요시의 장거처럼 묘사하였고 침략의 개시도 ≪조선에로의 출병≫, ≪**대군을 조선에 보냈다≫는 식으로 모호하게 씀으로써 침략을 분식하였으며 전쟁에서 조선인민에게 입힌 잔인한 가해사실에 대해서도 ≪조선의 국토와 사람들의 생활이 현저히** 황폐화되였다≫**는 말로** 굼때였다.

≪**임진왜란**≫**이 조선인민에게** 들씌운 재난과 불행은 인민생활이 령락되고 국토가 황폐화된 정도가 아니다. 일본사무라이들은 조선에 침략의 발을 들여 놓은 순간부터 무고한 조선사람들을 닥치는대로 죽이고 랍치해 갔으며 조상전래의 수많은 문화재들을 파괴략탈하였다.

오늘도 일본 교또와 오까야마에는 조선사람의 코를 베여가 만든 ≪하나쯔까≫≪코무덤≫, ≪미미쯔까≫≪귀무덤≫라는 무덤이 있다. 여기에는 무참히 살해된 조선사람들의 구천에 사무친 원한이 어리여 있다.

조선사람을 닥치는대로 죽이는것도 성차지 않아 베여 온 코를 가지고 ≪군공≫**을** 론하였으니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일본의 야수적인 침략죄행은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수 없다.

일본이 근대 이후에 와서만도 청일전쟁으로부터 태평양전쟁에 이르기까지 크고작은 전쟁을 련속 도발하고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으나 교과서에서는 그 진상을 왜곡하고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키면서 자기 죄과를 미화분식하기에 애 쓰고 있다.

청일전쟁과 로일전쟁은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독점하기 위하여 조선에 세력을 뻗치고 있던 청, 로의 세력을 몰아

내고 독점적지배기반을 쌓기 위하여 도발한 침략전쟁이였으나 교과서는 조선을 ≪중립국≫으로 만들며 일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으킨 전쟁인듯이 왜곡서술하였으며 특히 로일전쟁은 당시 ≪약육강식의 가혹한 세계≫속에서 ≪일본의 생존을 걸고≫ 할수 없이 진행하지 않으면 안된 ≪장대한 국민전쟁≫이였던듯이 그 침략성을 은폐하고 정당화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리고 로일전쟁에서의 일본의 승리를 ≪세계를 변화시킨 일본의 승리≫로 묘사하고 ≪세계의 억압민족들에게 독립에 대한 끝 없는 희망≫과 ≪용기≫를 안겨 준데 그 의의가 있는것처럼 사실을 전도하여 서술하였다.

태평양전쟁서술에서는 이런 파렴치성이 극도에 이르고 있다. 교과서는 이 전쟁이 당시 일제의 아시아지배야망이였던 ≪대동아공영권≫**을 이루기** 위한것이라고 하면서 침략전쟁을 ≪대동아전쟁≫**이라 부르고** ≪대동아공영권≫**의 목적이 아시아** ≪**각국의 자주독립**, 각국의 제휴에 의한 경제발전, 인종차별의 철폐≫**에** 있은듯이 왜곡하였으며 친일괴뢰들이 도꾜에 모여 발표한 ≪대동아회의≫의 공동선언≪194 3. 11≫에 의하여 ≪일본의 전쟁관념이 명백해 졌다≫고 하였다.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 전쟁초기 일본이 련합국군을 타승함으로써 ≪**오랜 기간 유럽**, 미국의 식민지지배밑에 있던 아시아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으며 ≪일본군의 남방진출은 아시아제국의 독립을 촉진시킨 하나의 계기로도 되였다≫고 꺼리낌없이 흑백을 전도하였다. 이것은 그대로 ≪대동아전쟁≫**이 백색인들의 지배로부터** 황색인들을 해방하기 위한 ≪해방전쟁≫이였다고 떠벌인 궤변의 재현이다.

태평양전쟁은 아시아 전 지역을 식민지로 만들려는 일제의 야심적인 침략전쟁이였으며 ≪**남방진출**≫**은 이 침략전쟁수행에 필요한 전략물자를 해결하며 교전일방인 미국과 영국의 태평양군사거점들을 격파함으로써 동남아시아에서의 지배권을 확립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일본군의 남방진출**≫**로** ≪**독립**≫**하였다는 나라들이란 모두가 한결같이 친일괴뢰정권이 세워 진 일본의 식민지였으며** ≪대동아공영권≫**이란 본질에 있어서 일제의 세력권이며 구식민주의자들에 의한 식민지통치체계였다.**

일제는 ≪대동아신질서≫수립의 구호밑에 아시아나라 인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였다. 현재까지 알려 진데 의하면 그 수는 중국에서 3, 500만, 웨 남에서 200만, 인도네시아에서 200만, 필리핀에서 110만, 말라이에서 120만이상에 이른다.

이 끔찍한 살인범죄를 감추고 식민지재분할을 위한 침략전쟁을 ≪대동아전쟁≫**으로**, 일제의 식민지통치권을 ≪공영권≫**으로** 묘사하는것은 실로 시비전도와 허위날조에서 파렴치성의 절정이다.

침략과 정의를 전도하면서 일본의 과거 죄행을 감추거나 정당한것으로 왜곡하는 력사위조행위는 조선전쟁서술에서도 로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과서는 인민군대의 자위적인 방어와 반공격을 ≪**침공**≫ **이라고 단정하고 미제의 조선침략을** 정당한것으로 묘사하면서 일본의 범죄적인 전쟁가담행위를 은폐하고 일본은 ≪미군에 많은 물자를 공급≫하였다고만 썼다. 이것은 그야말로 력사왜곡의 전형이다. 조선에서 전쟁은 1947년부터 미제의 조정과 관여 밑에 국부전쟁형태로 38도선에서 끊임없이 벌어 졌다. 미극동군사령부에 근무하였던 데이비드 콘데와 에이다대좌 등에 의하여 그 진상이 여지없이 폭로된바와 같이 38도선에서의 ≪작은 전쟁≫이 곧 조선전쟁의 시초였다. 조선전쟁은 전적으로 미국의 세계제패전략과 극동정책, 리승만괴뢰정권의 ≪**북진통일**≫론의 산물이였으며 이 ≪작은 전쟁≫의 연장이고 확대였다. 미제와 리승만도당이 조선전쟁을 도발하지 않을수 없었던 필연성과 직접적원인도 이미 우리 학계와 미국, 일본의 량심적인 학자들에 의하여 밝혀 진지 오래다. 일본은 미국의 전략적요구에 따라 조선전쟁도발계획과 작전지도를 만들어 주었으며 전쟁에 직접 참전하여 미군을 적극 지원한 교전일방이다. ≪**황군**≫**출신장교들은 미군참모부들에서** 길안내자가 되고 수많은 장교들과 사병들은 ≪유엔군≫과 함께 지상전에 참가하였을뿐아니라 인천, 원산, 군산, 남포 앞바다의 소해작업을 맡아 하였으며 수많은 함선과 비행기로 군수물자를 수송하여 주었다. 일본의 전 령토가 미군의 거대한 출동기지, 수리기지, 보급기지로 되였다. 때문에 일본의 전면적협조가 없었더라면 미군은 조선에서 3개월도 견디여 내지 못하였을것이라고 ≪**유엔군**≫사령관이였던 릿지웨이도 실토한바 있다. 오늘 일본에서는 일본군의 조선전쟁참전사실이 공개된 비밀로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는 이 엄연한 력사적사실을 외면하고 철면피하게 왜곡하였다. 일본당국자들은 이러한 력사왜곡으로써 광복후 또다시 조선인민을 반대하여 감행한 범죄행위를 숨기려 하며 모면해 보려 하고 있다. 그러나 자루속의 송곳은 감출수 없는 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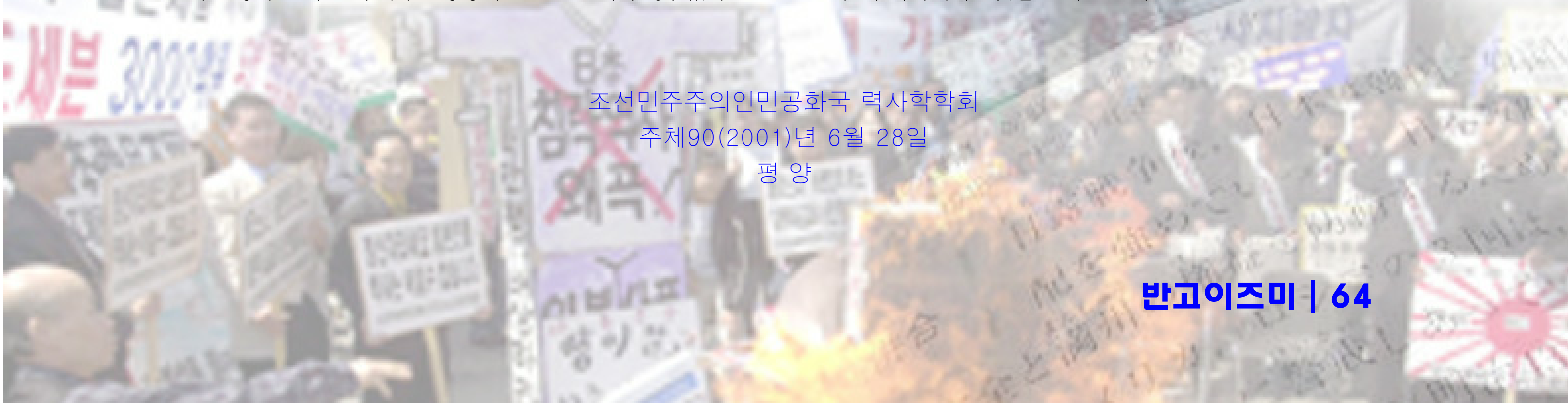
이렇듯 교과서는 일본이 력대적으로 도발한 모든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그 성격과 의의를 터무니없이 왜곡전도함으로써 죄 많은 일 본력사에 분칠을 하고 일본이 아시아의 맹주가 되여야 한다는 사상을 로골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일본 중학교력사교과서들의 조선관계 서술에서 나타난 력사왜곡행위는 매우 엄중하다. 교과서의 력사위조는 많은 경우 그것이 편찬자의 무식이나 사료에 대한 리해상 착오에서 온것이 아니라 일본당국의 정치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고의적이며 의도적인 행동에 기인한것이다. 그 의도적인 행동이란 과거 일본이 저지른 죄악을 무마, 약화시키고 치욕스러운 침략죄행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기어코 회피하려는것이며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침략사상으로 길 들여 해외침략에로 부추기려는것이다. 이것은 력사과학의 신성한 리념과 사명에 대한 엄중한 모독이며 2중적인 범죄행위이다.

우리 공화국의 력사학자들은 력사교육의 신성한 사명을 유린하는 일본당국의 부당한 처사에 엄중히 항의하며 검정된 력사교과서를 당장 철회하고 력사주의적원칙에 기초한 진실한 교과서를 편찬하여 후대들에게 참된 력사교육을 줄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이와 함께 일본당국자들이 정치난쟁이식 사고방식을 버리고 죄 많은 과거력사에 대하여 성근하게 반성하며 조선인민에게 응당한 사죄와 보상을 할것을 견결히 요구한다.

우리는 량심 있는 일본 및 세계력사가들과 언론인들이 일본에서의 력사왜곡책동과 군국주의부활을 저지시키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며 당면하게는 일본의 각 현의회들에서 왜곡된 력사교과서 채택을 거부하도록 항의의 목소리를 계속 높여 나가리라는것을 굳게 믿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력사학학회

주체90(2001)년 6월 28일

평 양

력사교과서왜곡은 군국주의부활과 군사대국화를 향한 야심의 산물

각계의 반향



≪평양 7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

최근 남조선인민들은 범죄적인 력사왜곡책동으로 또다시 력사앞에 죄악을 덧 쌓고있는 일본반동들에 대한 민족적의분을 금치 못하 면서 반일기세를 높이고 있다.

지난 4월 3일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극우익단체인 ≪새 력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만들어 낸 중학교용력사교과서를 검정에서 통과시켰으며 그 교과서들이 출판발행되여 책방들에서 판매되기까지 하고 있다.

일본당국의 이런 파렴치한 행위는 남조선각계의 반일감정을 더욱 끓어 번지게 하고 있다.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련합≪범청학련≫ 남측본부는 지난 4일 일본 서점들에서 왜곡된 력사교과서가 판매에 들어 간 사실에 격분을 표시하면서 일본의 력사왜곡과 군국주의화책동을 규탄하는 글을 발표하였다.

글은 력사의 진실을 심히 왜곡한 교과서를 버젓이 내다 팔고 그것을 교재로 삼아 공부시키려는것은 과거 일제의 유물인 황국신민사상을 주입하여 일본국민들을 새로운 군국주의에로 내몰겠다는 의도라고 하면서 일본이 우리 민족과 세계평화애호민중을 얕보고 무분별하게 덤벼 든다면 7천만 겨레와 세계인민들의 강력한 반일운동에 부딪쳐 다시금 패망의 길에 들어 서고야 말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범민련 남측본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련합≫≪전국련합≫,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통일광장은 항의서한을 발표하고 일본의 력사교과서왜곡은 바로 군국주의부활과 군사대국화를 향한 야심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면서 력사왜곡책동의 중지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통일애국단체들의 기세에 합세하여 남조선 도처에서도 항의운동들이 벌어 지고 있다.

얼마전 일본교과서 바로잡기운동본부와 우리 민족 서로돕기운동 세계협의회는 서울에서 평화와 친선을 위한 전세계동시집회선포식을 가지고 일본교과서를 바로 잡기 위한 국제깜빠니야지부를 결성하여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12일 일본의 력사교과서재수정을 요구하는 집회가 세계 7 1개국 125개 도시들에서 동시에 진행되였다.

이날 서울의 학생들과 학부형들, 시민 1, 000여명이 참가한 서울의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는 일본정부가 력사왜곡교과서 재수정에 성의 있게 대할것을 요구하는 성명서가 채택되였으며 이 성명서는 일본대사관에 전달되였다.

한편 일본의 력사교과서왜곡행위를 단죄하며 ≪일본제품 안사고 안쓰기운동≫**을 전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국토대장정≫에 들어 간 일본제품불매운동본부는 부산의** 일본총령사관앞에서 일본기발화형식을 가진 다음 울산, 대구, 대전 등 여러 지역을 돌면서 일본의 군국주의망령과 극우파의 음모를 폭로하는 선전활동을 벌렸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반일열풍이 일어 나고 있는것과 관련하여 남조선의 ≪문화일보≫가 1, 000여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9. 2프로가 일본에 강력히 대응할것을 당국에 요구하였다.

남조선각계의 반일투쟁은 일본당국과 극우익세력의 도전적인 행동으로 하여 더욱 광범히 전개되고 있다.



일본이 왜곡된 역사교과서 재수정요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7월 13일~7월 14일



사회자 : 안녕하세요.

윤정원 : 안녕하세요.

사회자 : 이미 보도되었습니다만 지난 10일 가와시마 다카타 일본외무차관은 주일한국대사와의 면담석상에서 왜곡된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대한 우리의 재수정요구에 대해 현재 검정제도상 더 이상 재수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앞서 지난 9일 일본정부는 한국정부가 제기한 35개항에 대한 재수정요구에 대해 일부만 오류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고칠수 없다는 것을 게나다주한일본대사를 통해 전달해왔는데요. 지금 이와 관련해 우리 민중은 크게 분격하면서 일본정부당국자들의 오만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일본이 중학교용 역사교과서를 어떻게 왜곡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알아봤으면 합니다.

윤정원 : 아시다시피 지난 5월초 일본당국은 내외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2002년에 사용할 중학교용 역사교과서들을 국가검정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검정에서 통과시킨 역사교과서들은 과거일본이 우리 나라와 아시아나라들에서 감행한 범죄적 침략전쟁과 야수적 만행, 강도적 행위를 심히 미화하고 외면, 은폐했는데요. 반드시 수정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검정에서 통과된 역사교과서는 초기한일관계사를 혹심하게 왜곡하면서 여러곳에서 이미 파산된지 오래인 이마나미야께설을 되풀이하고 있죠. 아시다시피 이마나미야께설이란 일본이 4세기 이후 수백년동안 우리 나라의 남부지역 임나≪이마나≫에서 일본군부≪미야께≫를 설치하고 지배했다는 주장인데 이 임나지배설은 이미 여지없이 풍지박산되었습니다만 그것을 교묘하게 되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고려가 몽고의 속국이였다고 서술했는가하면 과거일본이 우리 나라의 침략을 마치 안전을 위한 정당방위로 묘사하면서 정한론이나 강화도조약, 한일합병조약 등의 강도적인 침략행위를 합리화했어요.

또 근대적 개혁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역사도 완전히 왜곡했는데 그건 갑신정변이 마치 일본의 주도하에 진행된 것처럼 만들어놓고 척양척왜 , 보국안민 의 구호밑에 일본의 침략을 반대하고 나라의 독립과 근대화, 민중의 안녕을 지향해 궐기한 대규모적인 반봉건반외세 농민전쟁인 갑오농민전쟁을 동학난이라면서 그의 반침략, 반일적성격을 거세하고 그 의의를 종교운동에 **시켰어요.

사회자 : 검정에서 통과된 역사교과서는 일제의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통치의 죄악을 외면, 은폐하고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전쟁을 정당한 것으로 변호하지 않았습니까.

윤정원 : 네, 그랬죠. 일본의 문부과학성의 검정에서 통과된 역사교과서들은 일본정부는 한국의 병합이 일본의 안전과 만주의 권익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고 썼고 우리 나라에 대한 강점에 대해서는 영국, 미국, 러시아 3국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한국국내에서는 일부 병합을 받아들이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서술을 했죠. 역사교과서는 안중근이 이토오 히로부미를 만주의 하얼삔에서 암살했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을 병합해 식민지로 만들었다고 썼는가하면 우리 민족의 반침략투쟁을 약화시키고 반일의병투쟁과 전민족적 애국반일항쟁인 3.1민중봉기를 비롯한 각이한 형태의 반일투쟁을 무참히 탄압한 만행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지요. 종군위안부문제도 전혀 언급이 없었어요. 그리고 약탈적 침략전쟁이었던 임진왜란을 아시아의 전대륙을 지배하려는 거대한 꿈으로 의기왕성해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장거처럼 묘사를 했고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당시 우리 나라를 독립국으로 만들며 일본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전쟁인 듯이 묘사를 했죠. 이외에도 아시아지배야망이었던 대동아공영권의 목적이 아시아 각국의 자주독립, 각국의 *** 위한 ***있는 듯이 왜곡한 것을 비롯해서 왜곡서술된 항목이 50여개나 됩니다.





사회자 : 정말 분격하지 않을수 없는데요. 우리 겨레가 일본이 왜곡서술한 역사교과서를 재수정할 것을 요구한 것은 한마디로 일본이 역사를 바로잡고 과거에 저지른 죄를 다시 범하지 않고 올바로 살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본정부는 우리의 이같은 재수정요구를 외면하면서 오만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본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있고 개별적 단체나 회사가 주관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어쩔수 없다느니 뭐니하며 책임을 회피하면서 도리어 우리의 정당한 재수정요구에 대해 도둑이 매를 드는 격으로 내정간섭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지난 91년 외무성산하 단체를 통해 미국의 한 교과서가 원폭투하에 대한 미국의 정당성을 지나치게 강조했다며 수정을 요구했고 또다른 미국교과서에 대해서는 중일전쟁은 일본정부가 의도적으로 일으킨게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 달라고 주문해 사실왜곡까지 시도했었습니다. 일본정부는 서방의 제국주의로부터 아시아의 여러나라를 자유롭게 하려는 사명의식이 있었다고 써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파파뉴기니 초등학교 교과서에서까지 한일합병은 침략이라고 보기보다는 그 이전부터 진행되어온 영토확장정책의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는 집요성도 노정시켰는데요.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의 재수정요구에 대해서는 내정간섭이라고 도리어 항의하고 있으니 얼마나 파렴치한 작태입니까. 정말 분격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윤정원 :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정부당국자들은 우리의 재수정 요구에 대해 거부하면서 일본의 역사관이 한국의 역사관과 다르다고 떠들어대고 있는데 일본당국자들이 말하는 저들의 역사관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말해서 군국주의적인 역사관이죠. 오히려 ***시각이예요. 그런데 일제의 *** 반동적인 역사관을 ** 거리며 심히 왜곡된 역사교과서 수정을 단호히 거부하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한 거예요. 일본당국의 작태는 국제사회의 정의와 도덕윤리에 대한 도전이고 그들이 아직까지도 군국주의 시대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사회자 : 네, 일본당국은 왜곡된 역사교과서 재수정을 하지 않기로 한 사실을 통해 자기들의 정치도덕수준의 저열성과 교활성, 파렴치성을 여지없이 드러내놓았고 이로 인해 내외의 저주와 규탄을 받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본당국자들이 무엇 때문에 왜곡서술한 왜곡교과서의 재수정요구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 저의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정원 : 그 저의는 우선 일본의 새 세대들로 하여금 과거의 교훈을 망각하게 해서 그들이 군국주의를 정신무장시킬수 있는 정신적 기초를 마련하려는데 있다고 봐요.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버리지 않고 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아시아의 맹주가 되어 이 지역 나라들을 장악지배하려는 목적 밑에 해외침략을 위한 군사력을 부단히 키워왔고 그래서 오늘 일본은 세계3위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로 임의의 시각에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어요. 이제 남은 건 사상정신적 준비뿐인데 이걸 위해 중학교용역사교과서를 왜곡서술해 주입하려는 거죠. 다음으로 그 저의는 과거일본이 저지른 죄악을 무마약화시키고 ****대한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출판물들은 10년이상 계속되고 있는 경제침체 등으로 인해 허탈감에 빠진 일본국민들에게 일본이 마치 위대한 역사를 가진 나라인 것처럼 인식시켜 힘을 주려는데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자 : 정말 경악을 금할수 없는데요. 우리 겨레는 물론 아시아 여러나라 민중들이 저들의 흉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너무나도 엄연한 역사적 사실까지도 왜곡해 새 세대들에게 주입하려는 일본당국의 범죄적 행위를 단죄규탄하며 강력히 응징하고 있는 것은 천백번 정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 전교조 등 80개의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과 개별적 인사들이 역사교과서재수정 요구를 거부한 일본당국을 규탄하며 집회와 시위, 일본상품불매운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당국도 말로만 응징한다고 하지말고 국민들의 요구대로 오만하게 나오는 일본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수 있는 강력한 보복조치를 시급히 취해야합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얼마나 악독한가 하는 것을 그야말로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우리 민중입니다. 원래 왜놈들은 얼러서는 듣지 않아요. 세게 다불려야 합니다.

윤정원 :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에 대한 재침기회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군국주의망령을 되살리기 위해서 내외 국민들이 그처럼 반대하는 데도 불구하고 일본총리가 이번 8.15에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겠다고 계속 고집하고 있는가 하면 부당한 구실을 붙이며 우리 나라 어민들의 러시아근해에서의 꽁치잡이까지 방해하는 행태까지 벌이고 있어요. 이같은 사실들은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일본에 대해 자그마한 환상이라도 가져서는 절대로 안되고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할 마음준비를 갖춰야 한다는 걸 말해준다고 봅니다.

사회자 : 네,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 민중은 어느때보다 경각심을 높이고 반미투쟁과 함께 반일투쟁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윤정원 : 감사합니다.

일본의 추악한 력사왜곡책동을 론함

조선중앙통신 론평

≪평양 7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

정의와 진리, 지성과 도덕을 인류문명의 보편적기준으로 삼는 21세기 국제무대의 한 모퉁이에서 전고미문의 반인륜적, 반력사적범죄행위가 국가조직적으로 뻐젓이 계획추진되고 바야흐로 실행단계에까지 이르러 전 세계를 경악케 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일본당국과 우익세력들의 추악한 력사왜곡책동이다.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전쟁과 조선과 아시아나라들에 대한 군사적강점, 치욕의 략탈사를 반인륜적범죄로 락인한 제2차 세계대전후의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력사인식에 정면으로 도전해 나선 이 파렴치한 책동에는 국수주의사상이 골수에 찬 우익분자들로부터 정부, 여당의 공식인물들까지 합세하여 일본사회를 또다시 암흑의 나락, 신파쑈의 길로 이끌어 가고 있다.



일본의 력사왜곡, 력사부정책동은 어제오늘에 시작된것도 아니고 새삼스러운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에 와서 중대한 국제적사태로 부각되고 아시아 각국의 극도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것은 침략과 범죄의 력사에 대한 은폐, 축소로부터 시작된 력사왜곡책동이 전면부정, 전면왜곡, 극구 찬양에로까지 이어져 정부당국의 공식인정을 받아 냈기때문이다.

지금 일본에서는 일본의 피 비린 과거 침략사가 ≪정의의 위업≫으로 정당화되고 아시아침략과 태평양전쟁을 주도한 수급전범자들이 ≪영웅≫으로 찬미되고 있는가 하면 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점통치가 ≪**합법적**≫**이였다는** 파쑈적인 강변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더우기 스쳐 지날수 없는것은 일본당국이 2002년부터 교육에 도입하도록 공식 승인한 새로운 중학교용력사교과서가 일본의 건국신화로부터 고대 및 중세사는 물론 근대사와 현대사까지도 완전히 국수주의와 민족배타주의사관으로 일관시킨 도저히 력사교과서라고 말할수 없는 추악한 위조문서라는것이다.

≪**새 력사교과서**≫**는** ≪황국사관적≫**인 국수주의를** 로골화한 나머지 일본을 ≪신의 나라≫로, 야만족에 불과했던 야마또민족을 가장 ≪우월한 민족≫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아시아침략에 나선 침략군들을 ≪천황과 국가에 충직한 렬사≫**로**, 아시아침략과 태평양전쟁을 ≪성전≫으로 찬미하는 한편 ≪종군위안부≫범죄와 대학살만행들을 비롯한 특대형의 반인륜적죄악들은 모조리 삭제하고 있다.

교과서에 반드시 서술해야 할 력사적사실들을 국수주의사관에 맞추어 고의적으로 빼놓은것은 력사왜곡보다 더 심각한 문제이다.

그것은 범죄적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로부터의 교훈과 미래에 대한 설계도 없기 때문이다.

5,000여년전의 일도 아니고 불과 50여년전의 력사적사실, 그것도 타국과의 관계에서 빚어 진 사변들을 이렇듯 파렴치하고 비렬하게 날조, 왜곡, 삭제한 나라는 이 행성에 오직 일본뿐이다.

이것이 과연 일본력사학계의 무지에서 비롯된것인가.결코 그렇지 않다.

일본에는 객관적이며 불변적인 력사의 본질을 꿰뚫어 볼줄 아는 지성인들도 있고 력사왜곡책동이 가져 올 파멸적후과를 우려하는 사회단체들도 없는 것이 아니다.

또 문제의 력사교과서를 집필한 인물들이 대단한 학자들도 아니고 정치력사적, 학술적식견을 깊이 지닌 자들이 아니라는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새 력사교과서≫**와 관련된 사건이 커다란 위험성을 안고** 있는것은 그것이 단순히 력사왜곡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신파쑈에 물든 이러한 국수주의자들의 론리가 일본사회에 그대로 받아 들여 질 정도로 일본이 급격히 우익보수화, 군국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사회를 누가 이렇게 신파쑈가 활개치는 지성의 불모지로 만들었으며 누가 력사학자들도 아닌 우익분자들을 내세워 침략과 범죄의 력사를 전면왜곡, 전면부정, 극구 찬양하게 하고 있는가.바로 일본의 미래를 설계하고 건설한다고 하는 현 정치인들이다.

일본당국은 ≪새 력사교과서≫**와 관련한 분쟁이 뜨겁게** 달아 오르고 아시아 각국에서 비발치는 항의가 쏟아 지자 교과서의 력사관과 일본정부의 력사관은 서로 다르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것자체가 중대한 정치적범죄, 정치사기행위이다.

일본의 침략전쟁과 해외팽창을 적극적으로 미화분식한 ≪**새 력사교과서**≫**는 일본정계와 재계**, 학계의 철저한 정치적합작품이다.

일본집권여당인 자민당내에 105명의 ≪유명인≫들로 구성된 ≪력사검토위원회≫**가** 설치된것은 지금으로부터 8년전인 1993년 8월이였다.

≪력사검토위원회≫**는 설치되자마자** 력사학자들을 련이어 불러다가 20여차의 ≪**토론회**≫**를 벌려 놓은 끝에 패전** 50년이 되는 1995년 8월 15일 ≪대동아전쟁의 총괄≫이라는 책을 발행했다.



책의 내용은 물론 극단적인 민족주의를 설교하고 일본의 아시아침략을 ≪백인들의 지배로부터 아시아를 해방하기 위한 정의의 전쟁≫으로 미화한것이였다.

국수주의사관을 집대성한 ≪대동아전쟁의 총괄≫발행과 때를 같이하여 자민당의원들을 비롯한 정치권은 현재 사용중인 력사교과서가 **≪자학사관≫, ≪일본해체사관≫에 빠져 있다고 맹렬히 비난하면서** 력사왜곡을 공공연히 요구하는 성명서와 결의문을 잇달아 발표해 왔다.

정계의 이러한 움직임에 보조를 맞추어 국수주의학자들은 정계와 재계의 후원을 받아 1995년과 1996년에 ≪자유주의사관연구회≫와 ≪새 력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을 결성하였고 드디여는 완전히 왜곡날조된 력사교과서를 만들어 내는데까지 이르렀으며 정부당국은 즉시 이 력사교과서를 검정에서 공식 합격통과시켰다.

국수주의를 적극 부추기고 있는 일본언론이 이에 가담했다는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력사왜곡음모의 직접적산물인 **≪새 력사교과서≫가 출간되게 된** 력사적진상은 이렇다.

보다 중대한 사태로 되는것은 일본에 있어서 추악의 대명사로 된 이러한 력사왜곡책동이 무엇때문에 꼭 필요했는가 하는것이다.

여기에는 언제든지 한번은 반드시 그리고 철저하게 그 력사를 되풀이하여 ≪대동아공영권≫**의** 야심을 기어이 실현해 보려는 그들나름의 간악한 속심이 깔려 있다.

일본의 력사왜곡책동은 본질에 있어서 전쟁패전과 침략사, 범죄사에 대한 전면부정인 동시에 정의와 진리에 대한 선전포고이며 국민들을 아시아 재침의 돌격대로 길들이기 위한 ≪황국신민화≫, **≪국민우매화≫정책의 변종이다.**

일본은 철학이 없는 나라이며 력사적으로 지극히 비정상적인 나라이다. 때문에 력대 일본통치배들은 ≪황국사관적≫**인** 극단적민족주의로 국민들을 손쉽게 길들일수 있었고 ≪천황≫과 ≪국가≫에 대한 광신적인 ≪충성≫을 강요하며 침략전쟁, 략탈전쟁에로 그들을 내몰수 있었다.

국수주의는 반드시 민족배타주의, 군국주의에로 이어 지는 법이다. 교육현장에서 국수주의를 주입 받고 군국주의사상을 골수에 새긴 이 일제침략군에 의해 수천만명의 무고한 아시아인민들이 살륙되였으며 각국의 수억만금의 재부가 략탈 당하여 일본으로 실려 갔다.

력사에는 진시황의 ≪분서갱유≫사건과 히틀러의 ≪진보도서소각≫사건과 같이 국민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한 문명파괴행위가 적지 않게 기록되여 있지만 일본처럼 타민족을 정복할 목적밑에 체계적이며 전면적으로 국민우매화정책을 실시해 온 나라는 없다.

제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후에야 일본인들은 국수주의의 허무함, 군국주의의 무모함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것은 일본국수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사태였다.

이로부터 일본우익세력들은 정신적으로는 력사교과서의 개악과 야마또민족의 우월성주입, 정부각료들의 ≪야스구니진쟈≫**참배의** 공식행사화를 통하여 사회전반에 걸쳐 국수주의적흐름을 적극 조장하는 한편 군사적으로는 ≪자위대≫의 해외파병과 군비증강, **≪유사시법≫의 제정 등을** 한걸음한걸음 추진시키며 군사대국화의 기틀을 축성해 왔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남은것은 고조되고 있는 국수주의적분위기를 교묘히 활용하여 미래의 침략전쟁을 담당수행할수 있는 무지한 ≪충신≫들을 대대적으로 양성해 낼수 있는 정치적 및 사회력사적조건을 마련하는것이다.

일본우익세력들이 력사왜곡, 력사부정책동에 그처럼 집요하게 매달리며 국수주의를 고취하는 주되는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들은 새 세대들속에 죄 많은 력사를 **≪정의의** 력사**≫로 인식시켜 그들을 군국주의의 신봉자로 만들고 군사대국**, 핵대국으로 되기만하면 ≪대동아공영권≫**의 꿈을** 실현할수 있으리라 타산하고 있는것이다.

일본에는 벌써 4 1년간에 걸치는 조선에 대한 일제의 군사적강점통치조차 모르고 아시아침략을 ≪해방전쟁≫, **≪일본의 긍지≫로 인식하고 있는 새 세대가** 30프로이상이나 된다고 한다.

무지중에서도 너무나도 저급하고 혹독한 무지이다.



무지는 범죄를 낳는다는 말이 있다. 따라서 오늘 일본의 무지는 결코 무죄가 될수 없다.

인간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력사를 인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인간자격상실이며 사회적존재로서의 가치상실이다. 력사는 아무리 비참하고 수치스러운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직시하고 거기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을 때에만 보다 풍요로운 미래를 설계할수 있는 용기와 확신을 주는 법



이다.

침략과 범죄의 력사, 그로부터 초래된 파국적후과와 교훈은 다 덮어 버리고 오직 ≪신의 나라≫, ≪**우월한 민족≫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민족배타주의적국수주의사관으로 교육된 무지하고 기형적인 일본의 새 세대가 치욕의 력사를 되풀이하리라는것은 지난 세기의 침략전쟁과 그 전쟁에서 군국화된 일본인들이 담당해 온 역할을 놓고 볼 때 피할수 없는 현실이다.

일본우익세력들이 침략과 범죄의 력사를 전면왜곡미화하는 다른 하나의 목적은 일본이 ≪정의의 위업≫을 수행해 왔기때문에 반인륜적범죄에 대하여 죄의식을 느낄 필요가 없으며 국가적배상을 할 필요도 없다는 의식을 국민들속에 심어 주자는데 있다.

일본우익정객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내드는 론리의 하나가 일본인자신이 군국주의의 가장 ≪큰≫ 피해자이기때문에 전쟁의 책임을 어디에도, 또 누구에게도 물을수 없는것이 일본의 문제라는것이다. 물론 일본인은 무모한 군국주의광란에 휘말려 커다란 희생을 치른 불행한 민족인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누가 그 전쟁을 일으켰으며 그 진범인은 누구인가.무엇때문에 일본인들은 군국주의전쟁을 반대하지 못하고 ≪충성≫을 부르짖으며 광란적으로 전장에 달려 갔고 무슨 리유로 수천만에 달하는 타민족을 살륙하였는가.

만약 다른 나라가 일본을 침략하고 수백만의 일본인들을 살륙한뒤 전쟁에서 자기들도 피해를 보았기때문에 어디에도 책임을 물을수 없다고 한다면 일본은 과연 어떻게 대응하겠는가.

도이췰란드와 이딸리아는 전후 군국주의를 과감하게 청산하고 전쟁범죄에 대한 처형과 재판, 국가적배상을 통해 전후처리를 꾸준히 해왔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

허나 잔혹하기 이를데 없는 전쟁범, 가해자 일본은 어느새 슬그머니 ≪피해자≫로 둔갑하여 과거청산은커녕 비렬한 방법으로 전쟁책임문제까지 회피하고 있다. 도대체 일본이라는 나라와 이 나라에서 살고 있는 우익분자들은 어떻게 되여 그렇게도 비겁하고 파렴치한가.인간의 존엄과 도덕도 모르고 력사를 한순간에 뒤집어 버리는 일본우익세력들의 비인간성과 반력사적행위에 세계는 이미 침을 뱉았다.

20세기 인류사를 최대의 집단강간행위로 더럽히고도 그것을 력사의 흑막속에 묻어 버리려는 일본우익세력들의 책동은 도덕적으로 마비되고 인간적으로 불결한 이 나라의 실상을 다시금 돌이켜 보지 않을수 없게 하고 있다.

≪**종군위안부≫범죄는 일본정부의** 국가조직적인 대강간행위인만큼 반드시 ≪가해자 일본정부－피해자 이전 ≪종군위안부≫≫라는 법률당사자관계에서 처리되여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일본당국은 후안무치하게도 그 무슨 ≪국민기금≫이라는것을 설치해 놓고 모든 책임을 회피하다 못해 끝끝내는 극우학자들을 부추겨 력사교과서에서 이 특대형의 반인륜적범죄의 실상을 송두리채 들어내 버리고 말았다.

참으로 인류도덕이 시시각각으로 말살되고 지성과 도덕, 진실이 자랄수 없는 일본의 정치풍토, 섬나라적토양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일본우익세력들의 극단적이고 비인간적인 이러한 행위에 환멸을 느낄대로 느낀 국제사회의 일부에서 일본이 그대로 계속 력사를 왜곡하고 군국주의의 길로 나가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고 하는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가혹하기는 하지만 그 길이 일본이라는 나라를, 또 그 나라에서 반인륜적행위를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는 우익세력들을 완전하고도 철저히 자멸시킬수 있는 길이기때문이다.

일본이 지난 세기에 감행해 온 모든 범죄－략탈적인 침략전쟁과 대학살만행, 집단강간행위, 최대규모의 랍치련행, 패전에 따른 집단자살－이것은 일본렬도를 휩쓴 한차례의 광증이였다. 그 광증뒤에 남은것은 무엇이였던가.

스스로 가져 온 파멸이였다.

일본은 우선 모든것을 뒤로 하고 일본인들이 왜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안되였으며 그 범죄의 책임과 원인이 누구에게, 어디에 있는가를 가려 내야 한다.

특히 국수주의로부터 시작된 군국주의의 무모함과 파멸적후과를 밝혀 내고 책임소재에 따라 피해국들에 무조건적이고도 철저한 사죄와 보상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만이 일본은 또 한차례의 파멸로부터 구원될수 있다.

일본이 국제사회의 이 요구와 력사의 순리를 무시하고 국수주의사관에 기초한 저주로운 력사왜곡책동을 계속한다면 불피코 파멸할수밖에 없다.

≪**우리는 학교에서** 교육칙어를 주입 받고 신화를 사실로 믿고 전장에 내몰린 군인이였다. 지금 ≪새 력사교과서≫가 그리는 ≪인간상≫－**그것은** 55년전에 아시아인민들에게 커다란 참해를 입혔던, 그래서 파멸했던 우리들이다. 이런 교과서가 교육현장에 들어 가서는 절대로 안된다.≫

이것은 지난 3월 침략전쟁에 내몰렸다가 포로되였던 전 일본군병사들이 기자회견에서 랑독한 성명서의 일부분이다.

일본의 정치인들은 지금이야말로 일본의 파멸을 예고한 군국주의피해자들의 력사적고발과 력사왜곡행위를 배격하는 국내 진보세력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새 력사교과서≫를 교육에 도입하는가** 안하는가 하는 문제가 바로 일본의 정치적미래를 결정하는 사활적인 문제인 동시에 정의와 부정의, 진보와 보수와의 첨예한 대결이기때문이다.

일본우익세력들의 력사왜곡책동은 이러한 의미에서 국수주의, 군국주의의 부활로 진보세력의 전면말살을 노린 신파쑈테로행위이며 일본사회에서 정의와 민주주의를 거세하기 위한 반민주, 반민족적행위이다.

이 행위를 저지시키지 못한다면 일본에는 더는 밝은 미래가 없다.

일본당국과 우익세력들은 자국의 장래를 두고 정치적도박을 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그들이 끝끝내 왜곡된 력사교과서를 교육에 도입하며 범죄의 력사를 미화한다면 그것은 21세기 인류사에 가장 수치스러운 죄악으로 기록될것이며 그 장본인들은 후세에 가서도 영원히 저주를 면치 못할것이다.

일본 국회의원들의 ≪야스구니진쟈≫ 공식 참배를 규탄

조선중앙통신 론평

≪평양 4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

일본 정객들이 또다시 군국주의부활을 제창하는 망동을 부려 아시아나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지난 20일 86명의 일본 국회의원들과 근 100명의 국회의원 대리인들이라고 하는 인물들이 군국주의의 상징인 ≪야스구니진쟈≫를 **공식** 참배한것이다.

이것은 일제의 침략과 군사적강점으로 헤아릴수 없는 재난을 당한 조선과 아시아 여러 나라 인민들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고 모독이다.

≪야스구니진쟈≫**를 참배하는가** 안하는가 하는것은 20세기의 력사를 어지럽힌 일본의 지난 침략전쟁, 범죄의 력사에 대한 일본 정객들의 태도를 검열하는 시금석으로 된다고 할수 있다.

일본정객들은 무리를 지어 침략전쟁에서 죽은 군국주의망령들이나 찾아 다니며 침략과 범죄의 력사를 미화하여 도대체 무엇을 얻자는것인가.

군국주의의 부활이 일본이라는 나라의 자멸을 초래하는 행위라는 것을 그들이 과연 모르고 있는가.

일본 정객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력사를 극력 왜곡부정하며 ≪야스구니진쟈≫ **공식 참배행사를 갈수록 크게 벌려 놓고** 있는것은 일본인민들속에 반동적인 력사관을 주입시켜 일본사회의 군국화를 다그치자는 계획적인 책동이다.

일본우익정객들처럼 파렴치하게 침략과 범죄의 력사를 부정하고 공공연히 력사왜곡의 교과서까지 만들어 내여 후대들의 력사의식을 기형화시키고 있는 정치세력은 어디에도 없다.

력사를 반성할줄 모르고 범죄의 력사를 되풀이 하려는 일본 정객들의 진면모는 여기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일본우익정객들은 저들의 행위가 일본의 장래를 더욱 암담하게 만들것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심사숙고 해야 한다.

일본당국의 침략전쟁을 위한 책동이 날로 노골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6월 5일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일본의 고위당국자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있은 오키나와전투에서 죽은 일본군을 추모하는 의식에 참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내외여론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지난 세기에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동아공영권이라는 거대한 식민지제국을 건설하기 위해 피묻은 일장기를 들고 살육전쟁을 도발했다가 수많은 전사자를 내고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오키나와전투의 전사자들도 그 중의 일부입니다.

고이즈미일본총리가 내외여론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오키나와에까지 가서 전사자추모행사에 참가하려는 저의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침략전쟁마당에서 개죽음을 당한 저들의 위훈과 공적을 높이 평가하고 자기가 그들이 이루지 못한 뜻을 이루는 데 앞장서려는데 있는 것입니다.

고이즈미의 이러한 기도는 야스쿠니신사참배분위기에서 더욱 뚜렷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야스쿠니신사는 일본의 침략전쟁의 상징이며 군국주의를 고창하는 사상적 터전입니다. 여기에는 아시아국민들에게 재난과 불행을 덮씌운 침략전쟁을 도발하고 조직지휘한 도죠를 비롯한 특급전범자들의 위패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이즈미는 자기가 야스쿠니신사에 가는 것은 이들에게 마음속으로부터의 경의와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라고 떠들어 대고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하든 야스쿠니신사참배는 지난날의 침략전쟁을 정당화하고 특급전범자들을 이른바 영웅으로, 애국자로 내세우며 그들의 뜻을 받들어 재침의 길에 나가려는 일본정부의 의도를 내외에 선언한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쟁피해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또 하나의 가해행위이고 아시아인들에 대한 용납못할 도전행위라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지도 반세기가 넘었고 세기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본은 침략과 전쟁범죄로 얼룩진 과거와 결별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의 죄악을 반성, 청산하지 않는 것은 침략과거를 재현하려는 속셈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역사왜곡책동은 그의 집중적인 표현으로 되는 것입니다.

현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일본은 아시아에서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한 침략세력으로 등장했습니다. 해외팽창은 일본반동들의 변함없는 야망입니다. 이 야망실현을 위해 일본반동들은 군사대국화를 본격적으로 추진시켜 어떤 침략전쟁도 감행할 수 있는 군사적, 법률적 준비를 갖추어 놓았습니다. 전쟁을 금지하는 평화헌법은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해외침략을 감행하는 경우 국민들을 동원하기 위한 사상적 준비를 갖추는 것뿐입니다. 바로 일본반동들은 야스쿠니신사참배를 그 공간의 하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반동들은 침략역사를 되풀이하려는 것은 자멸의 길이라는 것을 똑똑히 깨닫고 분별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만약 일본반동들이 내외여론의 정당한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고 재침의 길로 나간다면 제2차 세계대전때 당한 패배보다 더 큰 패배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하지 않은 일본군국주의의 침략본성

재야언론인 김수철씨 /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7월 28일~7월 29일

침략으로 망한 일본, 그 일본의 침략적본성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6.25전쟁시기에는 일본청년들을 6.25전쟁에 파견하는 대신 한국을 다시 식민지로 만들 흉계를 꾸몄고 지금도 한반도와 아시아에 대한 재침의 꿈을 실현해보려고 군사대국화의 위험천만한 길로 내닫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은 일본군국주의의 침략본성≫ 재야언론인 김수철씨의 글을 임기수씨 보내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본의 고이즈미총리가 패전일인 8월 15일에 야스쿠니신사참배를 강행하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는 내외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총리자격으로 야스쿠니신사참배를 여러번 공언하였다.

이보다 앞서 일본의 현방위성장관도 8.15에 야스쿠니신사 공식참배를 공언하였고 수많은 우익반동들이 대대적으로 신사를 참배하려 하고 있다. 올해에 들어와 근 100여명에 달하는 국회의원들과 그 대리인들이 야스쿠니신사를 공식참배하였다.

일본총리들을 비롯한 우익반동들이 패전일에 야스쿠니신사를 대거 공식참배하려는 것은 심상치 않은 움직임으로써 극히 위험한 발상이 아닐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야스쿠니신사는 침략과 약탈, 전쟁을 일삼아온 일본군국주의의 상징물이고 군국주의를 고취하는 사상적원천이다. 여기에는 우리 민족과 아시아민중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재난을 강요한 침략전쟁을 도발하고 지휘한 도조를 위시한 특급전범자들의 위패가 있다. 그래서 이곳은 우리 민족과 아시아나라 민중들의 원한과 증오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 하기에 일본의 역대주권자들은 물론 우익반동들도 내외의 빗발치는 눈길이 두려워 감히 신사참배를 공식적으로 진행하지 못했고 한두명의 총리와 일부 극우반동들만이 비공식참배해왔다.

그런데 새 세기에 들어와 일본의 현총리를 위시한 우익반동분자들이 패전일에 야스쿠니신사를 공식참배하려는 것은 과거일제의 침략과 약탈전쟁을 긍정비호하고 일본사회에 군국주의바람을 불어넣어 한반도와 아시아에 대한 재침야망을 기어이 실현해보려는 범죄적속셈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일본반동들의 이러한 책동은 비단 어제오늘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드러났다. 몇가지 사례들을 들어보면 그것을 잘 알수 있다. 1958년 6월 한일회담당시 일본수석대표 가와다 렌조는 ≪우리들은 일어나서 3.8도선을 압록강밖에 물리치지 않으면 선조에 대해서, 선대에 대해서 면목이 없다. 이것은 일본외교의 임무이다≫라고 한반도, 특히 북침야망을 드러냈었다. 1960년 1월 당시 일본의 기시 노스케 총리도 ≪일본의 자위권이 한국과 대만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라고 공공연히 떠들었다. 이뿐이 아니다. 1972년 2월 당시 일본의 사토 에이다코 총리도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유엔이 인정하기 전에도 시기를 놓치지 않고 대처하겠다≫고 역설하였고 1987년 2월 일본자민당소속의원 이시무라 도시코는 ≪장차 또다른 한일합방이 이루어질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만만세이다≫라고 떠들었다.

일본의 역대반동들은 이처럼 한반도재침야망을 드러내면서 군국주의부활과 재생, 재무장에 박차를 가해왔다. 이과정에 해외침략준비에 만전을 기한 일본반동들은 최근 내외의 한결같은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우익반동분자들이 만들어낸 과거침략역사를 미화분식하고 왜곡한 역사교과서를 검정에서 합격시켜 공공연히 시판하고 있으며 집단적자위권행사를 운운하며 해외침략의 길로 나서려 하고 있다. 일본은 헌법에 의해 금지된 참전권과 교전권도 합법화했으며 지금 자위대무력을 공공연히 해외에 각종명목으로 파견해 군사작전까지 벌이고 있다.

바로 이러한때 총리를 비롯한 일본의 극우반동들이 야스쿠니신사를 패전날인 8월 15일에 대대적으로 참배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반동들의 침략적본성은 변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복수의 칼을 벼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들의 해외침략야망, 특히 한반도재침열이 어느 정도에 이르고 있는가를 입증하고 있다.

우리 민족은 일본과 과거에 대해 계산할 것이 너무도 많다. 일제는 세계 어느 전쟁사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근 20만의 우리 나라 여성들을 납치, 강제연행하여 황군의 성노리개로 농락하다가 대부분을 야수적으로 학살한 반인륜적인 종군위안부범죄행위를 감행했다. 일제는 과거 600여만의 우리 나라 청장년들을 징용, 징병으로 끌어다 죽음의 고역장과 전쟁마당에 내몰아 무참히 살해했다. 일제는 또한 우리의 귀중한 민족문화유산들과 자연부원을 약탈하고 우리 민족의 말과 글, 성과 이름까지 빼앗으려 한 것을 비롯하여 민족말살에 혈안이 되어 왔다. 일제의 날강도적 행위로 하여 우리 민족, 민중의 가슴에는 일제에 대한 원한이 사무칠데로 사무쳐있다.

그런데 일본반동들이 사죄와 보상은 하지 않고 총리까지 앞장서서 야스쿠니신사 공식참배를 떠드는 것은 군국주의를 부활시켜 해외침략을 위한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오늘에 와서 일본반동들은 공공연히 군국화와 해외침략의 길로 나아가는 극히 무모한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반동들은 해외침략열에 들뜬 머리를 식히고 심사숙고해야 한다. 우리 민족은 어젯날의 민족이 아니다. 아시아 또한 어젯날의 아시아가 아니다. 우리 민족은 기어이 사죄와 보상을 받아낼 것이며 그런 의지와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다.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의 진보적인류도 일본의 해외침략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일본반동들이 우리 민족과 세인들의 요구와 경고를 무시하고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면서 한반도재침의 길로 나아간다면 가장 비참한 파멸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때에는 야스쿠니신사에 더 많은 군국주의전범자들의 위패가 늘어나게 될것이다.

일본의 극우반동지배층은 이것을 명심하고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해야 할것이다.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반대한다

민족시보, 주체90(2001)년 8월 1일

한중 양국 외무장관은 지난달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이 개최된 하노이에서 일본 외상과 잇따라 양자회담을 갖고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방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였다. 한승수 장관은 25일 다나카 마키코 외상과의 회담에서 ≪일본 정부는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를 미래세대를 위한 관점에서 대승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오는 8월 15일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한일관계에 상당한 우려를 낳을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표명하였다.

이에 앞서 탕자쉬안 중국 외교부장은 24일 중일 외무장관회담에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할 경우, 중국 인민은 강력히 반발할 것이며 양국 우호의 기반이 붕괴될 지 모른다≫고 하면서 참배 계획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24일 밤, 남북한과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8월 15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공식 참배하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자연인 고이즈미가 사적으로 신사를 참배하든 말든 개인의 종교행위에 대해 왈가왈부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일본의 내각 총리이며 대외적으로 일본 정부를 대표하는 엄연한 공인이다. 내각 총리 고이즈미 준이치로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단순한 개인적 신앙행위일 수 없으며 현 일본 정부가 과연 어떤 역사관에 입각해서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극히 공적이며 정치적인 의사 표시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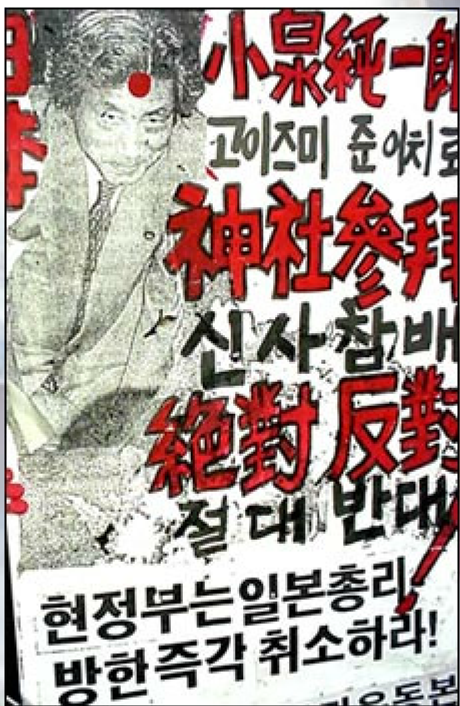
야스쿠니신사는 어떤 곳인가. 널리 알려져 있듯이 1869년 메이지 유신 이듬해에 건립된 이 신사는 일본 국가신도의 상징적인 장소이다. 여기에는 도조 히데키 등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으로 처형된 14명을 비롯,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등 11번의 한반도와 아시아에 대한 침략전쟁에서 사망한 246만명의 군인과 군속들의 위패가 안치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입구에는 천황이 제국 군인에게 내린 ≪칙유비≫가 있으며 ≪가미카제 특공 용사의 동상≫과 ≪군마군견 위령탑≫도 있다. 말하자면 야스쿠니신사는 일본 군국주의를 고취시키는 전시장이자 일본 국민들의 역사의식을 마비시키는 그릇된 교육장소인 것이다.

그런데 야스쿠니신사에는 또한 일제 식민지 통치하에서 침략전쟁에 징병, 징용되어 전사한 2만 1181명의 한국인 위패와 2만 여명의 중국, 대만인 위패도 합사되어 있다고 한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쟁에 강제 동원하여 억울한 죽음으로 내몬 영혼들을 멋대로 ≪천황을 위해 목숨을 바친 전몰자≫ 명부에 올려놓았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모독이다.

게다가 영혼들을 ≪평등하게≫ 대접하면서도 유족 연금 등 실질적인 보상면에서는 일본 국적 아닌 희생자 유족들을 철저히 차별해 온 것이 일본 정부의 용서 못할 전후처리 정책이었다. 6월 29일 유족 25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어 있는 한국인 위패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유가족의 항의를 받아 한국 정부도 7월 17일 전몰자 명단의 삭제를 일본 정부에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고이즈미 총리는 내외의 반대 여론에 아랑곳없이 기정방침대로 8월 15일에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하겠다고 우기고 있다. 이는 아시아 여러나라 국민들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다. 만일 고이즈미 총리가 내외의 강력한 반대를 끝내 무시하고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강행하게 된다면 아시아의 각나라 국민들은 반일감정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우리는 고이즈미 총리가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취소할 것을 거듭 주장한다.



고이즈미일본총리가 일본국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것과 관련해

구국의 소리 방송, 주체90(2001)년 8월 14일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고이즈미일본총리는 15일 경찰의 삼엄한 경계속에 2차대전 A급전범의 위패가 있는 야스쿠니신사참배를 끝내 감행했습니다. 이것은 고이즈미일본총리의 야스쿠니신사참배를 반대한 우리 나라와 일본을 포함해 아시아나라들과 세계진보적 인류에 대한 난폭한 도전이고 **입니다.

아시다시피 야스쿠니신사는 도조를 비롯해 2차대전전범자들의 위패를 보관해둔 사당으로써 이곳을 찾아 참배하는 것은 일본에서 매우 예민한 정치적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야스쿠니신사참배가 과거일제의 대륙침략전쟁에 대한 입장과 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되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대 일본당국자들은 물론 집권층과 정치인들은 이 문제를 조심히 다뤄왔으며 참배하는 경우에도 개인자격의 명예를 걸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와서 일본반동지배층은 야스쿠니신사참배를 일본의 **과 전통을 같이해 나기기 위한 집권정치인들의 본보기로 간주하면서 국회의원들은 물론 장차관들과 심지어 총리까지 공공연히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일본반동들이 야스쿠니신사를 **** 군국주의적 침략야망과 재침열기를 불어넣는 사상적 거점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예상이 가능한 사실입니다. 그들은 야스쿠니신사참배를 통해 일본국민들 특히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군국주의를 주입해 그들이 지난날 이루지 못한 대동아공영권의 야망실현에 나서게 하려는겁니다. 또한 해외침략에 필요한 무력증강과 ** 유리한 *********. 최근 일본에서 군국주의열기가 **불고 있는 가운데 ****노골적으로 벌어지는 것과 괘를 같이해 패전일인 8.15에 즈음해 고이즈미총리가 내외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히 야스쿠니신사참배를 감행한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로써 절대로 묵과할수 없는 겁입니다.

원래 고이즈미는 총리로 당선된 때부터 8월 15일 패전일에 즈음한 신사참배를 공언해 세인들은 물론 일본국민들까지 비난하며 총리가 신사참배계획을 취소할 것을 거듭 요구해왔던 것입니다. 고이즈미총리가 신사참배를 감행한 전날에도 야스쿠니신사역 부근에서는 총리의 신사참배계획에 항의하는 한국의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회원들의 연좌농성이 있었고 13일 당일에도 고이즈미의 신사참배에 항의하는 일본시민단체들의 투쟁이 현지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이즈미총리는 그것을 다 물리치고 끝내 신사참배를 강행함으로써 군국주의망령을 되살리려는 그의 범죄적 의도와 정체를 세상에 더욱 낱낱이 드러내보인 것입니다.

최근 일본반동들은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면서 자위대의 무력을 우리 나라와 가까운 일본 남부지방으로 이동배치하고 있으며 무력증강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반동들의 우리 나라에 대한 재침야망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그들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이고 그에 대처할 마음의 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각계 우리 민중은 일본반동지배층에 대해서는 절대로 환상을 가지지 말고 그들과는 비타협적으로 투쟁해 침략의 마수를 반드시 꺽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일본반동들은 군국주의침략야망을 이뤄보려는 시대착오적인 망동을 그만 두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시아와의 공생을 무시한 고이즈미 정권

마에다 야스히로 (기타규슈대학 교수) 민족시보 / 2001년 8월 1일

≪성역 없는 개혁≫을 내세우고 등장한 고이즈미 총리가 일본의 내정, 외교를 전에 없이 혼란시키고 있다. 다나카 마키코 외상과 간판 두 개를 내건 ≪와이드 쇼내각≫이라는 별명대로 80%를 넘는 지지율을 기록했다. 국민을 야릇한 분위기에 끌어들여 참의원선거에서 자민당 압승을 가져왔다.

그런데 야스쿠니참배문제, 교과서문제에서는 중국,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나라와의 관계를 단숨에 악화시켜 외교무책을 드러내버렸다.

일본정부의 불성실한 대응은 이미 한일간 민중 차원의 교류나 일본문화 개방에 대한 움직임을 단절하는 사태를 일으키고 있다.

7월 하순 방미한 한국의 정몽준씨(축구 W컵 한국조직위원장)는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진 것이 잘못이라는 일본의 역사인식은 이웃나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고 세계축구선수권대회 한일공동개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정씨와 회견한 아미티지 미국무 부장관도 ≪과거의 문제에 책임을 지지 않는 일본정부의 태도를 용납할 수 없으며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국에서는 미국에 호소해 국제적인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다나카 외상은 하노이에서 한중 양국의 공격을 받고 꼼짝 못했다. 한승수 한국외상은 한일관계를 수복하기 위해 고이즈미 총리의 방한을 요청하고, 탕자쉬안 중국외상과 회담한 후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는)그만두라고 말했다≫고 보도진에 밝혔다. 전례없는 모욕적인 언사를 받으면서도 고이즈미 총리 본인은 선거 유세차에 올라가 ≪전몰자에게 성의와 애도의 뜻을 다하는 것이 왜 나쁜가≫고 기염을 토했다.

다나카 외상은 참배반대를 분명히 밝혀 어느새 연인콤비 사이에 균열이 나기 시작했다.

러시아를 방문중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총서기는 같은달 26일 ≪일본이 과거를 정당화하는 한 건전한 조일관계를 구축할 수 없다≫고 고이즈미 발언에 반발했다.

고이즈미 내각의 큰 특징의 하나는 근린 아시아 여러나라에 대한 ≪관심의 희박≫이다. 특히 외교상 중국이나 조선문제에 대한 철저한 경시, 무시의 자세가 돌출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과 가진 미일수뇌회담에서는 오키나와 소녀폭행사건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고이즈미 총리는 ≪자신은 애초부터 친미파≫라고 부끄럼도 없이 떠벌렸다. 그러나 미군기지 철거에 대한 오키나와현민의 비원에 배려도 없었으며 ≪미일지위협정 재검토≫에 대해서도 대미교섭력이 없음을 스스로 드러냈다.

지금까지 세계 주요국수뇌회의에 참석하는 수상은 그것이 포즈뿐이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한국이나 아시아 각국을 방문해 아시아의 리더를 연출하려했다. 나카소네 전총리도 그중 한사람인데 고이즈미 총리는 중국도 한국도 방문하지 않았다. 적어도 야스쿠니 참배가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면 왜 일찌감치 관계국들을 방문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는가. 아시아에 대한 ≪눈길≫이 결락해 있는 일본의 정치, 외교의 실체가 보이고 있다.

사태는 총리와 내각이 궁지에 몰리게 됐다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일본이 아시아 각국으로부터 전혀 신뢰받지 못하는 사태에 빠지게 되는가의 문제인 것이다.

고이즈미 총리의 정치가로서의 본질은 지금까지 일본을 지배해온 낡은 타입의 정치가, 또는 국권적 관료 무리와 동질 동근이다. 제2차 대전 후 보수정치가 공통의 체질이라고도 할 수 있는 국수적 사상과 심정이 진하게 남아있다. 그것은 서양에 대한 열등감의 반영이며 식민지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과 회한의 정을 기본적으로 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듣기 좋은 ≪성역 없는 개혁≫에 모아지는 국민의 기대를 방패로 삼아 정부, 여당내에서는 집단자위권을 확립해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만들기 위한 헌법개정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사실 고이즈미 총리는 헌법개정의 필요성에 언급한 최초의 총리가 되었다. 첫 방위대학 출신 방위청장을 배치하고 방위성 승격안과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을 미국의 뜻에 맞도록 예의노력중인 것이다. 고이즈미 총리의 발상은 ≪자위대는 군대이다. 이것이 헌법위반이라면 헌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고이즈미 총리의 뇌리에는 (일본의)전몰자에 대한 ≪성의와 애도≫의 마음은 존재하지만 일본의 과오로 인하여 많은 아시아 민중들에게 비극을 초래한 사실은 지식으로서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닐까. 어떤 발언도 말은 명료하지만, 국제적으로는 의미불명의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

자만의 수다는 대중선동가의 것이며, 히틀러와 많이 닮은 그 수법을 위험시하는 목소리도 많다. 또는 경조 부박한 텔레비전 시대를 상징하는 ≪교언영색이 선의인(교묘한 말과 아첨하는 얼굴빛을 하는 이가 어질리 없다)≫의 대표자라고 할수 있을까. 명쾌한 말투의 뒷전에서 사실은 국가나 국민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리스크도가 높은 정치지도자라는 점에서 나카소네 야스히로, 오자와 이치로, 이시하라 신타로 등과 공통성을 갖고 있다. 아시아에 대한 고자세도 놀라우리만큼 닮았다. 일본의 텔레비전 각사가 일제히 거부한 것처럼 ≪정말 무서운 것은, 최초에, 인기있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찾아온다≫는 CM은 정곡을 찌른 느낌을 준다.

고이즈미일본총리의 방한과 관련해

구국의 소리 10월 6일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민주당 *****위원장은 고이즈미일본총리가 오는 15일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고이즈미총리는 최근 오는 20일과 21일 중국 상해에서 진행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 수뇌자회의에 참가하기에 앞서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고이즈미 일본총리의 방한은 우리 민중의 민족적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민의를 거스르게 하는 것으로써 지금 각계 민중의 분격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고이즈미일본총리로 말하면 자기 나라 국민들에게 군국주의를 공공연히 고취하면서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기 위해 누구보다 광분하는 군국주의광신자입니다. 고이즈미일본총리는 집권한 첫날부터 강력한 일본건설을 떠들어대면서 이른바 경제대국에 걸맞는 정치대국, 군사대국건설에 박차를 가해왔습니다. 군사비지출에서 미국 다음으로 세계2위를 차지하는 일본은 헌법에 규정된 국토방위를 위한 무장력동원을 확보하기로 한 세계3위의 강대한 현대적 무력과 각종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를 침범할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기본적으로 만들어놓았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특히 일본의 핵무장화책동은 위험수위를 이미 넘어선지 오래입니다. 핵대국을 정책으로 내세우고 막대한 양의 플로토늄을 보유하고 마음만 먹으면 순식간에 엄청난 수의 핵무기를 만들수 있는 기술과 장비들을 이미 갖추고 있는 일본은 최근 대형운반로켓 ≪에이취-2에이≫를 시험발사함으로써 대형장거리운반수단까지 보유하게 됐습니다. 일본의 이같은 군국화와 핵무장화책동이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에 그 위험한 목적이 있다는 것은 이미 잘아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고이즈미 일본총리는 지난 8.15패전일에 즈음해 우리 민족은 물론 아시아나라 민중들이 그처럼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조를 비롯해 1급 전범들의 위패가 보관돼 있는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함으로써 군국주의광신자로써의 추악한 정체를 스스로 드러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고이즈미총리의 비호두둔하에 야스쿠니신사참배를 주관하는 단체까지 나와 참배를 정치화, 관례화하려하고 있습니다. 고이즈미총리는 특히 일제침략역사를 심히 왜곡하면서 자라나는 일본의 새 세대들에게 군국주의침략사상을 주입하려고 책동하는 우익단체들을 적극 비호하고 있어 내외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일본 우익단체가 왜곡서술한 중학교용역사교과서를 수정하라는 우리의 요구를 문부과학성을 통해 거부했을뿐 아니라 그것이 시판되는 것을 묵인해 더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고서도 고이즈미총리는 잘못했다는 말한마디조차 않고 뻔뻔스럽게 방한하려고 해 우리 민족을 더욱 분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이즈미일본총리가 방한하려고 하는 것은 역사왜곡과 야스쿠니신사참배 등으로 인해 날로 더욱 높아지고 있는 우리 민중의 반일감정을 어떻게 하나 누잦혀보려는데 그 범죄적 저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중은 고이즈미총리의 방한을 절대로 용납할수 없으며 그것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범국민적 차원에서 힘있게 벌여야 할 것입니다.

고이즈미총리가 우리 민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내 방한을 단행한다면 보다 큰 항거와 규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이즈미 방한 반대, 일본 군사대국화 규탄 성명

고이즈미는 부시가 보낸 대북강경정책, 한미일 공조체제 점검 사절
테러사건 빌미 자위대 해외파병, 이북 대상 군사대국화 추진 정당화 될 수 없다

한반도 재침야망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고이즈미 일본총리가 오는 15일 이남을 방문한다고 한다. 이번 방한의 목적은 월드컵도, 경제문제도 아닌 중동전쟁에 바쁜 부시를 대신해 한미일공조체제 강화를 통한 대북강경정책을 점검확인하고 동시에 그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군사대국화 조치에 대한 홍보와 동의를 얻어내고자 함이다.

고이즈미의 방한 계획은 미국땅에서 이루어 졌다. 일본은 미국 테러참사가 일어나자 이례적으로 미국을 방문, 부시와 정상회담을 갖고 반테러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중국을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소위 보복전쟁 준비로 방한이 취소하면서 한미일 삼각동맹체제 점검에 차질을 빚은 부시의 요구와 반테러전선강화라는 명목아래 군사대국화 조치를 주변국의 반발없이 추진하려는 일본의 요구가 맞아 떨어진 것이다.

이는 미국이 ≪이북은 (미국이 지정한) 테러지원국≫이라는 것을 새삼 강조하고 있는 것이나 일본이 도쿄 도지사등 고위관리를 통해 미 테러사건에 대한 대응을 북조선 위협론과 연관시키고 있는 것에서 쉽게 확인된다.

따라서 이번 방한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협하는 미일 공조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최근 행보를 보자면 방한을 반대하는 것을 떠나 일본땅으로 당장 날아가 시위를 벌이고도 남음이 있다.

우리는 일본이 침략역사 왜곡과 신사참배라는 또 한번의 만행을 저지르고도 참회와 시정약속도 없이 '응어리를 풀어주겠다'는 모호한 말을 내뱉는 것에 분노한다. 과거 얼마나 많은 일본 정치인들이 어제 사과했다가 내일 번복하는 기만술책을 펼쳤는가. 역사왜곡에 대한 사죄와 시정약속 없이는 방한은 커녕 한일관계 정상화란 있을 수 없다.

가장 큰 우려는 최근 일본이 패전국의 족쇄를 완전히 벗게될 '해외 분쟁지역의 자위대 파병 및 군사활동 개시'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분쟁지역 파병을 금지한 평화헌법 제정 이후 갖은 술수로 자위대 파병과 군사대국화를 시도했다. 미일 안보조약으로 기지개를 폈고 그힘으로 92년에는 자위대가 유엔평화유지군으로 캄보디아에 파병되었다. 99년에는 한반도 및 대만 유사시 대비 주변사태법을 제정했고 급기야 올해는 미국 테러참사를 계기로 자위대 육해공군이 동시에 합동훈련을 벌일 계획을 수립했다. 이 뿐인가. 북조선 미사일 대응을 운운하며 대륙간 탄도미사일 보유를 목적으로 대형운반로켓 H-2를 시험발사하였다.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실제 한반도를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고이즈미가 설령 역사왜곡을 사죄하고 시정을 약속한다고 해도 그 의미가 무의미해지는 사태가 벌어지고 것이다.

이런 엄중한 정세에서 일관성 없는 굴욕외교로 국민들의 애국애족에 기반한 반일 감정을 기만한 현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과거 6.3 시위와 같이 대일굴욕외교는 곧 집권의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고이즈미는 한국땅을 밟을 수 없다. 기어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다면 반드시 그에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역사왜곡 사죄 및 시정 약속, 북조선 위협론 철회, 자위대 파병 및 해외합동 군사훈련 계획 철회만이 진정한 화해를 보장할 수 있다.



우리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 2001년 10월 8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9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의장 최승환)

군국주의 부활에 미쳐 날뛰는 고이즈미 총리의 방한을 결사 반대한다

뻔뻔하기 짝이 없는 고이즈미가 15일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다고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고이즈미 총리의 방한이 합의된 데는 그 동안 물밑접촉을 통해 일본이 ≪진전된 입장≫을 보이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은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역사교과서 왜곡파문, 과거 죄행에 대한 깊은 사죄가 목적이 아니라 미국 테러 참사 이후 동북아 협력강화를 강력히 희망한 미국측의 요구로 인한, 미일 공조 하에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위한 기만적인 술책임을 우리는 똑똑히 알고 있다.

일본은 전세계가 인정하는 이북의 인공위성을 오로지 미국만이 미사일이라고 고집하는 것에 동조하여 미국과 함께 대북강경정책을 실시해 왔으며, 미국의 비호아래 로켓을 발사하며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에 열을 올리며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일본의 무력사용 범위를 확대시켜 왔다.

그리고 우익세력을 앞세워 일본군 ≪위안부≫역사는 화장실 역사이며 아시아 침략 전쟁을 아시아 민족해방 전쟁으로 미화하는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만들고 사무라이 정신을 상징하는 야스쿠니 신사를 당당하게 참배했다.

기간의 이러한 행위에 반성의 기미는 커녕 현재 교과서 채택에서 참패를 당한 왜곡된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대해서는 4년 뒤에는 반드시 복수를 하겠다고 떠들어대며 초등학교 교과서까지 왜곡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특히 전세계가 우려하고 있는 미국의 테러 보복공격에 강력 지지하며 그것을 빌미로 미국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도 않은 자위대 파병에 열을 올리면서 물 만난 물고기처럼 무력을 증강하고 있다.

그리고 테러참사와 관련해 동북아 국가들의 협력강화를 희망하는 부시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중국을 방문겠다고 밝히고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이토록 음흉한 의도를 가지고 어디 감히 한반도에 발을 들여놓겠다는 것인가?

어설픈 속임수는 통하지 않는다. 군국주의 부활로 한반도를 또다시 침략하려는 일본의 야욕은 실현될 수 없다.

우리들은 일본의 군사대국화 책동의 본질과 위험성,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알려나가며 범국민적 차원으로 일본의 재무장과 군국주의 부활 책동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강위력하게 벌여 나갈 것이다.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파렴치한 고이즈미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모든 문제해결의 실마리는 전적으로 일본의 입장과 태도에 달려있다.

진심으로 한일간의 관계정상화를 원한다면 먼저 과거 죄행에 대한 분명한 사죄 배상과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군국주의 부활 책동을 당장 중단하라.



2001년 10월 8일
민족사적 전환기를 개척하는
7기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의장 조희진)

고이즈미 방한 반대 대전충남 통일연대 성명서

군국주의 실현을 위한 사죄와 반성, 군국주의 광신자 고이즈미의 방한을 반대한다.

오는 15일 침략의 역사를 미화한 역사왜곡과 전범을 찬양한 신사참배를 자행한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미국의 요청에 따라 우리나라를 방한한다.

역사왜곡과 신사참배를 강행한 고이즈미가 아무런 사죄와 반성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땅에 발을 들여놓는다는 것 자체도 있을 수도 용납 될 수 도 없지만, 방한을 하여 과거에 대해 사죄와 반성하고 이를 통해 한일관계를 증진시키겠다는 일본이 그러한 방한을 앞두고는 쿠릴열도에서의 한국어선의 조업을 막기위해 러시아를 돈을 주고 매수하는 파렴치한 일을 저지르는 것을 보며 과연 고이즈미의 방한 속심이 어디에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 때문에 갑자기 방한한다는 것인며, 김대중 정권은 왜 갑자기 정상회담 요구에 합의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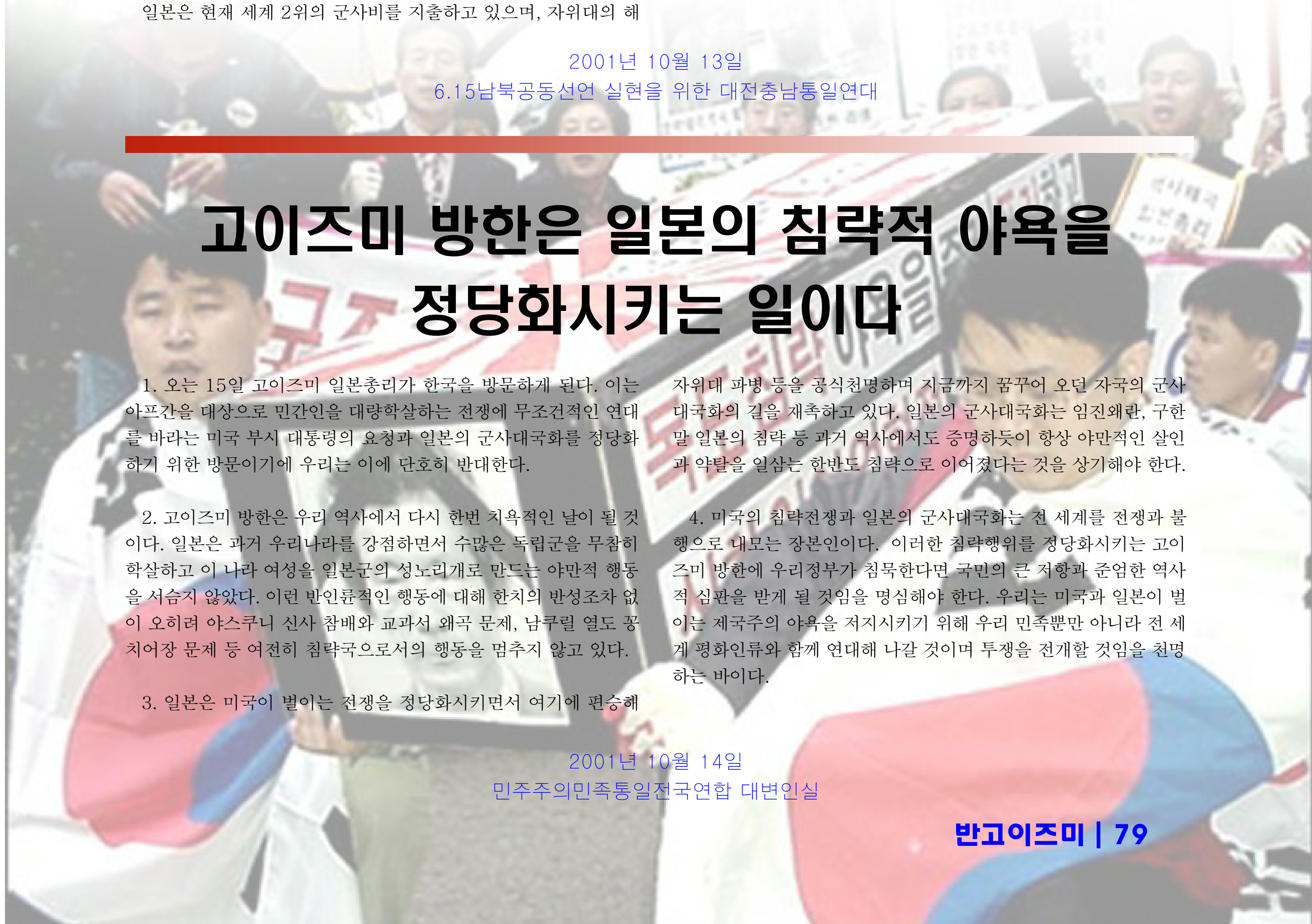
결론부터 말하면 고이즈미의 방한의 목적은 말뿐이 사죄와 반성이며, 그 궁극적 목적은 미국이 현재 벌이고 있는 전쟁에 대한지지와 공동의 대처를 통해 실제에 있어서는 군국주의의 길을 열어놓겠다는 목적이다.

일본은 현재 세계 2위의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위한 모든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풀류토늄만으로도 3000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 아울러 2010까지 100톤의 풀류토늄을 더 확보할 계획인데 이는 현재 미소가 보유한 핵무기의 숫자보다 많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 거기에 일본은 핵무기의 운반수단인 로켓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상태이다. 이는 일본이 과거 대동아 공영권을 부르짖으며 침략과 약탈을 자행한 군국주의를 위한 모든 만전의 준비를 마치고, 그 시기만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며, 미국의 요청에 따른 방한은 이러한 모든 준비에 맞게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명분을 가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대전충남통일연대는 이러한 군국주의 광신자 고이즈미의 간교한 의도를 바라보며, 역사왜곡과 신사참배로 민족의 존엄을 유린한 고이즈미는 이땅에 발을 들여놓을수없다는 것과 더욱이 사죄와 반성의 허울을 쓰고, 미국전쟁지지와 자기나라의 군국주의를 실현하려 방한하는 고이즈미를 지역의 각계각층의 의지를 모아 강력히 규탄할 것이다.

역사왜곡, 신사참배 고이즈미 방한 반대한다.
말뿐인 사죄와 반성 필요없다. 전쟁참여, 군국주의 실현을 위한 고이즈미의 방한을 반대 한다.
세계평화유린하는 미국의 전쟁을 지지 지원하기 위한 한일정상회담을 취소하라!

2001년 10월 13일
6.15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대전충남통일연대



고이즈미 방한은 일본의 침략적 야욕을 정당화시키는 일이다

1. 오는 15일 고이즈미 일본총리가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 이는 아프간을 대상으로 민간인을 대량학살하는 전쟁에 무조건적인 연대를 바라는 미국 부시 대통령의 요청과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정당화하기 위한 방문이기에 우리는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

2. 고이즈미 방한은 우리 역사에서 다시 한번 치욕적인 날이 될 것이다. 일본은 과거 우리나라를 강점하면서 수많은 독립군을 무참히 학살하고 이 나라 여성을 일본군의 성노리개로 만드는 야만적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이런 반인륜적인 행동에 대해 한치의 반성조차 없이 오히려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교과서 왜곡 문제, 남쿠릴 열도 꽁치어장 문제 등 여전히 침략국으로서의 행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3. 일본은 미국이 벌이는 전쟁을 정당화시키면서 여기에 편승해 자위대 파병 등을 공식천명하며 지금까지 꿈꾸어 오던 자국의 군사대국화의 길을 재촉하고 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임진왜란, 구한말 일본의 침략 등 과거 역사에서도 증명하듯이 항상 야만적인 살인과 약탈을 일삼는 한반도 침략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4. 미국의 침략전쟁과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전 세계를 전쟁과 불행으로 내모는 장본인이다. 이러한 침략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고이즈미 방한에 우리정부가 침묵한다면 국민의 큰 저항과 준엄한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미국과 일본이 벌이는 제국주의 야욕을 저지시키기 위해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평화인류와 함께 연대해 나갈 것이며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1년 10월 14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대변인실

역사왜곡 군국주의 부활 고이즈미 총리 방한을 결사 반대한다



10월 15일 준이치로 고이즈미 총리가 방한을 앞두고, 각계각층 민중의 반대여론이 들끓고 있다. 일본역사교과서 왜곡문제에 대해, 신사참배 문제에 관련해 어떤 사죄도 없었던 상태이고 정부간 교류마저 단절되었던 상황에서 갑자기 한국을 방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얼마전 일본 산케이 신문의 보도내용에 의하면 한일정상회담이 서둘러 준비되는 이유는 부시 방한의 연기를 대신해 미국의 테러사건에 관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연대를 바라는 미국정부의 강한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렇게 준비되고 있는 한일정상회담이 우리 민족에게 어떠한 의미이겠는가?

일본은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의 빗발치는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 왜곡, 야스쿠니 신사참배 강행하였고 군국주의 부활을 호시탐탐 노리던 와중 미국의 테러사건을 기화로 자위대법 개정, 군사장비 및 자위대 파병 등 해외팽창 야망을 실현하기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그리하여 기어이 자위대를 파키스탄으로 파병하는 행태를 저질렀고, 한국의 어선이 일본의 공격에 의해 침몰되어 선원들이 목숨을 잃을뻔 하였으며, 한국의 꽁치조업을 러시아와 일본이 중단시킬것을 합의해 연간 만5천톤 가량의 손실을 보게하는 등 자국만을 위한 깡패짓은 다하고 있다. 얼마전에는 H-2A 로켓발사 시험을 성공해 아시아의 맹주가 되려는 무모한 전쟁책동까지 일삼고 있다.



우리는 알고있다. 일본 총리의 한국방문은 미국 부시가 방한을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보복전쟁을지지, 지원이라는 세계유일 패권전략에 한국을 끌어들이려 책동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정부에 자위대 파병에 대한 동의를 얻어내 해외팽창 야망을 실현하려는 것이며 역사왜곡 등에 대한 간단한 유감의 표시 정도로 반일감정을 뒤로하게 한뒤 한일관계를 정상화 하고 2차 문화개방, 한일군사공조등을 재개하여 한반도 재침략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음흉한 술책이다.

우리는 일본이 역사교과서 왜곡, 야스쿠니 신사참배, 한국어선 침몰사건 등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위대법 개정, 보복전쟁 지원등 군사대국화 해외팽창의 음모를 중단하지 않는한 이땅에 한발도 들여놓을 수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통한 아시아 패권야망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것이며 이러한 저의를 파탄시키기 위해 더욱더 반일투쟁을 힘있게 벌일것이다.

역사왜곡 군국주의부활 고이즈미 총리 방한을 결사반대한다!
미국을 등에업고 군국주의 부활 책동 고이즈미총리 방한을 결사반대한다!

우리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해 2001. 9월 13일
서울북부지역 청년학생통일대회준비위(준)

나라사랑청년회 북부지부
권희정열사 추모사업회
국민대 민주동문회
새시대 서울청년회
성북청년회
서울 북부지구 총학생회연합

고이즈미 일본총리 방한과 군국주의 부활 저지에 대한 울산지역 제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고이즈미는 우리 국민 앞에 무릎꿇고 사죄해야한다!

오늘(15일) 한일 양국간의 정상회담을 위해 고이즈미 일본총리가 방한을 했다. 고이즈미 일본총리는 자국민에게 군국주의의 부활을 공언하면서 대동아 공영권의 옛꿈을 현실로 만들자고 떠들어대는 군국주의의 부활 신봉자로서, 집권 첫 시기부터 강력한 일본건설, 경제대국에 걸맞는 정치대국, 군사대국건설을 주창해온 자이다. 최근에는 미국의 테러 보복공격에 편승해 자신들의 헌법까지 수정해가며 자위대의 재무장과 해외파병에 자진해 나서고 있다.

특히, 지난 8.15 패전일에 즈음해 우리 민족은 물론 아시아 각국 민중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급 전범자들의 위패가 보관돼 있는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함으로써 자신의 군국주의 부활의 의도를 서슴없이 드러냈다.

뿐만이 아니라, 우익세력을 앞세워 ≪위안부≫역사는 화장실 역사이며, 아시아 침략 전쟁을 아시아 민족해방 전쟁으로 미화하는 역사교과서 날조로 우리를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역사를 왜곡하는 국제범죄행위를 저질렀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일본은 이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임이 분명해 졌다.

이런 속에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는 한일정상회담은 우리들에게 당혹함과 배신감, 분노를 동시에 느끼게 하고 있다.

지금까지 김대중정부는 2가지 전제조건을 내세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일간의 모든 비공식 · 공식적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공언했다. 2가지 전제조건이란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관련한 공식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역사교과서 왜곡과 관련한 공식사죄를 통한 교과서 재수정이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대중 정부의 한일정상회담 결정은 우리 국민들의 반일감정과 민족의 자존심을 팔아먹는 망국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었다.

역시 고이즈미 방한은 우리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불과 했다.

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고이즈미 일본총리가 한국 땅을 밟고 말았다. 7시간 30분이라는 짧은 방문을 통해 고이즈미가 한일은 아무것도 없다.

형식적인 사과외에는 국민들이 납득하고 이해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일본 역사교과서를 왜곡하고 전범들의 위폐가 있는 신사를 참배해 놓고 그러한 역사인식에 '유감의 뜻'을 표시한다는 말만했다고 한다. 또한 일본의 과거 식민지지배에 대한 사과와 반성의 뜻을 표시했다고 한다.

우리민족에게 36년간이라는 치욕을 주고 우리민족의 젊은 청년을 침략전쟁터로 내몰고 어린누이들을 성노래감으로 무참하게 짓밟아 놓고 단 한번도 진심어린 사과와 그에 준하는 행동을 한적도 없으면서 또 다시 유감, 사과 운운하면서 우리민족을 기만한 것이다.

일본이 진정으로 식민지지배에 대하여 반성하고 사죄한다면 자신들의 침략전쟁을 인정하고 그에 대하여 보상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또다시 침략전쟁을 꿈꾸며 진행하는 군국주의 부활을 당장 중단하고 역사교과서를 올바르게 기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남쿠릴 열도 꽁치잡이 문제와 비무장 어선 침몰사건에서 보듯이 일본은 자신들의 과거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기는커녕 이제와서 실무회담을 하겠다며 오히려 자신들의 야욕과 속셈을 더욱더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 고이즈미 일본총리의 방한은 자신들의 과거범죄, 역사왜곡과 야스쿠니 신사참배 등으로 인해 날로 높아만가는 우리 국민들의 반일감정을 누그러뜨려 보려는 저급한 속셈에 불과한 것이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고이즈미 방한이 가지는 의미를 바로 보고 일본의 군사대국화, 군국주의 부활 책동의 본질과 위험성에 대해 분명히 경고하며 전민족의 반일 의지를 담아 반대해 나갈 것이며 기만적인 고이즈미 방한과 한일정상회담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이에 우리는 일본정부와 고이즈미 총리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고이즈미 일본총리는 역사교과서 왜곡과 관련하여 우리국민과 아시아 민중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역사교과서를 올바로 수정하라.

하나, 1급 전범자들에 대한 신사참배에 대한 공식사과와 함께 재발방지책을 약속하라.

하나, 군국주의 부활 음모 자위대 파병을 즉각 중단하고 방위비 증강계획을 철회하라.

하나, 남쿠릴열도의 꽁치조업 방해와 비무장어선 침몰의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해 사과하라.

하나, 불평등한 한일어업협정을 철회하고 재협상을 실시하라.

하나, 한국 정신대 여성들에 대한 공식적인 사죄와 배상을 즉각 실시하라.

2001년 10월 15일

고이즈미 일본총리 방한 결사반대 및 군국주의 부활저지 울산지역 참가단체 일동

울산YMCA,울산여성회,울산YWCA,동구노동단체(준),동구주민회,매구마당,민족예술인총연합울산지회,민주노동당울산시지부,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민주주의민족통일울산연합,사회당울산시지부,울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울산노동자의힘,울산대학교총학생회,울산민주화가족실천협의회,울산여성연대모임,울산여성의전화,울산인권운동연대,울산참여자치연대,울산청년회,평등연대,울산노련,울산해고자복직협의회,울산환경운동연합,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현대중공업노동자가족협의회,현장21,노동21,흥사단울산지부,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대민주화교수협의회,한국노총울산본부,교육자치시민회,동해민속예술원,추임새,한텅,우리글,그림세상,민주노동자전국회의울산지부,재단법인사랑의장기기증운동울산지부,대한호스피스회,함께하는사람들(이상 43개단체)

우리는 준이치로 고이즈미 일본총리의 방한을 결사 반대한다

고이즈미 일본총리의 방한은 한민족의 수치다.

식민통치 36년간 한민족을 그토록 멸시하고, 약탈하고 죽였던 자들이 단 한마디 사죄의 말도 없이 오히려 침략의 역사를 왜곡하더니 급기야는 야스쿠니 신사참배로 온 세상을 분노로 들끓게 했었다. 지금에서도 한일어업협정, 독도문제, 얼마 전에는 한국정부를 배제한 러시아와의 꽁치조업에 대한 협의, 소형선박 격침사건 등 우리 민족을 무시하는 수많은 사건들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미국이 테러 이후 자신의 보복전쟁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일본을 앞세우고 있다는 사실과 이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정책과도 맞아 떨어져 자위대 파견 등 이젠 더욱 노골적인 군국주의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최근 일본은 자위대법 개정으로 전투지역은 물론이고 어느 곳에서도 자위대가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무기사용 범위도 확대시킴으로써 언제든지 군사활동을 개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또한, 북에 대한 미사일 대응 운운하며 대륙간 탄도미사일 보유를 목적으로 한 대형 운반로켓을 시험 발사했으며, 100톤 풀르토늄 확보계획을 운운하며, 핵무장화를 위한 정책도 내놓고 있다. 그리고, 미국 테러 참사 후 이북위협론을 퍼뜨리며, 한미일 공조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망발들을 늘어놓았고 한반도의 교류와 협력, 단합의 열기를 긴장조성으로 바꾸어 나가려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일본의 군사대국화, 군국주의 부활 망동을 노골적으로 전개하고 있음에 우리는 분노스러울 따름이다.

정부는 우리 민중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아야 한다.

일본정부의 공식사과도,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뜬 눈으로 한 많은 생을 마친 위안부 할머니들의 넋이 지금에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일본이 진정 한반도 침략의 역사를 반성하기는커녕 군국주의 군사대국화 전략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일본에게 당당하게 맞서서 요구하라. 전국민의 반일열기에도 불구하고 고이즈미 일본총리에게 우리 민족의 존엄과 우리 민족의 한을 저버리고 일본총리를 맞아들인다면 전 국민적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일본에게 경고한다.

15일 고이즈미 일본총리가 방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4천만 민중의 일본총리 방한 반대, 군국주의 망령 일본반대의 목소리로 들끓고 있으며 이 분노가 어디에서 기인하고 있는가를 일본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과거침략역사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군사대국화, 군국주의 부활책동을 중단하지 않는 조건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 땅을 밟을 수 없다는 각오로 이번 고이즈미 일본총리의 방한을 저지 할 것이다.

우리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해 10월 15일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민족공동행사 부산지역청년학생 추진위원회



제2의 대동아공영권을 꿈꾸는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방한을 강력히 규탄한다

15일 오늘은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김대중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실로 우려스럽고 치욕스런 날이다.



일본은 과거 40년 동안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 지배를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천추의 한을 남긴 역사적 범죄자다. 일본은 또한 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의 분단을 조장,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득을 챙겨온 국제적 탕자다. 그런데도 일본은 과거 자신들의 침략사를 반성하기는커녕 역사 교과서의 왜곡, 날조를 통해 이를 미화하고 침략전쟁을 자행한 전범자들에 대한 신사 참배를 강행함으로써 자신들의 역사적 범죄를 정당화하는 가증스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 나아가 평화헌법 개정과 군국주의의 부활을 꾀하던 일본은 미국의 테러사건을 계기로 더욱 노골적으로 군사대국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이 보복 전쟁을 감행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보복 전쟁에 대한 파병과 병참 지원의 뜻을 밝혔으며, 이를 합법화하기 위해 자위대법 개정안과 후방지원법안의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듯 대내적으로는 역사 왜곡과 신사 참배를 통해 자국 국민들의 정신무장을 꾀하고 대외적으로는 해외로까지 자위대의 군사 활동을 넓히며 군국주의화의 길로 치닫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일본의 모습이며, 그 맨 앞장에 고이즈미가 서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고이즈미가 한국을 방문하여 과거 침략사를 사죄한다는 것은 서천소도 웃을 일이다. 그것도 그가 애국열사들의 원혼이 서려 있는 이 곳 독립공원을 방문한다는 것은 우리 민족에 대한 우롱이자 기만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고이즈미가 부시를 대신하여 방한하였다는 것은 동아시아의 맹주와 제2 대동아공영권을 꿈꾸는 그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우리가 고이즈미의 방한을 보면서 제2의 가쓰라—태프트 밀약과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을 떠올리는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닐 것이다. 따라서 민족의 자존을 생명으로 여기는 우리들은 고이즈미의 서대문 독립공원 방문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민족적 치욕으로 여기며, 이에 그의 방한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한편 우리는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방한을 수락한 김대중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정부는 고이즈미가 독립공원을 방문하여 과거 침략사를 사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사죄하지 않을 것이며, 군국주의화와 한반도 재침략 음모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고이즈미가 조금이라도 사죄할 의향이 있다면 그의 방한이 결정된 바로 직후에 남쿠릴열도에서 우리 나라의 조업권을 배제하기로 러시아와 합의하는 후안무치한 짓을 할 리가 없다. 김대중 정부는 이미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명확히 천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일어업협정에서도 우리의 조업권을 일방적으로 양보하지 않았던가! 따라서 사죄에 대한 아무런 담보 없이 김대중 대통령이 고이즈미와 회담을 갖는다는 것은 계속되는 대일굴욕적인 외교 자세를 다시 한 번 드러내는 것이며, 결국 일본의 군국주의화와 한반도 재침략 음모를 용인하는 꼴이 되고 만다.

이에 우리는 고이즈미의 방한과 김대중 정부의 대일 굴욕적 외교를 강력히 규탄하며 일본의 역사왜곡과 신사참배, 군사대국화와 한반도 재침략 음모, 독도 영유권 침탈에 맞서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2001년 10월 15일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범민련 남측본부

고이즈미 총리 가는 곳마다 규탄대상

얼굴 사진 화형식 당하고 찔리고

'부시의 시다바리 고이즈미 총리 방한을 결사 반대한다'
'보복전쟁 빌미 삼아 '전쟁가능한' 제국주의로의 부활? 고이즈미 규탄한다'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방한한 15일 서울 시내 곳곳에서는 고이즈미 일본 총리를 규탄하는 집회와 시위가 잇따랐다. 일본역사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 재향군인회, 민중연대,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각종 시민 · 사회단체들이 서울 시내 14곳에서 벌인 이번 시위에서는 화형식 등 갖가지 퍼포먼스가 연출됐다.

고이즈미 총리가 그려진 플래카드를 찢는 퍼포먼스에서 고이즈미 사진이 붙은 허수아비 화형식, 고이즈미 사진과 일장기가 그려진 관 부수기, 해골분장을 한 채 삼지창으로 일본총리가 그려진 플래카드를 찌르는 퍼포먼스까지. 일부 단체들은 고이즈미 총리의 일정을 따라다니며 계란투척을 하기도 했다.

장면 하나 - 15일 오전 9시 전후 서대문 독립공원



가장 먼저 고이즈미 총리 방한 반대 집회를 시작한 단체는 재향군인회 소속 회원 200여명. 이들은 오전 8시부터 서대문 역사관 옆 독립공원에서 '교과서 왜곡해도 과거역사 못바꾼다', '왕따 당한 한국외교 정부는 분발하라' 등의 플래카드를 걸고 반일 구호를 외쳤다.

특히 이 단체 소속 회원 4명은 호국영령을 상징하는 해골분장을 한 채 삼지창으로 일본총리가 그려진 플래카드를 찌르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어 8시 30분. 민주노총과 민족화합자주통일협의회 회원 100명은 고이즈미 총리가 지나가기로 예정되어 있던 서대문 로타리 독립문 앞에서 '식민지배 사죄하고 침략수탈 배상하라'는 플래카드를 걸고 집회를 시작했다. 특히 이들은 일장기가 둘러쳐진 고이즈미 총리의 허수아비 화형식을 가졌다.



경찰들의 저지로 역사관 진입이 좌절되자 일부 한총련 학생들은 독립문을 가로지르는 현저고가도로에서 '군국주의 역사왜곡 고이즈미 방한 반대'라고 적힌 대형플래카드를 내걸고 유인물 수백여장을 뿌리는 등 고공 기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또 일부 자통협 소속 회원들은 도로를 향해 계란을 던지기도 했다.

그러나 고이즈미 총리는 경찰의 철통같은 경비 속에서 별다른 사고 없이 역사관 방문을 마쳤다. 또 이날 오전 8시45분께 동작동 국립묘지를 방문한 고이즈미 총리는 헌화 후 방명록에 '小泉純一郎'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남긴 뒤 도착 10분만에 국립묘지를 떠났다.







2장면 - 15일 정오 종묘와 종로2가 젊음의 거리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교과서왜곡에 대한 사죄 없는 일 총리의 방한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고이즈미 방한반대'등 문구가 씌어진 만장 화형식을 가졌고, 이어 고이즈미 총리 영정이 그려진 관을 메고 인사동까지 진출하려 했으나 경찰의 저지로 무산되자, 즉석에서 관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연출하기도 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국군주의 부활음모 규탄, 역사왜곡 및 꽁치잡이 금지 등에 대한 규탄 등이 주로 전개됐다.

같은 시간 종로 2가 젊음의 거리에서는 참여연대, 민주노총, 민중연대,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총련 등 시민 · 사회단체 소속 회원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고이즈미 방한 반대' 집회를 갖고, 일본 군사대국화를 상징하는 '태양기'를 두른 고이즈미 허수아비를 화형시키기도 했다.

이날 단체들은 '미국의 보복전쟁을 빌미로 일본의 군사대국화, 자위대 해외파병 기도하는 고이즈미 일본총리의 방한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고이즈미 일본 총리 방한 반대와 미국 반테러 전쟁 지원을 명분으로 한 일본 정부의 자위대 파병과 군사대국화"를 규탄했다.

공희정 기자 khj@ohmynews.com
2001/10/15





허탈, 배신 그리고 분노

대전 시민사회단체, 일 총리 방한에 정부 대일 외교정책 비판 성명 잇달아



"우리는 오는 10월15일로 예정된,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전격적인 방한과 관련 참으로 황당하며 허탈과 배신감을 넘어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대전 흥사단, 10월 8일)

오늘(15일)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방한과 관련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방한 반대 성명이 잇따랐다. 이들 시민사회단체가 발표한 고이즈미 총리의 방한에 대한 입장은 한마디로 허탈과 배신 그리고 분노로 집약된다.

특히 이들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성명에는 최근 교과서 왜곡 문제 및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 등으로 비롯된 국민들의 극도로 악화된 반일 감정이 여전히 존재하는 현실을 무시하고 고이즈미 총리 방한을 허용한 정부의 대일 외교 방침에 대한 분노마저 담겨 있다.

15일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이 한국을 방문한 고이즈미 총리의 방한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일본정부가 '결자해지'하기 전에는 한일 정상회담은 없다는 정부의 강경했던 원칙은 어디로 갔는지 묻지 않을 수 없고, 매번 말로만 외치는 강력한 항의에 국민들은 더욱 분노한다"며 "언제쯤 되어야 우리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강력한 대응방안을 시행할 것인가"라며 정부의 대일 외교 정책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대전 흥사단 역시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가 들끓는 국민들의 분노를 외면하고 일본 총리의 재발 방지 언급 외에는 아무 것도 없는 말 한마디에 당장이라도 국교를 단절할 듯이 당당하던 자세를 팽개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도 모자라 미국 테러와 관련, 자위대의 군사 파병이 자국 내에서도 논란이 되는 미묘한 상황에서 한일간 군사교류를 부활하고 일본 문화 개방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며 고이즈미 총리 방한을 허용하지 말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도 지난 13일 일 총리 방한에 앞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한국정부는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해 일본정부가 '두고두고 후회하도록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그러던 한국정부가 두 달도 채 못 되어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방한을 허용했다"며 "그 사이 일본의 무엇이 달라졌기에 우리 정부의 그토록 강경하던 입장이 하루아침에 바뀌었는가?"라고 되물었다.

이렇듯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의 대 일본 외교 정책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은 그 동안 정부가 보여준 굴욕적인 외교 자세에 기인한다. 중국의 확고한 대일 정책과 비교할 때 한국정부의 대일 외교 정책은 과거사에 대한 명확한 역사 인식과 원칙이 결여돼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는 일본에 대한 보다 강경하고 원칙적인 정부의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흥사단은 이미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일본의 과거사 사죄문제와 더불어 "치밀한 정보의 부재와 당당한 외교교섭 없이 뒷짐만 지다가 계속하여 국익을 상실하는 우리정부의 자각을 촉구한다"며 "계속되는 우리 정부의 굴욕적인 외교에 국민들은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즉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방한에 앞서 과거사에 대한 언급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미 지난 한일 관계에서 보여지듯이 총리 한 개인의 사과 발언이 한일 과거사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가기는 어렵다는 것이 시민사회단체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미 수차에 걸친 일본 정부의 과거사 사과 발언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는 배경에 한국 정부의 확고한 대일 외교 정책 부재가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보다 강경한 정부의 대일 외교 정책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방한과 관계없이 정부는 보다 확고한 과거사 인식과 강경한 대일 외교 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 정부의 일본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을 지적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각 각 성명을 통해 일본의 과거사 사죄 및 반성 없는 방한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일제히 발표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역사왜곡 재발 방지"와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반성"을 거듭 촉구했다.

이와 함께 대전충남 통일연대는 이날 대전역에서 고이즈미 총리 방한을 반대하며 피켓 시위 및 대시민 선전전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기동 기자 lee9801@ohmynews.com
2001/10/15

반통일세력의 준동을 투쟁으로 분쇄하자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위대한 결단과 노력으로 역사적인 남북최고위급회담이 성사되고 6.15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그 이후 정세는 급물살을 타며 자주민주통일의 바다로 거침없이 나아가며 매우 좋게 발전하고 있다. 온 민족은 머지않아 이루어질 조국통일의 광명한 미래를 내다보며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 있다.

헌데 내외의 반통일세력들만은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위한 전환적 국면에 극도의 불안을 느끼며 이 통일대세를 뒤집어보려고 발악적인 반통일책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조국과 민중이 예속과 분단의 고통에 신음할 때 미일외세에 빌붙어 온갖 매국역적질로 호의호식해온 반통일세력들이 이제라도 자신의 과오를 뉘우칠 대신 또다시 반통일역적행위로 민족의 가슴에 칼부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반통일세력의 준동은 미제국주의와 일군국주의의 조종과 비호하에 조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선 희대의 사대매국노 김영삼이 미일외세의 낙점을 받아 반통일세력의 수괴로 나서며 망나니 칼춤을 추고 있으며 이에 고무된 조선일보반동매문지와 이회창, 조성태, 이정빈, 장충식, 김용갑과 같은 어중이떠중이 반통일분자들도 덩달아 겁없이 날뛰고 있다.

미중앙정보국의 말단통치기관이며 온갖 반북모략의 소굴인 국가정보원도 이에 질세라 프락치공작과 검거선풍에 미쳐 돌아가고 있으며 보안수사대와 국군기무사와 같은 반동기관들도 조작과 탄압에 광분하고 있다.

내외 호전세력은 통일지향의 평화정세를 흡수통합의 전쟁정세로 바꾸어보려고 ≪을지포커스렌즈≫, ≪**독수리**-2000≫ **합동군사훈련과 같이 전쟁전야에서나 볼 수 있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이고 있으며 심지어 이북의 영공**, 영해를 불의에 침범하는 위험천만한 도발책동마저 저지르고 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역사적인 서울방문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여 이 땅의 모든 애국적 민주세력은 반통일세력의 발악적 반역책동에 최대의 경각성을 가지고 강력히 대처하여야 한다. 반통일세력이 자행하고 있는 엄중한 도발책동을 조국과 민중의 이름으로, 광범한 대중투쟁의 철퇴로 준엄히 단죄하여야 한다.

반통일세력의 반통일책동은 죽음을 눈앞에 둔 자들의 마지막 몸부림에 불과하다. 개가 짖어대도 기차는 달린다. 한국의 애국운동대오는 반통일미친개들을 정의의 몽둥이로 때려잡고 통일행 기차의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할 것이다.

우리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는 이런 정세의 요구를 반영하고 그간 통신상에 공개된 자료에 근거하여 참고자료를 준비하였다. 이는 최근 반통일세력이 자행하고 있는 도발책동들의 양태와 그 본질, 그리고 운동대오의 투쟁방도에 대한 우리의 견해이다.

. . .

4) 내외 호전분자들의 위험천만한 전쟁책동

내외호전분자들의 준동이 심상치 않다.

≪**독수리**-2000≫**한미합동군사훈련이 벌어지고 있는 긴장된 상황에 이남의 전투기와 전투함이 각각 이북의 영공과 영해를 고의적으로 침범하였다.**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가 좋게 발전하며 조국반도에 통일과 평화의 기운이 높아져 가는데 극도의 위기의식을 느낀 내외의 호전분자들이 국면전환을 위한 제2의 ≪서해사건≫까지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침략과 약탈을 떠난 제국주의란 없다. 하여 제국주의의 사냥개들인 극우호전분자들은 하나같이 전쟁미치광이들이다. 미제국주의는 제1, 2차 세계대전과 쏘미냉전으로 비대해진 군산복합경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라크전≫**이나** ≪유고전≫**과 같은 국지전을 매년 벌이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심각한 중증환자이다.**

조국반도는 이런 미제침략세력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책동하는 제1선이다. 미제침략세력은 이미 북침핵전쟁시나리오인 ≪5027작전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보완하고 있으며 90년대 내내 ≪핵사찰≫이다, ≪금창리≫**다** 뭐다하며 전쟁의 불집을 터뜨리기 위한 구실만 찾아왔다. 급기야 작년에는 전쟁직전에서나 볼 수 있는 ≪서해사건≫까지 일으켰다.

만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영활한 군사전략과 무적필승의 조선인민군이 없었다면, 일심단결의 조선인민이 없었다면 조국은 진작에 핵전쟁으로 불바다가 되어 전민족은 핵참화의 파국을 맞았을 것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사상과 전략, 담력에 의하여 90년대의 조미핵대결전에서 패배한 미국은 본질상 조미수교와 평화협정을 의미하는 ≪조미기본합의문≫**과 이를 재확인한** ≪조미공동코뮤니케≫**에 항복서명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조국반도의 전쟁먹구름은 완전히 걷히지 않았으며 내외의 호전분자들도 여전히 악랄하게 발악하고 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선 제1차 세계대전처럼 총성 한발로도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것이다. 내외 호전분자들의 반북전쟁책동은 지금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

우선 미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현대판 ≪트루만주의≫**인** ≪신냉전≫**정책을 세우며** ≪**유고전쟁**≫**때에는 중국대사관까지 폭격하는가 하면 그 무슨** ≪**동북아시아의 위협**≫**이니 하는 것을 조작하며 그 대응책으로 환상적인** ≪**국가미사일방어체계**≫니 ≪**전역미사일방어체계**≫니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지난 7월 28일에 발표된 미공화당의 ≪**강령초안**≫이라는데서는 조선을 염두에 두고 조국반도에서 그 무슨 침략행위를 억제하고 대량살육무기의 전파를 막으며 효과적인 미사일방패들을 구축하여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하였다. 미국의 ≪미사일방위체계≫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미군수독점체들의 탐욕을 충족시켜주는 한편 중국과 러시아를 제압하고 서유럽나라, 일본 등을 계속 손아래에 두기 위한 세계제패전략에 다름아닌 것이다. 하여 현존군사능력을 초월하여야 하므로 도저히 불가능한 환상적 계획을 가능하다고 여론을 조작하며 모험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일본군국주의의 전면적 발호와 전쟁준비의 완성이다. 최근 일본방위청은 ≪2000년 방위백서≫라는데서 조선이 핵무기개발의혹을 가지고 있으며 탄도미사일의 장거리화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을 뿐아니라 화학무기용화학제를 보유하고 있다는 망발을 늘



어놓았다. 전후 미국을 등에 업고 급속히 재생재무장된 일본군국주의세력은 이제 간이 부어서 핵무장화와 군사대국화를 열망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조선을 걸고들며 무장장비의 현대화, 장거리화, 전략무력화를 다그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미일방위협력지침관련법≪전쟁법≫≫**이 채택된 후 주변사태를 가상하여 진행되는 첫 실동훈련인 ≪미일공동통합연습≫이** 11월 2일부터 18일까지 일본 영토에서 진행되었다. 일본은 한편에서는 대화니 협상이니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 ≪자위대≫육해공군과 일본주둔미군, 미태평양함대소속 무력까지 동원하며 사상초유의 종합적인 전쟁연습을 벌이는 양면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일본주변사태공동대처≫의 미명하에 일본을 저들의 전쟁수행에 동원하여 아시아에 대한 군사적 지배와 통제를 실현하려 하고 있으며 일본반동들은 미국의 군사작전에 적극 참가하는 식으로 ≪자위대≫무력의 해외참략을 실현시켜 군국주의 야망을 이루어보려고 하고 있다. 이밖에도 모리총리의 ≪**신의 나라**≫**발언**, ≪히노마루≫**의** 국기화와 ≪**기미가요**≫**의** 국가화, 각료와 의원들의 ≪야스구니진자≫**공동참배**, 육상≪자위대≫의 무력개편, 수도 한복판에서의 열병식, ≪**종합재해방지훈련**≫, ≪방위청≫**의** ≪**국방성**≫**승격놀음**, 미국의 대일헌법개정요구, ≪**불심선**≫**추적사건**, 도쿄지사의 ≪**북선**≫**발언**, ≪**일본인 납치**≫**시비**, 기만적인 재일동포의 ≪**참정권**≫**놀음**, 우익깡패들의 반조선, 반총련소동, 침략미화교과서편찬놀음, ≪**독도망언**≫ **등 일본의 국내** 파쑈화와 전시체제화가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진행되어 이제는 완성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는 증거는 이루헤아릴 수 없이 많다.

다음으로 6.15공동선언 이후에 자행되고 있는 반북전쟁책동이다.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어 조국반도에 전례없는 통일과 평화의 기운이 고조되고 있는데 위기의식을 느낀 미일한 전쟁미치광이들은 연일 호전적인 발언을 해대는 한편 각종 합동군사훈련과 모험적인 대북도발책동까지 벌이고 있다. 한국의 군사깡패 조성태국방장관은 올해 5월 말에 일본에까지 날아가서 남북최고위급회담에 대처하여 미일간의 공조와 군사협력과 교류를 떠벌이며 회담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런가하면 6월말에는 한국임시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완벽한 안보태세가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는데 밑바탕이 되었다≫는 얼빠진 주장을 하였으며 심지어 이북을 ≪주적≫**으로 명시한 군의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망발을 늘어놓았다**. 올해 8월21일부터 9월 1일까지는 ≪을지포커스렌즈≫**합동군사훈련이 벌어졌다**. 여기에는 유사시 한국과 미국 군대의 협동작전능력을 개선한다는 미명하에 한국강점미군 1만 3천명과 미국본토와 괌도, 일본 등지에 있는 예비군 3천 8백명, 한국군 5만 6천명의 방대한 병력이 참가하였다. ≪을지포커스렌즈≫**군사연습은 미국과 한국당국이 조선을 무력으로 압살하기 위하여 벌이는 대표적인** 북침전쟁연습으로서 ≪**팀스피리트**≫**훈련이 중지된 후 그 기능까지 포함시켜 발전시킨 하나의 종합적인** 북침공격훈련이다. 미국과 한국의 호전세력들은 9월 13일 대구부근의 ≪전투기념당≫이라는데서 6.25전쟁시기의 ≪전투50주년기념≫놀음을, 14일부터는 2일간에 걸쳐 ≪인천상륙작전 50주년기념≫광대극을 벌이기도 하였다. 또한 18일 서울에서 미국과 한국간의 ≪미사일사거리≫연장을 위한 모의를 벌였으며 20일에 열린 제22차 ≪미국한국군사위원회≫에서는 그 무슨 ≪연합방위태세향상≫이요, ≪**군사동맹관계강화**≫**요 하는** 대결전쟁넉두리를 늘어놓았다. 한국의 호전분자들은 전쟁에 대비한다고 하면서 비무장지대에서부터 서울까지의 전구간에 1백만개 이상의 지뢰를 매설하고 수많은 자폭식지뢰를 살포할 계획을 공개하기도 하였다. 10월에 들어서도 한국의 호전적인 군사당국은 지난해에 비해 6.5프로나 늘어난 내년도 국방예산의 세부내용과 이른바 ≪2001-2005년도 국방중기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하였다. 군사당국은 이를 통해 7천톤급 이지스함과 4천톤급 구축함, 공중조기경보통제기, 공중급유기들과 공격용직승기, 무인정찰기, 유도무기 등 현대적인 최첨단 전쟁장비들을 새로 실전배치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앞서 밝혔듯이 반북호전분자 조성태는 국회국정감사에서 ≪북의 군대는 언제든지 도발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고 있다≫고 떠들면서 반북대결을 고취했다. 그리고 이북의 거듭대는 경고를 무시하고 한국당국은 수많은 미국제 전쟁장비를 끌어들이고 있으며 10월 25일부터는 또다시 이북을 반대하는 대규모 ≪독수리-2000≫**이라는 합동군사훈련을 기어코 벌여놓았다**. 더욱이 ≪독수리-2000≫**합동군사훈련에 광분하던 미제침략군은** 10월 26일 11시 22분경 전투기 2대를 불의에 개성시 판문군 일대 북측 영공 깊숙이 침투시키는 엄중한 도발책동을 감행하였다. 그리고 11월 14일 8시 30분경에는 한국군해군전투함정 4척을 10척의 어선집단속에 끼여 장산곶 서쪽 이북측 영해 깊숙이 침투시켰다. 한국군해군전투함정은 조선인민군해군경비정이 긴급출동하자 어선들을 빼돌리고 전투태세를 갖추었으며 한국해군전투함선 3척까지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나 이북측 영해를 침범하였다. 대규모 북침전쟁합동군사훈련이 벌어지는 즈음에 감행된 이 모험적인 도발책동들은 완전히 의도적이고 계획된 것으로서 6.15공동선언을 휴지장으로 만들며 제2의 ≪서해사건≫, 제2의 조국전쟁을 일으키려는 위험천만한 모험극인 것이다.

내외 극우익호전분자들의 모험적인 전쟁책동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방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현재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새로운 공고한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조국반도 만악의 근원인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며 조국반도의 완전한 비핵지대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이 우선 조미간에 체결하고 세계에 확약한 ≪조미기본합의문≫**과** ≪조미공동코뮤니케≫**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국반도와 그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모험적인 북침합동군사연습, 대결선동, 전쟁책동을 즉각 중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을 부추기며 벌이고 있는 일군국주의의 재무장화, 일본의 파쑈화정책을 걷어치워야 할 것이다.

미일한 호전분자들은 조국반도에서의 전쟁이 전지구적 최대재앙을 불러올 핵전쟁이 될 것이며 그 후과는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본토에까지 미쳐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인류대재난을 불러올 것이라는 사실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제2의 조국전쟁은 미제의 간첩 박헌영이 남로당에 박혀 암약하던 6.25당시와는 180도 다르다. 우선 조선은 천출명장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중심으로 조선인민군과 조선인민들이 완전히 혼연일체를 이루고 있으며 이 지구상에 조선인민군의 섬멸적 타격을 피할 자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변혁의 사령탑인 한국민족민주전선이 지난 수십년간 한국변혁운동을 현명하게 영도함으로써 내외에 절대적인 권위를 이룩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변혁운동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향도이념으로 하여 각급 변혁적 대중단체를 조직하였으며 지금은 범민족통일전선을 건설하고 대규모의 민족민주전선건설을 눈앞에 두고 있을 정도로 변혁의 주체역량이 장성한 상황이다.

하여 조국반도에서 또다시 미제와 그 호전적인 주구들이 기어코 전쟁의 불집을 터뜨린다면 오히려 우리 민족, 민중은 이를 천재일우의 기회로 삼아 미제와 그 주구들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고 전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이룩하고 말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전쟁을 일으킨 미일호전분자들에게 천백배의 보복타격을 가할 것이며 놈들이 그간 조국반도에서 저지른 온갖 학살만행과 범죄사건에 대한 대가를 천추만대를 두고 받아낼 것이다.

. . .

주체 89년 12월 8일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일본군국주의라는 폭주기관차의 종착역은 파멸

고이즈미일본총리의 야스구니신사참배에 대하여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대변인 논평(대변인 보도 9호)

고이즈미일본총리가 야수구니신사를 끝내 참배하였다. 일본총리가 도쿄를 비롯한 특급전범들의 위패가 있는 신사를 참배함으로써 일본군국주의의 부활을 선언한 것이다.

일본군국주의는 지금 역사교과서왜곡을 넘어 신사참배의 단계마저 뛰어넘었다. 정거장을 무시하며 질주하는 일본군국주의라는 폭주기관차의 종착역은 어디인가.

인류에 미증유의 시련과 상처를 남겨준 2차세계대전이 끝난지 채 1세기도 안되어 일본군국주의는 완전히 부활하였다. 미 트루만정권의 냉전정책과 6.25전쟁으로 죽음직전에서 소생한 일본군국주의가 마침내 인류와 역사에 도전장을 던진 것이다.

독점자본이 경제의 군사화와 해외팽창으로 공황을 극복하려는 것은 법칙이다. 그러나 그 길에서 파국을 면치 못하는 것도 법칙이다. 일본군국주의는 정확히 그 길로 가고 있다.

한편 경제강국이 군사강국을 꿈꾸며 핵무장화로 치닫는 것도 법칙이다. 일본은 핵무기의 3대 요소인 플루토늄과 운반수단, 뇌관을 다 갖추고 있으며 정책결정만 기다리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일본은 90년대 내내 있지도 않은 조선의 이른바 ≪미사일위협≫을 핵개발의 명분으로 삼아 왔다. 일본은 이북의 인공위성을 ≪미사일≫이라고 우겨대는 몇 안되는 나라 중 하나다. 우익깡패들이 총련간부를 살해하고 지부를 방화해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나라도 일본이다.

부활한 일본군국주의가 침략의 마수를 뻗칠 첫째 대상국가는 바로 한국이다. 이는 역사가 증명하는 바이다. 이미 미일의 이중식민지인 한국은 일본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조선은 다르다. 항일의 명장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 건국하신 조선은 주체,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사상과 현명한 영도 하에 조선은 오늘 세계적인 군사강국이다. 1천만의 총폭탄대오와 다단계로케트로 준비된 조선은 미국을 정치군사적으로 압도하는 유일한 나라이다.

일본군국주의는 미제국주의를 등에 업고 ≪신대동아공영권≫**을 망상하며 전쟁을 일으키려 해도 결코 조선의 상대가 될 수 없다**. 그 무슨 전역미사일방어체계라는 것도 조선과의 대결에서는 무용지물일 뿐이다. 군국주의 침략전쟁이 발발하는 순간 일본열도는 이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이다. 일본군국주의라는 폭주기관차의 종착역은 전쟁이자 파멸인 것이다.

일본은 지금이라도 제정신을 차려야 한다. 범죄적 과거를 진심으로 사죄하며 응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야스구니신사참배를 참회하며 왜곡교과서검정도 취소하여야 한다. 온갖 군국주의정책을 폐기하고 참다운 민주주의를 구현하여야 한다.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에서 자주성을 견지하여야 한다.

일본위정자들은 분별있게 처신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의 진보세력, 양심세력이 반군국주의투쟁에 떨쳐 나설 것을 확신한다.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대변인
주체 90(2001)년 9월 3일
서울



고이즈미내각은 자폭하라

- 고이즈미총리의 방한에 대하여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대변인 논평(대변인 보도 14호)

오늘 10월 15일 일본총리 고이즈미가 한국을 방문하였다.

우리 민중은 강력한 배격투쟁으로 고이즈미에게 커다란 정치적 타격을 가했다. 고이즈미는 7시간만에 꽁무니를 빼고 달아나고 말았다.

전쟁이후 고이즈미내각만큼 철두철미 군국주의적인 정부는 없었다.

과거침략사를 미화분식하는 역사교과서왜곡은 일본당국의 묵인 하에 노골적으로 자행되었다.

일본총리가 특급전범의 위패를 보관한 ≪야스구니신사≫에 참배한 일은 유례없는 일이다.

≪에이취-2에이≫ 로켓까지 발사하며 군사대국화를 전면화하였다. 로켓 발사는 미국의 비호 하에 핵무장화와 침략적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미아프간전쟁을 이용하여 ≪자위대≫해외파병까지 획책하고 있다. 이미 일본은 해외침략의 법적, 제도적 장치를 완비하였다.

남쿠릴연해에서의 우리 어로활동마저 강도적으로 중단되었다.

고이즈미내각의 군국화책동은 매우 위험한 단계에 이르고 있다.

최근의 군국화책동은 부시정권의 대북적대시정책과 맞물리며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고이즈미내각은 특히 미국에 대한 테러공격사건을 기화로 이북압살책동을 더욱 적극화하고 있다. 고이즈미의 이번 행각에는 이러한 검은 흉계가 깔려 있다.

아무런 사죄도 없이 적반하장격으로 날뛰는 고이즈미내각에 대하여 내외의 비난이 빗발치는 것은 당연하다. 침략사를 백지화하고 반일감정을 무마하려는 고이즈미의 서울행각 또한 격렬한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고이즈미의 서울행각으로 한일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우리는 고이즈미방한을 우리 민족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으로, 극악한 재침책동의 일환으로 준열히 단죄규탄한다. 우리는 전 민족적인 반일항전으로 천추에 사무치는 원한의 피값을 반드시 받아내고 말 것이다.

한편 현정권이 고이즈미의 방한을 용인한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미일에 휘둘리며 비자주적으로 행동하는 현정권의 친일정책은 역사적으로 단죄될 것이다.

범 무서운 줄 모르는 하룻강아지처럼 겁 없이 날뛰다가는 불벼락을 맞는 수가 있다. 조선은 이미 과거의 조선이 아니다. 미국이 당하는 것을 보고도 모르는가.

군국주의의 말로는 파멸 외에 달리는 될 수 없다. 전쟁이 재현된다면 이제는 일본열도 자체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그 때 가서 후회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양심적이고 진보적인 일본인들은 고이즈미내각을 결코 좌시하지 말아야 한다. 이 군국주의내각은 지금 일본의 존재자체를 위태롭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는 큰 죄를 저지르면 할복하는 전통이 있다. 고이즈미총리는 이러한 전통을 따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아울러 그 군국주의내각도 지체 없이 자폭하여야 할 것이다. 이 이상 일본을 위한 길은 없다.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대변인
주체 90(2001)년 10월 15일
서울

